

<1차시> 문법사 연구의 기초

■ 학습목표

1. ‘국어’와 ‘한국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한국어 문법사’의 개념과 연구 범위를 알아본다.
2. 한국어를 시대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3.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한국어를 어떻게 표기하였는지를 알아보고 각 표기법의 특징을 이해한다.

■ 강의 목차

1. 한국어사와 한국어 문법사
2. 한국어 문법사의 시대 구분
3. 차자 표기

■ 강의 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어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황선엽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한국어 문법사>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제목 그대로 한국어의 문법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공부할 것입니다. 첫 시간에는 문법사 연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어사와 한국어 문법사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어사와 한국어 문법사

‘한국어사’란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그대로 한국어의 역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국어’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국어’와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정도만 되어도 다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념이 그러하듯이 이 두 개념도 깊이 파고들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국어’란 무엇일까요? ‘국어(國語)’는 ‘나라의 말’이라는 뜻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이는 언어가 꼭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그 공용어가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 그 언어를 ‘국어’ 내지는 ‘national language’라고 부르는 일 또한 세계에서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국어’라는 단어를 만들고 널리 사용해 오던 일본에서조차 ‘국어’ 대신

‘일본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어’ 대신에 ‘한국어’라는 말을 써야 한다면 견해가 점차 힘을 얻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내적으로는 ‘국어’, 대외적으로는 ‘한국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국어 교육’이라고 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한국어 교육’이라 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Korean language’를 ‘한국어’라고 한다면 북한의 문화어라든지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사용하는 조선어 등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어’라는 말 대신에 ‘민족어’ 내지는 ‘겨레말’ 같은 용어를 쓰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나 ‘겨레’라는 말 역시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이들 용어 역시 ‘국어’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객관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즉, 대내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죠.

‘국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더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아직까지 ‘국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어란 용어도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역사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의 역사’라든지 ‘인류의 역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역사’는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것이지, 원래 의미의 ‘역사’는 아닙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를 의미하는 ‘ 선사 시대(先史時代)’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문자로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우에도 문자 기록이 남은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역사의 대상이 됩니다. 문자 기록 이전은 한국어의 선사가 되는 것이겠죠. 즉, 한자가 도입되어 우리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시점부터가 한국어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한국어의 선사도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기는 하나,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물이나 유적과 같은 유형(有形)의 흔적을 남기는 다른 대상에 비해 그 자체의 유형적인 흔적이 명시적으로 남지 않는 언어의 경우에는 문자 기록의 중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자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어사란 한국어라고 불리는 언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으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자를 빌려서 표기된 자료를, 한글 창제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어사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한국어 문법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제 한국어사의 연구 분야가 어떻게 나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운, 형태, 문법, 어휘, 의미 등 언어의 모든 요소들이 변화합니다. 한국어사는 한국어의 이러한 각 요소들이 역사적인 변화를 어떻게 겪었는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음의 예를 통해서 언어 변화의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1) 나랏 말싸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썻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흥 배 이셔도 <훈민정음언해>
나라의 말이 중국(中國)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百姓)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1)은 『훈민정음(訓民正音)』 어제 서문으로, 세종이 지은 서문의 일부분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달쓰미’에서는 ‘· (아래아)’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라는 모음이 사용되고 있지 않죠. 예전에는 ‘·’라는 모음이 있었고 또 쓰였지만 현대에는 이 ‘·’라는 모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형태적인 변화로는 ‘달아’라는 형태가 ‘달라’가 되어서 용언의 활용 양상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르고져 흙 배’에서 ‘배’는 의존 명사 ‘바’에 주격 조사 ‘ㅣ’가 통합한 것입니다.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할 바가’ 정도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주격 조사 ‘가’가 새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주격 조사 ‘가’라는 것이 없었고 ‘ㅣ’만 쓰였던 것이죠. 또한 ‘中國에 달아’가 ‘중국과 달라’로 바뀐 것에서는 통사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라고 하는 조사 대신에 ‘과’가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 어떤 문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츠’가 ‘까답’으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전츠’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 대신, ‘까답’이라는 단어로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어휘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라는 단어가 ‘어리석은’으로 바뀐 것에서는 의미가 변화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어린’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지만 중세 한국어에서 ‘어린’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한국어사에서는 이와 같이 언어의 변천을 각 요소별로, 또 시대별로 나누어서 연구합니다. 즉, 한국어 문법사라는 것은 한국어사 중에서 문법의 변화와 관련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법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통사론이 포괄하는 영역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형태론의 영역까지를 아울러 칭하기도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형태론과 통사론을 아울러서 칭하는 광의의 의미로서, 넓은 의미로서 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이란 한국어의 통시적 변화를 형태와 통사 측면에서 고찰하는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2. 한국어 문법사의 시대 구분

한국어 문법사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어 문법사를 연구할 때 시대를 어떻게 나누어서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변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역사 분야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시대를 나누어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는데,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이기문 선생님이 『국어사개설』에서 제시한 방안입니다.

이기문 선생님의 국어사 시대 구분

- 고대 국어(삼국시대부터 통일 신라의 멸망 A.D. 935까지)
- 전기 중세 국어(고려 건국 10세기~14세기)
- 후기 중세 국어(15세기~16세기 말)
- 근대 국어(17세기 초반~19세기 후반 갑오경장까지)
- 현대 국어(20세기 초반~현재)

이기문 선생님의 국어사 시대 구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대 국어

와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로 단계를 나누고 다시 중세 국어를 전기 중세와 후기 중세로 또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대 국어란 삼국 시대부터 통일 신라의 멸망, 즉 A.D. 935년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중세 국어는 고려의 건국으로부터 14세기까지를 의미하고 후기 중세 국어는 15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를, 그리고 근대 국어는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후반의 갑오경장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 국어는 20세기 초반부터 현재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문 선생님은 언어의 외사(外事), 즉 언어 외적인 측면은 배격하고 언어 내사(內事), 즉 언어 자체의 역사만으로 시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종래의 연구들에서는 한글 창제를 한국어사 시기 구분의 중요 기준점으로 삼아 왔는데, 사실 문자의 창제는 언어 변화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구분은 고려의 건국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언어의 중심지가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세 국어는 14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죠. 그것은 이 시기에 모음 추이가 일어났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와 근대의 구분은 ‘·’나 ‘△(반치음)’의 변화라든지, 성조의 소실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고 하는 언어 외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임진왜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언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기준을 두고 시기를 구분한 것입니다. 근대와 현대의 구분은 개화기 시기에 많은 외래어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구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선 고려의 건국이 언어의 중심지가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맞지만 경주 말이나 개성 말 자체가 변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순수한 언어 내적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어에 모음 추이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며, 이 가설을 부정하는 후대의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역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음운사적인 관점에서 시대 구분이 행해졌는데, 근대와 현대는 어휘사적 기준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시대 구분의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즉,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 기준으로 음운, 문법, 어휘, 의미 등 언어 전반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중에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했으면 모르되, 특정 요소만을 시기별로 달리하여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약간 자의적인 기준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 구분이 한국어사를 기술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널리 통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석독 구결(釋讀口訣) 자료들이 여럿 발견이 되면서 이 자료들을 통해 전기 중세 시기에 해당하는 고려 전기의 한국어에 대한 문법사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향가(鄕歌)가 보여 주는 언어 사실, 그리고 석독 구결의 언어 사실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석독 구결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석독 구결 자료까지를 고대 국어로 보아야 한다는 문법사적 중심의 견해도 대두되었습니다. 향가의 향찰(鄕札) 표기와 석독 구결이 보여 주는 언어 사실이 유사하다는 점은 통일 신라 시기와 고려 전기의 언어가 유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찰 표기가 8세기 이후에 완성되었고 차자 표기(借字表記)는 또한 매우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향찰과 석독 구결에서 보이는 표기법상의 유사점이 역사적인 이유에 의해서, 즉 보수성에 의해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두(吏讀) 자료만으로 한국어사 연구를 한다면 15세기 언어와 19세기 언어는 유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석독 구결이 보여 주는 문법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고려 전기까지를 고대 국어로 파악하는 견해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표기법적인 고려 또한 신중히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법사 기술만이 아니라 한국어사 전체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진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기술에 따라 『국어사개설』의 시대 구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차자 표기

다음으로 한국어 문법사를 공부하기에 앞서, 자료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차자 표기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자 표기는 고유 명사, 이두, 향찰, 구결(口訣)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고유 명사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다른 것이고 언어사와 문자사 역시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한국어사는 언어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연구와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어사 연구는 문자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사 연구나 학습을 위해서는 문자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자 체계와 그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된 자료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자를 사용하여 적는 방식인 차자 표기를 이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였습니다. 고대 국가가 성립되고 통치 체제가 정비되면서 문자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자가 도입되었고 점차 이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는 방식이 고안된 것입니다. 한자는 뜻글자로서, 글자의 형태, 발음, 그리고 의미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天(하늘 천)’ 자를 예로 든다면, ‘天’이라는 글자의 형태가 있고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며, ‘천’이라고 하는 발음, 즉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의 삼요소, ‘形·音·意(형·음·의)’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자의 형태는 그대로 가져오되, 물론 나중에는 한자의 형태도 변형을 한 일부 차자 표기들도 나타나게 됩니다만, 그 뜻을 빌려서 한국어를 적는 방식을 ‘차자 표기’라고 합니다. 한자의 음, 즉 소리를 빌려서 중국어 외의 다른 언어를 적는 방식, 이것을 중국에서는 가차(假借)라고 했는데, 이 가차의 방식은 이미 중국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가차의 방식에 뜻을 빌리는 훈차(訓借)의 방식을 더하여 차자 표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차자 표기는 처음에는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 같은 고유 명사 표기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문장을 적는 방식인 이두, 향찰의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또한 한문의 이해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인 구결들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① 고유 명사 표기

첫 번째로, 고유 명사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가 도입된 후 처음에는 중국어 문장 그대로, 즉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한문으로 적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로 된 고유 명사는 한문 문장 가운데 섞어 써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유 명사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 표기 방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이름이라든지 땅 이름 또는 관직 이름과 같은 것을 적기 위해 한자의 음과 훈을 사용하여 적는 방식이 고안된 것입

니다. 그러한 고유 명사의 차자 표기는 근대화 이전까지도 지속되어 왔고 현재에도 그 흔적이 존재합니다. ‘阿峴(아현)’ 같은 경우, 옛날 사람들은 ‘阿峴’이라고 쓰고 ‘애오개’라고 읽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현역’도 있고 ‘애오개역’도 있는데, ‘아현’과 ‘애오개’는 다른 지명이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지명을 서로 다르게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예들은 많습니다. 가령, ‘鳴梁(명량)’이라는 지명에 대해 쓰기는 ‘鳴梁’이라고 쓰되, 읽기는 ‘울돌’이라고 읽습니다. 이 지명은 ‘명량해전’이라고 할 때 그 ‘명량(鳴梁)’인데, 이것을 옛날에는 ‘울돌목’이라고 했던 것이죠. 또 ‘大田(대전)’을 ‘한밭’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쓰기는 ‘大田’이라고 쓰고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한밭’이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다만, 현대로 오면서는 ‘한밭’과 같이 읽는 방식은 일반화되지는 못했고, 그냥 한자음 그대로 읽는 방식이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유어 지명에서는 여전히 혼독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大峙(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大峙’라고 쓰고 이것을 ‘한티’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치역’도 있고 ‘한티역’도 있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같은 지명인 것이죠. 또 ‘新寺(신사)’와 ‘새절’도 마찬가지인데, ‘新寺’라고 쓰고 ‘새절’이라고 읽습니다. ‘新寺’는 ‘新(새 신)’ 자, ‘寺(절 사)’ 자로 이루어진, 은평구에 있는 지명입니다. 은평구에 ‘신사동(新寺洞)’이 있고 강남구에도 ‘신사동(新沙洞)’이 있는데,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3호선 전철역의 이름이 ‘신사역’이라고 붙여지면서 은평구 쪽에 새로 전철이 놓였을 때, 이것을 ‘신사역’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절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둘은 결국 같은 지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실 쪽에 있는 ‘新川(신천)’이라는 지명은 ‘新(새 신)’ 자, ‘川(내 천)’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내’라고 읽었습니다. 2호선 전철역 중에 예전에 ‘신천역’이란 곳이 있었는데, 이것을 요즘에는 ‘잠실새내역’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新川’과 ‘새내’는 같은 지명입니다. 또 ‘沙川(사천)’이라는 지명은 ‘沙(모래 사)’ 자, ‘川(내 천)’ 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모래내’라고 읽습니다. 그다음 ‘炭川(탄천)’은 ‘炭(숯 탄)’ 자, ‘川(내 천)’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숯내’라고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지명에는 현재에는 한자음으로만 읽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과거에는 혼독하는 일들이 많았고 현대의 일부 지명에 그 혼독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자 표기로 기록된 단어를 읽을 때에는 음을 빌려서 기록한 글자는 음독(音讀)해야 할 것이고 훈을 빌려 기록한 글자는 혼독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명칭에 대해 하나의 표기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음독해야 하는지 혼독해야 하는지를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개는 하나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개의 표기가 같이 나타나고 그것을 상호 비교하여 음독과 혼독을 판별할 수 있는 예들이 차자 표기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됩니다.

가령,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에 “元曉亦是方言也 當時人皆以鄉言稱之 始旦也”(원효역 시방언야 당시인개이향언칭지 시단야)라는 구절이 있는데, “元曉(원효)”는 또한 신라어이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신라어로 이 이름을 말했다. ‘첫새벽’ 정도의 의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원효’라고 음독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즉, 이 이름은 원래는 혼독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의미가 ‘이른 아침’ 내지는 ‘첫새벽’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이에 대응되는 음독 표기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라어로 정확히 이것을 무엇이라고 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신라 진흥왕 때 『국사(國史)』를 편찬한 것으로 유명한 ‘居柒夫(거칠부)’는 “荒宗(황종)”이라고도 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居柒(거칠)’과 ‘荒(황)’의 비교를 통해 ‘居柒’은 음독해야 하고, ‘荒’은 혼독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들이 있어야 음독인지 혼독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명, 지명, 관직명의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 권1에는 신라를 세운 시조인 ‘赫居世王(혁거세왕)’에 대해서 “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개향언야 혹 작불구내왕 언광명리세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신라어이다. 혹은 ‘弗矩內王(불구내왕)’이라고도 하는데 ‘광명이 세상을 다스림’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赫居世(혁거세)’나 ‘弗矩內(불구내)’가 우리말이고 ‘光明理世(광명리세)’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赫居世’는 ‘弗矩內’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불근누리’ 또는 ‘불근누리’를 나타내기 위해 ‘불ㄱ누리/불그누리’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赫(혁)’은 훈독해야 되는 것이고 ‘弗(불)’ 자는 음독해야 하는 것으로서, ‘불’ 또는 ‘블’을 표기하였는데, ‘븍/븍-’의 어간을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居(거)’ 자나 ‘矩(구)’ 자 역시 모두 음독하는 것으로서, ‘ㄱ/그’ 정도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世(세상세)’ 자는 ‘누리’라고 훈독해야 되는 부분이고 ‘內(안 내)’ 자는 ‘내, 누리’로 읽어서 음독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명 자료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의 내용이 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경덕왕(景德王) 때인 757년에 옛날 고구려, 백제, 가야 시대의 명칭들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던 지명에 대해 이것을 고쳐 2음절의 한자어로 개명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삼국사기』 지리지에 주로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주로 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옛 지명과 고쳐진 지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大山縣本翰山縣”(대산현본한산현)은 “大山縣(대산현)”은 원래는 ‘翰山縣(한산현)’이었다.”라는 구절입니다. 또 “永同郡本吉同郡”(영동군본길동군)은 “永同郡(영동군)”은 원래는 ‘吉同郡(길동군)’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예들을 통해서 ‘大山(대산)’과 ‘翰山(한산)’, ‘永同(영동)’과 ‘吉同(길동)’이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大’는 ‘한’으로 읽을 수 있고 ‘永’은 ‘길’에 대응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직명의 경우에는 신라 시대 최고위 관등의 하나인 ‘角干(각간)’의 예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角干’은 ‘舒發翰(서발한), 舒弗邯(서불한), 酒多(주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角(각)=舒發(서발)=舒弗(서불)=酒(주)’가 대응되는 것이고, ‘干(간)=翰(한)=邯(한)=多(다)’ 정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角’은 ‘뿔’이라는 뜻인데, 이것의 15세기 어형은 앞에 ‘ㅅ’이 있는 ‘썰’의 형태였습니다. 이것의 고대 어형은 아마도 “*스블”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되, 이를 통해서 ‘舒弗/舒發’ 등이 이 “*스블”을 표기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酒’ 자는 현대에는 ‘술’로 읽는데, 이 ‘술’의 15세기 어형은 ‘수울/수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전 시기에는 아마도 “*수블” 정도로 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앞의 것들과 같이 ‘角, 舒發, 舒弗, 酒’ 등은 모두 “*스블”이라는 형태를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干, 翰, 邯, 多’도 모두 ‘한’으로 읽을 수 있는데, 즉 ‘干’은 음독해야 하는 것이고, ‘翰, 邯’도 역시 음독해야 하는 것이고, ‘多’는 훈독하여 ‘한’으로 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角干, 舒發翰, 舒弗邯, 酒多’ 등은 모두 “*스블한”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두

두 번째로, 이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는 고유 명사와 같은 단어 차원을 넘어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국어의 문장 구조에 따라 어순만을 조정하여 배열한 형태가 쓰였는데, 점차 조사나 어미까지도 표기하는 방식으로 발

전하게 되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의 이두는 왕이나 고위 관료, 귀족, 승려, 화랑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에는 점차 일정한 형식의 표현이 답습되고 투식화(套式化)되었고 주로 하급 관리들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두라는 명칭도 하급 관리인 ‘서리(胥吏)’들이 사용하는 문자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이두는 이러한 특수한 사용역을 가지게 됨에 따라 한글 창제 이후에도 19세기 말까지 각종 공문서나 사문서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두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天大罪得誓 (이하 생략) <壬申誓記石, 552년(또는 612년)>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제부터 3년 이후에 충도(忠道)를 지녀서 잘못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일을 잘못한다면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이하 생략)

나. 辛亥年二月廿六日 南山新城作節 如法以作 後三年崩破者 罪教事爲聞教令誓事之 <경주 남산신성비, 591년>

신해년 2월 26일 남산에 새 성을 쌓을 때에 법대로 쌓는다. 3년이 되기 전에 무너지면 죄로 다스리게 할 것을 널리 알리게 하여 맹세하는 일이다.

첫 번째 예인 (1가)는 아마 552년 내지는 612년에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임신서기석’으로 알려진 내용의 첫부분으로서, 두 화랑이 맹세한 내용을 돌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조사나 어미 등의 표기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한문과 달리 어순이 우리말 순서대로 되어 있음이 주목됩니다. 가령, 한문이라면 ‘하늘 앞에 맹세한다’라는 뜻의 ‘天前誓(천전서)’ 부분이 ‘誓天(서천)’ 내지는 ‘誓於天(서어천)’과 같이 ‘天’이 뒤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 ‘이제부터’라는 뜻으로 ‘今自(금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래 한문이였다면 ‘自今’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도를 집지하고’라는 뜻의 ‘忠道執持(충도집지)’ 부분도 동사인 ‘執持’가 먼저 오고 ‘忠道’라는 목적어가 뒤에 와서 ‘執持忠道’처럼 되어야 한문의 어순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기를 맹세한다’라는 ‘過失无誓(과실무서)’ 구절도 ‘誓无過失’ 정도가 되어야 원래 한문의 어순과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若此事失(약차사실)’은 ‘만일 이 일을 잘못한다면’이란 뜻인데, 이 구절도 ‘若失此事’가 되어야 원래 한문의 어순에 부합합니다. ‘天大罪得誓(천대죄득서)’는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라는 뜻인데, 이 구절도 ‘誓得大罪於天(서득대죄어천)’과 같이 쓰여야 한문의 어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기를 흔히 ‘서기체 표기’라고 하는데, 이두와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두 발달의 초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두 자료에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1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남산에 성을 새로 쌓으면서 성벽 돌에 새겨 넣은 구절입니다. 인용된 부분은 ‘辛亥年二月廿六日 南山新城作節 如法以作 後三年崩破者 罪教事爲聞教令誓事之’(신해년이월이십육일 남산신성작절 여법이작 후삼년붕파자 죄교사위문교령서사지) 이렇게 읽습니다만, 사실 한문을 읽어서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두로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591년 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이 부분의 이두 해석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완전하게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의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어순이 우리말 어순과 똑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사 ‘로’를 표기하기 위해

‘以(씨 이)’ 자를 사용하였고 현대어 ‘-면’에 해당하는 조건의 연결 어미를 표기하기 위해 ‘者(사람 자)’ 자를 썼습니다. 또 종결 어미 ‘-다’를 표기하기 위해 ‘之(갈 지)’ 자를 쓰는 등 문법 형태소들의 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초기의 이두의 발달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 때’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節(절)’ 자라든지, 사동 표현에 사용되는 ‘敎(교)’ 자 또는 ‘敎令(교령)’과 같은 표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한자는 모두 혼독된다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즉, 초기의 이두에서는 아직 음독자는 출현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혼독자들을 주로 사용하여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두가 보다 발달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8세기 중엽부터입니다. 이 시기의 자료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天寶十三載 甲午 八月一日初 乙未載 二月十四日 一部 周了 成內之 成內願旨者 皇龍寺緣起法師爲內賜 第一 恩賜父願爲內彌 第二 法界一切衆生 皆成佛欲爲賜以成賜乎 (중략) 又 一法師 梵唄唱 引彌 諸筆師等 各香花 捧尔 右念行道爲 作處中 至者 三歸依尔 三反頂禮爲內 佛菩薩華嚴經等 供養爲內 以後中 坐中 昇 經寫在如 (이하 생략) <신라 화엄경사경조성기(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755년>

천보 14년 갑오년(754년) 8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인) 을미년(755년) 2월 14일 1부(화엄경 80권 한 질)를 모두 다 이루었다. (이 경 베끼는 일을) 이룬 뜻은 황룡사 연기법사가 하신 것이다. 첫째는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의 소원을 위하여 한 것이며, 둘째는 법계의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루신 것이다. 또한 한 법사가 범패를 부르면서 이끌며, 모든 필사(筆師)들이 각기 향기로운 꽃을 받들어서 우념행도(右念行道)하여 만드는 곳에 이르면, 삼귀의(三歸依)하여 세 번 정례(頂禮)하고 부처와 보살과 화엄경 등을 공양한 이후에 자리에 올라 경을 베꼈다. (이하 생략)

(2)에 제시된 자료는 『화엄경(華嚴經)』 사경(寫經)을 만들면서 그 사경의 뒷부분에 이두로 써 놓은 내용입니다. 이 <신라화엄경사경조성기>에는 사경을 만든 목적, 과정, 참여자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경과 함께 종이에 붓으로 써 놓았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이두 자료들이 대개 금석문(金石文), 즉 돌이나 쇠에 새겨 넣은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신라 시대의 다른 자료와 크게 구별이 됩니다. 이 자료에는 부사격 조사 ‘로’가 ‘以’ 자로, ‘기’는 ‘中(가운데 중)’ 자로 나타나고 있고 종결 어미 ‘-다’가 ‘之’ 또는 ‘如(같을 여)’ 자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전 시기에도 표기되던 문법 형태소들이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외에도 선어말 어미인 ‘-느-’(內)라든지, ‘-겨-’(在), ‘-시-’(賜)와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결 어미 ‘-며’(弥) 등도 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이두는 설총(薛聰)이 만들었다는 설(說)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설총 이전의 이두 자료들이 다수 있음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설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삼국사기』의 ‘(설총이) 우리말로 구경을 읽고 후생을 훈도하였다’라는 기록이 이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설총이 만든 것은 석독 구결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경전을 해석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독 구결과 이두의 표기 방식이나 원리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총의 활동 시기 이후인 8세기 중엽부터 이두가 정밀화되고 보다 발달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설총이 굉장히 차자 표기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려 시대 이두는 점차 투식화되고 공·사문서에 주로 쓰이게 되었지만,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문으로 된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에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두를 번역에 사용한 예를 (3)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ㄱ. 한문 원문: 凡犯罪未發而自首者, 免其罪, 猶徵正贓.

무릇 죄를 범하고서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자수한 자는 그 죄를 면한다. 그러나 범죄로 얻은 장물(正贓)은 징수한다.

이두 번역: 凡 犯罪人亦[이] 未發前 自告爲在乙良[호견을란] 免其罪爲遣[호고] 正贓物色乙良[을란] 生徵 <대명률직해 1: 26, 1395년>

무릇 범죄한 사람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고백한 경우에는 그 죄를 면하고 범죄로 얻은 장물(正贓物色)은 그대로 징수한다.

ㄴ. 한문 원문: 蠶陽物大惡水故, 而不飲.

누에는 양물(陽物)이어서 물을 매우 싫어하므로 (물을) 먹지 않는다.

이두 번역: 蠶段[잔] 陽物是乎等用良[이온들쓰아] 水氣乙[을] 厭却 桑葉叱分[쑤] 喫 破爲遣[호고] 飲水不冬[안들] <양잠경험촬요, 1415년>

누에는 양물(陽物)이므로 물기를 싫어하여 뽕잎만 먹고 물을 먹지 않는다.

(3ㄱ)은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예입니다. 한문 원문은 ‘凡犯罪未發而自首者 免其罪 猶徵正贓’(범범죄미발이자수자 면기죄 유징정장)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를 이두로 번역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凡 犯罪人亦(범 범죄이니)’에는 ‘亦(또 역)’ 자를 썼는데 이것은 ‘이’로 읽습니다. ‘未發前 自告爲在乙良(미발전 자고호견을란)’에서 ‘爲在乙良(호견을란)’이라는 부분은 현대어로는 ‘하면’ 정도에 해당하는 어미입니다. ‘免其罪爲遣(면기죄호고)’에서의 ‘爲遣(호고)’는 현대 한국어의 ‘하고’와 같습니다. ‘正贓物色乙良(정장물색을란)’에서 ‘乙良(을란)’은 ‘은’ 정도에 해당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生徵(생징)’으로 끝나는데, 뒤에 이제 ‘한다’ 정도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릇 범죄한 사람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고백한 경우에는 그 죄를 면하고 범죄로 얻은 장물은 그대로 징수한다’라고 이두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3ㄴ)의 예는 『양잠경험촬요(養蠶經驗撮要)』라는 책에 나타나는 예입니다. 『양잠경험촬요』는 누에를 기르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한 책입니다. 한문 부분은 ‘蠶陽物大惡水故 而不飲’(잠양물대오수고 이불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두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蠶段(잠잔)’은 ‘누에는’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段(잔)’은 ‘은’에 해당하는 조사입니다. ‘陽物是乎等用良(양물이온들쓰아)’에서 ‘是乎等用良(이온들쓰아)’는 ‘~이기 때문에’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水氣乙(수기을)’은 ‘수기를’, 즉 ‘물기를’이라는 뜻이고 ‘乙(을)’은 ‘을’에 해당하는 조사입니다. ‘厭却(염각)’은 ‘싫어한다’라는 뜻이고 ‘桑葉(삼엽)’ 다음에 ‘叱(꾸짖을 질)’자, ‘分(나눌 분)’자가 쓰였는데, 이 부분을 ‘쑤’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삼엽쑤’, 즉 ‘삼엽만’, ‘뽕나무 잎만’에 해당하는 ‘쑤’이라는 조사가 ‘叱分’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喫破爲遣(먹파호고) 飲水不冬(음수안들)’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두로 표기된 내용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누에는 양물(陽物)이므로 물기를 싫어하여 뽕잎만 먹고 물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은 원나라의 농서인 『농상집요(農桑輯要)』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그것을 이두로 번역하여 『양잠경험촬요』라는 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책들이 정통 한문과 달리 백화(白話)적인 요소들도 들어 있고 전문적인 용어나 내용들도

많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실생활에 이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두로 번역을 해서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③ 향찰

세 번째로 향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가 우리말을 적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내용만을 전달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어휘나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말을 실제에 가깝도록 온전히 적기 위해 고안된 표기 방식이 바로 향찰입니다.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석독 표기로, 문법적 요소는 음독 표기로 하는 것이 향찰 표기의 원칙인데, 우리말 어휘와 문장을 충실히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향가를 적는 데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향찰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표기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온전히 적을 수는 없었습니다. 즉, 한계가 있었던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까지 계속 쓰였던 이두나 구결과는 달리 고려 전기까지 쓰이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향찰 표기로 쓰인 향가를 해독하는 연구가 행해진 지 약 1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해독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15세기 한국어와 방언 자료에 의존하여 향가에 대한 해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새롭게 석독 구결 자료들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보태어지면서 향가 해독 작업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대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향가 해독의 초기 단계부터 훈민정음(문자)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향가 해독안을 제시할 때는 15세기의 훈민정음(문자) 표기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향찰 표기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향가의 한두 구절에 대한 해독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찰은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과 같이 실제적인 의미를 지닌 요소는 훈독 표기를 하고 조사나 어미와 같이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요소는 음독 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흔히 ‘훈주음종(訓主音從)’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때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을 표기하는 훈독자(訓讀字) 다음에 그 어간의 마지막 음을 밝혀 주기 위해서 음독자(音讀字)를 첨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말음 첨기(末音添記)’라고 합니다.

(4) 훈주음종

- ㄱ. 吾隱[나논], 汝隱[너는], 主隱[님은/니림은], 彼矣[더의], 夜矣[밤이], 吾置[나두/나도]
- ㄴ. 出古[나고], 去內尼叱古[가느닛고], 待是古如[기드리고다], 置內乎多[두느오다]

먼저 훈주음종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ㄱ)에는 체언의 예가 제시되어 있고 (4ㄴ)에는 용언의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4ㄱ)에서 ‘吾隱(오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논’이라고 읽습니다. ‘吾(나 오)’ 자는 ‘나’라고 훈독하고, ‘隱(숨을 은)’ 자는 ‘은/는’으로 음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언의 어간 부분은 훈독하고 조사를 나타내는 뒷부분은 음독하는 훈주음종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汝隱(여은)’은 ‘汝(너 여)’ 자와 ‘隱’ 자가 쓰였습니다. 이 부분은 ‘너는’이라고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훈독하고 뒷부분은 음독하였습니다. ‘主隱(주은)’은 15세기 한국어로 읽는다면 ‘님은’이 되는데, 아마도 고대 한국어에서는 ‘主(주인 주)’ 자를 “니림” 정도로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니림은” 정도로 읽었을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主’ 자는 훈독하고 ‘隱’ 자는 음독합니다. ‘彼矣(더의)’도 마찬가지입니다. ‘彼(저 피)’ 자는 훈독하고 ‘矣(어조사 의)’ 자는 음독합니다.

그다음에는 ‘夜矣(야의)’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夜(밤 야)’ 자와 ‘矣’ 자니까 앞부분은 혼독하여 ‘밤’으로 읽고 뒷부분은 음독하여 ‘익’이라고 읽어서 ‘밤익’이라고 읽습니다. 다만, 차자 표기에서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구별하지 않고 통일하여 하나의 표기로 씁니다. 즉, ‘의/익’을 모두 ‘矣’ 자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ㄴ)에 제시된 용언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出古(출고)’라고 되어 있는데, 용언도 체언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읽습니다. 앞부분은 ‘出(날 출)’ 자이니까 ‘나다’로 혼독하고 뒤의 ‘古(옛 고)’ 자는 음독합니다. 그래서 ‘나고’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다음은 한자로는 ‘去內尼叱古’라고 쓰여 있는데, 이를 ‘거내니질고’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가늑닛고’라고 읽어야 합니다. ‘去(갈 거)’ 자이니까 ‘가다’로 혼독해야 되고 ‘內(안 내)’ 자는 ‘늑’로 읽습니다. ‘尼(니)’는 그대로 음독하면 ‘니’로 됩니다. ‘叱(질)’은 ‘ㅅ’을 표기하는 글자인데, 역시 음독자입니다. ‘古’ 자도 마찬가지로 음독자입니다. ‘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음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혼주음종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待是古如(대시고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드리고다’라고 읽습니다. ‘待(기다릴 대)’ 자를 ‘기드리다’에서 ‘기드’라고 읽고 ‘是(이 시)’ 자는 ‘기드리’에서 ‘리’의 ‘ㅣ’를 표기한 것입니다. ‘古’ 자는 ‘고’, 그다음에 ‘如’ 자는 ‘다’로 읽습니다. 그래서 ‘기드리고다’가 됩니다. 다음 예는 ‘置內乎多(치내호다)’인데, ‘置(둘 치)’ 자, ‘內’ 자, ‘乎(어조사 호)’ 자, ‘多(많을 다)’ 자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두늑오다’로 읽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두다’는 혼독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음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혼주음종의 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말음첨기

- ㄱ. 雲音[구름], 心音[ㅁ슴], 栢史[жат], 城叱[жат], 蓬次[다북], 道尸[꺄], 川理[나리], 吾里[우리]; 秋察尸[꺄술ㅎ], 一等隱[ㅎ든], 國惡支[나라ㅎ]
- ㄴ. 有叱多[있다], 奪叱良乙[앗아늘], 好支賜烏隱[도ㅎ시온]; 改衣賜乎隱[가식시온], 望阿乃[브라나]

이어서 말음 첨기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ㄱ)은 체언의 예이고, (5ㄴ)은 용언의 예입니다. (5ㄱ)에서 처음 제시되어 있는 ‘雲音(운음)’의 ‘雲’은 ‘雲(구름 운)’ 자입니다. 이것은 ‘구름’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雲’의 뒤에 오는 ‘音(소리 음)’ 자는 ‘구름’이라는 단어의 어간 말음인 ‘ㅁ’을 표기한 것입니다. 즉, ‘雲音’이라고 쓰고, 이것을 ‘운음’이라고 읽지 말고 ‘구름’으로 읽으라고 하는 표시를 밑에 ‘音’ 자를 써 줌으로써 한 것입니다. 나머지 예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心音(심음)’이라는 것은 현대어로는 ‘마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세어로는 ‘ㅁ슴’입니다. ‘ㅁ슴’의 두 번째 음절 ‘음’의 종성인 ‘ㅁ’ 소리를 ‘音’ 자로 써 표기한 것입니다. (5ㄴ)에 세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栢史(백사)’의 ‘栢’은 ‘栢(жат 백)’ 자인데, ‘栢史’라고 썼지만 이것은 ‘жат’이라는 우리말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史(역사 사)’ 자는 ‘ㅅ’ 발음을 표기한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城叱(성질)’은 ‘城(성 성)’ 자에 ‘叱’ 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жат’이라고 읽습니다. 현대어에서는 ‘성(城)’을 뜻하는 말로 ‘城’이라는 한자의 음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것을 ‘жат’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жат’이라는 단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城’ 자를 쓰고 ‘叱’ 자로 종성인 ‘ㅅ’을 나타냄으로써, 이것을 ‘성’이라고 읽지 말고 ‘жат’이라고 읽으라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시된 것은 ‘蓬次(봉차)’입니다. 이것은 쑥의 일종으로, ‘다북쑥’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북’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이 ‘다북’을 표기하기 위해서 ‘蓬(쑥 봉)’ 자와 ‘次(버금 차)’ 자를 썼습니다.

여기서 ‘次’ 자는 ‘ㅈ’ 발음을 표기한 것입니다. ‘道尸(도시)’에는 ‘道(길 도)’ 자와 ‘尸(주검 시)’ 자가 쓰였는데, 이 ‘尸’ 자는 ‘ㄹ’ 내지는 ‘ㄹㅎ’을 표기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道尸’를 ‘도’라고 읽지 말고 ‘길ㅎ’이라는 고유어로 읽으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尸’ 자가 발음 첨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ㄱ)에 다음으로 제시된 예는 ‘川理(천리)’입니다. 첫 음절의 한자는 ‘川’ 자입니다. 15세기에 ‘川’ 자의 훈은 ‘내’이지만, 고려 가요에 나타나는 어형으로 ‘나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신라 시대에도 ‘나리’라고 읽었다는 것을 이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川理’라는 표기에서 ‘川’은 ‘나리’로 훈독하라는 것이고 ‘理(이치 리)’ 자는 여기서 ‘나리’의 마지막 음절, 즉 ‘리’를 표기한 글자입니다. (5ㄱ)의 앞부분에 제시된 예들에서는 마지막 음절의 발음, 즉 자음만을 표기한 데 비해 ‘川理’나 뒤에 제시된 ‘厔里(우리)’ 같은 예들은 마지막 음절 전체를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厔里’에서는 ‘우리’의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秋察尸(구살ㅎ)’은 현대 한국어의 ‘가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秋察尸(추찰시)’라고 표기했습니다. 여기서 ‘秋(가을 추)’ 자는 ‘ㄱ살ㅎ’로 훈독을 하는데, ‘察(살필 찰)’ 자와 ‘尸’ 두 글자로 ‘살ㅎ’이라고 하는 마지막 음절 전체를 표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시된 ‘一等隱(일등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어의 ‘한’에 해당하는 표기인데, 이것은 ‘一(일)’이라는 한자를 ‘ㅎ든’으로 읽으라는 것을 발음 첨기를 ‘等(무리 등)’ 자와 ‘隱’ 자를 통해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秋察尸’, ‘一等隱’은 마지막 음절을 두 개의 한자로 표기한 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國惡支(국악지)’는 ‘나라ㅎ’를 표기한 것인데, 이 역시 ‘秋察尸’, ‘一等隱’와 마찬가지로 ‘라ㅎ’라는 마지막 음절을 표기하기 위해서 ‘惡(악)’과 ‘支(지)’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

(5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언의 예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有叱多(유질다)’에서 ‘叱’ 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ㅈ’으로 읽습니다. 앞의 한자가 ‘有(있을 유)’ 자니까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습니다. ‘있다’(‘있다’의 중세 어형)를 표기하기 위해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여기서는 ‘叱’ 자가 발음 첨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奪叱良乙(탈질량을)’은 ‘奪(빼앗을 탈)’ 자에 역시 ‘叱’ 자가 왔는데, 이것도 ‘빼앗다’는 뜻을 지닌 ‘앗-’에서 ‘앗’의 발음 ‘ㅈ’을 표기하기 위해서 ‘叱’ 자를 사용하고 있는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好支賜烏隱(호지사오은)’에는 ‘好(좋을 호)’ 자에 ‘支(지탱할 지)’ 자가 나타나는데, (5ㄱ)의 ‘國惡支’에서 확인하였듯이, 이 ‘支’ 자는 ‘ㅎ’ 발음을 표기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好’ 자에 ‘支’ 자가 붙은 것은 ‘동-’의 어간 발음 ‘ㅎ’을 표기한 것으로, 이것도 역시 발음 첨기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된 것은 ‘改衣賜乎隱(개이사호은)’인데, ‘改(고칠 개)’ 자 뒤에 ‘衣(옷 의)’ 자가 표기되었습니다. 15세기 한국어에 ‘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식-’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가식-’의 어간 발음 ‘익’을 표기하기 위해서 ‘衣’ 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마지막 음절은 ‘식’이지만 마지막 음절의 뒷부분을 ‘衣’ 자를 사용하여 표기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시된 ‘望阿乃(망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브라나’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望(바랄 망)’ 자는 ‘브라-’라는 동사를 표기하기 위해 표기한 것이므로 훈독하면 됩니다. 그 뒤에 쓰인 ‘阿(아)’ 자는 ‘브라-’의 어간 발음인 ‘ㅌ’라는 모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이 ‘阿(아)’도 역시 발음 첨기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향찰은 복잡하고 어려운 표기 방식이면서도 우리말을 완벽하게 적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후대에 계속 쓰이던 이두나 구결과 달리 고려 전기까지 쓰이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④ 구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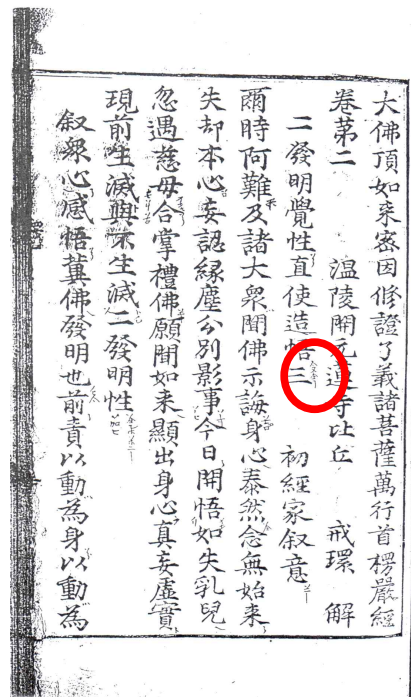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구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결이란, 한문을 해독할 때 그 의미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덧붙이는 우리말 조사나 어미 같은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결은 인쇄되어 있는 책에 붓으로 써 넣기 때문에 한자의 정체자가 아니라 약체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에는 구결을 한글로 표기하기도 하여 언해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글 구결이 많이 인쇄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결에 사용되는 약체자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결은 인쇄되어 있는 책의 좁은 글자 사이에 써 넣어야 했고 또 계속 같은 어미나 조사가 반복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글자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줄여서 약체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구결에 사용되는 약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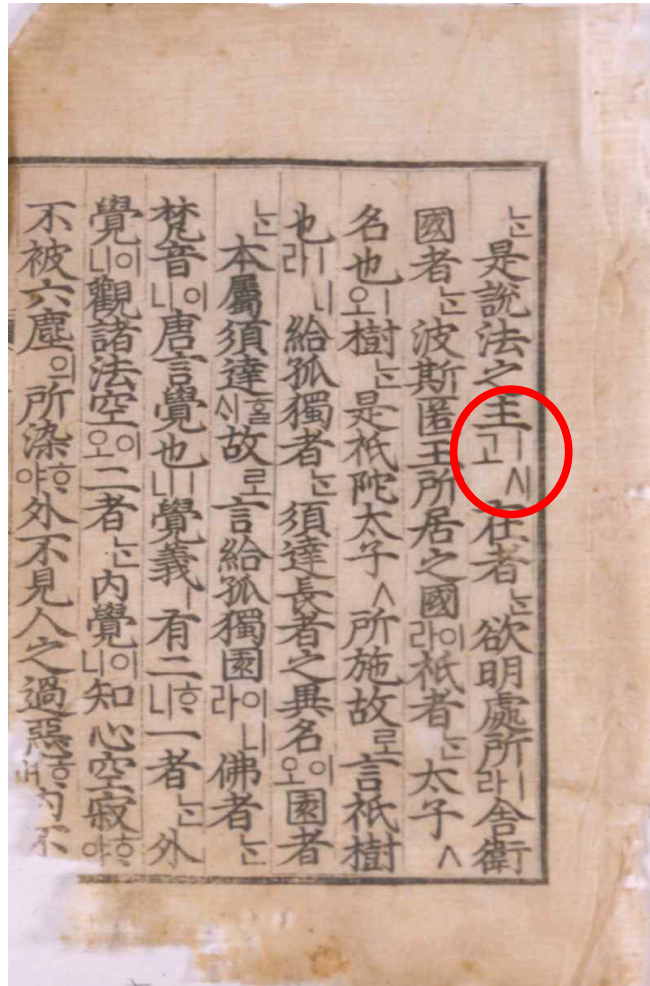
爲[ㅎ]→ㄴ, 隱[은/은]→ㄷ/ㅌ, 古[고]→ㅁ, 多[다]→ㄷ/ㄱ, 羅[라]→ㅅ/ㅌ, 以[로]→ㄴ, 彌[며]→ㅅ/ㅌ, 面[면]→ㅌ, 叱[스]→ㅌ, 良[아]→ㅅ/ㅌ, 乎[오/호]→ㅌ/ㅌ, 衣[의]→ㅌ

위에 제시된 예는 구결에 사용되는 약체자의 일부를 예로 든 것입니다. 가령, ‘ㅎ-’를 표기하기 위해서 ‘爲(할 위)’ 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자로 쓸 필요 없이 앞의 두 획만을 써서(ㄴ) ‘爲’ 자를 나타냅니다. ‘隱’ 자는 앞부분의 자음 ‘ㄷ’과 비슷한 형태(ㄷ)로 표기하고 ‘古’ 자는 아래의 ‘口(입 구)’ 자만을 써서(ㅁ) 표기하였으며, ‘多’ 자의 경우에는 초서에서 가져온 수직선(ㄷ)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글자들을 줄여서 구결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을 ‘약체자 구결’이라고 합니다.



[사진 1]

[사진 1]은 약체자 구결이 사용된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기림사본(祇林寺本) 『능엄경(楞嚴經)』으로, 한자의 오른쪽 아래에 붓으로 작게 약체자 구결을 기입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2]

구결을 한글로 기입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글 구결의 경우에는 언해서에 인쇄되어 나타나기도 했는데, [사진 2]에서 한글 구결이 인쇄되어 있는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2]는 『금강경(金剛經)』의 일부 구절입니다. [사진 2]의 오른쪽 첫째 줄 중간의 ‘主’ 자 아래에 ‘ㅣ 시고’라고 한글로 구결을 달아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진 2]에 한자 아래에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ㄴ, ㅅ, ㄹ, ㅎ’ 등은 모두 구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화기 이전까지 한문 학습을 위해서 구결이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 창제 이전의 구결 자료는 그다지 숫자가 많지도 않고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 사실도 15세기 한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사 연구에서 구결 자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고려 시대 구결 자료들이 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고대 한국어와 후기 중세 한국어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한국어사 자료였기 때문에 한국어사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게 됩니다. 이 구결 자료들은 종래에 알려진 구결과 달리 한문을 우리말 어순대로 풀어 읽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졌던 구결과는 다르게 한문을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어 읽기 때문에 이를 석독 구결이라고 하고 기존에 알려졌던,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바꾸지 않는 구결을 ‘음독 구결’이라고 하여 석독 구결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석독 구결은 한자의 약체자를 사용하는 ‘자토(字吐) 석독 구결’, 점이나 선과 같은 부호를 사용하는 ‘부호(符號) 석독 구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전하는 자료들에 따르면, 부호 석독 구결은 고려 전기에서 중기까지, 자토 석독 구결은 고려 중기에서 후기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토 석독 구결과 부호 석독 구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토 석독 구결은 종래에 알려져 있던 음독 구결과 같이 한자의 약체자를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로로 쓰여 있는 한문 원문의 오른쪽과 왼쪽에 구결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읽는 순서를 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닙니다. 즉, 어순이 바뀌지 않는 부분은 한문의 오른쪽에 구결을 달고 어순을 바꾸어 나중에 읽어야 할 부분은 왼쪽에 구결을 달아 둡니다. 이를 읽을 때에는 오른쪽 구결을 기준으로 한문을 읽어 나가다가 왼쪽에 구결이 달린 부분을 만나면 그 부분을 건너뛰고 아래로 내려가서 오른쪽 구결이 달린 부분을 계속 읽다가, 역독점이 찍힌 부분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까 읽지 않았던 왼쪽에 달린 구결을 읽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그 역독점이 일일이 찍혀 있지 않은 문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독자들이 문맥에 따라서 적당히 역독해야 될 위치를 스스로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부호 석독 구결은 하나의 한자를 둘러싼 공간을 아래의 [그림 1]처럼 25등분한 후에 각 위치에 점이나 선, 또는 점과 선의 복합 기호 등을 써 넣음으로써 구결을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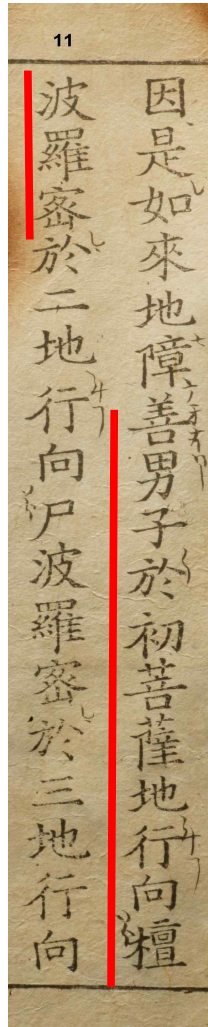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그림 1] 부호 석독 구결의
표시 위치

[그림 1]에서 실선 부분이 한자가 쓰여 있는 영역이고 그 외곽은 한자를 둘러싼 부분이 됩니다.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이나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 같은 자료에서는 ‘22’ 자리에 하나의 점을 찍게 되면, 그것은 자토 구결로는 ‘ㄴ(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3’ 자리에 하나의 점을 찍게 되면, 그것은 ‘ㄷ(은/은)’ 같은 문법 요소를 표기한 것이 됩니다. ‘34’ 자리의 단점(單點, 점 하나)은 ‘ㄷ(을/을)’ 표기한 것이고, ‘44’ 자리의 단점은 ‘+ (괴)’

라는 처격 조사를 표기한 것입니다. ‘55’ 자리의 단점은 ‘ㄱ(며)’인데, 이는 연결 어미 ‘-며’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문헌에 따라서는 ‘55’와 ‘51’ 자리에 구결자가 서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유가사지론』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각 위치에 쓰인 다양한 부호들이 모두 일정한 구결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합부금광명경』 권3은 석독 구결 자료 가운데 유일하게 자토 석독 구결과 부호 석독 구결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한 구절을 예로 들어 자토 석독 구결과 부호 석독 구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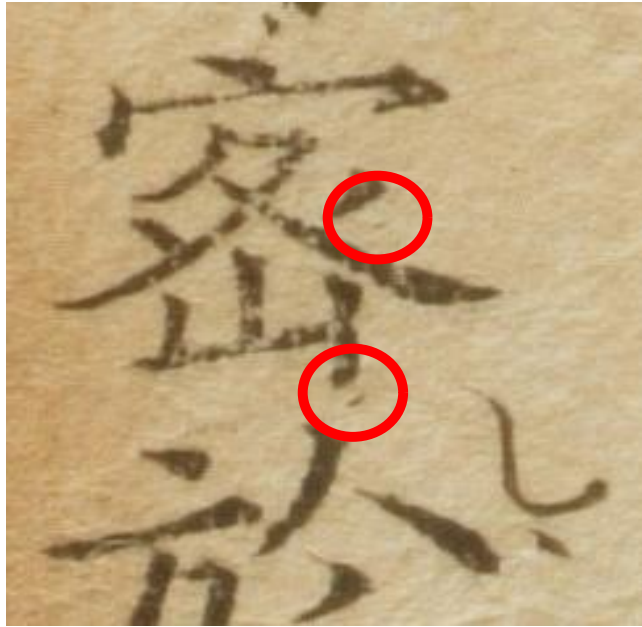
(6) 『합부금광명경』 권3, 8장 10행-11행

- ㄱ. 자토 석독 구결: 善男子^ㄴ 於初菩薩地^{ㄴ + 1} 行向檀波羅蜜^ㄴ
- ㄱ'. 자토 구결 해독: 善男子^ㄴ [아] {於}初菩薩地^{ㄴ + 1} [아긴] 檀波羅蜜^ㄴ [을] 行向^ㄴ 檀波羅蜜^ㄴ [히며]
- ㄴ. 부호 석독 구결: 善男子[22(·)]於初菩薩地[44(·),33(·)]行向檀波羅蜜[34(·),55(·)]
- ㄴ'. 부호 구결 해독: 善男子[ㄴ] 於初菩薩地[+, 1] 行向檀波羅蜜[ㄴ, ㄱ]
- ㄷ. 현대어역: 선남자(善男子)여, 초보살지(初菩薩地)에서는 단바라밀(檀波羅蜜)을 수행하며

[사진 3]은 『함부금광명경』 권3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고, (6)은 [사진 3] 부분에 나타난 자토 석독 구결과 부호 석독 구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한자의 오른쪽에 나타난 구결은 위첨자로, 왼쪽에 나타난 구결은 아래첨자로 표시하였습니다. 한문 원문은 ‘善男子 於初菩薩地 行向 檀波羅蜜’(선남자 어초보살지 행향 단바라밀)입니다. 그런데 일부 한자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자토 석독 구결이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부호도 있습니다. 지면에서는 눈에 잘 띄지는 않습디만, 확대해 보면 부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토 석독 구결을 확인하겠습니다. [사진 3]의 중간을 보면, ‘善男子(선남자)’의 오른쪽 밑에 ‘ㄴ(아)’라고 하는 호격 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善男子ㄴ(선남자아)’라고 읽고 ‘於初菩薩地(어초보살지)’ 다음에도 ‘ㄴ + 1(아권)’이라고 하는 구결이 기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行向(행향)’에도 구결이 붙어 있는데, 앞의 구결과는 달리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왼쪽에 구결이 붙어 있는 부분은 일단 건너뛰고 밑으로 내려가면 ‘檀波羅蜜(단바라밀)’이 있습니다. ‘檀波羅蜜(단바라밀)’ 밑에는 ‘ㄷ(을)’이라는 구결이 붙어 있는데, ‘ㄷ(을)’ 다음에는 다시 역독점[·]이 찍혀 있습니다. 역독점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서 아까 읽지 않았던 ‘行向’ 부분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 (6ㄱ)입니다. 이 구결을 자토 석독 구결의 해독 방식에 따라서 읽게 되면, (6ㄱ)에서 보듯 ‘善男子ㄴ 於初菩薩地ㄴ + 1 檀波羅蜜ㄷ 行向ㄴ’(선남자아 어초보살지아권 단바라밀을 행향하며)와 같이 우리말 어순으로 풀어 읽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호 석독 구결을 살펴보겠습니다. (6ㄴ)이 부호 석독 구결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사진 3]의 ‘善男子(선남자)’ 부분을 확대해 보면, ‘子(아들 자)’ 자의 ‘22’ 자리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2’ 자리의 단점은 ‘ㄴ(아)’라고 읽는 구결입니다. 다음으로 ‘初菩薩地(초보살지)’의 ‘地’ 자 밑에는 ‘44’와 ‘33’ 자리에 단점이 찍혀 있는데, ‘44’ 부분은 ‘+ (기)’를, ‘33’ 부분은 ‘1(은)’을 표기한 구결입니다. 그리고 ‘檀波羅蜜(단바라밀)’의 ‘蜜(밀)’ 자에는 ‘34’와 ‘55’ 자리에 단점이 찍혀 있는데, ‘34’ 부분은 ‘ㄷ(을)’을, ‘55’ 부분의 단점은 ‘ㅈ(며)’를 표기한 것입니다. 각 위치의 단점들을 자토 구결로 바꿔서 표기하면 (6ㄴ)과 같이 됩니다. 이것을 (6ㄱ)과 같이 어순을 조정해서 읽으면, ‘善男子ㄴ 初菩薩地+ 1 檀波羅蜜ㄷ 行向ㅈ’(선남자아 초보살지권 단바라밀을 행향하며) 정도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호 석독 구결은 각 위치의 각 기호들이 의미하는 내용을 모두 외워야 할 뿐만 아니라 ‘於初菩薩地+ 1(어초보살지권)’과 같이 하나의 한자에 여러 개의 부호 구결이 있는 경우에 어떤 것을 먼저 읽어야 할지, 즉 ‘1(은)’을 먼저 읽고 ‘+ (기)’를 읽는지, ‘+ (기)’를 먼저 읽고 ‘1(은)’을 읽는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行向檀波羅蜜(행향단바라밀)’에도 ‘ㄷ(을)’과 ‘ㅈ(며)’가 붙어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읽어야 하는지를 독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토 석독 구결보다 훨씬 어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4]

[사진 4]는 [사진 3]의 한자 ‘密’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사진 4]에서 ‘34’라고 판독한 점은 실제로 ‘55’라고 판독한 점보다 오히려 오른쪽에 있거나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독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4’라고 판독한 부분은 마지막 획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분명히 전체 글자의 내부라고 볼 수 있는, 즉 중심보다 약간 오른쪽이면서 글자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5’ 위치가 아니라 ‘4’ 위치라고 판독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55’라고 판독되는 점은 ‘山(외 산)’ 자의 마지막 획 아래에 있지만, 세로축을 중심으로 할 때 자획과 약간 겹치거나 자획의 약간 바깥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4’ 위치가 아니라 ‘5’ 위치라고 판독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점의 위치를 판독할 때에는 물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획을 기준으로 하여 그 획의 안쪽이나 바깥쪽이나를 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호 석독 구결은 굉장히 어려운 표기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호 석독 구결은 다른 구결 자료들에 비해 발견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해독상 이러한 여러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아직 일반인은 물론 한국어학 연구자들에게조차도 널리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여러 유형의 구결들이 모두 한 시대에 공존했던 것은 아니고, 시대별로 사용 양상이 차이가 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호 석독 구결은 11세기에서 13세기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고 자토 석독 구결은 12세기경에 등장해서 13세기 중엽 정도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독 구결은 고려 후기, 14세기경 정도에서부터 조선 말까지, 한글 구결은 당연히 한글 창제 이후인 15세기부터 조선 말까지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결들은 용법이나 방식 또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 문법사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글 창제, 그리고 한글 창제 이후에 만들어진 한글 자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시작하여 구체적인 문법사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일반적으로 ‘국어’는 대내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말할 때 쓰이고 ‘한국어’는 대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 쓰인다. (O/X)

정답: O

2. ‘혁거세왕’의 원래 이름은 ‘불근누리/불근누리’ 정도로 추정이 된다. (O/X)

정답: O

3. ‘叱’은 ‘ㅈ’ 발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기였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차자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찰은 통일신라 시대의 향가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 ② 구결은 간략히 표시하기 위해 약체자를 사용하였다.
- ③ 이두의 어순은 한문의 어순과 같았다.

정답: ③

2. 이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통일신라 시대의 설총이 직접 창제하였다.
- ②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특정한 영역에서 계속 이용되어 19세기까지 쓰였다.
- ③ 문장에서 주로 실질적인 뜻이 있는 부분이 이두 표기로 쓰였다.

정답: ②

3. 구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석독 구결은 11세기~13세기에 주로 사용된 표기이다.
- ② 석독 구결은 한문 왼쪽의 구결토를 중심으로 읽고, 역독점이 있으면 되돌아가서 한문 오른쪽의 구결토를 읽는 방식으로 읽는다.
- ③ 부호 석독 구결은 자토 석독 구결보다 비교적 쉬운 표기 방식이었다.

정답: ①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후기 중세 한국어 시기는 ○○세기~○○세기 말까지이다.

정답: 15, 16

2. ‘구름’이라는 뜻으로 ‘雲音’이라고 쓴 향찰 표기에서 ‘音’은 ○ 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정답: ㄱ(미음)

3. 자토 석독 구결의 ‘ㄷ’는 ○○○ 조사를 표기한 글자이다.

정답: 목적격

나. 토의 (30분)

1. 종래의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합당한가? 한국어사의 시대를 다시 구분하는 기준을 세운다면 어떤 기준을 두어야 하는가?

다. 과제 (60분)

이두, 향찰, 구결과 같은 차자 표기에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세요.

■ 참고자료

이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향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구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강신항(2003), 『훈민정음연구』 수정증보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신정판, 탑출판사.

안병희(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차시> 한글 창제와 한글 자료

■ 학습목표

1. 한글의 창제와 관련된 몇 가지 견해들을 여러 기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글의 특징에 대하여 이해한다.
3. 한글 창제 후 한글이 어떻게 보급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본다.
4. 15세기의 한글 표기법에 대해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현대 한국어의 맞춤법과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5. 한글로 된 다양한 종류의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 자료의 특성을 이해한다.

■ 강의 목차

1. 한글의 창제
2. 한글의 창제 원리
3. 한글의 보급과 활용
4. 15세기의 한글 표기법
5. 한글 자료

■ 강의 내용 전문

<한국어 문법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글과 한글 창제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글의 창제

우선 한글의 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세종(世宗) 25년 12월에 세종에 의해서 창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역사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언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세종 25년 12월에 창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서력으로 “1443년에 창제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1444년에 창제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견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은 세종 25년에 창제된 것은 분명한데, 세종 25년을 서기로 환산하면 1443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월이라는 데 있습니다. 당시의 12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음력으로 말한 날짜입니다. 즉, 음력 12월은 양력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다음 해로 해가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음력 12월을 양력으로 환산했을 때 1444년에 해당한다.”라는 견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글이 1443년에 만들어졌다는 견해와 1444년에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날짜를 따진다면 한글은 1444년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력을 사용한 것은 1895년부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기술할 때 1895년 이전은 음력을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해로 잡고 그 이후로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 해를 잡습니다. 따라서, 세종 25년이 1443년이라면 12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양력으로 환산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역사 기술의 관행에 따라서 1443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도 “한글은 세종 25년 12월, 서력으로는 1443년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글은 분명히 세종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여러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현전(集賢殿) 학사들이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각종 사극이나 영화에서 한글의 창제 주체를 다르게 그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한글 창제의 주체자를 분명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창제의 주체자를 밝히는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였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흔히 명제설(命制說)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세종과 집현전 학사 또는 세종의 자녀들이 같이 도와서 만들었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협찬설(協贊說)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견해는 세종이 직접 혼자 만들었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친제설(親制說)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견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왜 친제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연구 초기에는 명제설, 즉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을 시켜서 만들었다’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료나 기록들을 정밀히 검토한 결과, 명제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글은 세종의 친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종의 친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세종실록(世宗實錄)』입니다. 『세종실록』의 세종 25년 조, 이것이 서기로는 1443년에 해당하고 간지(干支)로는 계해년(癸亥年)에 해당합니다. 세종 25년 12월의 제일 마지막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스물여덟 자를 지었는데, (중략)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한다.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중략) 是謂訓民正音。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세종이 한글을 직접 만들었고 초기의 이름은 언문이었으며, 모두 스물여덟 글자였다는 것, 그리고 또는 이것을 훈민정음으로 불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연대는 세종 25년, 1443년 12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 解例本)』의 기록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훈민정음)이 1443년에 만들어진 이후 1446년, 즉 3년이 지난 시점에 간행된 책입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을 시켜서, 집현전 학사들이 만든 책입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당시의 공식 명칭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종이 직접 서문(序文)을 썼습니다. 서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들었다.
予, 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이것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문자가 없어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세종 스스로 세종의 서문에서 분명히 밝혀 놓았죠.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당시에 집현전의 대제학(大提學)이었던 정인지(鄭麟趾)라는 사람이 쓴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정인지의 서문 내용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셨습니다.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이 책을 만든 것은 1446년 병인년(丙寅年)입니다. 여기서 계해년이라 함은 그보다 3년 전, 즉 1443년을 말합니다. 『세종실록』 자체에도 ‘세종 25년 12월에 세종이 한글을 직접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로부터 3년 후에 만든 책인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분명히 세종의 서문에도 그렇고, 정인지의 서문에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한글은 세종이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만든 기록이 『세종실록』에 또 실려 있습니다. 1446년은 세종 즉위년부터 따지면 28년이 되는데, 세종 28년 9월 마지막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是月, 訓民正音成。

즉, ‘이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서 훈민정음에 책 표시를 해 두었는데, 이것은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원문 자체에는 ‘訓民正音’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이 『훈민정음』은 책이라는 것을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게 책이라는 것을 모르고, 즉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을 모르고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訓民正音’은 당시에는 문자의 이름이기도 했고 책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연구자들은 이 ‘訓民正音’이 책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의 이름으로만 이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이달에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가 완성되었다고 오독(誤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조판서(禮曹判書) 정인지의 서문에 이르기를, (중략) “이에 신(臣)이 집현전 응교(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인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인 성삼문(成三問), 돈녕부의 주부(主簿)인姜희顔, 집현전 부수찬(副修撰) 이개(李塏)와 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서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짓고…”

禮曹判書 鄭麟趾 序曰, (중략) 於是, 臣與集賢殿 應敎 崔恒, 副校理 朴彭年·申叔舟、修撰 成三問, 敦寧 注簿 姜希顔, 行集賢 殿副修 撰李塏·李善老 等, 謹作諸解及例.

‘이에 신(臣)이’, 즉 ‘정인지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집현전 응교(應敎) 최항(崔恒)’, 집현전은 관청 이름이고 응교는 벼슬 이름입니다. 그다음 돈녕부(敦寧府)도 역시 관청 이름입니다. 즉, 이 기록에 따르면,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연구자들은 이 문자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과 책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을 혼동하였고, ‘훈민정음을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다’라는 이 기록에 근거하여, 즉 이 기록은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본』, 다시 말해 책 『훈민정음』을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다는 기록인데, 이것을 문자로 혼동함으로써 ‘한글(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다’, 즉 세종의 명을 받고 만들었다는 견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들을 꼼꼼히 읽어 본 결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의 기록들에서는 분명히 한글(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든 것은 세종이고 다만, 그 문자를 해설하기 위한 책, 『훈민정음 해례본』을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명제설을 주장했던 것은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창제에 대해, 사실 모든 기록이 세종의 친제를 말하고 있지만, ‘세종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분명히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또 나타난 견해가 협찬설입니다. 즉, 집현전 학사 내지는 세종의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을 전적으로 세종이 완벽하게 혼자 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역시 여러 가지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집현전 학사나 세종의 자녀들, 특히 큰 아들인 문종(文宗)—당시에는 세자(世子)였고 나중에 문종으로 즉위하는—이나, 둘째 아들 수양대군(首陽大君)—나중에 왕이 되어서 세조(世祖)가 되는— 등 아들들이 일부는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와준 내용은 훈민정음 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조력자로서 ‘훈민정음 창제의 주체자인 세종을 도와서 부분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즉, 협찬설이라고까지 주장할 만큼이라기보다는 “한글이라는 문자는 세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다만, 주변 사람들이 일부를 도왔다. 그래서 한글 창제의 주체는 세종이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보다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2. 한글의 창제 원리

“한글 창제는 세종에 의해서 1443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글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발견됨으로써, 앞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1446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책이 1940년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러한 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이후에 그 내용을 보니 거기에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우리는 한글의 창제 원리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이지만, 특히 한글의 창제 원리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한글, 훈민정음은 처음에 창제되었을 당시에 모두 스물여덟 자였습니다. 그중에 열일곱 자는 초성(初聲), 즉 자음자(子音字)에 해당하고 열한 자는 중성(中聲), 모음자(母音字)에 해당합니다. 이 초성과 중성, 즉 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음, 즉 초성자는 모두 열일곱 글자인데, 그 기본자가 다섯 글자입니다. 기본 다섯 글자들은 해당 자음이 발음될 때 그 자음이 발음되는 발음 기관의 모습이나 또는 발음 기관의 상태를 상형(象形)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은 초성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다섯으로 나누었습니다. ‘아(牙)’, ‘설(舌)’, ‘순(脣)’, ‘치(齒)’, ‘후(喉)’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음 위치에 따라 다섯으로 나눈 초성의 기본 글자들은 그 조음 위치 또는 발음 기관의 모습을 상형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아음(牙音)인 ‘ㄱ’ 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음 ‘ㄱ’은 현대에는 연구개음(軟口蓋音)이라고 하는 것인데, 발음을 해 보면 ‘[으]’이라고 할 때 중성, 또는 ‘[가]’라고 할 때 초성의 발음입니다. ‘[으]’ 할 때에는 혀가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면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혀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았다가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 즉 이를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세종은 그 모습을 본떴습니다. 사람이 옆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으]’이라고 발음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ㄱ’이라는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은 설음(舌音)입니다. 설음의 기본자는 ‘ㄴ’입니다. ‘[느], [느], [느]’, ‘[은], [은]’ 발음을 해 보시면, ‘[느]’라고 할 때 혀의 앞부분이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짐으로써 나는 소리가 ‘ㄴ’입니다. 역시 사람이 옆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느]’라고 발음할 때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ㄴ’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혀가 입천장에 달라 붙는 모습을 본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음(脣音)입니다. ‘순(脣)’은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순음은 입술소리를 의미합니다. 현대에는 양순음(兩脣音)이라고 하는 것이죠. ‘[므]’ 발음을 해 보시면 ‘ㅁ’ 소리를 낼 때에는 두 입술을 붙였다 뗌으로써 소리가 납니다. 즉, ‘[므]’라는 ‘ㅁ’ 소리는 입술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ㅁ’이라는 글자를 만들 때 세종은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네모, 즉 사각형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입이 네모나지는 않은데 왜 그 모양이 네모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한자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자에서 ‘口(입 구)’ 자, 입을 상형하여 나타낼 때 네모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순음의 모양은 입의 모양을 본떴는데, 그것이 네모나게 된 것은 한자를 본뜬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치음(齒音)입니다. 치음의 기본자는 ‘ㅅ’입니다. ‘[스]’라고 할 때 나는 ‘ㅅ’ 소리인데, 이것은 치음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치아가 있는 곳에서 나온다는 뜻에서 치음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스]’라고 발음을 할 때 혀가 앞니에 붙지는 않지만 앞니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치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실 ‘아설순치후’라는 용어는 세종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중국의 성운학(聲韻

學)에 있던 이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발전된 이론인 성운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학습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즉, 한글 창제의 바탕이 된 기본 이론들은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을 글자를 만드는 데 적합하도록 바꾸고 적용하여 한글이 창제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치음이라는 용어도 중국 성운학의 용어입니다.

어쨌든 ‘ㅅ’ 소리가 이(치아)의 근처에서 난다고 해서 치음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이의 근처에서 나니까 ‘이의 모양을 형상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 모양을 ‘ㅅ’의 모양으로 형상화했는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이렇게 ‘ㅅ’ 모양으로 생긴 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齒(이 치)’ 자를 잘 보시면, 이를 이렇게 ‘ㅅ’ 모양으로 형상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口’ 자에서 입의 모양을 가져왔듯이 “ㅅ의 모양도 역시 ‘齒’ 자에 들어 있는 이의 모양에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음(喉音), 목구멍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음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후음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동그랗게 형상화하였습니다. 다만, 그 음가(音價)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대 한국어 표기법에서 이 ‘ㅇ’은 받침에 쓰이게 되면 ‘[응]’ 소리를 나타내게 되고 초성, 즉 모음의 앞에 쓰이게 되면 아무 발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의 첫 음절인 ‘[강]’이라고 할 때 받침인 ‘ㅇ’은 ‘[응]’이라는 소리를 가지지만, 두 번째 음절인 ‘[아]’라고 할 때 초성인 ‘ㅇ’은 아무 소리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써도 됩니다. 모음 ‘ㅏ’만 써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ㅇ’은 단지 모양을 갖추기 위해 써 놓은 음가가 없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 ‘ㅇ’을 후음, 목구멍소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ㅇ’을 일정한 음가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 당대 한글 창제 직후의 문헌들에 나타날 때 초성에 쓰인 ‘ㅇ’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두 가지로 파악을 합니다. 하나는 현대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음이 없는, 그냥 문자 모양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ㅇ’도 있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세종이 후음이라고 파악할 정도로 어떤 일정한 음가를 가졌던 ‘ㅇ’도 있을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법사 내용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종은 ‘ㅇ’이라는 소리를 일정한 음가를 가진 것으로 보고 후음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대 한국어 표기법에서 받침에 쓰이는 ‘ㅇ’은 세종 당대에는 글자 모양이 달랐습니다. ‘ㅇ’에 꼭지가 있는 형태, 저희가 흔히 옛이음(ㅇ)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당대에는 그냥 ‘ㅇ’과 ‘ㅇ’이 구별되었고 ‘ㅇ’은 종성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초성에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분명히 음가를 지닌 ‘[응]’ 소리를 지닌 글자는 ‘ㅇ’으로 표시하였고 그냥 ‘ㅇ’은 현대 한국어의 초성에 쓰이는 ‘ㅇ’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설순치후’ 다섯 글자의 기본 글자, 즉 ‘ㄱ, ㄴ, ㄷ, ㅅ, ㅇ’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글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나머지 글자들에 대해서는 “가획(加劃)의 원리에 의해서 제자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소리가 더 거세어짐에 따라서 획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ㄱ]’와 ‘[ㅋ]’라고 발음할 때, ‘[ㄱ]’와 ‘[ㅋ]’ 둘의 소리 나는 위치는 같습니다. 그런데 ‘[ㅋ]’라고 할 때는 현대에는 기식성(氣息性)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것을 세종은 “소리가 더 거세어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ㄱ]’라고 할 때보다는 ‘[ㅋ]’라고 할 때 소리가 거세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획을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ㄱ’라고 할 때보다 ‘ㅋ’라고 할 때 소리가 더 거세어지므로, ‘ㄱ’ 자에 획을 하나 추가하여 ‘ㅋ’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같은 아음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만 소리 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획을 더 추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음들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획이 추가됩니다. ‘ㄴ’, ‘ㄷ’, ‘ㅌ’는 모두 혀 끝이 입천장에 닿았다 떨어지면서 소리 난다는 점에서 ‘ㄴ’, ‘ㄷ’, ‘ㅌ’ 이 세 소리는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ㄴ’라고 할 때보다는 ‘ㄷ’라고 할 때, ‘ㄷ’라고 할 때보다는 ‘ㅌ’라고 할 때 소리가 더 거세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획을 추가해 나갑니다. ‘ㄴ’에 한 획을 더 추가하여 ‘ㄸ’을 만들고 ‘ㄷ’에 한 획을 더 추가하여 ‘ㅌ’이 만들어졌습니다.

‘ㄹ’, ‘ㅂ’, ‘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입술에서 소리가 납니다. ‘ㄹ’, ‘ㅂ’, ‘ㅍ’도 소리가 거세어짐에 따라 획을 추가하게 됩니다. 다만, ‘ㄱ’에서 ‘ㅋ’을 만들 때나 ‘ㄴ’에서 ‘ㄸ’, ‘ㄷ’에서 ‘ㅌ’을 만들 때 획이 추가되는 방식은 가로획을 추가하는 것이었는데, ‘ㄹ’에서 획을 추가하여 ‘ㄺ’ 자를 만들 때는 세로획을 양 끝에 추가함으로써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획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획이 추가된 방식은 좀 다릅니다. 다만, 왜 ‘ㄹ’의 경우에는 가로획이 아니라 세로획을 추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 결과만 “‘ㄹ’에 획을 추가하여 ‘ㄺ’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더 특이합니다. ‘ㅂ’에 획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ㅂ’ 밑으로 획을 추가한 다음에 90도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를 “‘ㄹ’에 양 옆으로 획을 네 개 추가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ㄴ’, ‘ㄷ’, ‘ㅌ’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ㄴ’에서 ‘ㅌ’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ㄷ’을 거쳐 ‘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ㄹ’에서 ‘ㅍ’으로 바로 갈 수는 없고 ‘ㅂ’을 거쳐서 간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ㄹ’에서 ‘ㅂ’을 만들 때는 위의 양쪽 끝에 획을 추가하였고 ‘ㅍ’을 만들 때는 ‘ㅂ’ 밑에 또 획을 추가한 다음에 90도 회전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방식으로 획이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가획을 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이것도 역시 한자의 모양에서 가져온 것이다, 즉 ‘𪎭(고을 읍)’자나 ‘血(피 혈)’자 같은 한자에서 가져온 것이라든가 견해도 있고 또는 세종이 글자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테스트해 본 결과, 조금 더 보기 좋은 쪽으로 만들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정설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획을 추가하는 방식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밝혀진 것이 없어도 결과적으로 ‘ㄹ’에서 획이 추가되어 ‘ㄺ’이 되었고 ‘ㅂ’에서 획이 추가되어 ‘ㅍ’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음의 가획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ㅅ’, ‘ㅆ’, ‘ㅈ’라고 발음할 때 ‘ㅆ’, ‘ㅈ’이 가획자인데, ‘ㅅ’에서 한 획을 추가하여 ‘ㅆ’이 되었고 ‘ㅆ’에서 역시 한 획을 추가하여 ‘ㅈ’이 되었습니다. 역시 소리가 거세어짐에 따라 획을 추가한 것입니다.

후음의 가획자는 기본자인 ‘ㅇ’ 자에 획을 추가하여 ‘ㆁ’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획이 하나 빠져 있는 글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여린 히읏(ㆁ)이라고 하는데, ‘ㆁ’보다 약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ㅇ’에 한 획을 추가하여 ‘ㆁ’을 만들고 이 ‘ㆁ’에 역시 또 한 획을 추가하여 ‘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소리가 거세어짐에 따라 획을 추가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ㆁ’은 문제가 있습니다. ‘ㆁ’은 훈민정음 스물여덟 자 가운데에서 15세기 당시에 한국어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즉, 이 “ㆁ”은 한자음 표기라든지 세종이 이상적인 표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이지 실제 당시에 존재하

던 현실음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ㅇ”, ‘ㅎ’ 자도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 글자 다섯 글자 ‘ㄱ, ㄴ, ㄹ, ㅅ, ㅇ’은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어졌고 그 소리들에서 소리가 거세어짐에 따라 획을 추가함으로써 ‘ㅋ, ㆁ, ㅌ, ㅊ, ㅌ, ㅈ, ㅊ, ㅎ’의 아홉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홉 글자를 우리가 가획자(加劃字)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본 글자 다섯 글자와 가획자 아홉 글자를 합하면 모두 열네 자가 됩니다. 초성, 즉 자음자는 모두 열일곱 글자라고 말씀드렸으니 아직 석 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ㅇ]’이라고 할 때 그 ‘[ㅇ]’ 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ㅇ’, ‘[ㄹ]’ 소리를 나타내는, 즉 영어로는 ‘r’과 ‘l’ 소리에 해당하는, 한국어에서는 ‘ㄹ’로 표기되는 글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흔히 우리가 받침음이라고 부르는 글자로, ‘ㅅ’의 밑에 획을 추가하여 만든 것처럼 보이는, 발음으로는 ‘[z]’를 나타내는 ‘ㄷ’이 그것입니다. 역시 현대에는 사라진 소리입니다. 영어로는 ‘z’ 발음에 가까운 소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ㅅ’의 유성음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이 ‘ㅇ’과 ‘ㄹ’과 ‘ㄷ’ 세 글자는 사실 글자 모양으로 보자면, ‘ㅇ’ 자는 ‘ㅇ’에 세로획을 하나 추가했다고 할 수 있고 ‘ㄹ’ 자는 ‘ㄴ’ 내지 ‘ㄷ’에 획을 추가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ㄷ’ 자는 ‘ㅅ’에 아래획을 추가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 글자들을 획을 추가했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모양을 변형시켰다, 모양을 다르게 하였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은 이것을 이체자(異體字)라고 합니다. “모양을 변형시켜서, 변이시켜서 만든 글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성 17자가 창제가 되었습니다. 기본 글자 다섯 글자, 가획자 아홉 글자, 이체자 세 글자입니다.

한글은 굉장히 독창적인 문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문자들은 애초에는 상형 문자로부터 출발하여, 그 상형 문자를 변형하여 만든 것들이 대개 문자를 만드는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쓰이는 대부분의 문자들은 기원을 상형 문자에 두고 그 상형 문자들을 변형하여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이 자음 글자들의 경우에는 발음기관을 상형하고 그 상형된 글자들에 획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글자를 만든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한글은 독창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ㄹ’ 자나 ‘ㅅ’ 자의 경우에는 한자의 모양을 따왔다고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ㄹ]’ 소리가 입술에서 나니까 입술 모양을 본떠야겠다, ‘[ㅅ]’ 소리가 이 근처에서 나니까 이의 모양을 본떠야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다만, ‘입술 모양을 어떻게 본뜬 것인가’, ‘이의 모양을 어떻게 본뜬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모방을 한 것이죠. 세상에 완벽한 독창은 없습니다. 한글의 독창성은 해당 자음이 어떤 위치에서 소리났는지, 또 그 발음기관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본따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일부 한자의 모양을 따온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이 한글의 독창성을 해치는 요소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한글 자음의 제자 방식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쓰이고 있는 모든 음성 언어들에 있어서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언어 과학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글 자음자를 만든 원리는 이

현대 음성 과학과 똑같은 원리, 즉 자음의 조음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조음 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현대 음성학적 원리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글은 또한 과학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국제음성기호(IPA)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 국제음성기호(IPA)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revised to 2015)

CONSONANTS (PULMONIC) © 2015 IPA

	Bilabial	Labiodental	Dental	Alveolar	Postalveolar	Retroflex	Palatal	Velar	Uvular	Pharyngeal	Glottal
Plosive	p b			t d		ʈ ɖ	c ɟ	k ɡ	q ɢ		ʔ
Nasal	m	ɱ		n		ɳ	ɲ	ŋ	ɴ		
Trill	ʙ			r					ʀ		
Tap or Flap		ⱱ		ɾ		ɽ					
Fricative	ɸ β	f v	θ ð	s z	ʃ ʒ	ʂ ʐ	ç ʝ	x ɣ	χ ʁ	ħ ʕ	h ɦ
Lateral fricative				ɬ ɮ							
Approximant		ʋ		ɹ		ɻ	j	ɰ			
Lateral approximant				l		ɭ	ʎ	ʟ			

Symbols to the right in a cell are voiced, to the left are voiceless. Shaded areas denote articulations judged impossible.

출처: 국제음성학협회 홈페이지(<https://www.internationalphoneticassociation.org>)

이 IPA에서 가로축은 조음 위치를 나타냅니다. Bilabial, 즉 양순음으로부터 Glottal, 성문음까지, 사람이 옆으로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입술로부터 목구멍까지의 위치를 각각 표현한 것입니다. 입술, 입술과 이 사이, 그리고 이, 이도 여러 위치로 나누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잇몸, 경구개, 연구개, 성문에 이르기까지의 이 위치들을 가로축에 쪽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에 제시된 것들은 발음하는 방식, 즉 조음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파열시켜서 발음하느냐, 코로 공기를 내보내느냐, 혀를 떠느냐, 혀를 뺏기느냐, 이런 조음 방식에 대한 것들이 세로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용어라든지 구체적인 위치의 설정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원리, 즉 조음 위치가 어디인지 조음 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음성 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자음을 이 IPA와 대비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국제음성기호(IPA)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revised to 2015)

CONSONANTS (PULMONIC) © 2015 IPA

	Bilabial	Labiodental	Dental	Alveolar	Postalveolar	Retroflex	Palatal	Velar	Uvular	Pharyngeal	Glottal
Plosive	p b			t d		ʈ ɖ	c ɟ	k ɡ	q ɢ		ʔ
Nasal	m	ɱ		n		ɳ	ɲ	ŋ	ɴ		
Trill	ʙ			r					ʀ		
Tap or Flap		ⱱ		ɾ		ɽ					
Fricative	ɸ β	f v	θ ð	s z	ʃ ʒ	ʂ ʐ	ç ʝ	x ɣ	χ ʁ	ħ ʕ	h ɦ
Lateral fricative				ɬ ɮ							
Approximant		ʋ		ɹ		ɻ	j	ɰ			
Lateral approximant				l		ɭ	ʎ	ʟ			

Symbols to the right in a cell are voiced, to the left are voiceless. Shaded areas denote articulations judged impossible.

출처: 국제음성학협회 홈페이지(<https://www.internationalphoneticassociation.org>)

<표> 한글 자음의 분류

	순음	치음/반치음	설음/반설음	아음	후음
불청불탁	口	△	ㄴ ㄷ	ㅇ	ㅇ
전청	ㅂ	ㅅ ㅈ	ㄷ	ㄱ	ㅇ
차청	ㅅ	ㅈ	ㅌ	ㅋ	ㅎ
전탁	ㅃ	ㅆ ㅊ	ㄸ	ㄲ	ㅎ

한글 자음자를 순음, 치음 내지 반치음, 설음과 반설음, 아음과 후음. 이것이 앞에서부터 뒤로 들어가면서 조음 위치를 나타냅니다. 『훈민정음』에서는 불청불탁(不淸不濁)이니 전청(全淸)이니 차청(次淸)이니 전탁(全濁)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조음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용어나 구체적인 조음 위치의 설정은 다르지만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라는 기본 원리에 의해서 글자들을 나누고 그 글자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글은 현대 음성 과학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여 만든 글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종성(終聲)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 보면 종성을 말 씀드려야 되겠지만 초성과 종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종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글자는 별도의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씀으로써 종성을 만든다(終聲復用初聲).”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글자 수가 대폭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만약 종성 글자를 별도로 만들었다면 글자가 스물여덟 자가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초성과 종성이 음성적으로는 다른 소리이지만 국어에서는 하나의 음운으로 기능하는 같은 음운이다’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국제 음성기호(IPA)로 표시한다면 [kamgak]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다만, 초성에 쓰인 ‘k’와 종성에 쓰인 ‘k’, 즉 모음 앞에서 소리 날 때의 ‘k’ 소리인 ‘[ㄱ]’ 소리와 모음의 뒤에서 받침으로 소리 날 때의 ‘[으]’ 소리를 한국 사람들은 같다고 인식하지만 음성적으로는 다른 소리입니다. 즉, ‘[가]’라고 할 때의 ‘ㄱ’ 소리는 터지는 소리, 즉 파열음(破裂音)임에 비해 ‘[으]’이라고 할 때 이 소리는 내파(內破)라고도 하고 불파(不破)라고도 하는데, 완전히 터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순음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 즉 초성에 오는 ‘ㅁ’ 소리는 입술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성에 오는 ‘ㅁ’ 소리는 ‘[음]’과 같이 폐쇄함으로써 발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두 가지 ‘ㅁ’은 다른 소리입니다. ‘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고 할 때의 ‘ㄱ’ 소리와 ‘[으]’이라고 할 때의 ‘ㄱ’ 소리가 사실 음성적으로는 다른 소리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둘을 같다고 느끼고 더군다나 ‘감각’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소리가 불파음이지만 ‘감각이 발달했다’, ‘감각이’ 같이 ‘각’ 뒤에 조사 ‘이’가 붙었을 때는 종성의 ‘ㄱ’이 초성으로 올라가서 ‘[감가기]’와 같이 ‘[기]’의 초성이 됩니다. 즉, 음성적으로는 다른 소리이지만 이것은 음운적으로 하나의 소리이고 한국어에서는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의 글자로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문자로 표현할 때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성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다시 쓴다라는 원리로써 종성 글자를 대신하였습니다.

이어서 종성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즉 모음자입니다. 모음은 모두

열한 자인데 이 중에 기본 글자가 세 글자입니다. ‘·’, ‘—’, ‘丨’, 이것이 기본 세 글자입니다. 이 모음의 기본 세 글자는 초성의 구성 원리와는 다르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를 ‘천지인(天地人)’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것을 삼재(三才), 즉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라고 해서 삼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모음의 기본 세 글자는 이 삼재,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형상화하여 만들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기본 원리와는 차이가 납니다.

먼저 하늘, 하늘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별자리 그림을 그릴 때 하늘을 둥그렇게 그려 놓고 거기에 별자리를 그려 놓았습니다. 사실 하늘 자체의 모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하늘의 모양을 파악할 때, 그것을 둥그란 형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는 글자를 만드는 데 하늘의 모양을 형상화하겠다. 즉, 하늘은 둥그란 모습이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둥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둥그렇게 만든다면 자음자의 ‘ㅇ’자와 모양이 같아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종은 중성자는 초성자와 어울려 합쳐 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음자와 모양이 같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음자와 잘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둥그란 점입니다. 즉, 둥그란 원 모양이 아니라 둥그란 점 형태로써 ‘·’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자는 ‘—’입니다. 이것은 땅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은 ‘땅은 네모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땅의 모양을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그린다면, 네모나게 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口’자와 같아지는 문제뿐 아니라, 또 자음자와 어울려 써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역시 축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수평선을 그음으로써 땅의 모양을 형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둥그란 점과 수평선으로 하늘과 땅을 형상화하였는데, 그럼 사람은 어떻게 형상화하였을까요? 사람은 한자에서는 ‘人(사람 인)’자로 표현하지만, 세종은 이것을 사람이 서 있는 형태를 본떠서 수직선으로 ‘丨’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 ‘—’, ‘丨’의 기본 모음 세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천지인을 각각 상형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세 글자를 조합함으로써 나머지 문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초출자(初出字)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ㄱ’, ‘ㄴ’, ‘ㄷ’, ‘ㄹ’이 그것입니다. ‘ㄱ’은 오늘날은 수직선에 수평선을 포함한 형태(ㄱ)로 쓰지만 한글 창제 초기에는 ‘·’, 완전히, 완벽히 둥그란 점에 수평선을 그음으로써, 그다음에 ‘ㄴ’은 마찬가지로 수직선 옆에 완벽한 점을 찍음으로써 표현하였습니다. 즉, 이들 글자의 모양은 ‘·’와 ‘—’, ‘丨’와 ‘·’가 합쳐짐으로써 ‘ㄱ’과 ‘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 밑에 ‘·’를 찍음으로써 ‘ㄷ’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ㄹ’은 ‘丨’안쪽에 점(·)을 찍음으로써 ‘ㄹ’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ㄱ’, ‘ㄴ’, ‘ㄷ’, ‘ㄹ’이 네 글자를 초출자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은 재출자(再出字)를 만들었습니다. 재출자는 초출자인 ‘ㄱ’, ‘ㄴ’, ‘ㄷ’, ‘ㄹ’에 음성적으로는 ‘丨’라는 모음이 앞에 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글자 그대로 만든다면, ‘丨’를 먼저 쓰고 ‘ㄱ’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 ‘丨’를 또 다시 ‘·’로 바꿔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 즉 점 두 개를 찍고 수평선을 그

어서 ‘ㄹ’라는 글자를 만들었고 ‘ㅍ’, ‘ㅍ’, ‘ㅍ’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ㅇ’ 두 글자와 ‘ㅣ’, ‘ㅡ’를 각각 조합함으로써 ‘ㄹ’, ‘ㅍ’, ‘ㅍ’, ‘ㅍ’ 네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재출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글자 세 글자와 초출자 ‘ㄱ’, ‘ㅏ’, ‘ㅑ’, ‘ㅓ’ 네 글자, 재출자 ‘ㄹ’, ‘ㅍ’, ‘ㅍ’, ‘ㅍ’ 네 글자, 그래서 모두 열한 글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상으로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를 만든 제자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면서 중국의 성운학 이론을 받아들여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이론을 독창적으로 변형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은 중국의 성운학과 달리 음절을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즉, ‘각’을 ‘ㄱ’과 ‘ㄱ’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ㄱ’과 ‘ㅏ’와 ‘ㅑ’으로 다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음절을 3분함으로써 중국의 성운학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중국의 성운학과 같이 성모(聲母)와 운모(韻母)로 글자를 나누고 성모에 해당하는 글자와 운모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었다면 글자의 수효가 굉장히 늘어났을 것입니다. ‘ㄱ’, ‘ㄴ’, ‘ㄷ’, ‘ㄹ’ 이런 글자들을 다 별도의 글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구분함으로써, 즉 운모를 중성과 종성으로 떼어 냄으로써 글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고, 또 초성과 종성의 동일성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글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중국의 성운학과는 다른 이론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글자의 특징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각각 만들어 놓고 그들을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결합하여 음절별로 글자를 구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모아쓰기라고 하는데요. 한글은 표음 문자의 가장 발달된 형태, 즉 알파벳과 같은 음소 문자이면서도 실제로 구현될 때에는 음절별로 모아 쓰기 때문에 한자와 비슷한, 그래서 일종의 표의 문자적인 특징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글 창제 초기에는 순수한 고유어, 한국어 표기 외에 한자음 표기를 위한 문자 내지는 표기 방식도 적극 고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집대화된 것이 바로 『동국정운(東國正韻)』이라는 책입니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자음 표기 방식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 학자들로 하여금 『동국정운』을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동국정운』이 편찬되어 간행된 것은 약간 뒤였지만, 편찬 작업의 시작은 굉장히 빨리, 한글 창제 초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국정운』이라는 책에는 세종의 이런 이상을 반영하여 한자음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문헌들에서는 바로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채택하여 한자음을 적는 방식이 성종(成宗) 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위해 자음 열일곱 자에 ‘ㅇ’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에서 ‘ㅇ’ 자는 15세기 당시에 현실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이었지만 한자음 표기를 위해서 기본 글자에 추가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ㅇ’ 자나 또 ‘ㅁ’ 밑에 ‘ㅇ’을 쓴 ‘ㅁ’ (순경음ㅁ 또는 ㅁ순경음)과 같은 연서자(連書字)는 사실 고유어 표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글자들인데, 이 역시 한자음 표기를 위해 만들어져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자음 표기는 한글 창제 당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당시에 실제 쓰이고 있던 현실 한자음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즉 예전 중국의 한자음과 현실 한자음을 절충하여 만든 이상적인 한자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이었고 현실음과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방식은 폐지되고 현실 한자음으로 돌아가

게 됩니다.

3. 한글의 보급과 활용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은 이후로 이제 널리 보급되어 나가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절에서는 한글의 보급과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국가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따라서 중요 문서라든지 공식 서적은 여전히 한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이나 또는 심지어 학문의 영역에서도 한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그러한 필요한 경우를 바탕으로 전파되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글이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들은 왕가(王家)나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여성 또는 궁중 나인들과 같은 한문으로 자유로운 문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글이 필수적인 문자로 빨리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가나 사대부가의 남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한자나 한문 학습을 시작할 때에는 가령, 『천자문(千字文)』이라든지 『훈몽자회(訓蒙字會)』 같은 책들로 한자나 한문 학습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텐데, 『천자문』 공부를 위해서도, ‘天(하늘 천)’ 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天(하늘 천)’ 자라는 것을 한글로 써 주어 이해를 시키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또는 사서삼경(四書三經)과 같은 본격적인 한문 서적이나 유교(儒敎) 경전(經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다음에 이해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기본 학습서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자나 한문 학습을 위해서는 한글 학습이 선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서리나 중인 계층 사람들도 한문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한글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또는 일반 평민들에게까지도 쉽고 편한 문자인 한글은 유용성이 분명하여 널리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한글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때 가장 중요한 용도는 편지를 쓰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신자나 발신자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한문 해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편지는 전적으로 한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이나 또는 아무리 유명한 사대부라고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나 딸에게 편지를 쓸 때는 한문을 써서는 상대방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글 편지가 흔히 여성 사이에 유통되었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 즉 사대부나 왕조차도 수신자나 발신자 중에 한쪽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글로 편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글 편지를 흔히 언간(諺簡)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언문(諺文)으로 쓰인 간찰(簡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글 편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다양한 용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글 편지는 손으로 쓰는 것이다 보니 흘려 쓰는 경우들이 많고 또 개인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판독이나 내용의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한국어사 연구에서 널리 활용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언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언간을 판독하고 해독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기존의 판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구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생한 언어 자료라는 점에서 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즉, ‘언간은 언간 나름의 문제가 있어서 판본 자료보다는 연구가 좀 덜 되어 왔지만 현재에는 언간을 바탕으로 한 많은 문법사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글은 시조와 가사 같은 노래를 적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적기 위해서 향찰(鄕札)이라는 독특한 표기법을 고안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이것은 이두(吏讀)나 구결(口訣) 내지는 한문과 같은 것으로는 완벽히 우리말을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하게 우리말을 적기 위한 보다 발전된 체계인 향찰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즉, 노랫말은 번역하여 적을 수는 없고 원래의 어형 그대로 적어 주는 것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특한 표기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글이 만들어짐으로써 비로소 우리말을 완벽하게 제대로 적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랫말들은 한글로 기록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퇴계 이황(李滉)이나 율곡 이이(李珥) 같은 유명한 유학자들도 자신들이 노래를 지을 때는 그것을 한글로 표기하였습니다.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나 율곡 이이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같은 것들이 한글로 표기된 예입니다.

또한 사대부들이 한문 내지는 한자를 학습할 때 한글이 바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이런 한문 서적을 번역하는 데에도 한글이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한 것을 흔히 언해(諺解)라고 하는데, 언문으로 풀이했다는 뜻입니다. 한글 창제 초기의 한글 문헌은 대부분 한문을 번역한 언해 문헌이었습니다.

한문이 공식 문자의 지위를 잃게 되는 시기는 19세기 말, 즉 갑오경장(甲午更張) 무렵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도 공식적으로 간행된 한글 문헌의 대부분은 언해 문헌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간행한 한글 문헌은 대부분 언해 문헌으로, 한문을 바탕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15세기 문헌은 불경 언해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16세기부터는 유가(儒家) 경전에 대한 언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사서삼경이나 『소학(小學)』 같은 유학서에 대한 언해가 16세기부터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러한 경전 외에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라든지 『두시언해(杜詩諺解)』 같은 문학서(文學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같은 교화서(敎化書), 또는 의학서(醫學書)나 수의학서(獸醫學書), 병서(兵書), 농서(農書), 역학서(譯學書) 같은 다양한 실용적인 분야에 대한 다수의 언해 문헌들이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언해는 한문의 번역문이기 때문에 당시의 생생한 국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의고적(擬古的)이고 보수적인 언어 상황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언해를 할 때는 한문에 구결을 달고 그 구결에 의지해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구결에 의존한 이상한, 한국어답지 않은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사, 나아가 한국어 문법사를 연구할 때에는 이러한 문헌적인 특징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4. 15세기의 한글 표기법

이러한 한글 문헌들에 나타나는 표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15세기의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표기법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의 창제는 단순히 문자 창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규칙 체계의 전반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표기법을 만드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맞춤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해서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어를 어떠한 규범에

따라서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맞춤법이 완성이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문자를 사용하여 언어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는 1443년에 완성이 되었지만 이 문자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고 책을 만들어 내는 규범을 만드는 데는 2, 3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45년경에 와서야 『용비어천가』의 원고가 완성이 되었고 실제 간행은 144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447년에 『석보상절(釋譜詳節)』이나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원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하는 이 책들을 보면 표기법이 매우 일정하고 규칙적이어서 당시에 이미 엄격한 맞춤법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세기 표기법의 기본 원리는 우선 음소적(音素的)인 것, 그리고 음절적(音節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태(形態)의 음소론적(音素論的) 교체를 반영하여 소리 나는 대로 연결(連綴)하는 것을 음소적인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형태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소리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방식이 현대 한국어의 맞춤법이라고 한다면, 15세기의 표기법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리를 달라지는 그대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형태 음소적(形態音素的) 교체를 표기에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표기법이 나누어집니다. 현대 한국어의 맞춤법은 형태 음소적 교체를 반영하지 않고 형태를 고정하여, 즉 기본형을 고정하여 적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 합니다. 15세기의 표기 방식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소리를 달라진 그대로 적습니다. 즉, 기본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소적인 표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값		값-	
15세기 한국어	갑	갑도	갑시	갑고 기퍼
현대 한국어	값	값도	값이	값고 값어

‘값’이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갑]’과 같이 소리가 나고 조사 ‘도’가 결합하면 ‘[갑또]’로, 그리고 조사 ‘이’가 결합하면 ‘[갑씨]’와 같이 소리가 날 것입니다. 15세기에는 이를 어떻게 표기했을까요? ‘갑도’, ‘갑시’와 같이 소리 나는 그대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가’에 ‘ㅍ’이라는 형태를 고정하고 그 뒤에 ‘도’라는 조사나 ‘이’라는 조사를 결합시켜 ‘값도’, ‘값이’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이처럼 현대 한국어에서는 ‘가’에 ‘ㅍ’이라는 형태 음소를 고정해 놓고 실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는 데 비해 15세기에는 그 당시 소리 나는 그대로 표기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의 경우에도 현대 한국어에서는 ‘가’에 ‘ㅍ’을 쓴 형태를 고정하고 뒤에 어미 ‘-고’나 ‘-어’를 붙여 ‘값고’, ‘값어’와 같이 표기하는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ㅍ’ 소리가 종성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어미 ‘-고’가 결합하여 ‘[갑꼬]’라고 소리가 날 때는 ‘갑고’로,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미의 초성으로 어간 말음이 연음되어 ‘[기퍼]’와 같이 소리가 날 때는 ‘기퍼’로 표기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습니다.

15세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음소적이고 음절적인 표기가 행해졌습니다. 아마 한글 창제 초기에는 현대 맞춤법과 같이 형태음소적인 표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본 것과

같이 15세기의 일반적인 음소적인 표기를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했던 흔적이 나타납니다.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는 ‘꽃, 낫, 낯, 낫과, 불췌; 깊고’와 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꽃’은 ‘꽃’이라는 뜻이고 ‘낫’은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ㅌ’ 받침을 쓰는 ‘낯’은 ‘낯개’라고 할 때의 ‘낯’입니다. ‘ㅈ’ 받침을 쓴 ‘낫’은 현대어와 같이 ‘밤과 낫’이라고 할 때 ‘낫’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들을 ‘ㅈ’, ‘ㅊ’, ‘ㅌ’, ‘ㅊ’ 받침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들 받침의 소리가 모두 ‘[ㄷ]’으로 나겠지만 15세기 당시에는 팔종성(八終聲)이었기 때문에 ‘ㅌ’은 ‘[ㄷ]’으로, ‘ㅈ’, ‘ㅊ’의 경우에는 ‘[ㅈ]’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팔종성 표기에 따라 ‘ㄷ’과 ‘ㅈ’으로 써야 될 예들을 현대 한국어의 맞춤법과 마찬가지로 ‘ㅈ’이나 ‘ㅊ’, ‘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깊-’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췌’이라고 할 때 ‘불’을 의미하는 ‘불’이라는 단어를 팔종성 표기법, 즉 15세기의 일반적인 표기법에 따라서 적는다면 ‘불’으로 적어야 하는데 『월인천강지곡』에서는 ‘불’으로 적었습니다. ‘깊고’ 역시 앞에서 보았듯이 15세기의 일반적인 표기라면 ‘깊고’로 적어야 할 것을 ‘깊고’로 적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서는 현대 한글 맞춤법의 기본형을 밝혀서 적는 것과 유사한 방식, 즉 형태 음소적 표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일울, 글울, 兄님울, 쑤울; 안아, 남아’와 같은 예에서는 일부 자음, ‘ㄴ, ㄷ, ㄹ’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분철(分綴) 표기가 나타납니다. 15세기의 일반적인 표기라면 ‘누네’, ‘이룰’과 같이 받침을 뒤의 음절로 넘겨서 연결하여야 하는데, 이들 문헌에서는 연결하지 않고 현대의 표기와 마찬가지로 분철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서는 현대 한글 맞춤법과 유사한 원리로써 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성에 그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형태 음소를 밝혀서 적는 다든지, 연결하지 않고 분철을 한다든지와 같이 현대의 한글 맞춤법과 같은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15세기 한글 창제 당시에 세종은 형태 음소적 원리도 알고 있었고 음소적 원리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태 음소적 표기법은 가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가지지만 교육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점은 단점이 됩니다. 즉, 우리가 초등학교 이래로 맞춤법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 맞춤법에 익숙하고 따라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맞춤법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쓰기가 어렵고 또 맞춤법에 맞게 쓰여 있는 글을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리대로 써 주는 것이 훨씬 쉬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리대로 썼을 때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한참을 읽어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종은 이 두 가지 원리를 놓고 고민을 한 끝에, 당시에 한글 맞춤법 교육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음소적인 표기, 즉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를 채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 음소적 표기를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15세기의 대다수 문헌들, 『석보상절』 이후의 문헌들에 대해서는 음소적인 표기, 즉 소리대로 적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것은 조선 후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음소적 표기법이 전면적으로 행해진 결과,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여덟 가지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팔종성법(八終聲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성에 형태 음소적으로 ‘ㄱ’ 소리가 오게 되면 실제 소리는 ‘[ㄱ]’으로 나기 때문에 ‘ㄱ’으로 적고, ‘ㅌ’은 ‘ㄷ’으로, ‘ㅈ, ㅊ, ㅌ’은 ‘ㅈ’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팔종성법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종성에 ‘ㅌ’이 오는 경우에 ‘ㅌ’이 표기된 예

들이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는 실제 규범상으로는 팔중성이었지만 ‘△’이 종성에서도 일부는 소리가 났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ㄹ’처럼 앞에 ‘ㄴ’이 오는 경우에도 ‘ㄹ’ 겹받침을 그대로 종성에 표기한 예들도 일부 있습니다.

15세기에는 종성에서 ‘ㄷ’과 ‘ㅅ’이 구별되었지만 근대 한국어 시기에 와서는 이 두 소리가 합쳐져 ‘ㄷ’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표기상으로는 ‘ㅅ’으로 통일되어 가는, 즉 “음성적으로는 ‘ㄷ’으로, 표기상으로는 ‘ㅅ’으로 통일되어 가는 변화가 나타나서 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15세기 표기가 음소적 표기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운 현상은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한글 초기 문헌에서는 ‘ㄷㄴ’이 실제로는 ‘ㄴㄴ’으로 발음되었을 터인데, 그것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ㄷㄴ’ 그대로 적은 표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信]에 ‘-는’이 붙은 ‘믿는’ 같은 예는 ‘ㄴ’으로 표기한 ‘민는’과 같은 표기는 잘 보이지 않고 그대로 ‘ㄷ’으로 쓴 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간 내부에서는 ‘견너/견너-’나 ‘든니/든니-’와 같이 ‘ㄷ’을 쓴 예와 ‘ㄴ’을 쓴 예가 공존하고 있어 당시에 ‘ㄷ’과 ‘ㄴ’이 만났을 때 ‘ㄴㄴ’으로 동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형태소 경계에서는 이러한 동화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15세기의 표기법이 음절에 기초한 것이기는 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음절 경계가 혼동된 예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종성에 ‘ㅅ’이 오는 경우에 그러한데, 종성의 ‘ㅅ’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내려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닭-’[修]에 해당하는 어휘는 받침에 ‘ㅅ’을 쓴 ‘닭-’입니다. 여기에 연결 어미 ‘-아’가 붙었을 때 이것을 ‘닭가/다까’와 같이 ‘ㅅ’을 종성에 쓰기도 하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 넘겨서 쓰기도 하였습니다. ‘어엿브-’[攪]도 ‘어엿브-’처럼 쓰기도 하고 음절 말의 ‘ㅅ’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넘겨 ‘어여썸-’처럼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종성에 ‘ㅅ’이 올 경우에 이것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넘겨 쓴 예들이 나타납니다.

15세기의 한글 표기법에서 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방점(傍點)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방점을 사용하여 성조(聲調)를 표기하였는데요. 소리에는 고저(高低)와 강약(強弱), 장단(長短) 같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운소적(韻素的)인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운이라고 할 때는 음소적인 것과 운소적인 것을 합쳐서 음운이라고 말합니다. 이 운소적인 요소, 즉 비분절적(非分節的) 음운을 전면적으로 표기에 반영하는 일은 근대 이전에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한글을 만들고 그 한글로 우리말을 표기하면서 당시에 한국어에 존재하고 있던 운소적인 요소인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방점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면적으로 성조를 표기하였습니다. 이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傍(곁 방)’ 자, ‘點(점 점)’ 자를 써서 방점, ‘곁에 찍는 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세기 당시 성조에는 평성(平聲)과 거성(去聲), 상성(上聲)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성은 가장 낮은 소리였습니다. 이 평성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점도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소리인 거성을 표시할 때에는 왼쪽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낮다가 나중에 높아지는 소리를 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상성을 표기하기 위해 수직으로 점을 두 개 찍습니다. 이러한 방점 표기법을 사용하여 15세기의 문헌들이 간행되었기 때문에 15세기의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성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에 존재했던 이 성조는 16세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16세기 말쯤에 와서는 거의 사라져 방점 표기도 그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리에서 사라졌기 때

문에 더 이상 표기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말경에 와서는 방점 표기 자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의 서쪽 지방,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는 성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쪽 지방에 해당하는 함경도, 강원도 영동 지방,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는 여전히 성조가 남아 있습니다.

5. 한글 자료

마지막으로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글로 만들어진 문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국어사 내지는 한국어 문법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세기에 간행된 한글 문헌 가운데 특히 한국어 문법사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용비어천가』를 들 수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건국에 대해 노래로 읊은 것입니다. 모두 125장의 노래로 되어 있고 그 노래에 대한 주석이 실려 있습니다. 이 125장의 국문 가사가 완성된 것은 144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책이 간행된 것은 2년의 세월이 더 걸려서 1447년에 목판(木版)으로 간행을 하였습니다.

옛날에 책을 간행하는 방식은 나무 판에 새겨서 간행하는 방식과 활자(活字)를 만들고 그 활자로 조판을 하여 간행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활자는 대개 금속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금속 활자로 인쇄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책들은 목판으로 간행한 것과 금속 활자로 간행한 책들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용비어천가』는 바로 목판으로 간행이 되었고 모두 열 권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한문으로 된 주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문 가사 자체는 아주 짧은 125장의 분량에 불과합니다. 다만, 한문으로 된 주석 가운데에는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명 또는 관직명 같은 것들이 한글 표기로만 나타나는 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어휘 사라든지 한국어 음운사 연구에서는 이 주석에 나타난 한글 표기가 크게 이용이 됩니다. 다만, 한국어 문법사에서는 국문 가사 정도만이 활용될 수 있겠죠.

국문 가사 125장에 해당하는 내용만이 『용비어천가』의 한글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글 창제 이후에 만들어진 우리말 문장을 담은 최초의 문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문장을 담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한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나는 한글은 낱글자 내지는 단어만 나타나고 문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법사 연구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용비어천가』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문법사의 중요 자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료는 『석보상절』입니다. 『석보상절』은 세종의 명에 따라 당시에 수양대군, 나중에 즉위하여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편찬한 책으로,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일대기를 서술한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들게 된 이유는 세종의 부인이자 수양대군의 어머니였던 소헌왕후(昭憲王后)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뽑아서 이 책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서문에 따르면 이 책은 1447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간행은 금속 활자로 되었는데요.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글 금속 활자가 있었을 리가 없고 새로운 금속 활자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 완성 이후에 금속 활자를 만들고 조판하고 책을 인쇄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2년 정도 세월이 걸렸다고 추정되는데, 간행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어 사실 자체는 원고 완성 시점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석보상절』의 간행은 1447년으로 대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인쇄하기 위해서 금속 활자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금속활자는 『월인천강지곡』의 인쇄에도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석보상절』은 모두 스물네 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현재 이 책이 모두 전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권만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된 최초의 산문 자료이고 또 분량에 있어서도 『용비어천가』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한국어사 연구, 특히 한국어 문법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편,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종이 『석보상절』의 내용을 요약하여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석보상절』의 내용이 요약된 노래니까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두 580여 곡의 노래가 들어 있을 것이고 『석보상절』과 같은 금속 활자로 인쇄가 되었으며, 총 세 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세 권이 다 남아서 전하지 않고 권상, 즉 상권만이 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인석보(月印釋譜)』입니다. 『월인석보』는 수양대군, 즉 세조가 즉위한 다음에 자신이 만들었던 『석보상절』,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세종이 만든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하여 만든 책으로, 1459년에 목판으로 간행이 되었습니다.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석보상절』의 내용을 주석의 형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원래 있던 『석보상절』이나 『월인천강지곡』의 내용 중에서 문장이나 번역을 대폭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권의 내용이나 순서도 상당히 바꾸었습니다. 전체 스물다섯 권에 이르는 분량이고 중간본까지 합한다면 대다수의 권들이 남아 있어서 한국어사 및 한국어 문법사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세조는 즉위한 이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간경도감에서 많은 불경들을 언해, 즉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을 하였습니다. 이 간경도감에서 처음 간행한 언해본은 『능엄경(楞嚴經)』입니다.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는 모두 열 권으로 된 책으로, 1461년에 먼저 언해, 한글로 번역을 하여 을해자(乙亥字)라는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을해자 활자본에는 많은 오류와 오자(誤字)들이 있었기 때문에 1년 후에 이 오자들을 수정하고 교정하여 1462년에 목판으로 다시 간행을 하게 됩니다. 활자본은 이미 만들어진 활자를 가지고 인쇄를 하기 때문에 책을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활자본은 많은 책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적은 수요의 책을 만들어 낼 때는 활자로 책을 인쇄합니다. 목판본은 반대로 책을 만들 때마다 새로 목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목판을 만들어 두면 계속해서 책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수를 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활자본으로 인쇄하기도 하고 목판본으로 간행하기도 합니다. 또 간행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책을 만들어 낼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책들은 대부분 목판으로 간행한 것들이 많습니다. 1463년에는 『법화경언해(法華經諺解)』가 만들어졌는데 모두 일곱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해인 1464년에는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아미타경언해(阿彌陀經諺解)』, 『금강경언해(金剛經諺解)』, 『반야심경언해(般若心經諺解)』가 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465년에는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가 간행되는데, 모두 열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량이 많아서인지 다음 해에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각경언해』부터는 표기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

래서 각자병서(各自並書)가 폐지된다는지 하는 측면에서 표기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헌입니다. 다만, 한국어 문법사적으로는 이전의 문헌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몽산법어언해(蒙山法語諺解)』가 1467년경에 간행이 되었고 아마 『사법어언해(四法語諺解)』도 같은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모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판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이상이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언해들이고 의학서로는 『구급방언해(救急方諺解)』와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이 있습니다. 『구급방언해』는 모두 두 권으로, 1466년에 을해자로 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466년에 간행한 책은 현재 전하지는 않고 이 책을 다시 목판에 새긴, 그것을 복각(復刻)이라고 하는데, 16세기 중엽에 복각한 책만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화서로는 『내훈(內訓)』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 있습니다. 『내훈』은 성종의 어머니인, 나중에 인수대비(仁粹大妃)가 되는 소혜왕후 한씨(韓氏)가 부녀자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문 책들에서 뽑아서 편찬한 책입니다. 원간본은 1475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그 책은 전하지 않고 1573년에 을해자로 인쇄하여 중간(重刊)한 책이 일본 나고야의 호사분코(蓬左文庫)라는 곳에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는 1611년에 간행한 책과 1656년에 간행한 중간본이 전하고 있는데, 국내에 전하는 책들에는 방점이 사라지고 언해 부분도 일부 변경(變改)이 가해져 있습니다.

『삼강행실도』라는 책은 먼저 한문본으로 간행이 되었는데, 1434년에 목판으로 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대 문헌에서 효자(孝子), 충신(忠臣), 열녀(烈女) 각 백열 명씩을 뽑아 그 내용을 앞면에 그림으로 그리고 뒷면에 그들의 이야기를 한문으로 설명을 붙여 목판으로 간행하였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직후에 이 『삼강행실도』를 언해해야겠다는 논의가 시작이 되어 아마 일부는 작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행이 되지는 못했고 1481년 성종 때 와서야 비로소 『삼강행실도』의 목판본이 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한문본에서 효자, 충신, 열녀 각 서른다섯 명씩을 뽑았는데, 즉 3분의 1로 내용을 줄였습니다. 서른다섯 명씩을 뽑아 원래의 그림과 뒷장의 한문 내용은 그대로 두고 그 위, 즉 난상(欄上)에 언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란(別欄)에 언해를 붙여 간행한, 즉 밑의 내용은 한문본 그대로이고 윗부분에 언해를 붙여 간행한 것입니다. 삼강은 유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후 이 『삼강행실도』는 조선 시대 내내 중간과 복각이 수시로 이루어져 현재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성종 때 간행한 원간본 자체는 매우 드물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 흔히 『두시언해(杜詩諺解)』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당나라의 시인인 두보(杜甫)의 시 1,600여 수를 모두 모아 그것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권을 하고 언해를 한 것입니다. 금속 활자인 을해자로 인쇄가 되었고 전체 스물다섯 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인데 대다수가 남아 있습니다. 15세기 언해 자료들의 다수가 불경 자료인 데 비해 『두시언해』는 문학서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특색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 나타나는 언어 사실도 물론, 시기가 약간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불경 자료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한국어사 내지 한국어 문법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시언해』는 1632년에 중간본이 간행이 되었는데, 중간본을 만들면서 내용도 일부 바꾸고 표기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를 연구할 때, 즉 초간본은 중세 한국어 자료로서, 중간본은 근대 한국어 자료로서 둘 사이의 변천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일들이 한국어사 연구에서 일찍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성종 때에는 간경도감은 폐지되었지만 세조의 왕비였던 자성대비(慈聖大妃)의 명으로 학조(學祖) 스님의 주도로 불경 언해서를 계속 간행해 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 『금강경삼가해언해(金剛經三家解諺解)』나 『남명집언해(南明集諺解)』 같은 것들인데 모두 율해자로 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산군(燕山君) 때에는 인수대비의 명으로 『육조법보단경언해(六祖法寶壇經諺解)』가 목활자로 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간경도감이 폐지된 이후에도 불경 언해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세기에도 한글 문헌은 계속 간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삼강행실도』의 속편인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가 간행되었습니다. 『이륜행실도』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오륜 중에서 삼강에 해당하는 내용은 빼고 이륜인 봉우유신(朋友有信)과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내용을 담아 그것에 관한 행실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또 『정속언해(正俗諺解)』, 『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朱子增損呂氏鄉約諺解)』, 『경민편언해(警民編諺解)』와 같은 책들이 간행되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책들입니다. 교화서라고 합니다.

또한 16세기에는 『소학』의 언해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종(中宗) 때(1518년) 『번역소학(翻譯小學)』이 만들어지고 선조(宣祖) 때(1586년) 『소학언해(小學諺解)』가 만들어집니다. 『소학』은 아이들이 배우는 유교 경서로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소학』에 대한 중시가 있었고 따라서 언해도 거듭 이루어졌습니다. 『번역소학』은 의역을 했다는 특징이 있고 『소학언해』는 직역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번역소학』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의역에 치우쳐서 경전의 원문 내용을 해친다’라고 생각하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학언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문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조금은 다르게 번역하였기 때문에 역시 이 두 자료의 언어 사실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어사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 같은 책들도 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어, 당시 한어(漢語)라고 불린 중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책들입니다. 이것을 역학서라고 합니다. 이들 문헌은 중국어 원문 내용이 실려 있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언해가 실려 있어 한국어 자료로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국어를 보여 준다는 면에서 중국어학 연구에도 활용이 되는 자료입니다.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豬染疫病治療方)』 같은 책들도 간행되었습니다. 『간이벽온방』은 온역(瘟疫)이라고 하는 열성(熱性)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처방들을 모아서 만든 한의학서이고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소나 말, 양, 돼지와 같은 가축들의 역병을 치료하기 위한 책입니다. 따라서 의학서나 수의학서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는 이와 같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간행된 책들도 존재합니다.

불서(佛書)의 언해도 16세기에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15세기의 불경 언해, 불서 언해들은 주로 궁중, 왕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비해 16세기의 불경 언해는 민간 사찰(寺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차이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은중경언해(父母恩重經諺解)』가 있습니다. 이 책은 부모님의 은혜를 중시하는 경전입니다. 일반 불교의 경전에서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데, 부모의 은혜를 다루고 있는 이 경전이 유교의 효사상과 결부되어 조선 시대에 널리 언해가 되고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가귀감(禪家龜鑑)』이나 『칠대만법(七大萬法)』 같은 책들과 『초발심자경문언해(初發心自警文諺解)』도 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발심자경문』은 원래 하나의 책이 아니라 『계초심학인문

(誠初心學人文)』,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그리고 『야운자경(野雲自警)』이라는 세 책을 합쳐 언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서의 언해도 16세기에도 여전히 계속 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글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창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보급되어 왔는지, 또한 당시에 한글로 우리말을 적을 때 적용된 표기법의 원리는 무엇이었는지, 또 그렇게 만들어진 한글 자료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어 문법사 공부를 위한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한국어 문법사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3분)

1. 한글은 세종의 명령으로 집현전 학사들이 만들었다. (O/X)

정답: X

2. 훈민정음 초성자의 기본 글자는 한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O/X)

정답: X

3. 『용비어천가』는 한글 창제 이후 만들어진 문헌 중에서 우리말 문장을 담은 최초의 문헌이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훈민정음 초성(자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초성 17자는 기본 글자 5자와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한 가획자 12자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라는 기준에 따라 글자들을 나누고 그 글자들을 만들었다.
- ③ 초성 글자 가운데 ‘ㅇ’은 한글 표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정답: ②

2. 다음 중 한글의 보급과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글은 시조나 가사 같은 노래를 적는 데에 사용되었다.
- ② 사대부 가문의 남성들은 부인이나 딸 등 여성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한문을 사용하였다.
- ③ 한글 창제 이후에도 국가의 중요 문서나 공식 서적은 한문으로 기록되었다.

정답: ②

3. 다음 중 한국어의 성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에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나타내었다.

- ② 15세기의 성조는 평성, 거성, 상성의 3가지가 있었다.
 ③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는 오늘날에도 성조가 남아 있다.

정답: ③

단답형 (10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훈민정음 중성자의 기본자인 ‘ㆍ’, ‘ㅡ’, ‘ㅣ’ 세 글자는 각각 ○○과 ○과 ○○을 본떠 만들었다.

정답: 하늘, 땅, 사람

2. 훈민정음은 새롭게 만들어진 ○○의 이름임과 동시에 그것을 해설한 ○의 이름이기도 하였다.

정답: 문자, 책

3. 훈민정음 중성자 ‘ㄱ’, ‘ㅋ’, ‘ㆁ’, ‘ㄷ’, ‘ㄸ’는 ‘ㄱ’, ‘ㄴ’, ‘ㄷ’, ‘ㄹ’에 음성적으로 ‘ㅇ’라는 모음이 앞에 붙은 소리이다.

정답: ㄴ

나. 토의 (30분)

1. 세종이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셋으로 나눴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점이 무엇인가?
 2. 한글 창제 이후 간행된 『석보상절』, 『소학언해』, 『삼강행실도』, 『두시언해』, 『간이벽온방』과 같은 문헌 자료들의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다. 과제 (60분)

15세기의 한글 표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표기법이 사용되어 만들어진 문헌을 예로 들어 봅시다. 또 15세기의 한글 표기법을 현대 한국어의 맞춤법과 비교하였을 때,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 참고자료

훈민정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훈민정음 해례본』 (디지털한글박물관 보기)

『세종실록』 세종 25년 12월 (조선왕조실록 보기)

『세종실록』 세종 28년 9월 (조선왕조실록 보기)

강신항(2003), 『훈민정음연구』 수정증보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신정판, 탑출판사.

안병희(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3차시> 체언과 용언

■ 학습목표

1. 15세기 한국어에서 음소가 연결될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2. 현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어간 발음을 가지는 15세기 한국어의 체언에 대해 알아본다.
3. 15세기 한국어에서 불규칙적인 교체를 보이는 체언의 양상과 그 특징을 확인한다.
4. 15세기 한국어에 보이는 용언의 규칙적 활용과 불규칙적 활용에 대해 익힌다.

■ 강의 목차

1. 15세기 한국어의 자음 및 모음 연결 규칙
2. 현대 한국어에 없는 어간 발음을 가지는 체언
3. 체언의 불규칙적 교체
4. 용언의 규칙적 활용
5. 용언의 불규칙적 활용

■ 강의 내용 전문

<한국어 문법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세기 한국어에 보이는 자음 및 모음 연결 규칙, 그리고 체언과 용언의 곡용과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5세기 한국어의 자음 및 모음 연결 규칙

15세기 한국어에서 자음이 다른 음과 또는 휴지와 연접할 때 다음과 같은 음운 규칙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ㅎ’의 변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ㅎ’의 변동

- ㅎ + ㄱ/ㄷ/ㄴ/ㅈ → ㄱ/ㄷ/ㄴ
동-+-고 → 도쿄, 동-+-디 → 도타; 숲-+-브 → 슬프-
- ㅎ + ㅅ → ㅅ
녕-+-술 → 녀쑈-
- ㅎ + ㄴ → ㄴ
녕-+-ㄴ → 녀ㄴ
- ㅎ + 휴지 → ∅
우ㅎ → 하닐 우 하닐 아래

(ㄱ)을 보면, ‘ㅎ’과 ‘ㄱ/ㄷ/ㄹ/ㅈ’이 만나는 경우에 ‘ㅎ’과 각 자음이 합쳐져 ‘ㅋ/ㅌ/ㄲ/ㅊ’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동-’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면 ‘도코’가 되고, ‘-디’가 결합하였을 때 ‘도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숯-’라는 용언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브-’가 결합하여 ‘슬프-’가 만들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ㅎ’과 다른 음들이 결합하여 격음으로 변화한 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ㅎ’은 또한 ‘ㅅ’ 앞에서는 합쳐져 ‘ㅆ’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넣다’라는 뜻을 지닌 용언 ‘넣-’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이 결합하였을 때, ‘녀쑈-’와 같이 ‘ㅎ’과 ‘ㅅ’이 합쳐져서 ‘ㅆ’으로 변화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ㅎ’은 ‘ㄴ’ 앞에서는 ‘ㄷ’으로 변화합니다. 다만, ‘ㄷㄴ’이 당시에 ‘ㄴㄴ’으로 발음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 발음은 ‘ㄴㄴ’이었겠지만 표기상으로는 ‘ㄷㄴ’으로 나타나므로 ‘ㅎ’이 ‘ㄷ’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넣-’에 ‘-느’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했을 때 ‘넉느’와 같이 ‘ㄷㄴ’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ㅎ’ 뒤에 휴지가 왔을 경우에 그 ‘ㅎ’은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위’를 뜻하는 ‘우ㅎ’라는 단어는 중성으로 ‘ㅎ’을 가지는 단어였는데, ‘우ㅎ’의 ‘ㅎ’은 분명히 소리가 나지만 이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경우, 가령, ‘하늘 우 하늘 아래’와 같은 예에서는 ‘우ㅎ’가 단독으로 실현되어 ‘ㅎ’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ㄴ. △/붕+자음→ㅅ/ㅈ+자음

넋-+-고→넋고, 넋-+-디→넋디, 넋-+-ㄴ-+-니→넋느니(넉느니)

돌-+-고→돕고, 돌-+-디→돕디, 돌-+-ㄴ-+-니→돕느니

(ㄴ)은 ‘△(반치음)’과 ‘붕(순경음 ‘ㅂ’)’이 다른 자음과 결합하는 경우를 보인 것입니다. ‘△’과 ‘붕’은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두 자음 모두 원음 그대로 소리가 나지만, 뒤에 자음이 올 경우에는 각각 ‘ㅅ’과 ‘ㅈ’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가령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넋-’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했을 때, ‘넋고’로 실현되어 ‘△’이 ‘ㅅ’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는 ‘넋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넋느니’와 같이 뒤에 ‘ㄴ’ 소리가 올 때도 역시 ‘ㅅ’으로 변화하는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을 가지던 단어들은 현대 한국어에 와서는 ‘ㅅ’ 불규칙 용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붕’도 마찬가지였는데, ‘돌-’도 ‘붕’을 형태 음소로 가지지만 뒤에 ‘-고’나 ‘-디’ 또는 ‘-ㄴ-’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될 때는 ‘돕고, 돕디, 돕느니’처럼 ‘붕’이 ‘ㅈ’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ㄷ. ‘ㄱ’ 약화 현상

- 용언의 경우: ㄱ, 반모음/j/+ㄱ→ㄲ, 반모음/j/+ㅇ[h]

알-+-고→알오, 알-+-게→알에, 놀-+-거-+-ㄴ→놀언

ㄷ외-+-고→ㄷ외오, ㄷ외-+-게→ㄷ외에, ㄷ외-+-거-+-ㄴ→ㄷ외언

- 체언의 경우: ㄱ, 모음+ㄱ→ㄲ, 모음+ㅇ[h]

나+꺾→나웃, 나+과→나와, 흥+꺾→흥웃음

한편, (ㄷ)에서 보듯이 ‘ㄲ’과 반모음 ‘j’([j]) 뒤에 ‘ㄱ’이 올 경우에 그 ‘ㄱ’은 ‘ㅇ’으로 약화되게 됩니다. 다만, 이때의 ‘ㅇ’은 음가가 없는, 즉 소리 없는 ‘ㅇ’이 아니라 약한 후음

소리를 가진, 즉 유성 후두 마찰음([ɦ])입니다. 이는 세종이 후음이라고 표현했던 소리를 지닌 그 ‘ㅇ’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ㄱ’의 탈락이라고 하지 않고 대개 ‘ㄱ’의 약화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알-’라는 용언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했을 때, 현대 한국어에서는 ‘알고’가 되겠지만, 15세기에는 ‘ㄹ’ 뒤에 ‘ㄱ’이 왔기 때문에 이 ‘ㄱ’은 약화되어 ‘알오’처럼 표기가 됩니다. 다만 ‘ㄱ’이 완전히 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만약 ‘ㄱ’이 완전히 탈락했다면 ‘ㄹ’ 소리가 뒤로 연음되어 ‘아로’처럼 표기가 되었을 텐데, 그렇게 표기되지 않고 ‘알오’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 ‘ㅇ’ 소리가 약간의 자음성을 가지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에 ‘-게’가 결합했을 때 ‘ㄹ’ 뒤에 ‘ㄱ’이 왔기 때문에 ‘ㄱ’이 약화되어서 ‘알게’가 아닌 ‘알에’가 됩니다. ‘ㅇ’이 음가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역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다’라고 할 때, ‘날-’에 해당하는 15세기 단어는 ‘놀-’인데, 여기에 선어말 어미 ‘-거-’가 결합하고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는 ‘놀건’이 아니라 ‘놀언’과 같이 역시 ‘ㄱ’이 약화된 형태로 실현되게 됩니다.

반모음 ‘ㅣ’ 뒤에 ‘ㄱ’이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ㄷ외-’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했을 때 역시 반모음 ‘ㅣ’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ㄷ외오’가 됩니다. 만약에 ‘ㄱ’이 탈락했다면 반모음 ‘ㅣ’ 뒤에 ‘오’가 올 때에는 다른 모음 연결 규칙에 의하여 이 ‘오’가 ‘요’로 바뀌어서 ‘ㄷ외요’로 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ㄱ’이 완전히 탈락한 것이 아니라 약화되었고 ‘ㄷ외오’의 ‘오’에 있는 초성 ‘ㅇ’은 자음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ㄷ외요’로 실현되지 않고 ‘ㄷ외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ㄷ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ㄷ외-’에 ‘-게’라는 연결 어미가 결합했을 때 ‘ㄱ’이 약화되어서 ‘ㄷ외에’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ㄱ’이 탈락되었다면 이것 역시 ‘ㄷ외에’로 표기되었을 것입니다. ‘ㄷ외건’ 또한 마찬가지로 ‘ㄷ외언’으로 실현되어 ‘ㄱ’이 약화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ㄹ’이나 반모음 ‘ㅣ’ 뒤에서 ‘ㄱ’이 약화되는 현상은 체언이나 용언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데 비해 체언의 경우에는 다소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체언에서는 ‘ㄹ’이나 반모음 ‘ㅣ’ 이외에 모든 모음 뒤에서 이 ‘ㄱ’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체언의 경우에는 ‘ㄹ’이나 모음 뒤에서 ‘ㄱ’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는 대명사 뒤에 강세를 나타내는 보조사 ‘곳’이 왔을 경우에 모음 뒤에 ‘ㄱ’이 왔기 때문에 이 ‘ㄱ’은 약화되어 ‘나웃’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공동격 조사 ‘과’가 결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나과’가 될 텐데, 모음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서 ‘나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과’에서 ‘와’로 약화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과’와 ‘와’라는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하여 자음 뒤이나 모음 뒤이나에 따라 번갈아 선택된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만, 여기서는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ㄱ’의 약화로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흐르’라는 명사 뒤에 ‘-씩’, ‘번’과 같은 횟수를 나타내는 보조사 ‘곰’이 결합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음 뒤에 ‘ㄱ’이 왔기 때문에 ‘ㄱ’이 약화되어 ‘흐름’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ㄹ. 동일 모음 탈락

ㅏ+ㅏ→ㅏ, ㅓ+ㅓ→ㅓ, ㅗ+ㅗ→ㅗ, ㅜ+ㅜ→ㅜ, ㅣ+ㅣ→ㅣ
 가-+-아→가, 건너-+-어→건너
 보-+-오되→보되(상거), 주-+-우되→주되(상거)
 머리+ㅣ→머리

15세기 한국어에서는 (ㄹ)과 같이 두 개의 모음이 연결될 때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하

거나, 또는 활음인 반모음 ‘ㅣ’로 바뀌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형태소가 통합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두 모음이 연결될 때 하나가 탈락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모음이 연결될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ㅏ’와 ‘ㅏ’가 결합하면 ‘ㅏ’가 되고 ‘ㅓ’와 ‘ㅓ’, ‘ㅓ’와 ‘ㅓ’, ‘ㅓ’와 ‘ㅓ’, ‘ㅣ’와 ‘ㅣ’ 같이 동일한 모음이 연쇄되는 경우에 하나의 모음으로 축약되게 됩니다. 동사 ‘가-’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면 ‘가’로 실현되게 됩니다. 물론 『석보상절』 같은 문헌에서는 드물게 ‘가아’처럼 표기하는 예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가’로 축약된 형태가 나타납니다. ‘건너-’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해도 역시 ‘ㄴ’이 축약된 ‘건너’로 나타납니다. 또 동사 ‘보-’에 ‘-오디’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결합하였을 때에도 ‘ㅓㅓ’가 축약되어 ‘보디’로 실현됩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보디’에서 ‘보’의 성조가 상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보-’의 ‘보’는 일반적으로 평성이나 거성으로 나타나는데, 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디’의 ‘오’는 거성으로, 이 평성과 거성이 합쳐진 상성으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보디’가 되는 것입니다. 즉, 표기상으로는 ‘ㅓㅓ’가 축약되어서 ‘ㅓ’라는 하나의 모음이 되었지만, 이것이 실제 소리상으로는 길게 실현되는데 앞에는 낮고 뒤에는 높은 소리인 상성으로 나타나 ‘보디’의 ‘보’가 상성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어간 ‘주-’에 ‘-우디’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결합했을 때 ‘ㅓㅓ’가 축약되어 ‘ㅓ’가 한 번만 표기되지만, 실제 발음상으로는 이것이 상성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예는 주격 조사 ‘ㅣ’가 붙어서 ‘머리’가 된 예인데 역시 ‘ㅣㅣ’가 합쳐져 하나의 ‘ㅣ’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ㄱ. ‘ㅡ/·’ 탈락

ㅡ+ㅣ/ㅓ→ㅣ/ㅓ, ·+ㅏ/ㅓ→ㅏ/ㅓ
 ㅛ-+-어→ㅞ, ㅛ-+-우려→뿌려
 ㅛ-+-아→ㅞ아, ㅛ-+-오디→ㅞ디

(ㄱ)은 두 개의 모음이 연속될 때 앞의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ㅡ’와 ‘·’(아래아)가 그렇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ㅛ-’에 ‘-어’가 결합하면, ‘ㅞ’로 나타나 ‘ㅡ’가 탈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세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ㅡ/·’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게 되면, 그 ‘ㅡ/·’는 탈락하였습니다. ‘ㅡ’ 뒤에 ‘ㅣ, ㅓ’가 오거나 ‘·’ 뒤에 ‘ㅏ, ㅓ’가 올 경우에, 그 모음들 앞에서 ‘ㅡ/·’는 탈락하고 나머지 모음들만 남게 됩니다. ‘ㅛ-’에 ‘-어’가 결합한 경우에 ‘ㅡ’가 탈락하여 ‘ㅞ’가 되고 연결 어미 ‘-우려’가 결합했을 때에도 ‘ㅡ’가 탈락하여 ‘뿌려’가 됩니다. ‘ㅛ-’에 ‘-아’가 결합한 경우도 ‘·’가 탈락하여 ‘ㅞ’가 되고, ‘ㅛ-’에 ‘-오디’가 결합해도 마찬가지로 ‘·’가 탈락하여 ‘ㅞ디’가 됩니다. 이는 현대 한국어의 ‘ㅡ’ 탈락과 마찬가지로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ㄴ. 반모음화와 반모음 첨가

ㅣ+ㅏ/ㅓ/ㅓ/ㅓ→ㅓ/ㅓ/ㅓ/ㅓ, ㅓ+ㅏ/ㅓ/ㅓ/ㅓ→ㅓ/ㅓ/ㅓ/ㅓ
 이시-+-아→이샤, 이시-+-어→이셔
 이시-+-오디→이쇼디, 이시-+-우디→이슈디
 보내-+-아→보내야, 보내-+-오디→보내요디

여희-+-어→여희여, 여희-+-음→여희음

(ㅂ)은 ‘ㅣ’ 모음이나 반모음 ‘ㅣ’ 뒤에 ‘ㅏ/ㅑ/ㅓ/ㅕ’가 올 때의 변화에 대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ㅣ’ 모음 뒤에 ‘ㅏ/ㅑ/ㅓ/ㅕ’가 올 경우에는 ‘ㅣ’와 뒤의 모음이 합쳐져 ‘ㅑ/ㅓ/ㅕ/ㅗ/ㅛ’로 실현이 됩니다. 또한 반모음 ‘ㅣ’ 뒤에 ‘ㅏ/ㅑ/ㅓ/ㅕ’가 올 경우에 이 반모음은 그대로 남아 있고 뒤의 모음들이 ‘ㅑ/ㅓ/ㅕ/ㅗ/ㅛ’로 변화합니다. ‘이시-’라는 용언 어간에는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할 수도 있고 ‘-어’가 결합할 수도 있는데, 이는 ‘ㅣ’가 중성 모음이기 때문에 양성·음성이 다 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에 ‘-아’가 결합하였을 때에는 ‘ㅣ’와 ‘ㅏ’가 축약되어 ‘이샤’가 되고 ‘-어’가 결합하면 ‘ㅣ’와 ‘ㅑ’가 축약되어 ‘이셔’가 됩니다. 또 ‘이시-’에 ‘-오디’라는 연결 어미가 결합하면 ‘ㅣ’와 ‘ㅓ’가 축약되어 ‘이쇼디’가 되고 ‘-우디’가 결합하면 ‘이슈디’가 되어 ‘ㅣ’와 ‘ㅏ/ㅑ/ㅓ/ㅕ’가 ‘ㅑ/ㅓ/ㅕ/ㅗ/ㅛ’로 축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모음 ‘ㅣ’뒤에 ‘ㅏ/ㅑ/ㅓ/ㅕ’가 오는 경우입니다. ‘보내-’라는 용언 뒤에 ‘-아’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보내-’의 2음절인 ‘내’의 모음 ‘ㅐ’를 ‘ㅐ’[æ]라고 단모음으로 발음하지만 15세기 당시의 발음은 이중 모음인 ‘ㅏㅣ’[aj]였습니다. ‘보내-’를 15세기 방식으로 읽는다면 [보나이-]가 되겠죠. 다만, 우리가 15세기 자료를 읽을 때 한자음의 경우에도 현대 한자음으로 바꾸어 읽고 ‘.’도 역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ㅏ(윗아)’로 바꾸어 읽으며, ‘ㅏㅣ’나 ‘ㅑㅣ’에 해당하는 ‘ㅐ’와 ‘ㅑ’도 현대 음대로 그냥 읽습니다. 이것은 현대식으로 읽는다는 관행에 따라서 읽는 것일 뿐, 당시 발음은 [보나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에 ‘-아’가 결합하면, ‘보나이야’가 되는데, 이 [보나이야]에서 ‘보내야’로 표기가 되고 ‘-오디’가 결합하면 ‘보내요디’가 됩니다. 또 ‘여희-’에 ‘-어’가 결합하면 ‘여희여’가 되고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하면 ‘여희음’과 같이 실현되어 앞의 반모음은 남고 뒤의 ‘ㅏ/ㅑ/ㅓ/ㅕ’가 ‘ㅑ/ㅓ/ㅕ/ㅗ/ㅛ’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ㅅ. 모음 조화

양성모음: ㅏ ㅑ ㅓ ㅕ ㅣ ㅐ ㅑ

음성모음: ㅓ ㅑ ㅕ ㅗ ㅛ ㅑ ㅑ

중성모음: ㅣ

15세기 한국어에서는 현대 한국어보다 모음 조화가 더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연결 어미 ‘-아/어’라든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명령형 종결 어미 ‘-아/어라’ 정도나 또는 일부의 의성·의태어 정도에서만 모음 조화가 지켜질 뿐입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형태를 가진, 거의 모든 문법 형태소들에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입니다. 현대 한국어의 양성 모음은 ‘ㅏ, ㅑ’, 음성 모음은 ‘ㅓ, ㅕ’가 대표적입니다만, 중세 한국어에서의 양성 모음은 ‘ㅏ, ㅑ, ㅓ, ㅕ’, ‘ㅑ, ㅓ’, ‘ㅣ’, ‘ㅐ’, ‘ㅑ’ 정도를 들 수 있는데, ‘ㅣ’는 ‘ㅏ’가 될 텐데 그냥 [애]라고 읽고 ‘ㅐ’는 ‘ㅏ’에 ‘ㅣ’가 붙은 것입니다. 음성 모음은 ‘ㅓ, ㅑ, ㅕ, ㅗ, ㅛ, ㅑ, ㅑ’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닌 중성 모음으로 ‘ㅣ’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중성 모음 뒤에는 양성 모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음성 모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언인 경우에는 중성 모음 ‘ㅣ’ 뒤에 양성

모음 계통의 조사가 쓰이는 경우가 많고, 용언인 경우에는 중성 모음 ‘ㅣ’ 뒤에 음성 모음 계통의 어미가 쓰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는 문법 형태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는 문법 형태소

- 보조사 ‘은/은/는/는’
- 목적격 조사 ‘을/을/를/를’
- 관형격 조사 ‘의/의’
- 부사격 조사 ‘애/에’, ‘의/의’, ‘으로/으로’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으시-’
- 연결 어미 ‘-아/어’
-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아/어-’
- 선어말 어미 ‘-오/우-’
- 명사형 어미 ‘-옵/옵’
- 연결 어미 ‘-오/우디’, ‘-오/우려’
- 관형사형 어미 ‘-은/은’, ‘-옵/옵’
- 기타 매개 모음을 가지는 모든 형태소: ‘-으/으니’, ‘-으/으며’ 등

(○)은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는 문법 형태소 목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보조사 ‘은/는’이 있습니다. 모음 조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은’의 이형태로서 ‘은’, ‘는’의 이형태로서 ‘는’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은/는/는’의 네 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목적격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한국어의 ‘을/를’에 해당하는데, ‘을’의 모음 조화 형태 ‘을’, ‘를’의 모음 조화 형태 ‘를’이 존재합니다. 관형격 조사는 현대 한국어에 ‘의’만 존재하는데, 이 ‘의’의 짝으로서 ‘-’에 대해 ‘·’가 존재하여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있었습니다. 부사격 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에’가 있는데, 15세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에’(ㄷㅣ)가 있었고, 그에 대한 모음 조화 짝인 ‘에’(ㅌㅣ), ‘애’도 존재합니다. 이들 외에도 ‘의’라고 하는 형태의 부사격이 특수하게 나타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는 역시 ‘-’에 대응하여 ‘·’가 쓰인 ‘의’가 또 존재하며, ‘으로’라는 형태에 대해서는 ‘으로’가 존재합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또한 마찬가지로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습니다. ‘-으시-’라는 형태가 있는데, ‘-’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짝인 ‘·’가 쓰여서 ‘-으시-’라는 형태도 존재하였습니다. 연결 어미 ‘-아/어’는 현대 한국어와 동일합니다. 또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거-’의 이형태로서 ‘-아/어-’가 나타납니다.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거-’는 ‘-아/어-’라고 하는 이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교체 조건에 대해서는 문법사적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 밝혀지기는 했지만, 문법사 연구 초기에는 많은 수수께끼에 싸여 있던 주체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밝혀진 사실은 ‘-거-’라고 하는 형태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또는 자동사 뒤에 나타나고 ‘-아/어-’라고 하는 형태는 타동사 뒤에 쓰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초기 연구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이상한 기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분명히 이것을 나누어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아/어-’라는 것은 타동사 뒤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타동사 뒤에 ‘-거-’의 이형태 ‘-아/어-’가 실현될 때 이들은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양성 모음 뒤에는 ‘-아-’로, 음성 모음 뒤에는 ‘-어-’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어말 어미 ‘-오/우-’도 역시 모음 조화에 따라 교체됩니다.

또한, 명사형 어미의 경우에 현대 한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음’이지만 중세 한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여기에 ‘오/우’가 더 붙어 ‘-음/음’의 형태로 실현되었는데, 이들 역시 모음 조화에 따라 교체가 되었습니다. 연결 어미 ‘-오/우더’, ‘-오/우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연결 어미는 반드시 ‘오/우’가 앞에 결합하여 나타납니다. 이 ‘오/우’는 기원적으로는 선어말 어미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15세기 공시적으로 ‘-더’라든지 ‘-려’가 단독으로 어미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더’, ‘-오려’ 자체를 하나의 형태소, 즉 연결 어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나타나는 ‘오/우’도 역시 모음 조화에 따라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는 ‘-은’, ‘-을’이었는데, 그에 대한 모음 조화 짝인 ‘-은’과 ‘-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매개 모음을 가지는 모든 형태소들은 ‘-’가 모음 조화에 따라 ‘·’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으)니’라든지 ‘-(으)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이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는 문법 형태소들이라고 한다면,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법 형태소들도 존재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들이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드물게는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모음 조화에 따르지 않는 형태들도 있었습니다.

ㄱ.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법 형태소

- 호격 조사 ‘아’
- 부사격 조사 ‘와/과’, ‘예’
- 보조사 ‘도’, ‘사’
- 복수 접미사 ‘-들’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술/줄-’
- 감동 선어말 어미 ‘-도/돏/웃-’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
-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더-’, ‘-거(어)-’
- 연결 어미 ‘-고(오)’
- 부사형 어미 ‘-고(의)/게(예)’, ‘-드록’
- 평서형 종결 어미 ‘-다’
- 청유형 종결 어미 ‘-고라(오라)’
- 소망형 종결 어미 ‘-고저(오저)’

우선 호격 조사 ‘아’가 있습니다. 호격 조사 ‘아’는 모음으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모음 조화에 따라 ‘어’로 교체되는 일이 없이 항상 ‘아’로만 실현되었습니다. 부사격 조사 ‘와/과’도 모음 조화에 따라 교체되지 않는 예인데, ‘와’라고 하는 형태가 혹시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에서 ‘ㄱ’이 약화된 형태이고, 그 ‘ㅇ’이 음가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사격 조사 ‘예’의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ㅣ’ 모음 뒤에 쓰이면서 ‘ㅼ(ㅿㅣ)’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ㅼ(ㅿㅣ)’로만 나타나며 모음 조화에 따르지 않습니다. 보조사 ‘도’나 ‘사’도 마찬가지로 모음 조화의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모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들입니다.

복수 접미사 ‘-들ㅎ’,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술-’도 같습니다. 이 ‘-술-’은 세 가지 이형태로 나타나는데, 초성이 ‘ㄱ/ㄷ/ㅈ’으로 나타나는 예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들이어서 모음 조화에 따르지 않습니다.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도/뒵/웃-’도 역시 모음 조화에 따르지 않습니다. ‘-도-’와 ‘-뒵-’은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모음 조화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웃-’은 모음으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모음 조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독특해 보입니다만, 대개는 선어말 어미 ‘-느-’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음성 모음 뒤에 쓰일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의 경우도 모음 조화에 따르지 않았습니니다.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더-’, ‘-거-’도 모음 조화에 따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는 타동사가 아닌 환경에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ㄹ’이나 반모음 ‘ㅣ’ 뒤에서는 ‘ㄱ’이 약화된 형태인 ‘-어-’로 실현될 수 있었는데, 그때의 ‘ㅇ’은 완전한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서 음가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 또는 그 ‘-거-’에서 ‘ㄱ’이 약화된 ‘-어-’도 모음 조화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타동사 뒤에 나타나는 ‘-어/아-’의 경우에는 모음 조화에 따릅니다. 같은 이형태이지만 비(非)타동사인 타동사인가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고 모음 조화에 따르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어미 ‘-고’ 역시 ‘-오’로 약화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모음 조화에 따르지 않고 부사형 어미 ‘-기’ 또는 ‘-게’ 역시 ‘ㄱ’이 약화되더라도 모음 조화에 따르지 않습니다. ‘-도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서형 종결 어미 ‘-다’, 청유형 종결 어미 ‘-고라’, 소망형 종결 어미 ‘-고저’ 또한 모음 조화에 따르지 않는 문법 형태소입니다.

2. 현대 한국어에 없는 어간 발음을 가지는 체언

이어서 체언과 용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언과 용언은 현대 한국어와 비슷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다만, 현대 한국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대 한국어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 한국어에 없는 어간 발음을 가지는 체언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현대 한국어에는 어간 발음이 ‘ㄷ, ㅎ, ㄹ, ㅁ, 시’와 같은 체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는 이러한 발음을 가지는 체언이 존재하였습니다. 먼저, 어간 발음이 ‘ㄷ’인 명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이 그 목록입니다.

- (1) 곧(處), 굴(坑), 긴(柱), 낱(穀), 텃(恒), 문(兄), 문(釘), 벗(友), 분(筆), 빗(債), 뜻(志)

‘곧’은 ‘장소’를 뜻하는 체언입니다. ‘굴’은 ‘구덩이’, ‘긴’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낱’은 ‘곡식 낱알’이라고 할 때의 ‘낱’이고 ‘텃’이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요소로, ‘어느덧’이라고 할 때의 ‘덧’을 뜻합니다. ‘문’은 ‘만아들’에서 ‘만-’의 15세기 형태이고 ‘뭇’은 ‘뭇을 박는다’고 할 때의 ‘뭇’을 의미합니다. ‘벗’은 ‘친구’를 나타내는 말이고 ‘분’은 ‘붓으로 쓴다’고 할 때의 ‘붓’을 뜻합니다. ‘빚’은 ‘빚을 졌다’라고 할 때의 ‘빚’을 의미하고 ‘뜻’은 ‘사람의 뜻’이라고 할 때의 ‘뜻’을 가리킵니다.

이런 단어들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ㅅ’이나 ‘ㅈ’ 등으로 변화하였지만 중세 한국어에서 이

들은 발음이 ‘ㄷ’이었습니다. 다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날알’의 ‘날’과 같은 어근, 또는 ‘만아들’의 ‘만-’과 같은 접두사 정도에만 ‘ㄷ’이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국어사전에는 ‘날’이라고 하는 ‘ㄷ’을 받침으로 하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날’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날’이라는 단어는 ‘만-’과 같이 단어로서의 용법은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표기법상으로는 ‘ㄷ’을 받침으로 가지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디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기법상의 문제일 뿐, 실제 발음이 ‘ㄷ’인 것은 아닙니다. 이는 표준 발음법에서 ‘디글’이라는 단어에 ‘이’나 ‘을’과 같은 조사가 붙었을 때, 그 발음을 [디그시], [디그슬]로 하라고 정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ㄷ’이 진정한 ‘ㄷ’이었다면 [디그지], [디그들]처럼 발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현대 한국인은 [디그시], [디그슬]과 같이 발음하기 때문에, ‘디글’이라는 단어가 인공적으로 글자 이름을 정하기 위해 ‘ㄷ’으로 끝내도록 만들어 놓은 단어이지, 실제 그 받침(발음)이 ‘ㄷ’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대 한국어에는 ‘ㄷ’으로 끝나는 명사가 없어 현대 한국인은 그것을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 한국인의 문법 속에는 그렇게 발음하는 체계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ㅅ’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발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외래어가 한국에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out’이라는 단어가 ‘o, u, t’, [t]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아우트] 또는 [아운]과 같이 ‘ㄷ’으로 발음이 나지만, 그것이 모음과 연결될 때에는 ‘아웃을[아우슬]’, ‘아웃이[아우시]’처럼 ‘ㅅ’으로 바뀌는 것에서 형태 음소가 ‘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받침에 ‘ㄷ’을 쓰지 않고 ‘ㅅ’을 쓰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 또 실제 발음이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 ‘ㄷ’ 받침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고, 실제 발음도 ‘ㄷ’이었다고 하겠습니다.

(2) 마늘(陰), 마술(秋), 갈(刀), 겨울(冬), 고(鼻), 긴(纓), 길(道), 낙물(菜), 날(刃), 나(年), 나라(國), 나조(夕), 내(川), 네(四), 노(繩), 니마(額), 둘(等), 돌(石), 둘(二), 뒤(後), 드르(野), 뜰(庭), 따(地), 마(薯), 마술(村), 모(方), 뫼(山), 불(臂), 바다(海), 살(肉), 세(三), 수(雄), 수(藪), 안(內), 알(卵), 암(雌), 열(十), 올(今年), 우(上), 움(窟), 출(源), 흥나(一), 하늘(天)

두 번째로 어간 발음이 ‘ㅎ’인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간 발음이 ‘ㅎ’인 단어들은 꽤 숫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ㅎ’을 제외한 발음이 ‘ㄴ, ㄷ, ㄹ’과 같은 공명 자음이거나 모음으로 끝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ㅎ’을 어간 발음으로 가지면서 ‘ㅎ’을 제외한 발음이 ‘ㄱ, ㄷ, ㅂ, ㅈ’인 명사가 존재하였다면, 앞서 살펴본 음운 변화 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ㄱ, ㄷ, ㅂ, ㅈ’으로 축약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ㅎ’이 발음으로 남지 않고 ‘ㄱ, ㄷ, ㅂ, ㅈ’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ㄴ, ㄷ, ㄹ’과 같은 유성 자음 또는 모음 뒤에서만 ‘ㅎ’ 발음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에 제시된 목록이 바로 ‘ㅎ’ 발음을 가지는 명사들입니다.

(2)에 제시된 것들은 대개는 고유어들입니다만, 이러한 고유어 외에도 한자 차용어에서 기원하였다고 추정되는 ‘더ㅎ’는 ‘피리’라는 뜻인데 ‘笛(적)’이라는 한자에서 온 것입니다. ‘쇼ㅎ’는 ‘속세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俗(속)’이라는 한자에서 바뀐 것입니다. 또 ‘요ㅎ’는 ‘담요’나 ‘요를 깬다’고 할 때의 ‘요’인데, ‘褥(욕)’이라는 한자에서 바뀐 것입니다. 이 단어의 15세기

발음은 ‘쇼ㅎ’입니다. 그리고 ‘한 자, 두 자’ 또는 ‘자로 무엇을 쟀다’라고 할 때의 ‘자’는 15세기에 ‘자ㅎ’였는데, 이는 ‘尺(자 척)’ 자에서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ㅎ’ 발음을 가지는데, 이것들은 모두 기원적으로 한자어에서 기원하였고 그 한자어는 ‘ㄱ’ 발음을 가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한자어의 종성 ‘ㄱ’이 약화되어 ‘ㅎ’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 체언들은 단독형이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ㄱ’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어간 발음 ‘ㅎ’이 그 조사의 초성과 합쳐져 ‘ㅋ’이나 ‘ㅌ’으로 실현되고 모음이나 매개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ㅎ’이 연음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가을’의 선대형인 ‘ᄃᄡᆞᆫ’의 예를 들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 ㄱ. ᄃᄡᆞᆫ 오매 興이 甚히 기도다 <두시언해 20: 35ㄴ>
- ㄴ. ᄃᄡᆞᆫ 아오글 글히니 쑤 새롭도다 <두시언해 7: 38ㄱ>
- ㄷ. 겨스리어든 보듯 불휘를 ㅅᄃᄡᆞᆫ ᄃᄡᆞᆫ 너르미어든 습니플 ㅅᄃᄡᆞᆫ <구급간이방 7: 84ㄱ>
- ㄷ. 邊方ㅅ ᄃᄡᆞᆫ ㅎᄃᄡᆞᆫ ㅎᄃᄡᆞᆫ 그러고 소리로다 <두시언해 8: 36ㄴ>
- ㄹ. 보미 오며 ᄃᄡᆞᆫ 가매 ㄴᄃᄡᆞᆫ 지비 ㄷ외엿느뇨 <두시언해 8: 42ㄱ>

(3ㄱ)은 『두시언해』의 예입니다. ‘ᄃᄡᆞᆫ’과 같이 단독형으로 나타났을 때 ‘ㅎ’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ㄴ)의 ‘ᄃᄡᆞᆫ 아오글’은 ‘가을의 아욱’인데, 관형격 조사 ‘ㅅ’ 앞에서 역시 ‘ㅎ’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ㄷ)은 의학서인 『구급간이방』에 나타난 예인데, ‘ᄃᄡᆞᆫ’은 ‘ᄃᄡᆞᆫ’이라는 명사에 ‘과’라고 하는 공동격 조사가 결합했을 때 ‘ㅎ’이 뒤의 ‘ㄱ’과 축약되어 ‘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ㄷ)은 모음 앞에서 ‘ㅎ’이 실현된 예로, ‘ᄃᄡᆞᆫ’에 처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ᄃᄡᆞᆫ’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3ㄹ)도 마찬가지로 ‘ᄃᄡᆞᆫ’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ᄃᄡᆞᆫ’으로 ‘ㅎ’이 실현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ㅎ’ 발음을 가지는 체언들의 일부는 (4)에 보인 것처럼 15세기에 부분적으로 ‘ㅎ’이 소실되어 나타나지 않은 예가 이미 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휘에 따라서는 19세기 말까지도 ‘ㅎ’ 발음을 유지한 예도 존재합니다. 즉, 체언 어간 말 ‘ㅎ’의 소멸은 15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4) ㄱ. 봄과 ᄃᄡᆞᆫ 두 ㅅᄃᄡᆞᆫ ᄃᄡᆞᆫ 가놋다 <두시언해 17: 25ㄴ>
- ㄴ. 이스른 陰澤이니 ᄃᄡᆞᆫ ᄃᄡᆞᆫ <능엄경언해 7: 13ㄴ>

(4ㄱ)을 보면, 위의 (3ㄷ)에는 ‘ᄃᄡᆞᆫ’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ㅎ’이 실현되지 않고 그냥 ‘ᄃᄡᆞᆫ’으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ㄴ)의 예도 원래대로라면 ‘ᄃᄡᆞᆫ’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 ‘ㅎ’이 사라진 ‘ᄃᄡᆞᆫ’으로 나타났습니다. (4)의 예에서는 이미 15세기에 ‘ᄃᄡᆞᆫ’이라는 단어가 ‘ㅎ’이 실현되지 않고 소실된 예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이러한 체언 어간 말의 ‘ㅎ’은 일반적으로는 소실됩니다만, ‘ㅅᄃᄡᆞᆫ’ 같은 단어는 ‘ㅅᄃᄡᆞᆫ’으로 표기되어 그 ‘ㅎ’이 ‘ㅇ’으로 흔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 ‘세ㅎ, 네ㅎ’ 같은 경우에는 ‘셋, 넷’으로 표기되는 것처럼 ‘ㅎ’이 ‘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섯, 여섯’ 등에 유추되어 일어난 변화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갈ㅎ’이라는 단어는 ‘갈’로, ‘고ㅎ’이라는 단어는 ‘코’로, ‘발ㅎ’이라는 단어는 ‘팔’로, 초성의 ‘ㄱ, ㅂ’이 ‘ㅋ, ㅍ’으로

변화하였는데, 그것은 뒤에 있던 ‘ㅎ’이 사라지면서 앞에 흔적을 남겨 어두를 격음화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ㅎ’을 말음으로 가지던 명사들의 흔적은 ‘암ㅎ, 수ㅎ, 살ㅎ, 안ㅎ’ 등이 합성어를 형성할 때 남아 있기도 합니다. 가령 ‘암ㅎ’에 ‘닭’이 결합했을 때 ‘암닭’이 된다든지, ‘수캐, 살코기, 안팎’처럼 합성 명사들에 그 ‘ㅎ’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간 말음이 ‘ㄷ, ㅌ, 시’인 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ㄱ. ㄷ (>돌)

ㄴ. ㄹ (>알)

ㄷ. ㅂ (>뽀), ㅊ (>똥, 똥자리), ㅍ (>뽀), ㅅ (>종자)

(6) ㄱ. 目連의 神通力이 눈 알핀 뵈습고 <월인천강지곡 50ㄴ>

ㄴ. 누는 알과 견과 보고 뒤흘 몬 보며<월인석보 17: 57ㄱ>

ㄷ. 글 쓰디 알 곧ㅎ니라 <법화경언해 4: 27ㄴ>

(5ㄱ)의 ‘ㄷ’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돌’로 표기하여 ‘ㅌ’을 쓰지 않습니다만, 1988년에 맞춤법 개정 이전까지는 그냥 ‘ㄷ’ 받침인 ‘돌’과 ‘ㄷ’ 받침인 ‘똥’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현대에 와서는 그 단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여 ‘ㄷ’ 받침을 쓰는 ‘똥’은 폐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 ‘돌’이라는 단어가 어간 말에 ‘ㄷ’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몇 돌을 맞이해서’라고 할 때 나타나는 예입니다. (5ㄴ)의 ‘알’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ㄴ’이 탈락하여 ‘ㄹ’으로 표기되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형태 음소가 ‘ㄴ’과 ‘ㄹ’이 같이 실현된 ‘알’이었습니다. 이 ‘알’은 (6ㄱ)과 같이 모음 앞에서는 ‘ㄴㄹ’이 모두 실현되었으나, (6ㄴ, ㄷ)에서 볼 수 있듯 자음이나 휴지 앞에서는 ‘ㄴ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해 비해 ‘시’를 말음으로 가지는 단어들은 좀 독특한 양상을 보입니다. (5ㄷ)에 제시된 ‘바깥’의 의미를 가지는 ‘뽀’, ‘똥을 달다’라고 할 때 ‘똥’의 의미를 가진 ‘똥’, 그리고 ‘똥자리’의 ‘똥’에 해당하는 ‘똥’, 모두 말음의 형태는 ‘시’으로 같습니다. 또 ‘콩팥’이라고 할 때의 ‘팥’에 해당하는 ‘팥’, ‘종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뽀’와 같은 단어들이 어간 말에 ‘시’를 가진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 양상은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7) ㄱ. 뽀긔 그르메 琉璃 ㄱ터시니 <월인천강지곡 6ㄱ>

ㄴ. 즘은 머리는 뽀로 向향ㅎ니 <월인석보 20: 31ㄱ>

ㄷ. 내 龍王入 뽀門 자븐 죠이로라 <월인석보 22: 44ㄱ>

ㄷ. 城 뽀 흰흔 짜해 가 <석보상절 6: 27ㄴ>

‘시’는 (7ㄱ, ㄴ)에서와 같이 모음 앞에서는 ‘ㅌ’과 ‘ㄱ’이 모두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7ㄷ, ㄷ)에서와 같이 자음이나 휴지 앞에서는 ‘ㅌ’만이 실현되었습니다. (7ㄱ)의 ‘뽀긔’는 ‘뽀’이라는 명사에 ‘의’라는 처격 조사가 결합한 것인데, ‘뽀긔’으로 표기되어 ‘ㅌ’과 ‘ㄱ’이 모두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ㄴ)의 ‘뽀로’ 역시 ‘뽀’에 ‘으’가 결합한 것으로, ‘ㅌ’과 ‘ㄱ’이 모두 실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ㄷ)의 ‘뽀門(문)’처럼 뒤에 자음이 올 경우에 ‘ㄱ’은 실현되지 않고 ‘뽀’으로만 실현됩니다. 그리고 (7ㄷ)의 ‘城(성) 뽀 흰흔 짜ㅎ’와 같이 뒤에 휴지가 오는 경우에도 ‘ㄱ’은 실현되지 않고 ‘ㅌ’만 실현되었습니다. 이 ‘뽀’이라는 단어는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뽀’으로 변화하였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유일하게 ‘ㄱ’

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명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똥을 달다’라고 할 때 ‘똥’을 뜻하는 ‘똥’은 현대 한국어에서 말음이 ‘ㅈ’으로 변화하였고 ‘똥자리’에서 ‘똥’이라는 합성어의 일부로만 남아 있는 ‘똥’은 단독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기상으로는 그냥 ‘ㅈ’만 표기됩니다. 한편, ‘뽕’이라는 단어는 소멸하여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고, ‘팥’을 의미하는 ‘팥’의 ‘ㅈ’은 ‘ㅌ’으로 변화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즉, 어간 말음으로 ‘ㅈ’을 가지던 명사들이 일부는 ‘ㄱ’으로, 또는 ‘ㅈ’이나 ‘ㅌ’으로, 또 합성어의 일부에 남게 되었을 경우에는 ‘ㅈ’으로만 나타나는 등 다양한 변화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3. 체언의 불규칙적 교체

계속해서 체언의 불규칙적 교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에는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불규칙적인 교체를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는 현대 한국어와 달리 불규칙한 교체가 일부 체언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불규칙한 교체는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나모(木), 구무(穴), 불무(冶爐); 녀느(他)’¹⁾ 유형

－ 모음 앞에서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된 어형으로 교체됨.

나모+이→남기, 구무+을→굶글, 불무+의→븸기, 녀느+은→년근

(나) ‘아스(弟), 여스(狐), 무수(蘿蔔)’²⁾ 유형

－ 모음 앞에서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된 어형으로 교체됨.

－ 이때 ‘ㄱ’은 ‘△’ 뒤에서 약화되어 유성의 후두 마찰음인 ‘ㅇ’[h]으로 실현됨.

아스+이→앗이, 여스+이→엿이, 무수+이라→뭇이라

(다) ‘ㄱ르(粉), 노르(獐), 느르(津), 시르(飢), 즈르(柄), 자르(袋)’³⁾ 유형

－ 모음 앞에서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된 어형으로 교체됨.

－ 이때 ‘ㄱ’은 ‘ㄴ’ 뒤에서 약화되어 유성의 후두 마찰음인 ‘ㅇ’[h]으로 실현됨.

ㄱ르+으로→굴으로, 노르+이→놀이, 느르+이→놀이

시르+의→실의, 즈르+을→줄을, 자르+이→잘이

(라) ‘므르(棟), 흐르(一日)’⁴⁾ 유형

－ 모음 앞에서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ㄴ’이 첨가된 어형으로 교체됨.

므르+이→몰리, 흐르+을→홀을

첫 번째는 (가)에 제시된 ‘나모, 구무 불무; 녀느’ 유형입니다. 이들은 모음 앞에서 어간 말 모음 ‘ㄱ, ㅌ, ㅍ’ 등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된 어형으로 교체가 됩니다. ‘나모’라는 단어에 ‘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였을 때 어간 말 모음 ‘ㄱ’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남기’와 같이 실현되고 ‘구무’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면 ‘ㅌ’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굶글’이 됩니다. ‘불무’에 처격 조사 ‘의’가 결합했을 때에는

1) ‘나모’, ‘구무’, ‘불무’, ‘녀느’는 각각 ‘나무’, ‘구멍’, ‘풀무’, ‘다른 것, 여느 것’이라는 뜻을 지닌 중세 한국어의 체언이다.

2) ‘아스’, ‘여스’, ‘무수’는 각각 ‘아우’, ‘여우’, ‘무’라는 뜻을 지닌 중세 한국어의 체언이다.

3) ‘ㄱ르’, ‘노르’, ‘느르’, ‘시르’, ‘즈르’, ‘자르’는 각각 ‘가루’, ‘노루’, ‘나루’, ‘시루’, ‘자루(손잡이)’, ‘(포대) 자루’라는 뜻을 지닌 중세 한국어의 체언이다.

4) ‘므르’, ‘흐르’는 각각 ‘(대청) 마루’ 또는 ‘(산)마루’, ‘하루’라는 뜻을 지닌 중세 한국어의 체언이다.

‘구무’와 같이 ‘ㅌ’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끓기’가 되며, ‘녀느’라는 단어에 ‘은’이라는 보조사가 결합하게 되면, ‘ㅡ’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넌근’과 같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아스, 여스, 무수’ 유형입니다. 이들도 (가)의 체언과 마찬가지로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됩니다. 다만, 이 ‘ㄱ’은 ‘△’ 뒤에서 약화되기 때문에 유성 후두 마찰음인 ‘ㅇ’으로 실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다면, 어간 말 모음 ‘ㅌ’는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앗기”가 될 텐데, ‘△’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앗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만, ‘ㄱ’이 약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뒤로 연결되지 못하고, ‘앗이’의 형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스’에 처격 조사 ‘이’가 결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엿기”가 되었을 텐데, ‘ㄱ’이 약화되어 ‘엿이’가 되고 또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연결되지 못하고 ‘엿이’의 형태로 실현된다고 하겠습니다. ‘무수’ 역시 ‘이라’라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했을 때 “뭉기라”가 되지만, ‘ㄱ’이 약화되어 ‘뭉이라’가 되는데, ‘△’이 연결되지 못하고 ‘뭉이라’로 분절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에 제시된 ‘ㄱㄹ, 노ㄹ, 느ㄹ, 시ㄹ, 즈ㄹ, 자ㄹ’ 유형입니다. (다) 유형도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게 되면 ‘ㄹ’이 남게 되는데, ‘ㄹ’ 뒤의 ‘ㄱ’은 약화되기 때문에 ‘ㅇ’으로 실현이 됩니다. ‘ㄱㄹ’이 ‘ㅇ로’라는 조사와 결합했을 때 ‘굴ㅇ로’가 되는데, ‘ㄱㄹ’의 어간 말 모음 ‘ㅌ’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굴ㄱ로”가 되어야 하지만, 첨가된 ‘ㄱ’이 ‘ㄹ’ 뒤에서 약화되기 때문에 ‘굴ㅇ로’로 실현되었습니다. ‘노ㄹ’에 ‘이’가 결합한 형태는 ‘놀이’로 표기되고 ‘이’가 결합한 형태는 ‘놀이’가 됩니다. ‘시ㄹ’은 ‘(떡 찌는) 시루’를 가리키는데, ‘시ㄹ’에 ‘의’가 결합하면 ‘실의’가 됩니다. ‘즈ㄹ’은 ‘칼자루’라는 단어에서 보듯 ‘손잡이’라는 의미입니다. ‘즈ㄹ’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면, ‘ㅌ’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지만, 그 ‘ㄱ’이 약화되어 ‘줄을’로 실현되고 ‘자ㄹ’은 ‘(포대) 자루’의 의미로, 이 ‘자ㄹ’은 ‘이’가 결합하였을 때 ‘잘이’와 같이 실현되는데, 어간 말 모음(‘ㅌ’)이 떨어지고 역시 ‘ㄱ’이 첨가되지만 그 ‘ㄱ’이 약화된 형태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는 예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라)에 제시된 ‘ㄱㄹ, ㅎㄹ’ 유형입니다. (라) 유형의 예들은 (다)와 같이 ‘ㄹ/르’로 끝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교체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라) 유형의 체언들은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떨어지고 ‘ㄱ’이 아니라 ‘ㄹ’이 첨가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가)~(다)의 세 가지 유형은 모두 ‘ㄱ’이 첨가되는 예들인 데 비해 (라) 유형은 ‘ㄹ’이 첨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ㄱㄹ’은 ‘(대청) 마루’라는 뜻도 되고 ‘산마루’의 ‘마루’라는 뜻도 되는데, 이 ‘ㄱㄹ’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을 때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떨어지고 ‘ㄹ’이 첨가되어 ‘물리’와 같이 실현됩니다. ‘ㅎㄹ’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였을 때 ‘ㅌ’가 탈락하고 ‘ㄹ’이 첨가되어 ‘홀ㄹ’과 같이 교체가 됩니다.

위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의 체언들은 어간 말 모음이 같은 ‘아모, 어느, 즈스’ 등과 비교해 볼 때 특수한 교체를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아모, 어느, 즈스’ 등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도 ‘아피, 어니, 즈식’과 같이 나타나, (가)~(라) 유형에 속하는 체언들과 같이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들에 ‘이’가 결합하였을 때, 굳이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제시된 (가)~(라)의 예들은 모음과 결합할 때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나 ‘ㄹ’이 첨가되기 때문에,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한 체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체언들의 특징은 모두 두 번째 음절의 성조가 평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아모, 어늬, 즈스’ 등을 보시면, 두 번째 음절의 성조가 거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는 체언의 불규칙적 교체는 두 번째 음절이 성조가 평성이면서 ‘ㄱ, ㄴ, ㄷ, ㄹ’과 같은 초성에 모음이 ‘·/ㅡ’일 때, 그러한 불규칙적 교체가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모, 구무, 불무’의 경우에는 어간 말 모음이 ‘·/ㅡ’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규칙적 교체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들은 기원적으로는 *나므, *구므, *불므와 같은 형태였지만, 선행 자음 ‘ㄱ’ 때문에, ‘·/ㅡ’가 ‘ㅇ’나 ‘ㅌ’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원적으로는 이들도 역시 ‘·/ㅡ’를 가진 단어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수’의 경우에도 기원적인 형태는 *무스’였고, 앞에 오는 ‘ㅌ’라는 모음 때문에 2음절의 모음 ‘ㅡ’가 ‘무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다)의 예들은 더 기원적으로는 어간 말음에 ‘·/ㅡ’ 또는 ‘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형태가 기본형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통시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자음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의 자음이 탈락한 형태가, 모음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의 모음이 탈락한 형태가 쓰이게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무는 기원적으로 *나목’이었는데, 이것이 ‘나모’와 ‘남’의 형태로 남게 된 것이라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막신’ 같은 단어에서 *나목’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라)의 형태들은 기원적으로 어간 말 음절이 ‘ㄹ’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헝’라는 단어는 기원적으로는 *헝’이라는 형태였고, 그것이 ‘헝’ 또는 ‘홀’의 형태로 변화한 것이라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의 예들과는 조금 다른 교체를 보이는 체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문대명사 ‘므스/므스/므스’의 예입니다.

- (마) ㄱ. 므스고 <금강경삼가해 2: 41ㄱ>, 므스 거스로 <월인석보 14: 36ㄴ>
 ㄴ. 므숯 罪오 <월인석보 1: 7ㄱ>, 므숯 이룰 <석보상절 6: 27ㄱ>
 ㄷ. 므스기 어려보료 <석보상절 11: 20ㄱ>, 므스글 앓기로 <월인석보 7: 28ㄴ>, 므스 스로 供養헝려뇨 <원각경언해 하3-1: 88ㄱ>, 므스그라 煙霧로 드러가느뇨 <두시언해 22: 39ㄴ>
 ㄹ. 므습 그를 ㄱ르초려 헝시느고 <석보상절 3: 8ㄴ>, 므습과 곧헝뇨 <육조법보단경언해 中: 6ㄴ>, 므습만 너기시리 <월인천강지곡 상: 45ㄱ>, 내 사라 므습헝료 <석보상절 24: 42ㄱ>, 므습 들홀 브트뇨 <육조법보단경언해 하: 44ㄴ>, 므스므라 오시니잇고 <석보상절 6: 3ㄱ>

(마ㄱ)의 예에서 보듯이 의문 대명사 ‘므스/므스/므스’은 ‘ㄱ’이나 휴지 앞에서는 ‘므스’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마ㄴ)에서와 같이 관형격 조사 ‘ㅅ’ 앞에서는 ‘므스’란 형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ㄷ)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므스’이라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ㄹ)은 ‘므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예를 보여 주고 있는데, 자음, 휴지, 또는 모음 앞에 모두 ‘므습’이라는 형태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므습’이 모음 앞에 쓰인 형태는 ‘므스므라’가 유일하고 *므스미, *므스믈, *므스메, *므스므로’와 같은 형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음이나 매개 모음 조사 앞에 쓰인 예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므스므라’는 ‘무엇 하러’

라는 의미로 미루어 보아 (구문) 자체가 어휘화된 용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므슴’과 ‘므슴’이라는 형태가 공존하는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이들 의문 대명사와 통합하는 조사나 이들이 나타나는 환경이 ‘므스그라, 므스므라’를 제외하고는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한편, 말음이 /l/인 체언들 가운데 관형격 조사 ‘의/의’와 호격 조사 ‘아’ 앞에서 말음 /l/가 탈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1) ㄱ. 그러기 올히는 기리 혜요미 맛당히니 <두시언해 7: 9ㄱ>
- ㄴ.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악장가사 만전춘별사>
- ㄷ. 물애 우헛 올히 샷기논 어미를 바라셔 즈오느다 <두시언해 10: 8ㄴ>

(1)에서는 그러한 체언 중에 ‘올히’의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1ㄱ)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오리’에 해당하는 ‘올히’가 ‘올히’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ㄴ)에서는 그 ‘올히’라는 형태가 호격 조사 ‘아’와 결합할 때, ‘올하’로 ‘l’가 탈락한 형태가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ㄷ)의 ‘올히 샷기’는 ‘오리의 새끼’라는 뜻인데, ‘올히’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했을 때, ‘올히’로 ‘l’가 탈락한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 (2) ㄱ. 李舟는 일흠난 아비와 아들왜니 <두시언해 8: 19ㄱ>
- ㄴ. 千金을 주리여 處容 아바 <악학궤범 처용가>
- ㄷ. 아드리 아비 나해서 곱기곰 사라 <월인석보 1: 47ㄴ>

(2)의 예는 ‘아비’의 예입니다. (2ㄱ)에서는 ‘아비와’와 같이 ‘아비’라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ㄴ)에서는 ‘處容(처용) 아바’에서 보듯이 ‘아비’라는 형태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하였을 때 ‘아바’로 실현되었고 (2ㄷ)에서는 ‘아버지의’라는 뜻으로 ‘아비’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였을 때 ‘l’가 탈락하고 ‘아비’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격 조사나 관형격 조사와 결합할 때 ‘l’가 탈락하는 명사들은 (3)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 (3) ㄱ. 가히, 두루미, 툇기, 올히, 수리, 꽃고리, 머구리, 가야미, 저비, 가치, 고기
- ㄴ. 아비, 어미, 어버시(어버이), 한아비, 할미, 며느리, 아기, 아즈미, 아자비, 오라비, 노릇바치(노릇바치)
- ㄷ. 령울>너구리, 그럭>그러기, 두텃>두터비, 풀>프리, 부형>부형이, 남샹>남샹이, 굶병>굶병이, 올창>올창이

(3ㄱ)은 주로 동물에 관한 명사들이고, (3ㄴ)은 사람에 관한 명사들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기원적으로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들로 추정됩니다. 즉, 15세기 공시적으로는 ‘l’가 붙은 형태가 기본형이고 관형격이나 호격에서 ‘l’가 탈락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통시적 관점에서는 이들 명사의 기본형은 ‘l’가 없는 형태이고 나중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3)과 같은 어형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관형격과 호격에서는 보수성으로 인하여 그 기원적인 형태가 남아 계속 쓰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 뒤에 ‘-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게 되는데, 이것이 격 조사와 결합할 때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납니다.

	15세기 한국어	현대 한국어
주격	目連이	성철이가
목적격	目連이를	성철이를
관형격	目連의	성철이의
호격	目連아	성철아

15세기 한국어에서는 ‘目連(목련)이’ 주격이고, 목적격은 ‘目連이를’, 관형격은 ‘目連의’, 호격은 ‘目連’처럼 ‘-이’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비해 현대 한국어에서는 ‘성철’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 주격에서는 ‘성철이가’, 목적격에는 ‘성철이를’, 관형격에서는 ‘성철이의’와 같이 접미사 ‘-이’가 나타나는데, 호격에서는 이 ‘-이’가 탈락하여 ‘성철아’로 나타납니다. 즉, ‘성철’이라는 이름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그것이 조사와 통합할 때 현대 한국어에서는 호격에서만 실현되지 않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호격과 관형격에서 모두 실현되지 않았는데, 이는 호격과 관형격이 더 고형을 유지한 형태이므로, 보수성으로 인한 것이라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3ㄷ)은 『훈민정음해례』에는 접미사 ‘-이’가 붙어 있지 않은 어형으로 나타나지만, 후대 문헌에서 ‘-이’가 붙은 어형을 보여 주는 예들입니다. 따라서 접미사 첨가가 일어난 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접미사 첨가가 중세 한국어 시기에 일어났다면, 이들도 역시 ‘ㅣ’ 탈락 명사로 쓰였을 것입니다. 다만, 이 단어들이 문헌에 나타난 예가 적어 조사가 결합할 때 ‘-이’가 탈락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목록만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늙그니’(老人), ‘病흐니’(病人) 등과 같이 의존명사 ‘이’가 들어 있는 단어들의 경우도 ‘늙그니’, ‘病(병)흐니’처럼 ‘ㅣ’ 탈락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단어들 역시 ‘늙근, 病흔’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ㄴ’이 기원적으로는 동명사형 어미이고 후대에 의존 명사 ‘이’가 덧붙어서 형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관형격에서는 보수적인 형태의 ‘늙그니’, ‘病흐니’가 쓰인다고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3)과 같은 예들에 유추되어 ‘ㅣ’ 탈락형이 쓰였다고 설명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말의 ‘ㅣ’ 탈락 현상을 보이는 특수한 명사로 ‘가지’(枝)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나뭇가지’의 ‘가지’인데, 이 ‘가지’의 처격형이 『용비어천가』에서는 ‘가재’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가지’도 기원적으로는 ‘*갓’이었고 여기에 접미사 ‘-이’가 붙은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3)에 제시된 단어들처럼 유정 체언이 아니기 때문에 15세기에 와서는 이 단어가 ‘*갓+-이’라는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의 ‘가재’라는 유일례를 제외하고 15세기에 ‘가지’의 처격형은 일반적으로 ‘가지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세기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는 주격형과 관형격형이 겹으로 실현되는 형태는 같지만 성조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주격	관형격
1인칭	내(거성)	내(평성)
2인칭	네(상성)	네(평성)
3인칭 재귀	제(상성)	제(평성)
미지칭	뉘(거성)	뉘(상성)

1인칭 대명사 ‘내’는 거성일 경우에는 주격, 평성일 경우에는 관형격이 됩니다. 2인칭 대명사 ‘네’도 ‘내’와 비슷한데, 상성일 경우에는 주격, 평성일 경우에는 관형격입니다. 3인칭 재귀 대명사로 쓰이는 ‘제’는 2인칭 대명사 ‘네’와 같이 상성일 경우 주격, 평성일 경우 관형격이 됩니다. 이 셋은 관형격이 평성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지칭의 ‘뉘’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뉘’는 주격일 경우에는 거성이고 관형격일 경우에는 상성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관형격형은 ‘내’이지만 “罪福이 내의 짓는 배라 호고 <월인석보 11: 120ㄱ>”와 같이 ‘내의’로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또는 “물읏 나의 依와 正괘 몬져 根身이 아니며 쏘 器界 아니라(凡我의 依와 正괘 先非根身이며 亦非器界라) <능엄경언해 3: 63ㄴ>”와 같이 ‘나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자는 흔히 주어적 속격, 속격은 관형격의 다른 말인데, 주어적 관형격 구문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자는 구결문에 ‘我(아)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것은 구결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한문의 구결이나 번역과 관련하여 나타난 것으로서 당시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나’의 관형격형은 ‘내’이면서 평성인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내의’나 ‘나의’로 나타나는 것은 번역상의 문제로 나타난 특이한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인 ‘뉘’는 의문 대명사 ‘누’에 ‘ㅣ’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라는 대명사가 쓰이는데, 이 ‘누구’라는 단어는 15세기에 존재하였던 의문 대명사 ‘누’에 의문 조사 ‘고’가 결합하여 ‘누고’라는 형태가 만들어졌고, 이 ‘누고’라는 형태가 변화하여 오늘날 ‘누구’라는 대명사가 형성되었습니다.

4. 용언의 규칙적 활용

다음은 용언의 규칙적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간 말음이 자음인 용언 중에서 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것들은 현대 한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15세기에는 현대 한국어와 달리 8종성이었기 때문에 어간 말음이 ‘ㅅ, ㅈ, ㅊ’인 경우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 ‘ㄷ’이 아니라 ‘ㅅ’으로 실현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말음을 가지는 용언들의 경우에 ‘ㄷ’으로 교체가 되겠지만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이들이 ‘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현대 한국어에는 없는 어간 말음을 가지는 용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현대 한국어에 대한 지식으로 유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따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ㄱ. ㅅ>ㅅ: ㅅ- , ㅅ- , ㅅ- , ㅅ- , ㅅ- , ㅅ- , ㅅ- , ㅅ-

ㄴ. ㅅ>ㅅ: ㅅ- , ㅅ- , ㅅ- , ㅅ- , ㅅ- , ㅅ-

ㄷ. ㅅ>ㅅ: ㅅ- , ㅅ- , ㅅ- , ㅅ- , ㅅ- , ㅅ-

ㄷ. ㄸ>ㅌ: ㄹ-

ㅌ. ㅌ>ㅌㅌ: ㄹ-

ㄱ'. ㄱ-+-아→고ㅍ>고와

ㄱ-+-고→곱고

ㄴ'. ㄴ-+-어→니서

ㄴ-+-고→넉고

ㄷ'. ㄷ-+-아→닷가

ㄷ-+-고→닷고

ㄹ'. ㄹ-+-아→맞아

ㄹ-+-줄-+-으란티→맞즈븄란티

(ㄱ)과 같이 어간 말음이 ‘ㄹ’인 경우에 자음 어미 앞에서는 ‘ㄴ’으로 교체가 됩니다. 즉, 모음 어미 앞에서는 ‘ㄹ’이 유지가 되지만 자음 어미 앞에서는 ‘ㄴ’으로 교체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용언들은 ‘ㄹ’이 소실됨으로 인하여 현대 한국어에 와서는 대체로 ‘ㄴ’ 불규칙 용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다만 ‘ㄹ-’와 ‘ㄹ-’ 같이 ‘ㄹ’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던 용언들은 이 ‘ㄹ’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ㄹ’으로 변했기 때문에 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용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ㄴ)은 어간 말음이 ‘ㄷ’인 용언의 예를 제시한 것인데, (ㄴ)과 같은 용언들은 어간 말의 ‘ㄷ’이 자음 어미 앞에서 ‘ㅌ’으로 교체됩니다. 물론 모음 어미 앞에서는 ‘ㄷ’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들도 현대 한국어에 와서는 ‘ㄷ’의 소실로 인하여 대체적으로 ‘ㅌ’ 불규칙 용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다만, ‘ㅌ-’, ‘ㅌ-’와 같은 용언들은 어간 말음이 ‘ㅌ’으로 변하여 현대 한국어에서는 규칙 용언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15세기에 ‘ㄷ’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던 용언들은 대체로는 ‘ㅌ’ 불규칙 용언으로 변화하였지만 일부 용언의 경우에는 규칙 용언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이한 예가 하나 있는데, 현대 한국어의 ‘줍-’는 중세 한국어에서는 어간 말음이 ‘ㄷ’인 ‘중-’이었습니다. 이 ‘중-’는 다소 특이한 변화를 거쳐 현대 한국어의 ‘줍다’로 변화하였습니다. 어간 말음으로 ‘ㄷ’을 가지던 ‘중-’에 연결 어미 ‘-어’가 통합하면 ‘주서’라는 형태가 될 텐데, 활용형 ‘주서’에서 ‘ㄷ’이 소실되게 되면서 ‘주어’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2음절의 모음 ‘ㅈ’이 1음절의 모음 ‘ㅈ’의 영향으로 반모음이 삽입(혹은 원순성 동화)되어 ‘주워’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워’라는 형태와 ‘도와, 구워’와 같은 활용형이 유사하다는 점에 유추하여 “‘주워’도 ‘도와, 구워’와 같은 유형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의 어간은 ‘둑-’이고 ‘구워’의 어간은 ‘굽-’이므로, ‘주워’의 어간은 아마 ‘줍-’일 것이라라고 유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워’라는 형태를 ‘줍-+-어’라고 오분석(잘못 분석)함으로써, 현대 한국어의 ‘줍-’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대 한국어에서 ‘줍-’는 불규칙 용언 같은 형태의 활용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ㄷ)의 예는 어간 말음이 ‘ㅌ’인 용언들인데, 자음 어미 앞에서는 이들이 ‘ㅌ’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모음 어미 앞에서는 ‘ㅌㅌ’이 모두 실현될 수 있지만 자음 어미 앞에서는 ‘ㅌ’이 탈락하여 ‘ㅌ’으로만 실현이 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 같으면 ‘ㄷ’으로 실현되었겠지만 15세기 한국어에서는 8종성이었기 때문에 ‘ㅌ’이라는 형태가 어간 말에 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이들은 모두 어간 말음이 ‘ㅌ’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ㄹ)의 어간 말음인 ‘ㄸ’도 자음 어미 앞에서는 ‘ㅌ’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ㄸ’ 그대로 실현이 되었는데, 어간 말음이 ‘ㄸ’인 용언은 유일하게 ‘ㄹ-’가 있었습니다. ‘ㄹ-’는 현대 한국어의 ‘임무를 맡다’라고 할 때 ‘ㅌ’ 받침을 쓰는 ‘맡다’로 남아 있는데, 이 ‘ㄸ’은 독특하게 현대 한국어의 ‘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ㄱ)은 ‘ㄱㅏ’를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용언의 예인데, (ㄴ)의 ‘ㄴㅏ’처럼 ‘ㄴ-’가 유일한 예입니다. 이 용언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ㄱㅏ’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ㄱㅏ’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ㄴ-’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움즈리다, 움즈러들다’ 정도에만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움즈러들다’는 ‘ㄴ-’에서 파생된 ‘*움출-’라는 어간에 ‘-어 들다’가 다시 결합하여 ‘움즈러들다’라는 형태가 형성되었습니다. ‘움즈리다’라는 형태는 좀 독특한데, ‘ㄴ-’에 ‘-을-’이라고 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것입니다. ‘-을/을-’이라는 접미사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더하지도 않고 통사 범주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미사의 기능이 무엇인가는 좀 미상입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이와 같이 ‘움즈러들다’에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수그러들다, 우그러들다, 쭈그러들다’ 등이 있는데, 이들은 기원적으로 ‘숙-, 옥-, 쪽(<죽)-’라는 단어로부터 접미사 ‘-을-’과 결합하고 다시 ‘-어 들다’가 결합하여 ‘수그러들다, 우그러들다, 쭈그러들다’와 같은 형태들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어간 말음이 모음인 용언 중에서 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것들은 역시 현대 한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에서 ‘뜨-’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면 ‘떠’가 되는데, 이는 중세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간 말음이 ‘-’인 용언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면 ‘-’가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세기에는 모음 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음 ‘-’가 다른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면, ‘-’의 모음 조화 짝인 ‘·’ 역시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현대 한국어에는 ‘-’ 탈락이라는 규칙이 존재하는데, 중세 한국어에는 ‘-’ 탈락뿐만이 아니라 ‘·’ 탈락도 존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는 다른 모음과 만날 때 그것이 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간 말음이 모음인 용언 중에 특이한 예로, 현대 한국어에서 유일한 ‘ㅌ’ 불규칙 용언 ‘푸-’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이 어형은 ‘프-’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 활용형이 ‘프고, 프니, 퍼서’와 같이 나타났는데, 어간 말음이 ‘-’였기 때문에 ‘프-’는 ‘-’ 탈락을 보이는 규칙 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경에 원순 모음화라는 음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ㄱ, ㄴ, ㄷ’과 같은 자음 뒤에 모음 ‘-’가 올 때, ‘-’가 ‘ㅌ’로 변화하는 현상이 원순 모음화입니다. 18세기에 원순 모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프-’라는 형태가 ‘푸-’로 변화하였고 ‘프고, 프니, 퍼서’와 같은 15세기의 어형이 ‘푸고, 푸니, 퍼서’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 설명에서는 ‘ㅌ’가 탈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것을 ‘ㅌ’ 탈락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기원적으로 ‘-’ 탈락 용언이었던 것이 원순 모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어형이 변화하였지만, ‘퍼서’의 경우 과거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ㅌ’ 탈락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 용언의 불규칙적 활용

마지막으로 용언의 불규칙적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한국어에서 어간 말음이 자음인 용언 중에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것들은 현대 한국어의 ‘ㄷ’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ㄷ’ 불규칙 용언은 15세기에도 역시 불규칙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간 말음이 자음인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ㅂ’ 불규칙이나 ‘ㅅ’ 불규칙, ‘ㅎ’ 불규칙 같은 것들이 더 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모두 근대

한국어 시기 이후에 불규칙으로 고정된 것이고 15세기 당시에는 모두 규칙적 교체를 보이던 것들이었습니다. 즉, 어간 말음이 ‘ㅃ’이었던 용언들은 자음 어미 앞에서 ‘ㅃ’으로, ‘ㅅ’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것들은 자음 어미 앞에서 ‘ㅅ’으로 교체되는 규칙적 교체를 보이고 있었는데,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ㅃ’과 ‘ㅅ’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들이 모두 불규칙 용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15세기에는 ‘ㅃ’ 불규칙이나 ‘ㅅ’ 불규칙 같은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ㅎ’ 불규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ㅎ’ 탈락을 보이지 않던 규칙적인 활용을 보이던 것들이었는데,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 ‘ㅎ’ 불규칙 용언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15세기에 ‘ㅃ’ 불규칙, ‘ㅅ’ 불규칙, ‘ㅎ’ 불규칙 활용을 하던 용언은 존재하지 않았고 자음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불규칙 용언으로서는 ‘ㄷ’ 불규칙이 유일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ㄷ→ㄷ: 걷-, 뜯-, 묻-, 흔-, 일궜-

걷-+-고→걸고, 걷-+-어→거러, 걷-+-으니→거르니

이러한 ‘ㄷ’ 불규칙 용언은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모음이나 매개 모음 어미 앞에서 ‘ㄷ’이 ‘ㄱ’로 교체가 됩니다. ‘걷-’, ‘뜯-’, ‘묻-’, ‘흔-’, ‘일궜-’ 등이 ‘ㄷ’ 불규칙 용언의 예인데, 자음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인 ‘ㄷ’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모음 어미 앞에서는 ‘ㄷ’이 ‘ㄱ’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용언이 표기법적으로 실현될 때에는 모음 어미 앞에서 ‘ㄱ’이 연철되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실현된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걷-’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걷-’에 ‘-고’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걸고’처럼 ‘ㄷ’이 그대로 실현되지만, ‘-어’나 ‘-으니’와 같은 모음이나 매개 모음 어미가 결합될 때에는 ‘거러’, ‘거르니’와 같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들을 분철하겠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연철한다는 차이점만 존재할 뿐이고 활용 양상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간 말음이 모음인 용언 중에서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로서는 어간 말음이 ‘ㅍ/ㅑ’, ‘ㅍ/ㅑ’, ‘ㅍ/ㅑ’인 형태이면서 대개 2음절 어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2음절 어간이 성조적으로 대개 ‘평성-평성’, 즉 첫째 음절도 평성이고 둘째 음절도 평성인 용언들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언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체언의 유형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앞서 배운 내용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용언들의 예들을 살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 ‘시므-(植), 즈믄-(鎖)’⁵⁾ 등

-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된 어형으로 교체됨.

- ‘심ㅑ-, 줌ㅑ-’

시므-+-옴→심곰, 즈믄-+-아→ضمام

(나) ‘그스-(引), 브스/브스-(碎), 비스-(扮)’⁶⁾ 등

-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된 어형으로 교체됨.

5) ‘시므-’, ‘즈믄-’는 각각 ‘심다’, ‘잠그다’는 뜻을 지닌 중세 한국어의 용언이다.

6) ‘그스-’, ‘브스/브스-’, ‘비스-’는 각각 ‘끌다’, ‘부수다’, ‘꾸미다’는 뜻을 지닌 중세 한국어의 용언이다.

- 이때 ‘ㄱ’은 ‘△’ 뒤에서 약화되어 유성의 후두 마찰음인 ‘ㅇ’[h]으로 실현됨.
- ‘굵ㅇ-, 붓/붓ㅇ-, 빗ㅇ-’
 그스-+-어→굵어, 벅스-+-아→붓아, 비스-+-음→빗음
- (다) ‘게으르-(怠), 고르-(均), 그르-(誤), 기르-(養), 니르-(謂), 다르-(異), 두르-(圍), 바르-(直), 오르-(上)’ 등
-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된 어형으로 교체됨.
- 이때 ‘ㄱ’은 ‘ㄷ’ 뒤에서 약화되어 유성의 후두 마찰음인 ‘ㅇ’[h]으로 실현됨.
- ‘게을ㅇ-, 골ㅇ-, 글ㅇ-, 길ㅇ-, 널ㅇ-, 달ㅇ-, 둘ㅇ-, 발ㅇ-, 올ㅇ-’
 게으르-+-어→게을어, 니르-+-오디→널오디, 다르-+-아→달아, 오르-+-음→올음
- (라) ‘모르-(不知), 모르-(退), 쉼르-(速), 부르-(演), 부르-(呼), 흐르-(流)’ 등
-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ㄷ’이 첨가된 어형으로 교체됨.
- ‘물르-, 물르-, 쉼르-, 불르-, 흘르-’
 모르-+-음→물름, 쉼르-+-아→쉼라, 흐르-+-어→흘러

첫 번째 유형은 (가)에 제시된 것처럼 ‘ㄱ’ 뒤에 ‘·/ㅡ’가 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라)에 제시된 용언 어간의 성조는 ‘평성-평성’이고 이러한 용언들은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는 어형으로 교체가 됩니다. 가령, (가)의 ‘시르-’에 ‘-음’과 같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했을 때 어간의 마지막 모음 ‘ㅡ’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심곰’과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즈르-’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면 역시 어간의 마지막 모음 ‘·’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즘가’와 같은 형태로 실현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나)에서 보듯이 ‘그스- 벅스/브스-, 비스-’와 같이 ‘△’ 뒤에 ‘·/ㅡ’가 오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는데, (가) 유형과 동일한 교체가 일어납니다. 다만, 이때 ‘ㄱ’은 ‘△’ 뒤에서 약화되어 유성의 후두 마찰음 ‘ㅇ’으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표기상 분철이 되어서 ‘ㅇ’으로 실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그스-’라는 용언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했을 때 어간 말 모음 ‘ㅡ’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면, “굵거”라는 형태가 됩니다. 다만 ‘△’ 뒤에서 ‘ㄱ’은 약화되어 ‘굵어’와 같이 실현되는데, 이때의 ‘ㅇ’은 음가를 가진 유성의 후두 마찰음 ‘ㅇ’이기 때문에 ‘△’이 뒤로 연결되지 않고 분철되어 ‘굵어’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벅스-’ 역시 연결 어미 ‘-아’가 결합했을 때 ‘·’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붓가”란 형태가 되겠지만, 그 ‘ㄱ’은 ‘△’ 뒤에서 약화되어 ‘붓아’라는 형태로 실현됩니다. ‘비스-’는 ‘꾸미다’라는 뜻을 지닌 용언입니다. 현대 한국어에 ‘설빔’이라고 할 때 ‘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빔’은 바로 ‘비스-’의 명사형 ‘비숍’이라는 형태에서 ‘△’이 사라지고 ‘ㅍ’가 탈락함으로써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꾸미다’라는 뜻의 ‘비스-’에서 온 단어가 바로 ‘빔’입니다. 이 ‘비스-’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할 경우, 똑같이 ‘ㅡ’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빗곰”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인데, ‘△’ 뒤에서 ‘ㄱ’은 역시 약화되기 때문에 ‘빗음’과 같은 형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다)에 제시된 ‘게으르-, 고르-, 그르-, 기르-, 니르-, 다르-, 두르-, 바르-, 오르-’와 같은 용언들로, ‘ㄷ’ 뒤에 ‘·/ㅡ’가 오는 것들입니다. 역시 2음절, ‘게으르-’는 3음절이지만 대개 다른 용언들은 모두 2음절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이 대개 ‘평성-평성’의 성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앞의 것들과 동일합니다. 이들 역

시 모음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된 어형으로 교체가 됩니다. 다만, 이때 ‘ㄱ’은 ‘ㄷ’ 뒤에서 약화되어 유성의 후두 마찰음인 ‘ㅇ’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다)의 ‘게으르-’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할 경우에 어간 말 모음 ‘-’는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게을거”와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ㄷ’ 뒤에서 ‘ㄱ’은 약화되기 때문에 ‘게을어’로 실현되는데, 이때 ‘ㅇ’은 음가를 가진 ‘ㅇ’, 즉 ‘ㄱ’이 약화된 ‘ㅇ’이기 때문에 연결되지 못하고 분절되어서 ‘게을어’와 같은 형태로 실현이 됩니다. ‘니르-’에 연결 어미 ‘-오’가 결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절 말 모음 ‘-’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어 “닐고”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인데, ‘ㄷ’ 뒤에서 ‘ㄱ’은 역시 약화되어 ‘닐오’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다르-’에 ‘-아’가 결합한 경우 또한 동일합니다. 2음절 말의 모음 ‘-’가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지만 그 ‘ㄱ’은 약화되어 ‘달아’와 같이 실현됩니다. ‘오르-’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절 말 모음 ‘-’는 탈락하고 ‘ㄱ’이 첨가된 다음 ‘ㄱ’은 ‘ㄷ’ 뒤에서 약화되어 ‘울음’과 같은 형태로 실현되게 됩니다.

마지막 유형은 ‘모르-, 모르-, 썩르-, 부르-, 부르-, 흐르-’와 같은 용언으로, (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르-’는 ‘뭉가 불어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사람을 부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지금 ‘불어나다’의 의미를 가진 ‘부르-’이고, 뒤의 것은 ‘사람을 부르다’의 ‘부르-’입니다. (라)에 제시된 용언들의 형태는 마지막 음절이 초성 ‘ㄷ’에 ‘-’/‘-’가 온다는 점, 즉 ‘르/르’로 끝난다는 점에서 (다) 유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 유형은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는 용언들이라면, (라) 유형의 용언들은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아닌 ‘ㄷ’이 첨가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러한 예를 우리는 체언의 불규칙적 교체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르/르’로 끝나는 체언들의 경우에도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거나 ‘ㄷ’이 첨가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용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간이 ‘르/르’로 끝나는 경우에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는 유형도 있고, ‘ㄷ’이 첨가되는 유형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용언들이 (다)와 같은 교체를 보이고 또는 어떠한 용언들이 (라)와 같은 교체를 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각각의 단어들이 어떠한 교체를 보이는가를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불규칙적 교체인 것입니다. (라)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할 경우에 어간 말 모음 ‘-’가 탈락하고 (다)에서는 ‘ㄱ’이 첨가되는 데 비해 이 (라) 유형의 용언들은 ‘ㄷ’이 첨가되어 ‘몰름’과 같은 형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썩르-’에 ‘-아’가 결합한 경우도 어간 말 모음 ‘-’가 탈락하고 ‘ㄷ’이 첨가되어 ‘썩러’로 실현됩니다. ‘흐르-’에 ‘-어’가 결합하는 경우도 어간 말 모음 ‘-’가 탈락하고 ‘ㄷ’이 첨가되어 ‘흘러’와 같이 됩니다. ‘흘러’는 현대 한국어와 똑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다) 유형의 용언들과 (라) 유형의 용언들이 크게 구별되어 쓰였던 것이 15세기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 유형을 보이는 단어들은 근대 한국어 시기에 들어서면서 ‘ㄷㄱ’에서 약화된 ‘ㄷㅇ’ 형태에 다시 ‘ㄷ’이 첨가된 형태, 즉 (라)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로 와서는 (다)와 (라)의 유형들이 모두 합류되어서 ‘ㄷㄷ’로 교체를 보이는 유형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용언들로서 동사 ‘흐-’와 서술격 조사 ‘이-’가 있습니다. 먼저 ‘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흐-’는 자음이나 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ㅣ’라는 모음이 더 첨가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ㅣ’가 더 첨가되는 것이 아

나라, ‘ㅎ-’의 어간이 기원적으로는 ‘*히-’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원적인 형태가 ‘*히-’였다라고 파악을 하게 되면, 자음 어미 앞에서는 왜 ‘ㅣ’가 탈락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세기 한국어에서 ‘ㅎ-’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ㅣ’가 첨가(또는 개재)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ㅎ-’의 교체 양상

- 자음 어미: ㅎ-+-고→ㅎ고, ㅎ-+-디→ㅎ디
- 매개 모음 어미: ㅎ-+-으니→ㅎ니, ㅎ-+-으며→ㅎ며
- 모음 어미: ㅎ-+-아→ㅎ야, ㅎ-+-음→ㅎ욤, ㅎ-+-오디→ㅎ요디

‘ㅎ-’에 ‘-고’와 같은 어미, 즉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ㅎ고’와 같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가 결합하면 ‘ㅎ디’가 되어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개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ㅎ-’에 ‘-으니’가 결합해도 매개 모음이 실현되지 않게 되어 ‘ㅎ니’로 실현됩니다. ‘-으며’가 결합할 때에도 매개 모음이 실현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ㅎ며’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이 ‘ㅎ-’라는 용언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할 경우, 일반적인 규칙대로라면 ‘·/ㅡ’는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가 탈락하고 ‘ㅏ’의 형태를 가진 ‘하’라는 형태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ㅎ-’라고 하는 기본 동사는 ‘ㅎ’이란 자음만 남게 되어 동사 어간이라는 속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즉, 동사 어간이 하나의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자음 하나로 실현된다면, 그것을 하나의 형태소라고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ㅎ-’라는 어간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ㅎ-’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할 때 ‘·’가 탈락하지 않고 그 어간을 유지하기 위해, 즉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반모음 ‘ㅣ’가 개재함으로써 모음 충돌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ㅎ아가 아니라 ‘ㅎ야’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ㅎ-’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가 탈락하면 ‘흠’이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15세기에는 ‘흠’이라는 형태도 쓰이기는 하였습니다. 어간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간의 형태소적 특징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흠’과 같은 형태는 그것이 ‘ㅎ-’의 활용형이라는 것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 실제로 ‘·’가 탈락한 예도 많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 탈락하지 않는 현상도 보입니다. 즉, ‘ㅎ-’에 ‘-음’이 결합할 때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반모음 ‘ㅣ’가 개재되어 ‘ㅎ욤’과 같은 형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ㅎ-’에 ‘-음’이 결합할 때 ‘·’가 탈락한 ‘흠’이라는 형태도 출현하고 그 ‘·’가 탈락하지 않고 모음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반모음 ‘ㅣ’가 더 들어간 ‘ㅎ욤’이라는 형태도 같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15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ㅎ욤’이라는 형태는 드물게 나타나고 ‘흠’이라는 형태가 더 일반적으로 나타나기는 합니다. ‘ㅎ-’에 연결 어미 ‘-오디’가 결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 탈락하여 ‘호디’와 같은 형태로 실현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를 유지하기 위해 반모음 ‘ㅣ’가 더 첨가되어 ‘ㅎ요디’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15세기에는 ‘호디’, ‘ㅎ요디’가 공존하고 있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호디’ 쪽이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술격 조사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ㄹ’이 개재됩니다. 위에서 살핀 ‘ㅎ-’의 경우에 모음 어미 앞에서 ‘ㅣ’가 개

재될 때, 그것을 ‘ㅣ’가 개재된다고 보지 않고 ‘ㅎ-’의 어간이 기원적으로 “*히-”였을 것이라 하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격 조사 ‘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더 개재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기원적으로 ‘이-’의 어간이 “*일-”였다고 추정하는 견해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ㅎ-’의 경우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ㅎ-’의 어간이 기원적으로 “*히-”였다고 했을 때, 자음 어미 앞에서 왜 이 반모음 ‘ㅣ’가 탈락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의 경우도 ‘이-’의 어간이 기원적으로 “*일-”였다고 가정한다면, 왜 이 “*일-”의 ‘ㄹ’이 자음 어미 앞에서 탈락했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ㄹ’이 더 개재(첨가)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는 형태가 ‘ㅣ’로 끝나기 때문에 중성 모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성 모음 뒤에는 양성 모음이 올 수도 있고 음성 모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 뒤에는 음성 모음이 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성 모음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의 실제 활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의 활용 양상

- 모음 어미: ‘ㄹ’이 첨가됨.

이-+-아→이라, 이-+-옴→이름, 이-+-오-+-다→이로라

- ‘이-’ 뒤: ㅸ→ㄹ

이-+-다→이라, 이-+-더-+-다→이러라, 이-+-도-+-다→이로다

서술격 조사 ‘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할 경우에 ‘ㄹ’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이라’라는 형태로 실현되게 됩니다. 명사형 어미 ‘-옴’이 결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옴’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이므로, ‘ㄹ’이 첨가되어 ‘이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고 그 뒤에 종결 어미 ‘-다’가 올 때에도 ‘ㄹ’이 첨가되면 ‘이로다’가 아니라 ‘이로라’가 되는데, 이는 선어말 어미 ‘-오-’ 뒤에서 ‘ㅸ’이 ‘ㄹ’로 교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오-+-다’라는 형태가 결합했을 때 그것이 ‘이로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술격 조사 뒤에 양성 형태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지만 음성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다만, 연결 어미 ‘-아’의 형태가 ‘-어’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옴’이나 ‘-오되’에 포함된 ‘오’가 ‘우’로 나타난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옴’이 결합하면, ‘이옴’이 아니라 ‘이름’으로 실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고 그 뒤에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면, ‘이오다’가 ‘이로라’로 실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루라’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예는 거의 드물고, 대개는 양성 형태가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라’라고 하는 형태는 좀 독특한 형태로, 현대 한국어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 ‘내로라(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중세 한국어에서 ‘나+이-(서술격 조사)+-오-(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나’와 ‘이로라’가 통합하였기 때문에 ‘내로라’와 같은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대 한국어의 ‘내

로라'라고 하는 형태를 현대인들이 형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내놓으라'와 같이 바꾸어 잘못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15세기 한국어의 서술격 조사의 활용 양상을 알고 있다면 '내로라'라고 하는 형태가 1인칭 대명사 '나'에 '이로라'라고 하는 형태가 통합하여 만들어진 구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는 'ㄷ'이 'ㄹ'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종결 어미 '-다'가 올 경우에 'ㄷ'이 'ㄹ'로 바뀌어서 '이라'라는 형태로 실현됩니다. '이도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술격 조사 '이-'에 선어말 어미 '-더-'가 결합하고 그 뒤에 종결 어미 '-다'가 올 경우에 '이-' 뒤에서 'ㄷ'은 'ㄹ'로 교체되어 '이러'가 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선어말 어미 '-더-' 뒤에서 또 'ㄷ'이 'ㄹ'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이더다'라는 형태도 '이러라'와 같은 형태로 실현됩니다. 서술격 조사 '이-'에 감동(감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도-'가 결합하고 그 뒤에 종결 어미 '-다'가 올 경우에도 'ㄷ'이 'ㄹ'로 바뀌어서 '이로다'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게 됩니다.

위에서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연결 어미 '-아'가 올 때에는 'ㄹ'이 첨가되어 '이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종결 어미 '-다'가 올 때도 그 'ㄷ'이 'ㄹ'로 바뀌므로써 '이라'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연결 어미 '-아'가 오는 형태나 종결 어미 '-다'가 오는 형태가 모두 표면적으로는 '이라'라는 형태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15세기 문헌을 읽을 때에는 이 '이라'라는 형태를 '이-+-아'로 분석할 것인가, '이-+-다'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라'라는 형태가 연결에 쓰인 것인지, 종결에 쓰인 것인지를 파악해서 이것이 '이-+-아'인지, '이-+-다'인지를 판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연결 어미 '-아/어'와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이시-'가 결합한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이시-'는 환경에 따라서 '잇-'로 실현되기도 하고, '시-'로 실현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결합한 형태들은 하나의 구성을 형성하였고 그것이 점차 발전하여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라고 하는 형태는 모음이나 매개 모음 어미 앞에 나타나는 형태이고 '잇-'는 자음 어미 앞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시-'는 경우에 따라서 그냥 '시-'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즉, 모음이나 매개 모음 어미 앞에서는 '이시/시-'로, 자음 어미 앞에서는 '잇-'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재 동사 '이시-'의 교체 양상

- ㄱ. 혼갓 지비 안자 이시면 <금강경삼가해 1: 26ㄴ>
- ㄴ. 괴외히 안자시면 <육조법보단경언해 상: 68ㄱ>, 罪 니버 벼슬하야쇼매 <두시언해 21: 45ㄱ>
- ㄷ. 호오사 안자 잇더시니 <월인석보 1: 6ㄱ>
- ㄹ. 精舍애 안갓더시니 <월인석보 1: 2ㄴ>
- ㅁ. 붉 브렛 비는 하늘 우희 안갓는 듯 하니 <두시언해 11: 11ㄱ>

(ㄱ)은 매개 모음 어미 앞에서 '-아 이시-'의 형태가 쓰인 예입니다. '았-'라고 하는 용언에 연결 어미 '-아'가 오고 그 뒤에 '이시-'가 결합하여 '안자 이시면'과 같이 원래의 형태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ㄴ)의 '안자시면'은 '았-'에 연결 어미 '-아', 그다음에 '이시-'가 아니라 '시-'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 시-' 형태, 즉 '이시-'가 '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벼슬하야쇼매' 역시 '벼슬하-'에 연결 어미 '-

아’, 그 뒤에 ‘시-’, 그리고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하여 ‘숨’으로 실현된 것인데, ‘벼슬하야 이쇼매’라고 할 것을 ‘벼슬하야쇼매’, 즉 모음 어미 뒤에서 ‘시-’의 형태가 쓰인 것입니다. (ㄷ)은 자음 어미 앞에 ‘잇-’라는 형태가 실현된 예입니다. ‘앗-’에 연결 어미 ‘-아’, 그리고 ‘-더-’라고 하는 자음 어미 앞에서 ‘잇-’이 실현되어 ‘안자 잇더시니’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 잇-’의 형태는 축약되어서 ‘-앓-’이라는 형태로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ㄹ)에서는 ‘안자 잇더시니’라고 할 것을 ‘-아’와 ‘잇-’이 결합하여 ‘안잣더시니’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현대식으로 ‘안잣더시니’라고 제가 읽었습니다만, 15세기 당시의 발음은 ‘ㅼ’(ㅅㅅ)가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었기 때문에 ‘안자잇더시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ㄷ)이나 (ㄹ)은 하나의 음절이나, 두 개의 음절이나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 발음은 거의 유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안자 잇더시니’라는 형태가 ‘안잣더시니(안자잇더시니)’와 같이 축약된 형태로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앓-’이라고 하는 형태는 15세기에 이미 ‘-앗-’이라는 형태로 변화한 예가 나타납니다. (ㄱ)을 보면, ‘안잣느’이라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안자 잇느’이 축약되어 ‘안잣느’이 되고 다시 ‘ㅣ’가 탈락하여 ‘안잣느’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 잇-’의 축약형인 ‘-앓-’이라는 형태가 이미 15세기에 출현하고 있고 이들이 점차 하나의 선어말 어미로 굳어져 현대 한국어의 ‘-았/었-’과 같은 선어말 어미가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시-’라고 하는 용언이 환경에 따라서 교체를 보이는데, 연결 어미 ‘-아’와 결합한 ‘-아 잇-’의 형태에서 축약되어 ‘-앓-’의 형태로, 그것이 다시 ‘-앗-’의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그것이 현대 한국어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어간 ‘두-’(置)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어간 ‘두-’가 ‘이시/잇-’ 또는 ‘겨시-’와 결합할 때 연결 어미 ‘-어’가 개재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현상을 보입니다. 즉, 일반적인 용언이라면 ‘두-’에 ‘잇-’가 결합할 때 ‘-어’가 개재되어 ‘두어 이시/잇-’이 될 것이고 여기서 ‘두어’가 축약되면 ‘뒤’가 되어 ‘뒤 이시/잇-’ 또는 ‘-어 잇-’이 더 축약된다면, ‘웨시/웻-’과 같은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에 ‘겨시-’가 결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에 ‘겨시-’가 결합할 경우에 연결 어미 ‘-어’가 들어가서 ‘두어 겨시-’, 또는 ‘뒤 겨시-’와 같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합할 때 ‘-어’가 개재하지 않습니다.

동사 어간 ‘두-’와 ‘이시/잇-’, ‘겨시-’의 결합 양상

ㄱ. 뒷논, 뒷더니

ㄴ. 두겨시다, 두겨샤

ㄷ. 뒷노니, 뒷거니

ㄹ. 이웃 지비 사르미 도흔 수를 두시니 저문 아드리 바리도 能히 사 오놋다 <두시언해 3: 26ㄴ>

(ㄱ)은 ‘두-’에 ‘잇-’이 결합할 때 ‘두어 잇-’이나 ‘웻-’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잇-’이 축약된 ‘뒷논’과 같이 실현되어 ‘-어’가 개재하지 않고 ‘두-’와 ‘잇-’가 바로 결합하였습니다. ‘뒷더니’도 마찬가지로 ‘두-’와 ‘잇-’가 결합할 때 ‘-어’가 개재하지 않고 ‘웻-’가 아닌 ‘뒷-’와 같이 두 어간이 바로 결합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ㄴ)은 ‘두-’에 ‘겨시-’가 결합한 예인데, ‘두어 겨시-’가 아니라 ‘두겨시-’로, ‘두어 겨셔’가 아니라 ‘두겨샤’와

같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시-’가 ‘잇-’ 또는 ‘시-’로 교체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뒤에서는 ‘이시-’가 독특하게 ‘ㅅ’만으로 실현된 경우도 있습니다. (ㄷ)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에 ‘잇노니’가 결합하면 ‘뒛노니’가 되어야 할 텐데 ‘ㅣ’까지 탈락하여 ‘뒛노니’가 되고 ‘두-’에 ‘잇거니’가 결합하면 ‘뒛거니’가 될 것 같은데 ‘ㅣ’가 탈락하여 ‘뒛거니’가 됩니다. (ㄷ)의 ‘뒛노니’, ‘뒛거니’처럼 ‘이시-’라는 동사가 ‘ㅅ’ 말음으로만 실현된 예도 ‘두-’ 뒤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시-’가 모음 어미 앞에서는 ‘시-’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두-’와 결합할 때에도 나타납니다. (ㄹ)에서 ‘두어 이시니’라고 할 것이 ‘두시니’로 나타남으로써 모음 어미 앞에서 ‘시-’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가 왜 이와 같이 특이한 교체를 보이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의 가설은 연결 어미 ‘-아/어’가 고대에는 ‘-오/우’와 같은 이형태를 가졌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뒤에서는 연결 어미가 ‘-어’의 형태가 아니라 ‘-우’의 형태로 교체되어 ‘두우 이시-’, ‘두우시-’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는데, ‘뒛논’에서와 같이 표면상으로는 ‘두잇’, ‘뒛’과 같은 형태로 실현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결 어미 ‘-우’가 들어가 ‘두우 이시/잇-’ 또는 ‘두우시-’와 같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두-’와 ‘-우’가 결합되어 ‘두’로만 실현된 것이라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연결 어미 ‘-아/어’의 이형태 ‘-오/우’가 고대에 존재하였던 것이라라는 하나의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세기 공시적으로는 ‘두-’에 ‘잇-’이 바로 결합하여서 연결 어미가 개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15세기 한국어에서 체언과 용언들이 어떠한 곡용과 활용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한국어와 다른 양상들을 위주로 정리하여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15세기 한국어의 격 조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1인칭 대명사 ‘나’의 성조는 주격일 때는 거성, 관형격일 때는 상성이다. (O/X)

정답: X

2. ‘있다’를 뜻하는 중세 한국어 단어의 형태는 ‘잇-’과 ‘이시/시-’가 있었다. (O/X)

정답: O

3. 현대 한국어의 ‘ㅂ’ 불규칙 용언은 중세 한국어에서는 규칙 용언이었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불규칙한 교체를 보이는 체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무’를 뜻하는 중세 한국어 단어는 모음 조사 앞에서 ‘나모’로, 자음 조사 앞에서 ‘남ㄱ’으로 실현되었다.
- ② ‘노루’를 뜻하는 중세 한국어 단어에 조사 ‘익’이 결합하면 ‘놀익’로 실현되었다.
- ③ ‘하루’를 뜻하는 중세 한국어 단어의 형태는 ‘흐르’와 ‘홀룰’이 있었다.

정답: ②

2. 불규칙한 활용을 보이는 용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다’를 뜻하는 중세 한국어 단어의 형태는 ‘시므-’와 ‘심ㄱ-’이 있었다.
- ② ‘끝다’라는 뜻의 ‘그스-’ 뒤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면 최종 형태가 ‘긔거’가 된다.
- ③ ‘게으르-’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면 ‘게을어’가 되는데,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게을러’로 바뀌었다.

정답: ②

3.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 ① ‘두-’와 ‘잇-’이 함께 쓰이면 ‘뵈논’ 또는 ‘뵈넌’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 ② 중성 모음 ‘ㅣ’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주로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였다.
- ③ 현대 한국어의 ‘누구’는 중세 한국어의 의문 대명사 ‘누’에 의문 조사 ‘고’가 결합한 것이 굳어진 것이다.

정답: ①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보시오.

1. 용언 ‘알-’에 연결 어미 ‘-게’가 결합하였을 때 ‘ㄱ’ 약화 현상이 일어나 최종 형태는 ○
○가 된다.

정답: 알에

2. ‘줍다’라는 동사의 중세 한국어 형태는 ○○였다.

정답: 줌다

3.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선어말 어미 ‘-오-’는 ‘○’가 되었다.

정답: 로

나. 토의 (30분)

1. 중세 한국어의 음소 연결 규칙 중 현대 한국어와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들은 왜 현대 한국어와 양상이 다른가?

다. 과제 (60분)

불규칙한 교체를 보이는 체언과 용언의 형태적 유사성을 확인하고, 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세요.

■ 참고자료

ㅎ 말음 체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불규칙 용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중세국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강신항(2003), 『훈민정음연구』 수정증보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신정판, 탐출판사.

안병희(2007),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4차시> 격 조사

■ 학습목표

1. 15세기 한국어의 격 조사의 종류와 그 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각 격 조사의 쓰임이 어떠한지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예를 통해 확인한다.
3. 15세기 한국어의 격 조사와 현대 한국어의 격 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강의 목차

1. 주격 조사
2. 목적격 조사
3. 관형격 조사
4. 부사격 조사
5. 호격 조사
6. 서술격 조사

■ 강의 내용 전문

<한국어 문법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5세기 한국어의 격 조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격 조사

첫 번째로 살펴볼 격 조사는 주격 조사입니다. 현대 한국어에는 주격 조사 ‘이/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가’라고 하는 주격 조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만이 사용되었고 주격 조사 ‘가’는 근대 한국어 시기에 출현하였습니다.

주격 조사의 실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격 조사는 체언 어간 말의 음절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리 실현되었습니다. 먼저 자음 뒤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ㄱ. 자음 뒤: ‘이’

사람+이→사^ㄹ미, 普光佛+이→普光佛^이

ㄴ. 모음 뒤: ‘ㅣ’

아모(상거)+ㅣ(거)→아^ㅁ피(상거), 男子+ㅣ→男子^ㅣ

ㄷ. 모음 ‘이’나 반모음 ‘ㅣ’ 뒤: ‘ㅣ’ (표기상 실현되지 않음)

머리(평거)+ㅣ(거)→머^ㅣ리(평거), 불휘(평거)+ㅣ(거)→불^ㅣ휘(평거),

如來+ㅣ→如^ㅣ來/如來^ㅣ

ㄱ. 부터(평평)+ㅣ(거)→부테(평상)

ㄴ. 드리(평평)+ㅣ(거)→드리(평상), 므딕(평평)+ㅣ(거)→므딕(평상)

너희(평평)+ㅣ(거)→너희(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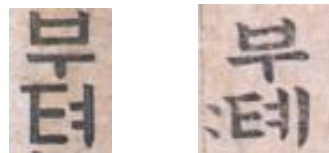
주격 조사 ‘이’는 (1ㄱ)과 같이 체언의 말음이 자음일 경우에는 완전한 모음 ‘이’로 실현됩니다. 다만, 어간 말음인 자음이 연철되어 표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체언이 한자로 표기될 경우에는 연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로 표기되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름’ 뒤에 완전한 ‘이’라는 모음의 형태가 결합하게 되고 다만, 연철되어 ‘사르미’와 같이 실현됩니다. 그런데 한자로 표기되었을 때에는 ‘普光佛(보광불)’ 다음에 ‘이’가 결합하고 이를 연철할 수 없기 때문에 ‘普光佛이’와 같이 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1ㄴ)은 모음 뒤에 주격 조사가 나타나는 예입니다. 체언 말음이 모음일 경우에 주격 조사 ‘이’는 반모음 ‘ㅣ’로 실현되게 됩니다. 이 반모음 ‘ㅣ’는 어간 말 모음과 하나의 음절을 이루어 하향 이중모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체언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을 때에는 표기상으로 ‘ㅣ’를 따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살펴보면, 현대 한국어에서 ‘아무’로 나타나는 ‘아모’라는 단어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면, ‘아모’는 어간 말이 모음이기 때문에 반모음 ‘ㅣ’의 형태로 실현되게 되고 그 앞의 음절 ‘모’와 ‘ㅣ’가 하나의 음절로 합쳐져 ‘아뽀’와 같이 실현됩니다. 다음은 모음으로 끝나는 한자어 뒤에 주격 조사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男子’의 경우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면, 역시 반모음 ‘ㅣ’로 실현되는데 실제 발음은 ‘[남자이]’, 즉 ‘남재’와 같이 하나의 음절로 적어야 하지만 한자 뒤이기 때문에 같은 음절로 적을 수 없어 반모음 ‘ㅣ’만 따로 적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1ㄱ)과 같이 자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가 완전한 ‘이’의 형태로 나타나고 연철되며, (1ㄴ)과 같이 모음 뒤에서는 반모음 ‘ㅣ’의 형태로 나타나고 앞의 모음과 합쳐져 하나의 음절을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간 말음이 ‘이’ 모음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 주격 조사 ‘이’는 표기상 실현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ㄷ)의 ‘사람의 머리’를 뜻하는 체언 ‘머리’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할 때 ‘머리’라고만 실현되어 눈으로 보기에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지 않은 형태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뿌리’라는 뜻을 지닌 ‘불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였지만 반모음 ‘ㅣ’ 뒤에서 이 ‘ㅣ’는 실현되지 않아 ‘불휘’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자어일 경우 다음과 같이 실현됩니다. ‘如來(여래)’는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애’로, 반모음 ‘ㅣ’가 있고 실제 발음은 ‘[여라이]’입니다. ‘來’ 뒤에 역시 주격 조사로 반모음 ‘ㅣ’가 결합하지만 표기상 실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如來’와 같이 실현되는데, 다만 한자 뒤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였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 반모음 ‘ㅣ’를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모음이나 반모음 ‘ㅣ’ 뒤에서 주격 조사 ‘이’는 표기상 실현되지 않지만 한자어 뒤에서 반모음 ‘ㅣ’가 표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체언 어간이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 반모음 ‘ㅣ’가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로 실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성조적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예들이 있어 주목됩니다. 체언 어간의 마지막 음절이 평성인 경우에 대부분의 문법 형태소들은 거성의 성조를 가지는데, 주격 조사 ‘이’도 역시 거성의 성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게 되면 그 음절은 평성과 거성이 복합된 성조, 즉 상성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1ㄸ)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터’의 마지막 음절은 평성입

니다. 여기에 거성을 가진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면 ‘부테’와 같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테’의 ‘테’는 앞부분은 평성, 뒷부분은 거성, 즉 복합된 성조인 상성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표기상으로 ‘부테’라고 썼지만 당시 발음은 ‘[부터이]’였습니다. 그런데 ‘부테’의 ‘테’가 상성으로 실현되어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15세기의 문헌에서는 글자 왼쪽에 점을 두 개 찍어 상성 표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인석보序 5ㄴ> <석보상절序 1ㄱ>

‘부터’와 ‘부테’의 성조

이러한 유형은 ‘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1ㄱ)의 ‘사다리’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교량(橋梁, bridge)’이라는 의미도 있는 ‘드리’라는 단어는 역시 ‘평성-평성’의 성조를 가집니다. 즉, 2음절이 평성입니다. 여기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면 표기상으로 주격 조사 ‘ㅣ’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모음이나 반모음 ‘ㅣ’ 뒤에서 주격 조사 ‘ㅣ’는 표기상으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부는 성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드리(평상)’와 같이 성조가 상성으로 실현됨으로써, 이것이 단독형이거나 다른 조사와 결합했을 때는 평성이어야 될 ‘리’가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경우에는 상성으로 실현되어 표기상으로 주격 조사 ‘ㅣ’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임을 성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모음 ‘ㅣ’로 끝나는 체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ㄴ)에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므딧’은 2음절인 ‘딧’이 평성인데, 이것의 주격형은 ‘므딧(평상)’과 같이 ‘딧’이 상성으로 실현됩니다. 즉, 단독형에서 평성이던 것들이 주격형에서 상성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거기에 표기상으로는 주격 조사 ‘ㅣ’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ㅣ’가 결합하였고 그것이 음성적으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2음절 역시 평성인데, 이것이 주격형이 될 때는 상성이 되어 여기에도 역시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세 한국어 문법서에서는 ‘이’ 모음이나 반모음 ‘ㅣ’ 뒤에 주격 조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영 형태로 실현된다고 기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기상 실현되지 않은 것이지 실제로 영 형태가 쓰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분명히 ‘ㅣ’라고 하는 형태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는 성조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체언의 마지막 음절이 거성이나 상성인 경우에는 ‘ㅣ’가 결합하였는지 아닌지를 성조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음절이 평성인 경우에 ‘ㅣ’가 결합하여 상성으로 실현되는 예들을 통해 거성이나 상성인 경우에도 여전히 ‘ㅣ’가 결합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세기에 주격 조사는 자음 어간 뒤에서는 완전한 ‘이’라는 모음의 형태로, 그다음 모음 어간 뒤에서는 반모음 ‘ㅣ’의 형태로 실현되고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표기상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는데, 어간 말음절의 성조가 평성일 경우에는 상성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로는 성조가 소멸되어 감에 따라 모음 ‘이’나 반모음 ‘ㅣ’ 뒤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하여 있는 것인지를 성조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형태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성조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성조가 소멸함으로써 그조차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

입니다. 따라서 주격 조사는 외현적으로 ‘이’ 모음이나 반모음 ‘ㅣ’ 뒤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아졌습니다. 즉, 주격 조사 ‘이’의 형태적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나는 어간 뒤에 새로운 주격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근대 한국어 시기에 주격 조사 ‘가’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주격 조사 ‘가’는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난 어간 뒤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점차 사용역을 넓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격 조사 ‘가’가 사용역을 넓혀 가게 되는 변화에는 ‘ㄴ, ㄹ, ㄷ, ㄱ’와 같은 이중 모음들이 단모음화한 것에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주격 조사 ‘가’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주격 조사 ‘가’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우선, 어미 ‘-다가’ 또는 조사 ‘다가’ 등에 나타나는 ‘가’가 변화하여 주격 조사 ‘가’가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동사 어간 ‘가-’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한 활용형 ‘가’라는 형태에서 주격 조사 ‘가’가 기원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마지막은 이 주격 조사 ‘가’는 일본어에서 차용된 것이라라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는 그 기원적인 형태, 즉 ‘-다가’ 또는 ‘다가’라든지 ‘가-’의 활용형과 주격 조사 ‘가’ 사이에 의미적으로나 구문적으로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변화, 즉 문법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문법화가 나타나는 용례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론 중심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견해, 즉 일본어에서 차용되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었습니다.

주격 조사 ‘가’가 최초로 나타나는 예가 1572년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어머니가 1572년에 자식들에게 쓴 편지에 주격 조사 ‘가’의 예가 최초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임진왜란 이전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한국어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시기에 주격 조사 ‘가’가 쓰이는 것으로 보아 일본어에서 한국어 주격 조사 ‘가’가 차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것이 일본어 차용설에 대한 주된 반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 용례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는 바로 아래의 예문입니다.

춘 구드릭 자니 빅가 세니러셔 즈로 돈니니
 찬 구들(불 때지 않은 온돌)에서 잤더니 배가 세닐어서 자주 다니니

예문의 앞부분인 ‘춘 구드릭 자니’는 ‘찬 구들에서 잤더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불 때지 않은 온돌에서 잤다는 말입니다. 뒷부분의 ‘빅가 세니러셔 즈로 돈니니’에서 ‘빅’는 사람의 배입니다. 이 표현은 ‘배가 세닐어서 자주 다니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배가 세닐다’라는 것은 찬 구들에서 잠을 자서 배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닐-’를 ‘세게 일어나서’라는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고 ‘속이 안 좋아서’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의미가 어떠한 ‘빅가 세니러셔’에 주격 조사 ‘가’가 처음으로 출현하였다고 종래에 해석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문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 쓴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빅가세니려서’가 다 붙어 있죠.

춘구득릭자니빅가세니려서즈로든니니

이것을 우리가 ‘빅가 세니려서’로 끊어 읽고 여기에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다라고 해석을 해 왔던 것입니다.

한편, 이 예문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처음 소개된 이후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주격 조사 ‘가’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 구절을 읽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빅가 세니려서’로 끊은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격 조사 ‘가’가 이 당시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춘 구득릭 자니 빅 가세 니려서 즈로 든니니

이렇게 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세 니려서’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 ‘가세’는 ‘것위’라고 하는 ‘회충’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나 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최초로 주격 조사 ‘가’가 쓰였다고 하는 예문의 해독에 대해 논란이 있고 그것이 주격 조사 ‘가’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최초의 주격 조사 ‘가’가 쓰인 예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주격 조사 ‘가’가 쓰인 예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가) 소합원 스므 환을 녀허 달히면 그 내가 병 기운을 헤티느니 <벽온방(중간본) 15ㄴ>
[초간 1653년]

소합원 스무 환을 넣어 달이면 그 내(냄새)가 병 기운을 헤치나니(없애니)

(나) 多分 빅가 올 거시니[일본어전사: 다분후녕가마이루] <첩해신어(초간본) 1: 8ㄴ>[1676년]
아마도 배가 올 것이니

(다) 東萊가 요스이 편티 아냐 하시더니[일본어전사: 동녕강가고노아인다가이겐테오키사파니]
<첩해신어(초간본) 1: 26ㄴ>[1676년]

(라) 흰 물이 네 발이 검고 누은 물이 부리가 희면 다 흥흥고 <마경초집언해 上: 9ㄱ>[1682년]

(가)의 예는 『벽온방(僻瘟方)』이라고 하는 책에 나타난 구절입니다. ‘그 내가’는 ‘그 냄새가’라는 뜻인데, 여기에 주격 조사 ‘가’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온방』이라는 책은 1653년에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하는 『벽온방』이라는 책은 초간본, 즉 1653년에 간행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것을 중간(重刊)한 책입니다. 이 책의 초간본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초간본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된 이후 다음으로 주격 조사가 사용된 것이 1653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572년부터 1653년까지 약 80년의 공백, 즉 시간 차가 있게 됩니다. 하나의 문법 형태소가 출현한 이후에 80년 동안 쓰이지 않다가 그다음에 가서야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아무리 국어사 자료가 적다고 한들, 주격 조사 ‘가’와 같은 형태가 80년 동안 용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나머지 예들도 (가)와 비슷합니다.

(나)와 (다)의 예는 모두 『첩해신어(捷解新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첩해신어』는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 만든 역학서(譯學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본어가 쓰여 있고 그 일본어의 발음이 한글로 쓰여 있으며, 그것이 다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多分 비가 올 거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배가 올 것이니’라는 뜻입니다. ‘多分(다분)’은 ‘다분히’, ‘그럴 듯하니’라는 뜻이고 ‘비가’라는 형태에 주격 조사 ‘가’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어로 ‘다분후녕가마이루’라고 그 발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문의 ‘후녕가’에 ‘가’가 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첩해신어』를 집필한 사람은 강우성(康遇聖)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즉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가 10여 년을 일본에서 살다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에 돌아와 사역원(司譯院)의 역관이 됩니다. 강우성은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이 구문이 일본어 구문을 번역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가’가 일본어로부터 차용된 것일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의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일본어 발음을 표기한 부분에 ‘동녕강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東萊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東萊가’에 나타나는 주격 조사 ‘가’가 일본어 발음에도 역시 ‘가’로 실현되고 있는 예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의 예는 『마경초집(馬經抄集)』의 예로, 1682년의 예입니다. 밑줄 친 ‘부리가’는 말의 입일 텐데, 이것을 ‘부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부리가 희면’이라는 부분의 ‘이’ 모습 뒤에 ‘가’가 쓰인 예입니다.

17세기 문헌에서, 물론 인간 자료에 ‘가’가 나타나는 예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판본으로 간행된 문헌에서는 ‘가’가 나타난 예가 이 4개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가 『첩해신어』의 예입니다. 다만, 『첩해신어』의 간행은 1676년이지만 그 원고본의 완성 은 훨씬 더 앞선 시기, 1630년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법 형태소가 80년 가까이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따라서 1572년 인간에 나타난 예가 과연 진짜 최초의 주격 조사 ‘가’가 쓰인 예가 맞는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닐-’와 같은 용언은 문증(文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예 자체도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첩해신어』에 나타나는 (나), (다)의 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문헌에서, 그것도 같은 권에 2번이나 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들에서는 일본어 부분에도 똑같이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주격 조사 ‘가’가 일본어에서 차용된 것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생각됩니다.

『첩해신어』의 간행은 1676년에 되었지만, 「권1」에서 「권4」까지의 원고본은 아마도 1618년경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행 연대 기준이 아니라 원고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나), (다)의 예가 주격 조사 ‘가’가 최초로 출현한 예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격 조사 ‘가’는 일본어에 익숙한 강우성이라는 사람이 쓴 원고에서 처음, 더군다나 일본어 번역문에 처음으로 출현하였고, 그로부터 주격 조사 ‘가’가 확산되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당시에 강우성 이외에도 일본에 잡혀갔다 귀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사역원의 역관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들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주도하여 주격 조사 ‘가’가 한국어에 퍼져 나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목적격 조사

이어서 목적격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사 관련 문헌 가운데는 목적격 조사를 흔히 대격 조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학교 문법에 따라 목적격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조사는 현대 한국어와 같이 체언 어간 말이 자음인가 모음인가에 따라 ‘을/를’로 교체됩니다. 다만, 15세기의 다른 문법 형태소들과 마찬가지로 이형태 중에 매개 모음이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가 있을 경우에 그 형태들은 모음 조화에 따른 교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을/를’도 ‘을/를’이라는 모음 조화에 따른 교체형을 더 가지게 됩니다. 실제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 ㄱ. 자음 뒤: 양성 모음+을, 음성 모음+을

ㅁ슴+을→ㅁ스믈, 福+을→福을; ㅍ+을→ㅍ들, 普光佛+을→普光佛을

ㄴ. 모음 뒤: 양성 모음+를, 음성 모음+를

보빅+를→보빅를, 道+를→道를; 부터+를→부터를, 男女+를→男女를

ㄷ. 모음 뒤: ㄷ

가치+ㄷ→가칠, 님금位+ㄷ→님금位ㄷ

우선 자음 뒤에서는 양성 모음일 경우에는 ‘을’, 음성 모음일 경우에는 ‘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2ㄱ)의 ‘ㅁ슴’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양성 모음 ‘ㅁ’를 마지막 모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양성 형태인 ‘을’이 결합하고 어간 말 자음이 연결되어 ‘ㅁ스믈’이 됩니다. 한자일 경우 ‘福(복)’ 뒤에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을’이 결합하는데, 연결되지 않고 ‘福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ㅍ’은 ‘으’라고 하는 음성 모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을’이 결합하고 연결되어 ‘ㅍ들’이 됩니다. ‘普光佛(보광불)’은 ‘우’가 음성 모음이므로 ‘을’이 결합하는데, 한자 뒤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普光佛을’과 같이 표기됩니다.

(2ㄴ)은 모음 뒤에 오는 목적격 조사의 예입니다. 역시 모음 뒤에서도 양성 모음 뒤에서는 ‘를’, 음성 모음 뒤에서는 ‘를’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빅’을 보면, ‘를’이 결합하여 ‘보빅를’이 됩니다. 한자어인 ‘道(도)’ 뒤에는 ‘를’이 결합하여 ‘道를’, ‘부터’의 경우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를’이 결합하여 ‘부터를’로 나타납니다. ‘男女(남녀)’의 경우에도 ‘를’이 결합하여 ‘男女를’과 같이 됩니다.

다만, 모음 뒤에서는 ‘를/를’의 형태 외에도 ‘ㄷ’만 나타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널 사랑해’라고 할 때 ‘너를 사랑해’도 가능하지만 ‘널 사랑해’와 같이 ‘를’이 ‘ㄷ’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중세 한국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ㄷ)의 ‘가치’는 ‘까치’라는 뜻인데, ‘가치’에 ‘ㄷ’이 붙으면 ‘가칠’이 되고 ‘님금位’는 ‘임금의 자리’라는 뜻인데, ‘님금位ㄷ’로 나타납니다. 한자 뒤에서는 하나의 음절로 합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님금位’ 다음에 ‘ㄷ’만 표기한 것입니다.

위에서 목적격 조사가 ‘을/을/를/를/ㄷ’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격 조사의 기원적인 형태는 사실 ‘ㄷ’과 ‘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모음 뒤에서는 ‘ㄷ’이라는 형태, 자음 뒤에서는 ‘을/을’이라는 형태가 쓰였는데, 다만 ‘ㄷ’이라고 하는 하나의 음운으로 형태소가 실현될 때에는 그 형태소의 자립성이라고 할까, 형태소의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가 독자적인 음절을 이루어야 그 형태소가 사람들에게 인식이 잘되고 하나의 형태소로 기능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ㄹ’이라는 형태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음절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ㄹ’ 뒤에 다시 ‘을’ 또는 ‘울’을 결합한 형태, 그것이 바로 ‘를/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을/를’이라는 형태 중에서 ‘을’이 더 기본적인 형태이고 ‘을’은 모음 뒤에서는 ‘ㄹ’로도 실현되었는데, 그 ‘ㄹ’ 뒤에 다시 ‘을’이 결합하여 ‘를’이라는 형태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를’과 같은 형태에 대해 중가형(重加形)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의 형태가 거듭 중복되어 나타난 것이라라는 견해입니다. 물론, 15세기 공시적으로는 그렇게 파악할 수가 없겠지만 고대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ㄹ’과 ‘을’이 다시 결합하여서 ‘를’이라는 형태가 출연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조사 ‘은/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 ‘은/는’도 역시 ‘는’이라는 형태는 ‘ㄴ’에 ‘은’이라는 형태가 다시 한번 결합함으로써, 즉 중가형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관형격 조사

다음은 관형격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한국어 문법서들에서 관형격 조사를 흔히 속격 조사라고 부르는 일도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앞서 목적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학교 문법에 따라 속격 조사라는 용어 대신에 관형격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의’는 보시다시피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들은 모음 조화를 따르기 때문에, ‘의’ 역시 모음 조화의 교체형인 ‘이’라는 이형태가 존재하였습니다. 즉, 현대 한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뿐이지만 중세 한국어에는 ‘의/의’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이외에 다른 관형격 조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ㅅ’입니다. 이 ‘ㅅ’은 현대 한국어에 사이시옷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사이시옷은 과거로 소급해 간다면 관형격 조사 ‘ㅅ’으로부터 변화한 것이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5세기에는 관형격 조사가 ‘의/의’와 ‘ㅅ’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관형격 조사 ‘의/의’는 존칭(尊稱)이 아닌 유정(有情) 체언에 결합합니다. 이에 비해 ‘ㅅ’은 무정(無情) 체언이나 존칭의 유정 체언에 결합한다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유정 체언, 무정 체언이라는 개념은 ‘情(뜻 정)’ 자가 결합한 것인데, 이는 뜻, 마음 또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정과 무정이 대립합니다. 흔히 동물이나 아니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은 유정 체언, 동물이 아닌 것들은 무정 체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관형격 조사의 실현 양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 ㄱ. 존칭이 아닌 유정 체언 뒤: 양성 모음+의, 음성 모음+의

ㅁ릭 香, 象의 香, 앓의 일흠; ㄷ의 목숨, 百姓의 ㅁ숨

ㄴ.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 ‘ㅣ’

쇠 머리, 長者ㅣ 집, 獅子ㅣ 샅기

ㄷ. 존칭의 유정 체언 뒤: ‘ㅅ’

부텃 道理, 님궘 德, 釋迦牟尼ㅅ 일흠, 世尊ㅅ 神力

ㄹ. 부정 체언 뒤: ‘ㅅ’

나라 小民, 깊 가온되, 後ㅅ 사람, 家門ㅅ 中

ㄱ. 先王ㄱ 뿐, 瓶ㄱ 솥, 前生ㄱ 罪業, 西天ㄷ 字, 幡ㄷ 數, 使ㄴ 字

(3ㄱ)을 보면, 존칭이 아닌 유정 체언 뒤에서 체언의 모음이 양성 모음일 경우에는 ‘익’, 음성 모음일 경우에는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사용됩니다. ‘말’은 ‘horse’의 의미로, 타는 ‘말’입니다. ‘말’은 동물이므로 유정 체언입니다. 그렇다면 ‘익/의’가 사용되는데, 그중 ‘·’가 양성 모음이므로 ‘익’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익’이 되는데 연결하여 ‘말익’이 됩니다. ‘말익 쉼(향)’은 ‘말의 향’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象(상)’은 ‘코끼리’라는 뜻으로, 유정 체언이고 모음이 ‘아’라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익’이 쓰입니다. 그래서 ‘象익 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앗익’의 기본형은 ‘아우, 동생’이라는 뜻인 ‘아스’인데, 이 ‘아스’는 유정 체언이면서 ‘·’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관형격 조사 ‘익’이 결합합니다. 그런데 ‘아스’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듯이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고 ‘ㄱ’이 첨가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앗기”와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 뒤에서 ‘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앗익’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앗익 일흠’은 ‘아우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더의 목숨’에서 ‘더’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음성 모음으로 끝났고 인칭 대명사이므로 유정 체언입니다. 따라서 ‘의’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더의 목숨’이라고 실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百姓(백성)’의 목숨은 ‘백성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百姓’ 역시 유정 체언이고 ‘어’라고 하는 음성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의’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3ㄴ)과 같이 특이하게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에서 관형격 조사가 ‘익/의’가 아니라 ‘ㅣ’라는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쇠 머리’에서 ‘쇼’는 ‘소’(牛)입니다. ‘쇼’라는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유정 체언 뒤에는 ‘익’이 결합하여 ‘쇼익 머리’와 같이 나타나야 하는데, 관형격 조사가 ‘익’이 아니라 ‘ㅣ’가 결합하여 ‘쇼ㅣ’로 표기되었습니다. ‘長者ㅣ 집’도 마찬가지인데, ‘長者(장자)’라고 하는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익’이 쓰인 ‘長者익 집’이 아니라 ‘長者ㅣ 집’과 같이 반모음 ‘ㅣ’가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獅子ㅣ 샷기’는 ‘사자 새끼’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도 ‘獅子익’이 쓰이지 않고 ‘ㅣ’가 결합하여 ‘獅子ㅣ 샷기’와 같이 반모음 ‘ㅣ’가 관형격 조사로 쓰인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쇠 머리’와 같은 예에서 우리는 ‘쇼익 머리’와 ‘쇼ㅣ 머리’ 같은 두 가지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도 이러한 흔적이 ‘쇠고기’와 ‘소고기’ 이 두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와 같은 구성으로 된 형태인 ‘쇼익 고기’, ‘쇼ㅣ 고기’와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예전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쇼익 고기’에서 ‘익’이 탈락한 형태는 그냥 ‘소고기’가 되고 ‘쇼ㅣ 고기’가 현대 한국어에 ‘쇠고기’로 남게 된 형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쇼’의 관형격형이 ‘쇼익’로 나타날 수도 있고 ‘쇼ㅣ’로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그 ‘쇼ㅣ’라는 형태가 오늘날의 ‘쇼’라는 형태로 남아 있고 그것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어 ‘쇠고기’와 ‘소고기’라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ㄷ)은 존칭의 유정 체언 뒤에 ‘ㅅ’이 사용된 예입니다. ‘부텃 道理(도리)’에서 ‘부텃’은 ‘부처님’으로, 유정 체언이면서 존칭 체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익/의’가 아니라 ‘ㅅ’이 결합하여 ‘부텃 道理’와 같이 실현되었습니다. ‘님금 德’의 ‘님금(임금)’도 역시 유정 체언이면서 존칭 체언이므로, 마찬가지로 ‘ㅅ’이 쓰입니다. ‘ㄱ’ 옆에 ‘ㅅ’을 병기하여 ‘님금 德’으로

표기되었습니다. ‘釋迦牟尼(석가모니)ㅅ 일흠’에서 ‘釋迦牟尼’는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釋迦牟尼’는 유정 체언이면서 존칭 체언입니다. 다만, 한자 뒤이기 때문에 ‘ㅅ’을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世尊(세존)ㅅ神力(신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존의 신력’이라는 뜻인데, ‘世尊’은 ‘부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世尊’은 존칭 체언이면서 유정 체언이기 때문에 ‘ㅅ’을 사용하였습니다.

(3ㄷ)은 무정 체언의 예입니다. 무정 체언 뒤에도 역시 ‘ㅅ’이 쓰입니다. ‘나랏 小民(소민)’은 ‘나라의 작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나라’는 무정 체언이기 때문에 ‘ㅅ’이 쓰였습니다. ‘깊 가온딴’의 ‘길’ 역시 무정 체언이므로 ‘ㅅ’이 쓰입니다. ‘後(후)ㅅ 사람’은 ‘나중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後’는 한자로, 한자어 뒤에 그냥 ‘ㅅ’을 표기한 예입니다. 마지막 예는 ‘家門(가문)ㅅ 中(중)’입니다. ‘家門’은 가족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家門의 사람들’은 유정 체언이겠지만 ‘家門’ 자체는 무정 체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家門’ 뒤에는 ‘ㅅ’이 쓰여 ‘家門ㅅ 中’이 됩니다.

(ㄹ)은 ‘ㅅ’을 써야 하는데, 그 ‘ㅅ’이 ‘ㄱ’이나 ‘ㄷ’ 또는 ‘ㅇ’처럼 다른 글자로 표기된 예입니다. ‘先王(선왕)ㄱ 뜰’에서 ‘先王’은 ‘앞선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존칭 체언이면서 유정 체언이므로 ‘ㅅ’이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ㅅ’을 쓰지 않고 ‘ㄱ’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先王’의 마지막 음이 ‘ㅇ’, 즉 아음(牙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주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나고 『용비어천가』라든지 『석보상절』 또는 『석보상절』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는 『월인석보』에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른 글자로 표기되는 규칙은 마지막 자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표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설순치후(牙舌脣齒喉)’에 따라서 아음일 경우에는 ‘ㄱ’, 설음일 경우에는 ‘ㄷ’, 순음일 경우에는 ‘ㄴ’, 치음일 경우에는 ‘ㅅ’ 그대로 쓰고, 후음일 경우에는 ‘ㅇ’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先王(선왕)ㄱ 뜰’에서 ‘王(왕)’은 ‘ㅇ’으로 끝나는 체언인데, ‘ㅇ’은 아음이므로 ‘ㄱ’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瓶(병)ㄱ 솥’은 ‘병의 속’이라는 뜻인데, ‘瓶(병)’ 역시 ‘ㅇ’으로 끝나고 ‘ㅇ’은 아음이니까 ‘ㄱ’이 쓰였습니다. ‘前生(전생)ㄱ 罪業(죄업)’에서 ‘前生(전생)’도 마찬가지로 아음인 ‘ㅇ’으로 끝나기 때문에 ‘ㄱ’이 쓰였습니다. 다음으로 ‘西天(서천)ㄷ 字’의 ‘西天’은 ‘ㄴ’으로 끝납니다. ‘ㄴ’은 설음이므로, 여기에 ‘ㅅ’이 아닌 ‘ㄷ’이 쓰였습니다. ‘幡(번)ㄷ 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幡’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幡’이 설음인 ‘ㄴ’으로 끝나기 때문에 ‘ㄷ’이 쓰였습니다. ‘使(사)ㅇ 字(자)’의 ‘使’는 사실은 받침이 받침이 없는데 세종은 이렇게 받침이 없는 것들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따라 음가(音價) 없는 ‘ㅇ’을 종성으로 썼습니다. ‘ㅇ’은 후음이기 때문에 ‘ㅇ’ 자가 쓰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형격 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형격 조사는 현대 한국어와 달리 ‘의/의’라는 형태가 있었고 ‘ㅅ’이라는 형태가 더 있었는데, 그 용법이 유정 체언인가 무정 체언인가, 존칭인가 존칭이 아닌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어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주의해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4. 부사격 조사

계속해서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처소

부사격 조사는 의미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처소 부사격(처격)에 대

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소 부사격 조사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현대 한국어에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에’라는 형태가 있고 여기에 ‘서’가 결합한 ‘에서’라는 형태도 쓰입니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 ‘에’라는 형태 외에 모음 조화의 짝인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 모음 뒤에는 ‘애’, 음성 모음 뒤에는 ‘에’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음 뒤에는 ‘예’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애/에/예’라는 세 가지 형태로 처소 부사격 조사가 실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사격 외에 특수한 명사들에 쓰이는 별도의 부사격 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의’라고 하는 처소 부사격 조사가 그것입니다. ‘애/에/예’는 일반적인 명사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의/의’는 특수한 명사 뒤에만 사용된다는 차이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 ㄱ. 양성 모음 뒤: ‘애’

ㅈ해, 山애, 世俗애

ㄴ. 음성 모음 뒤: ‘에’

누네, 그르세, 佛法에

ㄷ. ‘이’나 ‘ㅣ’ 모음 뒤: ‘예’

서리에, 비예, 귀예, 代예

ㄹ.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특정 명사 뒤: 양성 모음+의, 음성 모음+의

ㄱ술히, 床의; 지비, 門의

(4ㄱ)의 ‘ㅈ해’에서 ‘ㅈㅎ’은 ‘땅’을 의미합니다. 이 ‘ㅈㅎ’이라고 하는 명사는 ㅎ말음 체언이어서 ‘ㅎ’이 함께 나타납니다. ‘ㅈㅎ’은 모음이 양성 모음인 ‘아’이므로, ‘애’가 결합하여 ‘ㅈ해’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山’도 마찬가지로 양성 모음이므로 ‘애’가 결합하여 ‘山애’로 실현되는데, 다만, 한자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世俗(세속)’도 마찬가지로 ‘오’라고 하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애’가 결합하여 ‘世俗애’와 같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4ㄴ)은 음성 모음 뒤에 ‘에’가 쓰인 예입니다. ‘누’는 중성이 ‘우’라고 하는 음성 모음입니다. 음성 모음 뒤에 ‘에’가 결합하고 연결되어 ‘누네’가 되고 ‘그릇’도 ‘으’라고 하는 음성 모음 뒤에 ‘에’가 결합하고 연결되어 ‘그르세’가 됩니다. ‘佛法(불법)’ 또한 ‘어’라고 하는 음성 모음이므로, 그 뒤에 ‘佛法에’와 같이 처격 조사 ‘에’가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ㄷ)과 같이 ‘이’ 모음이나 반모음 ‘ㅣ’ 뒤에는 ‘예’라고 하는 처격 조사가 쓰입니다. ‘서리에’의 ‘서리’는 ‘사이’라는 뜻인데, ‘서리’는 ‘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예’가 결합하여 ‘서리에’가 됩니다. 다음 ‘비’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배]라고 읽지만 15세기에는 [바이]라고 읽었습니다. ‘의’는 이중 모음이므로, 반모음 ‘ㅣ’라는 환경 뒤가 됩니다. 그래서 ‘비예’[바이예]가 쓰이게 됩니다. ‘귀’도 마찬가지로 반모음 ‘ㅣ’로 끝나므로, 그 뒤에 ‘예’가 결합하여 ‘귀예’라는 형태가 됩니다. ‘代(대)’도 당시 발음은 [다이]이므로, 반모음 ‘ㅣ’ 뒤라는 환경이 되어 ‘代예’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애/에/예’는 일반적인 명사 뒤에 쓰이는 것임에 비해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특정한 명사 뒤에는 ‘의/의’가 쓰였습니다 (4ㄹ)의 ‘ㄱ술히’는 ‘가을에’라는 뜻으로, ‘ㅎ’ 말음 체언인 ‘ㄱ술ㅎ’은 중성이 ‘·’로,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명사라고 한다면 ‘ㄱ술해’와 같이 ‘애’라고 하는 형태가 쓰이면 됩니다. 그런데 ‘애’가 아니라 ‘의’와 같은 형태

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ㄱ술ㅎ’이라고 하는 특수한 명사 뒤에서는 ‘애’가 아니라 ‘익’이 사용된다고 규칙을 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床(상)익’도 마찬가지입니다. ‘床’도 중성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애’가 쓰여야 하는데 여기에도 ‘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 역시 동일합니다. ‘집’은 모음이 중성 모음인 ‘이’이기 때문에 뒤에 양성 형태 또는 음성 형태가 모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지베’와 같이 ‘애/에’가 쓰여야 하는데 ‘지빅’과 같이 ‘의’라고 하는 형태가 처격의 기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門(문)’도 마찬가지로 중성이 음성 모음인 ‘우’이므로, ‘門에’와 같이 ‘에’가 쓰여야 하는데 ‘의’가 결합하여 ‘門의’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애/에/예’와 같은 일반 처격이 아니라 ‘익/의’와 같은 특이한 처격이 쓰이는 명사들의 목록은 (5)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5) ㄱ술ㅎ(秋), ㄱ(邊), ㅁ술ㅎ(村), ㅅ(外), ㅅㅎ(地), ㅅ(處), 길ㅎ(道), 나모(木), 나조ㅎ(夕), 날(日), 낮(晝), 녀(向), 돌ㅎ(石), 뫼ㅎ(山), 물(陸), 물(水), 밑(底), 밤(夜), 봄(春), 새박(曉), 소ㅎ(潭), 아춤(朝), 앞(前), 옷(衣), 우ㅎ(上), 적(時), 집(家)

(5)에 제시된 명사들과 같이 특이 처격 ‘익/의’가 결합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평성의 성조를 지닌 1음절 고유어 또는 ㅎ말음 체언 또는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체언들의 경우에 다수가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자어 중에도 동쪽을 나타내는 ‘東(동)’이라든지 ‘門’, ‘瓶’, ‘봉우리’라는 뜻의 ‘峯(봉)’이라든지 ‘뫼 산’이라고 할 때의 ‘山’, ‘밥상’, ‘책상’이라고 할 때의 ‘床’이나 ‘城(성)’과 같이 1음절 한자이면서 평성의 성조를 가지고, 또 워낙 많이 쓰여 한자어라는 인식이 희박해진, 즉 고유어에 가깝게 인식되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특이 처격이 결합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어들의 경우에는 일반 처격이 결합한 예와 특이 처격이 결합한 예가 같이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 (6) ㄱ. 더 녀 ㄱ새 걸나가샤 <석보상절 13: 4ㄴ>

하늬 ㄱ식 와 正히 괴외히 잇노라(天涯正寂寥) <두시언해(초간본) 5: 7ㄴ>

- ㄴ. 艱難흔 ㅁ술해 가 옷 밥 求호몬 <법화경 2: 205ㄱ>

艱難흔 ㅁ술히 가 옷 밥 求호몬 <월인석보 13: 20ㄱ>

(6ㄱ)의 첫 번째 예에는 ‘ㄱ’이라고 하는 명사에 ‘애’라고 하는 일반 처격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에는 ‘ㄱ’이라는 똑같은 명사 뒤에 ‘익’이 결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ㄱ’이라고 하는 명사는 일반 처격이 결합한 예와 특이 처격이 결합한 예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ㄱ술ㅎ’이라는 단어 뒤에 위에서는 ‘애’라고 하는 일반 처격이 사용되었고 아래에서는 ‘익’이라고 하는 특이 처격이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들은 같은 구문을 해석한(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문장이 나타난 것인데, 다만 처격 조사만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는 『법화경(法華經)』의 예이고 아래는 『월인석보』의 예입니다. 같은 한문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하나에는 특이 처격, 하나에는 일반 처격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5세기에는 명사에 따라 일반 처격이 쓰이는 명사들이 있었고 특이 처격이 쓰이는 명사도 있었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대 한국어 시기에 와서는 ‘익/의’와 ‘애/에’가 서로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다 현대 한국어에 와서는 ‘에’ 쪽으로 통합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도구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로서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로’가 있습니다. 이 ‘로’라고 하는 도구 부사격 조사는 ‘ㄴ’이나 모음 뒤에서는 ‘로’의 형태로, 자음 뒤에서는 ‘으/으로’와 같이 매개 모음을 가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체언 뒤에서는 ‘ㄴ’이 덧나기도 하였습니다.

- (7) ㄱ. 嫫女 | 하늘 기브로 太子를 𑖦려 안수바 夫人께 𑖦셔오니 <월인석보 2: 43ㄴ>
 채녀가 하늘의 비단(천)으로 태자(太子)를 꾸려 안아서 부인에게 모셔 왔는데
- ㄴ. 아피나 至極 호 精誠으로 비스듬면 感應이 𑖦시고 <월인석보 9: 10ㄴ>
 아무든지 지극한 정성으로 빌면 감응이 계시고
- ㄷ. 마초아 흥정바지 舍衛國으로 가리 잇더니 <석보상절 6: 15ㄴ>
 마침 장사치(장사하는 사람)가 사위국(舍衛國)으로 갈 사람이 있었는데
- ㄹ. 호 光이 東녀그로 비취샤 <월인석보 11: 37ㄴ>
 한 빛이 동쪽으로 비추다
- ㄱ. 西天은 부터 나신 나라히니 中國으로 西人 녀길썬 西天이라 호느니라 <월인석보 1: 30ㄱ>
 서천(西天)은 중국(中國)으로부터 서쪽이기 때문에 서천이라고 말한다.
- ㄴ. 有情이 오시 업서 모기 벌에며 더위 치위로 설버 호다가 <월인석보 9: 26ㄱ>
 유정(有情, 생명들/생명체들)이 옷이 없어서 모기나 벌레 또는 더위나 추위로 괴로워하다가
- ㄷ. 阿彌陀佛이 眷屬과로 金色光을 펴시고 七寶蓮華 가지샤 <월인석보 8: 57ㄴ>
 아미타(阿彌陀) 부처님께서 자기의 권속(眷屬)들과 함께 금색광을 펴시고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서
- ㄹ. 머리 나와 마자 宮中에 도라가 쫄로 열이고 波羅榛로 보내야닐 <월인석보 22: 64ㄱ>
 멀리 나와서 맞이하여서 궁중에 돌아가서 자신의 딸로 하여금 결혼을 시키고 바라내(波羅榛)로 보내거늘
- ㅈ. 아들님내 모다 童子로 出家호샤 聞法을 請호시니 부테 드르시고 <월인석보 14: 2ㄴ>
 아드님들이 모두 동자로서(동자인 상태로, 동자의 자격으로) 출가를 하셔서 문법(법 듣기)을 청하시니 부처께서 들으시고

(7ㄱ)은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가 쓰인 문장입니다. ‘깁’은 비단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기브로’, 즉 ‘천으로, 비단으로’라고 할 때의 ‘로’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ㄴ)은 방법의 ‘로’가 쓰인 예입니다. ‘精誠(정성)으로’라고 할 때의 ‘로’는 방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ㄷ)은 지향점의 예입니다. 여기서 ‘舍衛國(사위국)으로 가다’라는 부분은 ‘부산으로 가다’와 같은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ㄹ)은 방향의 예입니다. ‘어느 쪽으로 비추다’는 뜻은 (7ㄷ)의 지향점과는 다른 방향의 의미입니다. (7ㄱ)은 출발점의 예입니다. ‘西天’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인데, 즉 ‘인도(印度, India)’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中國으로 西(서)人 녀’에서 ‘中國으로’는 현대 한국어 같으면 ‘으로부터’를 쓰는

것이 좋을 자리인데 ‘으로’만 써서 ‘으로부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점의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는 예입니다. (7ㄷ)은 원인을 나타내는 ‘로’의 예입니다. 여기서 ‘로’는 ‘그것으로 인하여’라는 의미로, 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ㄸ)은 공동격 뒤에 쓰여서 ‘함께’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의 예입니다. 여기서 ‘眷屬’은 ‘자기의 거느린 사람들’을 뜻하고 ‘眷屬과로’에서 ‘로’는 ‘뒤편과 함께’의 의미로 쓰이는, 즉 공동의 의미에 쓰인 ‘로’입니다. (7ㄹ)은 사동의 대상에 ‘로’가 쓰인 예입니다. ‘(내) 딸로 얻이고’는 ‘(내) 딸로 결혼시키고’의 뜻이고 결혼시키는 대상을 ‘딸로’와 같이 ‘로’라는 부사격 조사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동의 대상에 ‘로’가 쓰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ㅈ)은 자격의 의미로 쓰인 ‘로’의 예입니다. 현대 한국어에는 자격으로 쓰이는 ‘로’의 예가 많지만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자격의 의미로 쓰인 ‘로’의 예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예가 나타나지 않는데, 자격의 용법으로 쓰인 ‘로’가 15세기에도 있기는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비교

다음은 부사격 조사 가운데 비교의 용법으로 쓰이는 예들입니다. 비교의 용법으로 쓰이는 격 조사에는 대표적으로 ‘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과’ 이외에도 ‘두-’의 활용형이 문법화된 ‘두고’라든지 ‘이라와/(으)라와’ 같은 형태도 있었습니다. 먼저 ‘와/과’가 쓰인 예를 보겠습니다.

- (8) ㄱ. 色이 空空 다르디 아니코 空이 色과 다르디 아니흐며 <반야심경 26ㄱ>
 색(色)이 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ㄴ. ㅎ다가 無生과 가줄불던덴 이 刹那 | 나라 <남명집언해 상: 61ㄱ>
 만일 무생(無生)과 비교(비유)한다면 이것은 찰나이다.
 ㄷ. 다 七寶로 이러 이쇼미 또 西方 極樂世界와 곧흐야 功德莊嚴이 고티요미 업고 <월인석보 9: 27ㄴ>
 다 칠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다 서방의 극락 세계(極樂世界)와 같아서 공덕 장엄(功德莊嚴)이 나누어짐(분별함)이 없고
 ㄹ. 다 소문 凡이 佛와 고티호미오 물루문 佛이 凡과 고티호미니 <원각경언해 상2-3: 5ㄱ>

(8ㄱ)에서는 ‘다르-’와 함께 쓰여 ‘과’가 비교 부사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뒤편과 다르다’라는 문장에 ‘와/과’가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ㄴ)의 ‘無生과 가줄불던덴’은 ‘無生과 비유(비교)하자면’이라는 뜻으로, ‘과’가 비교 부사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8ㄷ, ㄹ)은 ‘와’가 쓰인 예입니다. 우선 (8ㄷ)의 ‘極樂世界와 고티호야’에는 ‘고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앞의 (8ㄱ)에는 ‘다르-’가 쓰였는데 서로 대비가 됩니다. 체언 말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와/과’가 교체되고 ‘고티-’와 ‘다르-’ 앞에서 비교 부사격으로 사용된 예입니다. (8ㄹ)도 ‘와’가 쓰인 예입니다. ‘佛(불)와’와 같이 비교 부사격으로 ‘와’가 사용되었습니다. ‘와/과’ 이외에 ‘두고’나 ‘이라와/(으)라와’ 같은 부사격 조사도 쓰였습니다.

- (9) ㄱ. 하늘히 현마 즐겁고도 福이 다아 衰흐면 受苦르티요미 地獄두고 더으니 <월인석보 1: 21ㄴ>
 하늘이 아무리 즐거워도 복이 다하여 약해지면 괴롭고 고된 것이 지옥보다 더하니
 ㄴ. 불비츠로 莊嚴호미 日月과 느러 어드븐 딛 衆生도 다 불고물 어더 <월인석보

9: 15ㄱ>

- 불빛으로 꾸미는 것이 해(와) 달보다도 더하여 어두운 데의 중생도 다 밝음을 얻어서
ㄷ. 羅卜아 南閻浮提 中에 혼 아드리어나 혼 쓰리어나 혼 남진 종이어나 혼 겨집 종이어나
버려 부텃기 出家하야도 八萬四千 浮圖寶塔 세요므라와 더어 <월인석보 23: 76ㄴ>
나복(羅卜)아, 남염 부제(南閻浮提) 가운데 한 아들이거나 한 딸이거나 한 남자 종
이거나 한 여자 종이거나를 버려서 부처께 출가하더라도 8만 4천 개의 부도 보탑
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하여
ㄹ. 다른 그올히 넷 그올히라와 도토다 <두시언해 8: 35ㄱ>
다른 고을이 옛날 고을보다도 좋다.

(9ㄱ)의 ‘地獄(지옥)두고’라는 표현에서는 비교를 뜻하는 ‘보다’의 의미로 ‘두-’의 활용형이 조사로 굳어진 ‘두고’라는 형태가 쓰이고 있습니다. (9ㄴ)은 ‘라와’의 예로, ‘해(와) 달보다도’라는 뜻으로 ‘日月(일월)’ 뒤에 ‘보다’ 대신에 ‘라와’라고 하는 비교격 조사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ㄷ)은 매개 모음이 결합된 ‘으라와’의 형태가 비교적 조사로 쓰인 예입니다. ‘羅卜(나복)아’의 ‘羅卜’은 사람 이름으로, 그 내용은 부처님께서 ‘羅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南閻浮提(남염부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浮圖(부도)’는 부처의 사리를 안치한 탑, ‘寶塔(보탑)’은 보석 탑입니다. ‘세움’이라는 명사형 뒤에 ‘으라와’라고 하는 비교격 조사가 쓰여 ‘세요므라와’라는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세우는 것보다도’에서 ‘보다도’의 의미로 쓰인 ‘으라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ㄹ)은 ‘이라와’가 쓰인 예로, 여기서 ‘보다’의 의미로 ‘이라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격

마지막으로 여격 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격 조사는 독립된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격 조사에 ‘그에’나 ‘그에’가 줄어든 형태인 ‘게’ 또는 ‘손딴’ 등이 통합한 구성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관형격 조사가 존칭과 비존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격 역시 존칭 체언 뒤에서는 ‘스+그에/게’의 형태로 나타나고 비존칭 체언에서는 ‘의/의+그에/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스’ 뒤에서는 ‘손딴’이 쓰인 예는 나타나지 않고 ‘손딴’ 앞에는 항상 ‘의/의’만이 나타나서 ‘의/의+손딴’의 형태로만 사용이 됩니다.

(10) ㄱ. 존칭의 여격: 스+그에/기/게

王스그에, 부텃기, 부텃게

ㄴ. 평칭 유정 체언의 여격: 의/의+그에/게

衆生의그에, 중의게

ㄷ. 의/의+손딴: 사르미손딴, 長者ㅣ손딴

ㄹ. 드러: 그 쏘드려

먼저 존칭의 여격은 ‘스’ 뒤에 ‘그에’가 결합합니다. ‘그에’가 줄어든 형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그에/기/게’와 같은 형태로 실현이 됩니다. (10ㄱ)을 보면, ‘王스그에’는 존칭 체언인 ‘王’ 뒤에 ‘스’이 쓰이고 그 뒤에 ‘그에’가 쓰였습니다. ‘부텃기’에서는 ‘부터’ 뒤에 ‘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기’가 쓰였는데, ‘부텃기’는 ‘부텃게’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부터’ 뒤에 ‘스’이 오고 그 뒤에 ‘게’가 결합한 것

입니다. 존칭의 여격은 이와 같은 형태로 실현됩니다. (10ㄴ)은 평칭의 유정 체언에 나타나는 여격의 예입니다. ‘익/의’ 뒤에 ‘그에’ 또는 ‘게’가 쓰이게 되는데, 이때는 ‘기’가 쓰인 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衆生(중생)익그에’는 ‘衆生’의 2음절 모음인 양성 모음 ‘익’ 뒤에 관형격 조사 ‘익’가 오고 그 뒤에 ‘그에’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중의게’에서 ‘중’은 ‘유’라는 음성 모음 뒤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고 그 뒤에 ‘게’가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익그에’, ‘의게’와 같은 형태가 여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0ㄷ)은 ‘익/의+손딤’의 예입니다. ‘사름’ 뒤에 관형격 조사 ‘익’가 결합하고 그 뒤에 ‘손딤’가 와서 ‘익손딤’가 여격으로 기능하여 ‘사르미손딤’가 되었습니다. ‘長者’ 뒤에서는 관형격 조사가 ‘ㅣ’로 실현되었는데, 그 뒤에 ‘손딤’가 결합하여 ‘ㅣ손딤’가 여격으로 기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長者ㅣ손딤’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10ㄹ)은 ‘드려’라는 여격 조사가 사용된 예입니다. 여격 조사 ‘드려’는 ‘니르-’나 ‘묻-’와 같은 화법 동사들과 같이 쓰이는 예가 많습니다. ‘그 딸드려’는 ‘그 딸에게’ 정도의 의미로, 여기서 ‘드려’는 동사 ‘드리-’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활용형 ‘드려’가 하나의 조사로 문법화된 것입니다. 용언의 활용형이 여격 조사로 문법화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스게/쎄’는 ‘께’로, ‘익게/의게’는 ‘에게’로, ‘드려’란 형태는 ‘더러’란 형태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5. 호격 조사

이번에는 호격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격 조사는 비존칭에 쓰이는 ‘아’라는 형태 외에 존칭에 쓰이는 ‘하’라는 형태가 더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는 이와 같은 존칭의 호격 조사가 없다는 점에서 중세 한국어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이여’와 같은 중간 등급에 사용되는 호격 조사도 존재하였습니다.

(11) ㄱ. 존칭: 하

世尊하, 大王하

ㄴ. 비존칭: 아

佛子아

ㄷ. 중간 등급: 여/이여

文殊師利여

(11ㄱ)은 존칭 호격 조사의 예입니다. ‘世尊’이나 ‘大王’과 같은 존칭 체언 뒤에서 ‘하’라는 호격 조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11ㄴ)은 평칭 호격 조사 ‘아’의 예입니다. ‘佛子(불자)아’는 ‘佛子야’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가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보통의 호격 조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호격 조사 ‘아’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다른 문법 형태소들과는 달리 모음 조화에 따라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닙니다. 이 점은 현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ㄷ)은 ‘여’가 사용된 예입니다. ‘여’는 ‘하’와 ‘아’의 중간 등급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1ㄱ)과 같이 ‘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그리고 (11ㄴ)에 나타나는 ‘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나 또는 비슷한 등급의 사람끼리 서로 부를 때 사용이 됩니다. (11ㄷ)의 ‘여/이여’는 상위자를 부를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와는 같지만, 상대방을 어느 정도 대우해 줄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중간 등급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서술격 조사

다음으로 격 조사의 마지막 서술격 조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어미가 통합하여 활용을 한다는 점에서 용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의 어간의 교체 양상은 주격 조사 ‘이’와 동일합니다. 즉, 자음 어간 뒤에서는 완전한 ‘이-’의 형태로, 모음 어간 뒤에서는 반모음 ‘ㅣ-’의 형태로 실현됩니다. 다만 반모음 ‘ㅣ-’로 실현될 때는 어간 말음인 모음과 합쳐져 하나의 음절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도 주격 조사와 마찬가지로입니다.

(12) ㄱ. 자음 뒤: ‘이-’

사름+이+며→사르미며, 化佛+이+며→諸佛이며

ㄴ. 모음 뒤: ‘ㅣ-’

男子+ㅣ+며→男子ㅣ며, 부터+ㅣ+며→부테며

ㄷ. ‘이’나 ‘ㅣ’ 모음 뒤: ‘ㅣ-’ (표기상 실현되지 않음)

머리+ㅣ+며→머리며, 불휘+ㅣ+며→불휘며

非+ㅣ+니라→非니라 / 非+ㅣ+며→非ㅣ며

(12ㄱ)은 자음 뒤에 서술격 조사가 사용된 예로, ‘ㄹ’이나 ‘ㄴ’과 같은 자음 뒤에 서술격 조사 ‘이-’가 오고 그 뒤에 연결 어미 ‘-며’가 결합한 것입니다. 다만, ‘사르미며’의 경우에는 연결하여 ‘사르미’로 표기되었고 ‘諸佛이며’와 같이 한자어 뒤에서는 연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며’ 자체가 분절 표기되어 있습니다. (12ㄴ)은 모음 뒤에서 반모음 ‘ㅣ-’가 사용된 예입니다. ‘부터’라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ㅣ-’가 오고 그 뒤에 연결 어미 ‘-며’가 결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의 음절 ‘터’와 ‘ㅣ’가 하나의 음절로 합쳐져 ‘부테며’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즉, 반모음 ‘ㅣ-’가 앞의 음절과 합쳐져 하나의 음절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 점은 주격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한자어 뒤에서는 표기상 한자와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음절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발음상으로는 역시, 여전히 앞 음절과 합쳐져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男子’에 ‘ㅣ며’가 붙었을 때 표기상으로는 ‘男子ㅣ며’와 같이 표기되지만 발음은 [남재며]가 됩니다. 물론 당시에 ‘ㅐ’(ㅏㅣ)는 이중 모음이었기 때문에, 실제 발음은 [남자이며]였겠지만, 현대 한국어식으로 했을 때 [남재며] 정도와 같이 하나의 음절로 합쳐져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모음이나 반모음 ‘ㅣ’ 뒤에서는 표기상 서술격 조사 ‘이-’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주격 조사와 같습니다. (12ㄷ)을 보면, ‘머리’라는 형태에 ‘ㅣ며’가 결합하였을 때 표기상 ‘ㅣ-’가 나타나지 않고 ‘머리며’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모음 ‘ㅣ’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불휘’ 뒤에 서술격 조사 ‘ㅣ-’가 결합하고 연결 어미 ‘-며’가 결합했을 때 역시 ‘불휘며’의 형태로 실현되어 표기상으로 서술격 조사 ‘ㅣ-’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앞의 음절이 평성인 경우에는 ‘ㅣ’가 합쳐져 상성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주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성조 변동을 보이기는 합니다. 서술격 조사의 경우는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실현되는 모습은 주격 조사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격 조사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양한 격 조사들을 공부하셨는데, 한국어 문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격 조사의 학습이 매우 중요하므로, 충실히 학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3분)

1. 15세기 한국어의 주격 조사에는 ‘이’와 ‘가’가 있었다. (O/X)

정답: X

2. 중세 한국어의 관형격 조사 ‘ㅅ’은 존칭의 유정 체언에 사용되었다. (O/X)

정답: O

3. 중세 한국어의 도구 부사격 조사 ‘로’는 자격의 의미로는 사용된 적이 없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중세 한국어의 주격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격 조사는 ‘이’ 모음 뒤에서는 표기상 실현되지 않았다.
- ② 체언이 한자어일 때 어간 말음이 자음일 경우 연결되었다.
- ③ 주격 조사 ‘가’는 16세기에 처음 등장하였다.

정답: ①

2. 다음 중 중세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언의 어간 말음이 자음이면 목적격 조사는 ‘을/을’이 결합하였다.
- ② 목적격 조사의 기원적인 형태는 ‘ㄹ’과 ‘를’이었다.
- ③ 한자로 된 체언 뒤에서는 연결되지 않았다.

정답: ②

3. 다음 중 관형격 조사와 체언이 결합한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앞의 일흠 ② 쇠 머리 ③ 깊은 가운뎃

정답: ①

단답형 (10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15세기에는 체언의 모음이 ‘이’나 ‘ㅣ’일 경우 뒤에 주격 조사가 결합하였는지의 여부를 ○○의 변화로 알 수도 있었다.

정답: 성조

2. 중세 한국어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에는 관형격 조사가 ‘○’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답: ㅣ

3. 중세 한국어에서 윗 사람을 부를 때 쓰인 호격 조사는 ‘○’였다.

정답: 하

나. 토의 (30분)

1. 다음의 예들은 체언에 처소의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예들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ㄱ)과 (ㄴ)으로 분류한 기준과 (ㄴ)과 같이 쓰이는 체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ㄱ) 자해, 山애, 누네, 그르세, 배예, 귀예 (ㄴ) ㅁ술히, ㅁ새, 床이, 지비, 門의, 우희
--

2. 중세 한국어 목적격 조사의 실현 양상을 모음 조화와 관련하여 설명해 보자.

다. 과제 (60분)

다음 예들을 참고하여 중세 한국어 시기 관형격 조사의 종류와 쓰임을 살펴보고, 이들을 현대 한국어의 관형격 조사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세요.

(ㄱ) ㅁ릭 香, 象이 香, 더의 목숨, 百姓의 ㅁ숨 (ㄴ) 長者ㅣ 집, 獅子ㅣ 샅기 (ㄷ) 부텃 道理, 님굼 德, 釋迦牟尼人 일흠, 世尊人 神力 (ㄹ) 나랏 小民, 後人 사름, 家門人 中 (ㄴ) 先王ㅁ 뜰, 瓶ㅁ 솥, 前生ㅁ 罪業, 西天ㅁ 字, 幡ㅁ 數, 使ㅁ 字
--

■ 참고자료

강우성(康遇聖)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성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첩해신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고영근(2020),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제4판, 집문당.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신정판, 탑출판사.

<5차시> 보조사 (1)

■ 학습목표

1. 중세 한국어의 다양한 보조사의 종류와 그 쓰임을 살펴본다.
2. 주제 및 대조, 역동 내지 단독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의미와 기능, 실현 양상 등을 예문을 통해 알아보고, 그 분포를 확인한다.
3. 15세기 한국어의 주제 및 대조, 역동 내지 단독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의미 및 기능과 현대 한국어의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본다.

■ 강의 목차

1. 주제 및 대조: ㄴ/은/은/는/는, 으란/으란/란
2. 역동: 도
3. 단독: 만, 쁘

■ 강의 내용 전문

<한국어 문법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제 및 대조: ㄴ/은/은/는/는, 으란/으란/란

15세기 한국어에서도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보조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조사들은 의미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제와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로 ‘은/는’과 ‘으란’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은/는’은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체언의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모음으로 끝나는가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15세기에는 모음 조화가 철저히 지켜졌기 때문에, ‘은’은 ‘은’이라는 이형태를 가지고 ‘는’은 ‘는’이라는 이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ㄴ’ 단독으로 쓰이는 형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ㄱ. 흐나흐 바르래 누브며 둘흔 湏彌山을 베며 <월인석보 1: 17ㄱ>

하나는 바다에 누우며 둘은 수미산(湏彌山)을 (머리에) 베며

ㄴ. 梵王은 왼녁 겨퇴 서습고 帝釋은 올흔녁 겨퇴 서습고 <석보상절 3: 30ㄴ>

범왕(梵王)은 왼쪽 곁에 서고 제석(帝釋)은 오른쪽 곁에 서고

ㄷ. 그 췌 어마니몬 이췌 내 어마님 摩耶夫人이시고 <월인석보 22: 68ㄷ>

그때의 어머니는 지금 내 어머니 마야부인(摩耶夫人)이시고

- ㄹ. 시내해 버렛는 蓮入 니픈 프른 도니 답사헛는 듯호도다 <두시언해 10: 8ㄴ>
 시내에 벌어져 있는 연의 잎은 푸른 돈이 쌓여 있는 듯하다.
- ㄱ. 나^는 난 後로 늬 더브러 드토돌 아니호노이다 <석보상절 11: 34ㄴ>
 나는 태어난 이후로 남과 더불어 다투지 않았습니다.
- ㄴ. 너^는 어씨 太子를 아니 그리논다 <월인석보 22: 61ㄴ>
 너는 어찌서 태자를 그리워하지 않느냐.
- ㄷ. 須達^인 舍利弗 위하야 노픈 座 밍그니 <석보상절 6: 28ㄱ>
 수달(須達)이는 사리불(舍利弗)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먼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은/은’이 사용된 예입니다. (1ㄱ)의 ‘호나ㅎ’ 뒤에 ‘은’이라는 형태, 그다음에 ‘둘ㅎ’ 뒤에 ‘은’이라는 형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음 뒤에서 모음 조화에 따라 ‘은’과 ‘은’이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세기의 일반적인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 뒤에서는 (1ㄴ)과 같이 ‘梵王(범왕)’은 자음으로 끝나고 ‘과’라고 하는 양성 모음 뒤이기 때문에 ‘은’이라는 형태가 쓰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한자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이 그대로 분절되어 표기되었습니다. ‘帝釋(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帝釋’ 또한 자음으로 끝나고 ‘이’라는 음성 모음을 가지므로, 그 뒤에 ‘은’이라는 형태가 쓰였는데 역시 분절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ㄷ)은 ‘이’ 모음 뒤에 쓰인 예입니다. ‘어마님’이라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이기 때문에 ‘은/은’이 쓰여야 될 텐데, 선행 모음이 중성 모음 ‘이’이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은/은’이 다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은’이란 형태가 선택된 것입니다. (1ㄹ)에서는 ‘이’ 모음 뒤에 ‘은’이 쓰인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詩)라서 일반적인 문장과는 그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이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이’라는 중성 모음 뒤이기 때문에 ‘은/은’이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은’이 쓰인 것입니다. 즉, 중성 모음 ‘이’ 뒤에서는 ‘은/은’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1ㄱ)은 모음 뒤에서 ‘는’이 쓰인 예로, ‘나는’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나는’이 쓰였겠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따르기 때문에 ‘나’라는, 즉 ‘나’라는 양성 모음 뒤에 ‘는’이라는 형태가 쓰인 것입니다. (1ㄴ)은 모음 뒤에서 ‘는’이 쓰인 예입니다. 현대 한국어와 같이 ‘너는’이라는 형태가 쓰였습니다. 즉, 음성 모음 뒤에서 ‘는’ 형태가 선택된 것입니다. (1ㄷ)은 모음 형태 뒤에 ‘ㄴ’만 쓰인 예입니다. ‘須達(수달)’이라는 형태 뒤에 바로 ‘ㄴ’이 붙어 ‘須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須達이는’ 또는 ‘須達이느’와 같이 실현될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느/느’ 대신에 ‘ㄴ’만 쓰여 ‘須達인’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는’은 체언 뒤에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조사, 특히 부사격 조사나 여격 조사 뒤에서 실현될 수도 있었습니다.

- (2) ㄱ. 뒤해는 모딘 중싱 알핀느 기픈 모새 열븐 어르믈 하늘히 구티시니 <용비어천가 31장>
 뒤에는 흉악한 짐승들, 앞에는 깊은 연못이 있는데, 그 얕은 얼음을 하늘이 굳게 하셨다.
- ㄴ. 耶輸 | 보시고 호녀ㄱ론 분별호시고 호녀ㄱ론 깃거 <석보상절 6: 3ㄱ>
 야수(耶輸)께서 보시고 한편으로는 걱정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면서
- ㄷ. 衆生인겐 塵勞애 뿌려 잇고 菩薩인겐 萬行애 뿌려 잇고 <월인석보 15: 55ㄱ>
 중생에게는 진로에 싸여져 있고 보살께는 만행에 싸여져 있고

(2ㄱ)은 (1ㄴ)과 같이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뒤혜는, 알피는’과 같이 처격 조사 ‘에/익’ 뒤에 ‘는/는’이 쓰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처격이나 특이 처격에 상관없이 그 뒤에 보조사 ‘은/는’이 쓰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은/는’은 처소 부사격 조사 뒤에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은/는’은 ‘로’와 같은 다른 부사격 조사 뒤에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2ㄴ)의 ‘ᄃᆞᆫ’은 원래 “*ᄃᆞᆫ”에서 ‘ㄴ’이 중복되어 축약된 형태입니다. ‘ᄃᆞᆫ’은 ‘한쪽’이라는 뜻으로, 뒤에 ‘으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오고 그 뒤에 ‘ㄴ’의 형태로 보조사가 통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로는 ‘한편으로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 뒤에 ‘는’이 결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 뒤에 ‘ㄴ’이 결합한 것입니다. (2ㄷ)의 ‘衆生(중생)’은 평칭, 즉 존칭이 아닌 유정 체언이기 때문에 ‘익게’라는 여격 조사가 선택되었고 ‘菩薩(보살)’은 존칭의 유정 체언이기 때문에 ‘스게(쎄)’라는 여격 조사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익게’와 ‘스게’ 뒤에 각각 ‘ㄴ’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결합하여 나타난 형태입니다. 현대 한국어로는 ‘~에겐, ~겐’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조사 ‘은/는’은 체언에 직접 결합하거나 다른 격조사 뒤에 결합하는 것 외에도, 어미 뒤, 즉 용언의 활용형 뒤에도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3) ㄱ. 王이 스랑ᄃᆞᆫ샤미 드외야는 도리ᄃᆞᆫ 나를 브리ᄃᆞᆫ다 ᄃ고 <석보상절 11: 30>

왕께서 사랑하심이 되어서는 도리어 나를 버린다 하고

ㄴ. 수먼 煩惱人 根本이 드외오 發ᄃᆞᆫᄃᆞᆫ 虛妄ᄃᆞᆫ 根과 塵과 드외ᄃᆞᆫ니 <능엄경언해 4: 92>

숨어서는 번뇌의 근본이 되고 말하여서는 허망한 근(根)과 진(塵)이 되니

ㄷ. 王이 車匿이 보시곤 太子 가신 디 가려 ᄃᄃᆞᆫ시니 <석보상절 3: 34>

왕이 차익(車匿)이를 보시고는 태자가 가신 곳에 가려고 하셨는데

(3ㄱ)은 ‘드외-’라는 용언 어간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한 활용형인 ‘드외야’ 뒤에 ‘는’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결합하였습니다. ‘되어서는’ 정도의 의미인데, ‘드외야’ 뒤에 ‘는’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ㄴ)에서는 동사 어간 ‘숨-’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여 ‘수머’라는 형태가 되고 그 뒤에 보조사 ‘ㄴ’이 결합하여 ‘수먼’이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또 ‘發(발)ᄃᆞᆫᄃᆞᆫ’은 ‘發ᄃᆞᆫ-’라는 동사 어간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여 ‘發ᄃᆞᆫ야’라는 형태가 되고 그 뒤에 보조사 ‘ㄴ’이 통합하여 실현된 형태입니다. 현대 한국어로는 ‘나타나선, 발해선’과 같이 ‘는’이라는 보조사가 ‘ㄴ’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ㄷ)의 ‘車匿(차익)’은 종(하인)의 이름인데, ‘보시곤’이라는 형태는 동사 어간 ‘보-’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고 그 뒤에 연결 어미 ‘-고’가 통합하여 ‘보시고’라는 형태가 되었고, 그 뒤에 보조사 ‘ㄴ’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연결 어미 ‘-아/어’ 뒤에서는 보조사 ‘ㄴ’이 ‘는/는’ 또는 ‘ㄴ’과 같은 형태로 실현될 수도 있었는데, 연결 어미 ‘-고’ 뒤에서는 ‘고는/는’ 같은 형태는 15세기 문헌에 나타나지 않고 (3ㄷ)과 같이 ‘곤’의 형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연결 어미 ‘-고’ 뒤에 보조사 ‘ㄴ’이 결합한 용례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고는/는’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곤’의 형태만 보인다는 것이 15세기 문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조사 ‘은/는’의 의미는 현대 한국어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용례의 경우에 ‘은/는’이 나타난 예문을 해석할 때, 현대 한국어로는 ‘이/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한국어의 ‘은/는’의 용법과 현대 한국어의 ‘은/는’의 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제 및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 이외에 15세기 한국어에 존재하였던 또 다른 주제 및 대조 보조사 ‘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은 자음 뒤에서는 ‘으란/으란’과 같이 매개 모음을 가진 형태로 실현이 됩니다. 이 형태는 주제나 대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은/는’과 동일하지만, 주어 자리에는 잘 쓰이지 않고 목적어나 부사어에 결합하여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4) ㄱ. 利養은 도히 칠씨니 느므란 분별 아니코 제 몸썸 도히 चु미라 <석보상절 13: 36>
 이양(利養)은 잘 기르는 것인데 남은 걱정하지 않고 자기 몸만 잘 기르는 것이다.
- ㄴ. 초존 중으란 雞雀精舍로 보내오 <석보상절 24: 34>
 따라온 중들은 계작정사(雞雀精舍)로 보내고
- ㄷ. 妙音이 釋迦란 보습고 多寶란 묻 보습다 하니 <월인석보 18: 81>
 묘음(妙音)이 석가모니는 뵈고 다보(多寶)는 뵈지 못했더라고 하니
- ㄹ. 王人 겨퇴 안갯다가 말란 아니 하고 두 솟가라굴 드니 <석보상절 24: 47>
 왕 옆에 앉아 있다가 말은 하지 않고 두 손가락을 드니
- ㅁ. 바브란 雲子ㅣ 히니를 ㄱ리쓰고 외라느 水精이 춘 듯히니를 시부라 <두시언해 15: 54>
 밥은 구름이 흰 것을 가려서 뜨고 오이는 수정(水精)이 찬 듯한 것을 씹었다.
- ㅂ. 넷 뵈호란 白閣을 迷失하고 ㄱ숯 물라느 皇陂를 思憶호노라 <두시언해 16: 11>
 옛 산은 백각(白閣)을 잃어버렸고 가을의 물은 황피(皇陂)를 생각한다
- ㅅ. 혼 분으란 釋迦牟尼佛의 받즈븍시고 혼 분으란 多寶佛塔에 받즈븍시니라 <석보상절 21: 18>
 한 뭇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한 뭇은 다보불탑(多寶佛塔)에 바치셨다.

(4ㄱ)에는 ‘느므란’이라는 형태가 보이는데, ‘느’이라는 명사 뒤에 ‘으란’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을 걱정한다’ 또는 ‘남은 걱정한다’ 정도로 해석될 텐데, 여기서 대조나 주제를 나타내는 ‘은’이 쓰일 자리에 목적어 뒤에서 ‘으란’이라는, 즉 ‘란’이라는 형태가 쓰인 것입니다. (4ㄴ)은 ‘으란’의 예입니다. ‘중으란’은 ‘보내오’의 목적어인데, ‘중을 보내다’, 또는 ‘중들은 보내다’와 같은 뜻이어서 ‘중’ 다음에 ‘은’이 쓰일 자리인데, 여기에 ‘으란’이라는 보조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중’이라는 명사가 ‘ㅈ’라고 하는 음성 모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 조화에 따라 ‘으란’이 아닌 ‘으란’이 선택된 것입니다. (4ㄷ)은 모음 뒤에서 ‘란’이 나타난 예입니다. 여기서 앞부분은 ‘석가모니는 뵈고 多寶(다보)는 보지 못했다’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므로, 목적어 뒤에 ‘느’이 쓰일 자리인데, ‘보-’의 목적어인 ‘釋迦(석가)’와 ‘多寶’에 대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보조사 ‘란’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ㄹ)은 어간 말 자음이 ‘ㄹ’인 경우에 ‘란’이 선택된 예입니다. ‘말란 아니 하고’는 ‘말은 하지 않고’로 해석되는데, 이때 ‘은’이 쓰일 자리에 ‘란’이라는 형태가 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면 뒤에 ‘으란/으란’의 형태가 결합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ㄹ’ 뒤에서는 ‘란’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음과 ‘ㄹ’ 뒤에서는 ‘란’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ㅁ)에서는 ‘란’이라는 형태가 ‘라느’ 또는 ‘라느’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시여서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4口)의 ‘바브란’에는 ‘밥’ 뒤에 ‘으란’이라는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데 비해, 그 뒤의 ‘외’라는 형태 뒤에는 ‘외란’이 아니라 ‘외라느’와 같이 ‘란’ 대신 ‘라느’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 보조사 ‘은/는’이 ‘ㄴ’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은/는’으로 실현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란’이라는 형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란’ 뒤에 나타난 ‘ㄴ’이 ‘라느/라는’과 같이 ‘ㄴ’이 ‘느/는’의 형태로 실현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ㄷ)도 마찬가지로, 역시 시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ㄱ숯 물라느’은 ‘가을의 물에 대해서는’ 정도의 의미로, 여기서 ‘란’이 아니라 ‘라느’이라는 형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ㅅ)의 예는 ‘란’이 대조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분(分)은 ~, 한 분은 ~’이라는 표현이 ‘한 몫은 어떻게 하고, 한 몫은 어떻게 하고’와 같은 대조적인 의미로 쓰일 때 ‘으란’이라는 형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의 의미로 사용될 때, ‘~란 ~란’과 같이 동일한 구성이 반복되어 실현될 수도 있지만, 다음의 (5)와 같이 ‘~는 ~란’과 같이 ‘느’과 ‘란’이 대조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란 ~를’과 같이 보조사 대신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5) ㄱ. 싸흔 그딛 모기 두고 남ㄱ란 내 모기 두어 <석보상절 6: 26ㄱ>

땅은 그대의 몫으로 두고 나무는 내 몫에 두어서

ㄴ. 妙音이 釋迦란 보스븍시고 多寶를 몬 보스븍시다 하니 <석보상절 20: 44ㄴ>

묘음(妙音)이 석가는 뵈고 다보(多寶)를 못 뵈는다고 하니

(5ㄱ)에는 ‘땅(싸흔)’과 ‘나무(남ㄱ)’가 대조되고 있는데, 앞에는 ‘은’이라는 보조사를, 뒤에는 ‘란’이라는 보조사를 사용하여 둘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ㄴ)에서는 앞의 ‘釋迦’에 대해서는 ‘란’이라는 보조사를 쓴 데 비해, 뒤의 ‘多寶’에 대해서는 ‘를’이라는 일반적인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여 둘의 대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은/는’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란’이 대조의 의미일 때 무조건 두 번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조사와 대조를 이룰 수도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사 ‘란’은 일반적으로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목적어 뒤에 사용되어 목적어가 대조나 주제의 의미를 나타냄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6)의 예와 같이 부사어 뒤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6) ㄱ. 衆生이 부텃 모믄로 得헛리그에란 觀世音菩薩이 즉자히 부텃 모믄 現헛야 說法헛며 <석보상절 21: 10ㄱ>

중생이 부처의 몸으로 얻은 사람에게는(득도할 사람에게는) 관세음보살이 즉시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說法)하며

ㄴ. 물ㄱ식란 ㄱ리 서늘헛니를 披拂헛고 <두시언해 19: 29ㄱ>

물가에서는 갈대가 서늘한 것을 헤치고

ㄷ. 이제 저믄 저그란 안죽 ㅁ슴ㅁ장 노다가 즈라면 어루 法을 비호스보리이다 <석보상절 6: 11ㄴb>

이제 어릴 때에는 아직은 마음껏 놀다가 자라면 가히 법을 배우겠습니다.

ㄹ. 부텃 滅度헛 後에 一切 信心의 施흔 부텃 거스란 글로 부텃 像과 부텃 옷과를 땡골오 <석보상절 23: 3ㄴ>

부처께서 열반하신 후에 일체의 신심(信心)으로써 보시한 부처의 것은, 그것으로 부처의 상(像)과 부처의 옷을 만들고

(6ㄱ)에서는 ‘부처의 몸으로 득도할 중생에게는’과 같은 구성을 중세 한국어로는 ‘衆生(중생)이 부텃 모므로 得(득)히그에란’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得히그에’는 ‘得히리’라는 명사 뒤에 ‘이그에’라고 하는 여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이고 그 뒤에 ‘란’이라는 보조사가 통합하여 ‘得히그에란’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격어, 즉 부사어 뒤에 보조사 ‘란’이 쓰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ㄴ)은 ‘물가에서 추운 계절에 갈대가 있는 것을 자기가 헤치고 나간다’와 같은 의미를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물ᄃᆞ식란’은 ‘물ᄃᆞ’이라는 명사에 ‘이’라는 특이 처격 조사가 결합한 ‘물ᄃᆞ식’ 뒤에 다시 보조사 ‘란’이 결합하여 나타난 형태입니다. 역시 부사어 뒤에 ‘란’이 쓰인 예입니다. (6ㄷ)은 체언 자체가 처소 부사로 사용되고 그 뒤에 ‘란’이 결합한 예입니다. ‘저문 저그란’의 ‘저그란’은 명사 ‘적’ 대신 ‘저기’와 같이 부사어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적’이라는 명사 자체가 부사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 뒤에 보조사 ‘으란’이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정도의 의미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ㄹ)에서는 ‘부텃 거스란’ 표현 뒤에 ‘그것으로’라는 뜻의 ‘글로’가 나타나고 있는데, ‘부텃 거스란’과 ‘글로’는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스란’은 의존 명사 ‘것’에 ‘으란’이 결합한 형태인데, ‘부텃 거스란’은 ‘부처의 것으로는’ 정도의 의미로서, ‘으란’이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으란’은 목적어나 부사어 뒤에 쓰인다고 할 수 있지만, 다수는 목적어 뒤에 붙은 것들이기 때문에, ‘으란’의 전형적인 용법은 대개 목적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격이나 여격 등에 ‘으란’이 사용된 것은 목적어에 쓰이던 용법이 확장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으란’이 목적격과 관련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는 대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형태적으로 조사 ‘으란’은 목적격 조사 ‘을’과 대조의 보조사 ‘은’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격 조사 ‘을/을’과 보조사 ‘은/은’이 단순히 결합하였다면, ‘으란/으란’과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하지만, 2음절 모음이 ‘·’가 아닌 ‘ㅏ’로 바뀌어 ‘으란/으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조금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를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7)은 고려 시대 석독 구결 『화엄경』에 나타난 예입니다.

(7) 菩薩ᄃ 十ᄃ 種 行ᄃ 行ᄃ 亦ᄃ 一切 大人ᄃ 法ᄃ 行ᄃ 示ᄃ 諸
 仙ᄃ 行 {等}ᄃ 悉ᄃ 餘ᄃ 無ᄃ <화엄경 14: 18장 18-19행>
 [보살은 열ᄃ 중 행을 행ᄃ져 또ᄃ 일체 대인의 법을 행ᄃ져ᄃ누온들 보이며 모든 선
 ᄃ 행 다ᄃᄃ아도 다 나ᄃᄃ 업시ᄃᄃ다]
 보살(菩薩)은 열 가지 행(行)을 행하고 대인(大人)의 법을 행하고 하는 것을 보이며,
 여러 선(仙)의 행(行) 같은 것들도 모두 남김없이 한다.

‘으란/으란’과 관련된 부분으로 추정되는 표현은 (7)의 뒷부분인 ‘諸ᄃ 仙ᄃ 行 {等}ᄃ 亦ᄃ 一切 大人ᄃ 法ᄃ 行ᄃ 示ᄃ’에 보이지만, 어려운 내용이지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十ᄃ 種 行’(열ᄃ 중 행)과 ‘大人ᄃ 法’(대인의 법)이 동사 ‘行ᄃ-’(행ᄃ-)의 목적어로 제시되어 있고, 뒷부분에서

는 ‘諸 1 仙 7 行 {等} 1 1 1’(모든 선사 행 다흔)이라는 형태가 ‘餘 1 1 無 1 1’(나쁜 업시)의 목적어로 제시되어 있어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諸 1 仙 7 行 {等} 1 1 1’(모든 선사 행 다흔)이라는 명사 뒤에 ‘ㄷ(을아도)’라는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 ‘ㄷ(을)’은 목적격 조사, ‘도(도)’는 동일(또는 역동)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ㄷ(을)’과 ‘도(도)’ 사이에 ‘3(아)’라고 하는 형태가 개재되어 있는데, 이는 격 조사와 보조사 사이에 ‘3(아)’가 끼어드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으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3(아)’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으란’의 경우도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와 주제나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ㄷ’ 사이에, ‘아’라고 하는 형태가 끼어들어가 ‘으란’이라는 형태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역동: 도

이어서 역동(亦同)의 의미로 쓰이는 보조사 ‘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한국어에서 ‘또한’이나 ‘역시’의 의미로 쓰이는 보조사 ‘도’는 현대 한국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형태 변화도 없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8ㄱ). 오직 太子祇隨의 東山이 싸토 平하며 나모도 盛하더니 <석보상절 6: 23ㄴ>

오직 태자인 기타(祇隨)의 동산이 땅도 평평하며 나무도 무성했는데

ㄴ. 諸佛 니르시는 經法도 듣즈뵈며 <월인석보 11: 36ㄴ>

제불(諸佛)이 말씀하시는 경법(經法)도 들으며

ㄷ. 내 겨지뵈 고보미 사료 中에도 짝 업스니 <월인석보 7: 11ㄴ>

내 아내의 고운 것(아름다움)이 사람 중에도 짝이 없으니

ㄹ. 金輪王은 하늘해도 가시느니라 <월인석보 1: 26ㄱ>

금륜왕(金輪王)은 하늘에도 가신다.

ㅁ. 大乘은 世界 밧기도 오히려 法性色이 잇거니 <월인석보 1: 37ㄴ>

대승(大乘)은 세계 밖에도 여전히 법성색(法性色)이 있는데

ㄴ. 天眼으로도 能히 헤여 아디 못하리라 <법화경언해 3: 62ㄴ>

천안(天眼)으로도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할 것이다.

ㅅ. 아자바뵈기도 가샤 노니더시니 <석보상절 3: 7ㄴ>

아저씨께도 가서서 노셨는데

(8ㄱ)의 ‘祇隨(기타)’는 사람 이름입니다. ‘ㅎ’ 발음 체언 ‘싸ㅎ’ 뒤에 ‘도’가 결합할 때 ‘ㅎ’과 ‘도’가 축약되어 ‘싸토’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나모’ 뒤에도 ‘도’가 결합하여 ‘나모도’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어에 결합한 예입니다. (8ㄴ)의 ‘經法(경법)도 듣즈뵈며’는 ‘경법(經法)을 듣다’는 뜻으로, 목적어 자리에 ‘도’가 결합하여 ‘經法도’와 같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8ㄷ)부터는 부사격 조사에 ‘도’가 결합한 예입니다. ‘中(중)에’라는 부사어 뒤에 ‘도’가 결합하여 ‘中에도’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8ㄹ)은 체언인 ‘하늘ㅎ’에 ‘애’라고 하는 처격 조사가 오고 그 뒤에 다시 ‘도’가 결합하였습니다. (8ㅁ)은 ‘밧’이라는 명사에 ‘의’라고 하는 특이 처격 조사가 오고 그 뒤에 ‘도’가 결합한 것입니다. (8ㄴ)은 부사격 조사 ‘로’에 ‘도’가 결합한 예로, ‘天眼(천안)’이라는 명사에 ‘으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오고 그 뒤

에 다시 ‘도’가 결합하였습니다. (8ㅅ)의 ‘아자바님’이라는 형태는 현대 한국어에서 ‘아주버님’이라는 형태로 이어지는데, ‘아저씨’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자바님’이라는 명사 뒤에 ‘스귀’, 즉 ‘씩’라고 하는 여격 조사가 나타났고 그 뒤에 ‘도’가 결합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로 하자면 ‘~께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조사 ‘도’는 이렇게 체언이나 다른 부사격 조사 뒤에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미 뒤에도 결합하여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용언의 활용형 뒤에 ‘도’가 결합할 수 있었는데, 특히 연결 어미 ‘-어’나 ‘-고’ 또는 보조적 연결 어미 ‘-디’ 뒤에 ‘도’가 결합한 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 ㄱ. 일후물 귀에 혼 번 드리도 病이 다 업고 <월인석보 9: 18ㄴ>

이름을 귀에 한 번 들어도(듣기만 해도) 병이 다 없어지고

ㄴ. 六師의 무리 閻浮提에 ㄱ독ㅎ야도 내 바렛 혼 터리를 몬 무으리니 <석보상절 6: 27ㄴ>

육사(六師)의 무리가 염부제(閻浮提)에 가득하여도 내 발에 있는 한 털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니

ㄷ. 비록 사르미 무래 사니고도 중싱마도 몬호이다 <석보상절 6: 5ㄴ>

비록 사람의 무리에 살면서도 짐승만도 못합니다.

ㄹ. 기운이 저거 토티 몬ㅎ며 킵킵디도 몬ㅎ거든 <구급간이방 2: 57ㄴ>

기운이 적어 토하지도 못하며 설사하지도 못하거든

(9ㄱ)은 불규칙 동사 ‘듣-’ 뒤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여 ‘드리’라는 형태가 되었는데, 그 뒤에 다시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드리도’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들어도’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9ㄴ) 역시 연결 어미 ‘-아’ 뒤에 ‘도’가 결합한 예입니다. ‘閻浮提(염부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ㄱ독ㅎ-’라는 용언 어간 뒤에 ‘-아’라는 연결 어미가 결합하여 ‘ㄱ독ㅎ야’의 형태가 되고 그 뒤에 다시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ㄱ독ㅎ야도’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9ㄷ)은 연결 어미 ‘-고’ 뒤에 ‘도’가 결합하는 예입니다. 동사 어간 ‘사니-’ 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사니고’가 되고 그 뒤에 다시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사니고도’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하고도’와 같이 실현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9ㄹ)은 보조적 연결 어미 ‘-디’ 뒤에 ‘도’가 결합한 예입니다. 연결 어미 ‘-디’는 현대 한국어의 부정 표현에 나타나는 ‘-지’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하지도 못하다’와 같이 보조적 연결 어미 ‘-지’ 뒤에 ‘도’가 결합할 수 있는데 중세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ㅎ디도 몬ㅎ다’와 같은 형태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혹은 ‘역시’를 나타내는 보조사 ‘도’는 이와 같이 현대 한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단독: 만, 쉼

다음으로는 단독의 의미를 나타내는 ‘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한국어에서 ‘만’은 ‘어느 정도’라고 할 때의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었고, 또는 ‘누구만’이라고 하는 단독의 의미로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 단독의 의미로 쓰이는 예들은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기본적으로 보조사 ‘만’은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고 여기에서 단독의 의미가 확장되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정

도의 의미로 쓰인 ‘만’의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ㄱ. 燈마다 술위삐만 크기 햐 <월인석보 9: 53ㄱ>

등불마다 수레 바퀴만큼 크게 해서

ㄴ. 衆生을 프성귀만 너기느니 <석보상절 6: 28ㄴ>

중생을 푸성귀만큼(푸성귀처럼) 여기니

ㄷ. 사람이라도 중심만 묻호이다 <월인천강지곡 상: 52ㄱ>

사람이라도 짐승만 못합니다.

ㄹ. 네 아드릭 나히 열아홉만 햐면 내 지비 아니 이쉴 相이로다 햐더라 <월인석보 8: 97ㄴ>

너의 아들이 나이가 여덟아홉 살만 되면 나의 집에 있지 앓을 상이로구나 하였다.

ㅁ. 나를 닐웨만 王이 드외에 햐쇼서 <석보상절 24: 50ㄴ>

나를 이레만 왕이 되게 하십시오.

ㅂ. 사르몬 일세만 사라 잇고 <변역박통사 1: 1ㄱ>

사람은 일세(一世)만(한 세상에만) 살아 있고

(10ㄱ)에서 ‘술위삐’는 ‘수레바퀴’를 말하는데, ‘술위삐만 크기 햐’는 ‘수레 바퀴만큼 크게 만들어서(해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만’이 ‘만큼’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ㄴ)에서는 (10ㄱ)과는 달리 ‘처럼’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ㄷ)은 ‘~만 같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여, 역시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이 ‘만’이 정도의 의미인지 한정(단독)의 의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중의적으로 파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ㄹ)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렇게 문맥상 중의성으로 인해 정도와 단독의 의미가 혼용되어 나중에 단독의 의미까지 확장해 나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열아홉만 햐면’은 ‘여덟아홉 살 정도만 되면’의 뜻인데, 이것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한정(단독)의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들이 바로 한정(단독)의 의미를 획득해 가는 문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ㅁ, ㅂ)은 단독(한정)의 의미로 쓰인 ‘만’의 예입니다. (10ㅁ)에서 ‘닐웨만’은 ‘7일만’이라는 한정(단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10ㅂ)의 ‘일세만’은 ‘한 세상에만’이라는 뜻으로, 둘 모두 단독의 의미로 쓰인 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만’은 보조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의존 명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점은 15세기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은 15세기에 보조사로 쓰일 수도 있었고 의존 명사로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10)에서는 보조사로 쓰인 ‘만’의 예들을 살펴보았는데, (11)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인 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정도의 의미로 쓰인 것과 단독의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나누어집니다. 우선, 정도의 의미로 쓰인 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 ㄱ. 律에 닐오디 모물 견조아 니버 足홀 만 햐라 햐니 <월인석보 25: 20ㄴ>

율(律)에 이르기를, “몸을 견주어서 입어서 족할 만큼 해라.” 하니

ㄴ. 더 시를 羅車 우회 가져와 足홀 만 코 마라든 <월인석보 25: 44ㄴ>

그 실을 물레 위에 가져와서 충분할 만큼 하고 말면

ㄷ. 디투 글힌 소곰 브를 손 녀홀 만 더웠거든 손과 발와 돕가시며 <구급간이방 2: 50ㄱ>
진하게 끓인 소곰물을 손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뜨거워졌으면 손과 발을 담그고 있으며
ㄹ. 다몬 쓸 만 햐야도 이 사르미 命終햐야 당다이 忉利天上에 나리니 <석보상절 21: 57ㄴ>
다만 쓰기만 해도 이 사람이 죽어서 마땅히 도리천상(忉利天上)에 태어날 것이니
ㄱ. 施主 | 衆生이그에 一切 즐거본 것 布施홀 만 햐야도 功德이 그지 업스니 <석보상절 19: 4ㄱ>

시주(施主)가 중생에게 모든 즐거운 것을 보시(布施)하기만 해도 공덕(功德)이 한(限)이 없으니

ㄴ. 다몬 부텃 像을 想홀 만 햐야도 無量福을 어드리어니 <월인석보 8: 45ㄱ>
다만 부처의 상(像)을 생각하기만 해도 무량복(無量福)을 얻을 것이니

(11ㄱ)의 ‘律(율)’은 어떤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스님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가리킵니다. ‘足(족)홀 만 햐라’라는 표현은 ‘족할 만큼’의 의미로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足홀’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의존 명사 ‘만’이 쓰였는데, 그것이 정도의 의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ㄴ)에 보이는 ‘쇄거(羅車)’는 실을 자아내는 기구인 ‘물레’를 말합니다. (11ㄴ)의 ‘足홀 만 코(<하고자>)’도 ‘족할 만큼 하고’라는 뜻으로, 역시 의존 명사 ‘만’이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ㄷ)의 ‘손 녀홀 만’은 ‘손을 넣을 만큼’의 의미로서, 용언의 관형사형(‘녀홀’) 뒤에서 ‘만’이 의존 명사로 사용되어 역시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ㄹ)의 ‘다몬 쓸 만 햐야도’는 ‘다만 쓰기만 해도’라는 뜻인데, 경전을 손으로 베껴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된 ‘만’이 어떤 한정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의존 명사 ‘만’이 한정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는 없는데, 그에 비해 중세 한국어에서는 의존 명사 ‘만’이 정도의 의미와 한정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ㄱ) 역시 ‘布施홀 만 햐야도’가 ‘그 보시하는 것만 하여도’라는 의미로서, 의존 명사 ‘만’이 단독이나 한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11ㄴ)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想홀 만 햐야도’는 ‘상(想)하는 것만 해도’라는 뜻으로, 역시 의존 명사 ‘만’이 단독이나 한정의 의미로 쓰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 ‘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한국어에는 단독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만’ 이외에 ‘뿐’도 있었습니다. 다만, 15세기에 나타나는 ‘뿐’은 현대 한국어의 ‘뿐’보다 그 의미나 사용역이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로는 오히려 ‘만’의 용법에 더 가까운 의미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예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2) ㄱ. 하늘 우과 하늘 아래 나쑤 尊호라 <월인석보 2: 38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나만이 존엄하다.

ㄴ. 護彌 닐오되 소리쑤 듣노라 <석보상절 6: 15ㄱ>

호미(護彌)가 말하기를 소리만 듣는다.

ㄷ. 貪慾心 거시건마론 혼날 터럭쑤 供養功德에 涅槃을 得햐야니 <월인석보 4: 52ㄴ>
탐욕심(貪慾心)이 있으시지만 한날 터럭만을 공양한 공덕(功德)으로 인해서 열반(涅槃)을 얻었으니

(12ㄱ)에는 1인칭 대명사 ‘나’에 ‘뿐’이 결합하여 ‘나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만’이 쓰일 자리인데, 여기에 ‘뿐’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뿐’은 서술격 조사 ‘이-’ 또는 ‘아니-’ 앞에서 보격 조사 ‘이’와 결합한 형태로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보다 사용역이 더 넓어서 주격 조사 또는 목적격 조사 또는 처격 조사 앞에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12ㄴ)을 보면, 서술어 ‘듣-’의 목적어로 현대 한국어라면 ‘만’이 쓰일 자리에 ‘뿐’이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어 자리에 단독이나 한정 의미로 ‘뿐’이 사용된 예라고 하겠습니다. (12ㄷ)은 목적격 조사 ‘을’ 앞에 ‘뿐’이 사용된 예입니다. ‘터럭썩늘’은 ‘터럭만을’ 정도의 의미로, 여기서는 목적격 조사 ‘을’ 앞에 ‘뿐’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썩’의 종성 ‘ㄴ’이 연철되어 ‘썩늘’과 같이 실현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와 같이 ‘뿐’ 뒤에 다른 격 조사가 결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런 용법도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세기 한국어에도 현대 한국어에서의 ‘뿐’과 같은 용법으로 쓰인 예들도 존재합니다.

(13) ㄱ. 實엔 하나뿐니라 <석보상절 21: 19ㄱ>

실제로는 하나뿐이다.

ㄴ. 法 爲^하야 몸 도라보다 아니호몬 부터뿐니 아니샤 <월인석보 18: 32ㄱ>

법을 위해서 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부처뿐이 아니셔서

ㄷ. 徧淨은 다 조홀 씨니 몸뿐 아니라 世界 다 조홀씨라 <월인석보 1: 33ㄴ>

편정(徧淨)은 다 깨끗한 것이니 몸만이 아니라 세계가 다 깨끗한 것이다.

(13ㄱ)은 체언인 ‘하나^하’에 ‘뿐’이라는 보조사가 결합하고 그 뒤에 서술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아니다, ~뿐이 아니다’와 같이 ‘아니-’의 보어 자리에 ‘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중세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ㄴ)이 바로 그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3ㄴ)에서는 ‘부터뿐’에 보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부터뿐니 아니샤’와 같이 실현되었는데, 이때 보격 조사 ‘이’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13ㄷ)에는 보격 조사 ‘이’가 생략된 예가 나타납니다. (13ㄴ)과 같이 보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몸뿐니 아니라’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몸뿐 아니라’로 실현되어 보격 조사 ‘이’가 생략된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13)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뿐’과 동일한 용법을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뿐’은 현대 한국어에서 보조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의존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는 15세기 한국어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 15세기에도 ‘뿐’은 보조사와 의존 명사로서의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위의 (13)에서는 보조사로 사용된 ‘뿐’의 용법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의 (14)에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된 ‘뿐’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ㄱ. 小乘엿 사르미 제 몸 닛글 뿐 호고 늬 濟渡 몬홀씨 <석보상절 13: 36ㄱ>

소승(小乘)에 속하는 사람이 자기 몸 닛는 것만 하고 남을 제도(濟渡)하지 못하므로

ㄴ. 혼갓 뭐다 홀 뿐 호면 世界엿 짜히 다 뭐운 빠디 업고 <월인석보 2: 14ㄱ>

단지 움직인다고만 하면 세계의 땅이 다 움직인다는 뜻은 없고

ㄷ. 혼갓 닐거 외울 뿐 아니호샤 無相經을 디니시며 <석보상절 19: 36ㄱ>

단지 읽어 외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셔서 무상경(無相經)을 지니셨으며

(14ㄱ)에 나타나는 ‘제 몸 닳글 썬 흐고’는 ‘자기 몸 닳는(수양하는) 것만 하고’라는 의미로, 한정이나 단독의 의미를 나타내는 ‘만’이 쓰일 자리에 ‘썬’이 사용되었는데, ‘닳-’라는 동사의 관형사형 ‘닳글’ 뒤에서 의존 명사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ㄴ)의 ‘뫼다 흘 썬 흐면’은 ‘움직인다고만 하면’이라는 뜻으로, ‘흘 썬’은 동사 어간 ‘흐-’의 관형사형인 ‘흘’ 뒤에서 ‘썬’이 의존 명사로 사용된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4ㄱ)과 같이 ‘만’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ㄷ) 또한 ‘닐거 외울 썬’이라는 표현에서 동사 ‘외오-’의 관형사형 ‘외울’ 뒤에 의존 명사 ‘썬’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썬’ 또한 ‘만’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5세기 한국어의 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더 많은 보조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보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으란/으란’은 대조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이다. (O/X)

정답: O

2. 보조사 ‘도’는 현대 한국어와 달리 용언의 활용형 뒤에 결합하지 못하였다. (O/X)

정답: X

3. 15세기 한국어에는 보조사 ‘만’과 의존 명사 ‘만’이 모두 존재하였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보조사 ‘은/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음 뒤에서는 ‘는’이, 모음 뒤에서는 ‘은’이 결합하였다.
- ②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형태와 음성 모음 형태가 구별되었다.
- ③ ‘ㅣ’ 모음 뒤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와 음성 모음 형태가 모두 쓰일 수 있었다.

정답: ①

2. 다음 중 보조사 ‘으란/으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라느/라느’이라는 이형태를 가졌다.
- ② 보조사 ‘은/는’과 마찬가지로 주어 자리에 주로 나타났다.
- ③ 기원적으로 목적격 조사 ‘을’과 보조사 ‘도’, 그리고 그 사이에 미지의 요소 ‘아’가 개재된 형태로 추정된다.

정답: ③

3. 다음 중 보조사 ‘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이 가능하였다.
- ② ‘護彌 닐오디 소리쑤 듣노라’에서 ‘쑤’은 보조사 ‘만’의 의미와 같다.
- ③ 보조사 ‘쑤’과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 ‘쑤’은 15세기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았다.

정답: ①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15세기 한국어의 보조사 ‘은/는’의 이형태는 총 5가지로 ‘○/○/○/○/○’(이)가 있었다.

정답: ㄴ/은/은/ㄴ/는

2. 보조사 ‘으란/으란’의 이형태 ‘란’은 ○○(와)과 ○ 뒤에서 나타났다.

정답: 모음, ㄹ

3. 보조사 ‘만’의 의미는 ○○(와)과 ○○/○○가 있었다.

정답: 정도, 단독/한정

나. 토의 (30분)

1. 보조사 ‘만’과 의존 명사 ‘만’, 그리고 보조사 ‘쑤’과 의존 명사 ‘쑤’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 과제 (60분)

15세기 한국어의 보조사와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세요.

■ 참고자료

『구급간이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번역박통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화엄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고영근(2020),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제4판, 집문당.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신정판, 탑출판사.

<6차시> 보조사 (2), 의문 조사, 접속 조사

■ 학습목표

1. 15세기 한국어의 보조사 중 강조와 반복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종류와 그 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2. 15세기 한국어의 의문 조사의 종류와 용법을 살펴보고 현대 한국어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이해한다.
3. 15세기 한국어의 접속 조사의 종류와 용법을 확인하고 예문을 통해 실제 쓰임을 살펴본다.

■ 강의 목차

1. 강조와 반복: 사, 곳/웃, 뵈/뵈, 곶/옴, ㄱ/ㅇ/ㄹ
2. 의문 조사
3. 접속 조사

■ 강의 내용 전문

<한국어 문법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세기 한국어의 보조사와 의문 조사, 접속 조사 같은 기타 특수한 조사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조와 반복을 나타내는 보조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강조와 반복: 사, 곳/웃, 뵈/뵈, 곶/옴, ㄱ/ㅇ/ㄹ

강조와 반복을 나타내는 보조사는 ‘사’나 ‘곳’, ‘뵈’, ‘곶’ 또는 ‘ㄱ, ㅇ, ㄹ’과 같은 다양한 형태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먼저 ‘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사’는 체언에 결합할 때에는 주로 ‘이사’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22)에 그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2) ㄱ. 오직 太愛道 | 사 기르스 불리이다 <석보상절 3: 3ㄱ> 주어

오직 대애도(太愛道)이어야(대애도만이) 기르실 것입니다.

ㄴ. 太子 | 니르샤되 恩惠사 모르리여마른 <석보상절 3: 35ㄱ> 목적어

태자가 말씀하시기를, 은혜야 모르겠는가마는

ㄷ. 그제사 執杖釋의 썩리 太子人 妃子 | 드외시니라 <석보상절 3: 14ㄴ> 부사어

그제서야(그때서야) 집장석(執杖釋)의 딸이 태자의 비가 되었다.

ㄹ. 어디사 도흔 썩리 양즈 ㄱ즈니 잇거뇨 <석보상절 6: 13ㄴ> 부사어
어디에야 좋은 딸이 모습이 갖추어진 사람이 있는가.

(22ㄱ)은 ‘기르-’의 주어 ‘大愛道(대애도)’에 ‘ㅣ 사’가 결합하여 실현된 형태입니다. ‘대애도 만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ㅣ 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22ㄴ)은 ‘恩惠(은혜)’를 모르다’에서 ‘모르-’의 목적어 ‘恩惠’에 ‘ㅅ’이 결합하였습니다. 다만, ‘恩惠’의 ‘惠’가 ‘ㅣ’ 모음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ㅣ’는 표기상 생략되어 ‘ㅅ’로만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ㅣ 사’가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ㄴ)은 목적어 뒤에 ‘이사’가 결합한 예입니다. (22ㄷ)에서는 ‘그때에’라는 뜻을 지닌 ‘그제’라는 부사어 뒤에 ‘이사’가 결합하여 ‘그제사’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부사어 뒤에 ‘이사’가 결합한 예입니다. (22ㄹ) 역시 부사어 뒤에 ‘이사’가 결합한 예입니다. 여기에도 ‘어디’라는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 부사 뒤에 ‘이사’가 결합하여 ‘어디사’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사’에 나타나는 ‘이’는 기원적으로는 서술격 조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근거로는 석독 구결의 자료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23) ㄱ. 唯ハ 佛_ㄴニ_ㄴ 能_ㄴ 了知_ㄴ ヲ_ㄴ <금광명경 13장: 14-15행>

오직 부처이셔야만 능히 알 수 있으며

ㄴ. 一切 種種 智慧_ㄴ 是 佛_ㄴ ㄱ즈시니라 <석보상절 13: 29ㄱ>

일체 모든 지혜는 부처이셔야만 갓출 수 있다.

ㄷ. 이 法은 오직 諸佛_ㄴ 이사 아르시리라 <석보상절 13: 47ㄴ>

이 법은 오직 모든 부처만이 아실 것이다.

(23ㄱ)은 고려 시대 석독 구결 자료인 『금광명경(金光明經)』에 나타난 예로, [오직 불이시사 능며 요지히시골며]라고 읽습니다. 여기에서 ‘부처이셔야만’이라는 의미로 ‘ㄴ ㄴ ㄴ (이시사)’가 쓰였는데, 이는 15세기 ‘이사’라고 하는 형태의 선대형 ‘ㄴ ㄴ (이사)’의 ‘ㄴ (이)’와 ‘ㄴ (사)’ 사이에 ‘ㄴ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 (시)’가 ‘ㄴ (이)’ 뒤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ㄴ (이)’가 용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이때의 ‘ㄴ (이)’는 기원적으로는 서술격 조사였다고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5세기에는 이렇게 ‘이’와 ‘ㅅ’ 사이에 선어말 어미가 개재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사’의 형태로만 실현되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15세기에는 기원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에 ‘ㅅ’가 결합한 형태가 하나의 보조사로 완전히 굳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3ㄴ)에서는 ‘부터’ 뒤에 ‘부테시사’가 아니라 ‘ㅣ 사’가 사용되어 ‘부테사’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는 결합하지 않았습니니다. (23ㄷ)도 마찬가지로, ‘이시사’의 형태가 아닌 ‘이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사’의 ‘이’는 기원적으로 서술격 조사였지만 이것이 하나의 형태로 문법화되어 15세기에는 ‘이사’라는 형태가 하나의 보조사로 굳어져 더 이상 선어말 어미 ‘-시-’는 결합할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의 ‘이’가 기원적으로 서술격 조사에서 유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결합한 ‘ㅅ’는 서술격 조사 뒤에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에 어말 어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에서 15세기 한국어에서 ‘ㅅ’가 어말 어미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ㄱ. 모미 아래 근거사 成佛호리라 <석보상절 3: 40ㄱ>

몸이 예전과 같아져야 성불(成佛)하겠다.

ㄴ. 나는 一切 衆生이 다 부테 드외야 衆生이 업거사 菩提心을 發호리라 <석보상절 6: 46ㄴ>

나는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가 되어서 중생들이 없어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보리심을 발하겠다.

ㄷ. 출히 說法 마오 涅槃에 어셔 드사 ㅎ리로다 <석보상절 13: 58ㄱ>

차라리 설법(說法)하지 말고 열반(涅槃)에 빨리 들어가야 하겠구나.

ㄹ. 아니웃 드르면 아비 주그리오 드르면 남지니 주그리니 내 죽사 ㅎ리로다 <삼강행실도 열녀5>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고 (그 말을) 듣는다면 남편이 죽을 것이니 내가 죽어야 하겠구나.

(24ㄱ)은 ‘근-’라는 형용사 어간 뒤에 ‘-거-’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오고 그 뒤에 바로 ‘사’가 결합하였습니다. (24ㄱ)과 같이 ‘사’가 선어말 어미 뒤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사’ 자체가 어말 어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고려 시대 석독 구결 자료인 (23ㄱ)에서 ‘사’가 어말 어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24)에서는 15세기 한국어에서도 여전히 ‘사’가 어말 어미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ㄴ)도 마찬가지로 ‘업(<없>)-’라는 형용사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거-’가 결합하고 그 뒤에 어말 어미적인 ‘사’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ㄷ, ㄹ)은 동사 어간에 직접 ‘사’의 형태가 결합한 것입니다. 15세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15세기 문헌에서도 이렇게 과거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일부 예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ㄷ)을 보면, ‘들-’라는 어간 뒤에 어말 어미적인 ‘사’가 바로 결합하면 ‘들사’가 될 텐데, ‘ㅅ’ 앞에서 ‘ㄹ’은 탈락하기 때문에 ‘드사’의 형태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24ㄹ)에서도 ‘죽-’라는 어간 뒤에 바로 ‘사’가 결합하여 ‘죽사’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예에서 ‘사’ 또는 ‘사’는 기본적으로는 어말 어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술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하나의 보조사로 굳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세기 문헌에서 ‘이사’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사’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하나의 보조사로 문법화된 이후에 ‘이’는 불필요한 요소라고 인식되어 ‘사’ 자체가 보조사로 굳어지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격 조사 뒤에서 ‘사’만 쓰인 예들이 많습니다.

(25) ㄱ. 혼 아들올사 여회샤 하늬기 비스븍시니 <월인석보 20: 41ㄱ>

한 아들을 이별하여(여의어서) 하늘께 비셨는데

ㄴ. 밋숨으란 아니 닷고 오스로 빗오물 이를사 붓그리다니 <월인천강지곡 상: 44ㄱ>

마음은 닳지 아니하고(수양하지 않고) 옷으로 꾸미는 것을, 이것을 부끄러워했는데

ㄷ. 물읏 字ㅣ 모로매 어우러사 소리 이느니 <훈민정음언해 13ㄴ>

- 무릇 글자는 모름지기 어울려야만 소리가 이루어지니
- ㄱ. 이 곤하야사 妃子를 사모리라 하시니 <석보상절 3: 11ㄴ>
 “이와 같아야만 태자비를 삼겠다.”라고 하셨는데
- ㄴ. 舍利弗이 가사 일우리라 <석보상절 6: 22ㄴ>
 사리불(舍利弗)이 가야만 성취할(이를) 것이다.
- ㄷ. 그 썩리 그 말 듣고사 金 바리에 다마 尼連水人 그새 가니라 <석보상절 3: 40ㄴ>
 그 딸이 그 말을 듣고서야 금 바리(그릇)에 담아서 이련수(尼連水) 가에 갔다.
- ㄹ. 이련 變化를 뵈오사 神足을 가다 도로 本座에 드러 안즈니라 <석보상절 6: 34ㄱ>
 이련 변화를 보이시고 나서야 신족(신통력)을 거두어 다시 본래 자리에 들어가 앉았다.

(25ㄱ)은 ‘아들’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고 그 뒤에 ‘사’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사’가 아니라 ‘사’가 단독으로 보조사로 쓰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ㄴ)도 마찬가지로인데, 여기에서는 ‘이를’이라는 목적어 뒤에 역시 ‘사’가 바로 결합하여 ‘사’ 자체가 단독으로 보조사로 쓰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가 단독으로 보조사로 기능하는 경우는 어미 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ㄷ)부터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25ㄷ)은 ‘어울-’라는 동사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활용형 ‘어우러’에 ‘사’가 바로 결합하여 ‘어우어사’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25ㄸ)도 ‘곤하-’라는 형용사의 활용형 뒤에 역시 ‘사’가 바로 결합하였습니다. (25ㄱ)에서는 동사 어간 ‘가-’ 뒤에 바로 ‘사’가 통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사 어간 ‘가-’ 뒤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여 ‘가’라는 형태로 실현되고 그 뒤에 ‘사’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역시 연결 어미 ‘-아/어’ 뒤에서 ‘사’가 통합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ㄹ)은 연결 어미 ‘-고’ 뒤에 ‘사’가 결합한 예입니다. (25ㄹ)도 ‘뵈-’라는 어간 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였습니다. 다만, 반모음 ‘ㅣ’ 뒤이기 때문에 ‘ㄱ’이 약화되어 ‘뵈오’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즉, ‘뵈고’ 다음에 ‘사’가 결합하고 ‘ㄱ’이 약화되어 ‘뵈오사’의 형태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사나 형용사 뒤에서는 ‘-아사/어사’의 형태가, 그리고 타동사 뒤에서는 ‘-고사’의 형태가 주로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사 ‘이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조사 ‘이사’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이야’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 ㅅ

다음은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ㅅ’은 체언의 어간 말음이 모음이나 ‘ㄹ’일 경우에는 ‘ㅅ’이 약화되어 ‘읏’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26)은 ‘ㅅ’이 사용된 예입니다.

- (26) ㄱ. 오직 魔王ㅅ 제 座에 便安히 ㅅ 안자 시름하야 <월인석보 2: 42ㄴ> 주어
 오직 마왕(魔王)만이 자기 자리에 편안히 앉아 있지 못해 걱정하여
- ㄴ. 너 大龍王ㅅ 疑心ㅅ 잇거든 무를 양으로 무르라 <월인석보 10: 68ㄱ> 주어
 너 대용왕(大龍王)아, 의심이 있으면 묻고 싶은 대로 물어라.
- ㄷ. 거믄 콩ㅅ 엇거든 전국도 ㅅ하니라 <구급방언해 하: 54ㄱ> 주어
 검은 콩이 없으면 전국도 좋다.
- ㄹ. 내 겨집ㅅ ㅅ외오져 ㅅ거든 내 ㅅ들 조차 ㅅ라 <월인석보 20: 84ㄱ> 보어

나의 아내가 되고자 한다면 나의 뜻을 따라서 해라.

ㄱ. 이 어두미 어려브니 산 것곳 아니 주기면 어둡 주리 업스니 <월인석보 11: 4ㄴ>
목적어

이것은 얻기가 어려우니, 산 것을 죽이지 않으면 얻을 방법이 없으니

ㄴ. 너희 헛다가 일흠곳 일꾼조오면(汝等이 若稱名者 | 면) <법화경언해 7: 58ㄴ>
목적어

너희가 만일 이름을 일컫는다면(칭한다면)

(26ㄱ)은 ‘魔王(마왕)’이 편안히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다’라고 해석되는데,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魔王’에 ‘곳’이 결합하여 ‘魔王곳’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26ㄴ)도 역시 주어에 ‘곳’이 결합한 예입니다. ‘疑心(의심)곳 잇거든’은 ‘의심이 있으면’이라는 뜻으로, ‘잇-’의 주어 ‘疑心’에 ‘곳’이 결합하여 ‘疑心곳’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26ㄷ)도 역시 주어에 ‘곳’이 나타난 예인데, 역시 ‘거믄 쿵’이라는 주어에 ‘곳’이 결합하여 ‘거믄 쿵곳’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26ㄷ)은 보어에 ‘곳’이 결합한 예입니다. ‘거집이 드외다’는 ‘아내가 되다’는 뜻인데, ‘드외-’의 보어 ‘거집’에 ‘곳’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26ㄱ)은 ‘산 것’이라는 목적어에 ‘곳’이 결합하여 ‘산 것곳’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목적어에도 ‘곳’이 결합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26ㄴ)도 마찬가지로 목적어에 ‘곳’이 결합한 예인데, ‘일꾼-’의 목적어 ‘일흠’ 뒤에 ‘곳’이 결합하여 ‘일흠곳’의 형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음 뒤에 결합한 예이기 때문에 ‘곳’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곳’은 ‘ㄱ’이나 모음 뒤에서는 ‘ㄱ’이 약화된 ‘웁’의 형태로 실현됩니다. (27)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 ㄱ. 舍利弗 聰明하고 神足이 ㄱ즈니 <석보상절 6: 22ㄴ> 주어

사리불(舍利弗)만이 총명하고神通력이 갖추어져 있는데

ㄴ. 이 일웁 니르면 一切 天人이 다 놀라아 疑心히리라 <석보상절 13: 42ㄴ> 목적어
이 일을 말한다면 모든 天(천)과 人(인)들이 다 놀라서 의심할 것이다.

ㄷ. 나웁 王 드외요미 맛당히면 <석보상절 24: 12ㄴ> 주어

내가 王(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ㄹ. 부터웁 보스보면 당다이 得道를 쫄리 히리니 <석보상절 6: 40ㄴ> 목적어

부처를 뵈면 마땅히 득도를 빨리 할 것인데

(27ㄱ)은 ‘舍利弗(사리불)’, 즉 어간 말 자음이 ‘ㄱ’인 체언 뒤에 ‘ㄱ’이 약화된 ‘웁’의 형태가 결합한 것입니다. ‘舍利弗’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웁’의 형태가 쓰였지만, 한글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ㄱ’은 연철(連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ㄱ’이 약화된 곳에서는 연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7ㄴ)은 ‘니르-’의 목적어 ‘일’에 ‘웁’이 결합한 것입니다. 원래라면 ‘곳’이 결합하였을 텐데, ‘ㄱ’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웁’이 되었고 ‘ㄱ’ 약화현상으로 인해 ‘ㄱ’이 연철되지 않기 때문에 ‘일웁’의 형태로 실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ㄷ)에서는 주어 ‘나’ 뒤에 ‘곳’이 결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할 경우에는 모든 모음 뒤에서 ‘ㄱ’이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곳”이 아니라 “나웁”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27ㄹ)은 목적어에 ‘웁’이 결합한 예입니다. ‘부터웁’ 역시 모음

뒤에서 ‘ㄱ’이 약화된 ‘읏’의 형태가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사 ‘곶’은 ‘읏-’ 또는 ‘없-’의 주어 자리에 나타나거나 부정문에 쓰이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은 ‘곶/읏’의 의미가 강조이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문맥에서 강조의 의미가 잘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는 현대 한국어의 ‘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예문도 많습니다. 앞의 예문들에서 그러한 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곶/읏’은 부사격 조사나 부사 또는 부정의 보조적 연결 어미 ‘-디’ 뒤에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경은 모두 모음 뒤이기 때문에 ‘곶’이 쓰인 예는 나타나지 않고 ‘읏’이 쓰인 예만 나타나게 됩니다.

(28) ㄱ. 舍利弗人 알픽읏 브리 업슬씨 <석보상절 6: 33ㄱ> 부사격 조사

사리불의 앞에만 불이 없으므로

ㄴ. 그리읏 아니흐면 正覺 일우디 아니호리이다 <월인석보 8: 62ㄴ> 부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正覺(정각, 깨달음)을 이루지 아니할(못할) 것입니다.

ㄷ. 그 썩리 닐오디 고디읏 아니 듣거시든 혼번 가 보쇼셔 <월인석보 22: 59ㄷ> 부사
그 딸이 말하기를, “곧이듣지 않는다면 한번 가 보십시오.”

ㄹ. 아니읏 주시면 히므로 어루 호리이다 <석보상절 23: 55ㄹ> 부사
주시지 않는다면 힘으로 가히 하겠습니다.

ㅁ. 내 難을 救티읏 아니흐면 이 業 전초로 버서나디 못호리라 <월인석보 21: 56ㄴ>
활용형(-디)

내가 어려움을 구하지(구원하지) 않는다면 이 업의 까닭으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ㅂ. 이제 ㅎ다가 닳디읏 아니흐면 萬劫을 어긋리니 <목우자수심결 44ㄴ> 활용형(-디)
이제 만일 수행하지(뉘지) 않는다면 만劫을 어기게 될 것이니

(28ㄱ)은 ‘알’이라는 체언에 ‘익’라고 하는 특이 처격 조사가 오고 그 뒤에 ‘읏’이 결합한 것입니다. ‘알픽’라는 부사어 뒤에 ‘곶’이 결합하였지만, ‘ㄱ’이 약화된 형태인 ‘읏’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ㄴ)은 ‘그리’라는 부사 뒤에 ‘읏’이 나타난 형태입니다. (28ㄷ)은 ‘곶-’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고디’라는 부사에 ‘읏’이 결합한 예입니다. (28ㄹ)은 ‘아니읏 주시면’에서 ‘아니’라고 하는 부정 부사 뒤에 ‘읏’이 결합한 것입니다.

(28ㅁ, ㅂ)은 부정의 보조적 연결 어미 ‘-디’ 뒤에 ‘읏’이 결합한 예입니다. (28ㅁ)은 어간 ‘救ㅎ-’에 연결 어미 ‘-디’가 결합한 활용형 ‘救티’ 뒤에 ‘읏’이라는 보조사가 결합한 것이고 (28ㅂ) 역시 연결 어미 ‘-디’ 뒤에 ‘읏’이 결합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곶/읏’은 체언 뒤뿐만이 아니라, 부사어나 부사격 조사 뒤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ㅸ

이러한 ‘곶/읏’과 비슷하게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ㅸ’이라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ㅸ’이라는 형태는 체언에 결합한 예만 나타나고 용언이나 활용형 뒤에 결합한 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용례가 15세기 문헌을 통틀어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부정문에 쓰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ㅸ’이라는 형태는 15세기에 이미 소멸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문을 통해 ‘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29) ㄱ. 王 붓 너를 스랑티 아니헝시린덴 <석보상절 11: 30ㄱ> 주어
왕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ㄴ. 흐마 내 눈붓 업스면 내 보미 이디 못헝리니 <능엄경언해 1: 99ㄱ> 주어
만일 내가 눈이 없으면 내가 보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인데
ㄷ. 꿈 붓 아니면 어느 길헤 다시 보스^ㅅ헝리 <월인석보 8: 82ㄱ> 보어
꿈이 아니면 어느 길에 다시 볼 것인가.
ㄹ. 그 王이 닐오^ㅅ 象 붓 어더오면 너를 ㄱ장 賞호리라 <월인석보 20: 64ㄱ> 목적어
그 왕이 이르시기를, “코끼리를 얻어 오면 너를 상을 가장 많이 주겠다.”

(29ㄱ)은 ‘王’이라는 형태 뒤에 ‘붓’이 아닌 ‘붓’의 형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붓’이 결합한 것입니다. (29ㄴ)의 예에서는 ‘눈’이라는 형태 뒤에 ‘붓’이라는 보조사가 결합하여 강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술어 ‘없-’의 주어 ‘눈’에 ‘붓’이 결합한 것입니다. (29ㄷ)의 ‘꿈붓 아니면’에서는 ‘아니-’의 보어 ‘꿈’ 뒤에 ‘붓’이 결합하여 ‘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9ㄹ)에서는 ‘象(상)’이라는 한자 뒤에 ‘붓’이 결합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술어 ‘얻-’의 목적어 ‘象’ 뒤에 ‘붓’이 결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붓’이라는 형태가 (30)의 예와 같이 ‘붓’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용례도 있습니다.

- (30) 太子 | 니르샤^ㅅ 몸 붓 이시면 受苦^ㅅ린 이리 잇느니 <석보상절 3: 17ㄴ>
태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이 있으면 수고로운 일이 있으니”

그렇다면 (30)을 근거로 ‘붓’의 이형태로 ‘붓’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붓’이라는 형태가 나타난 것은 (30)의 예 하나뿐이고 또 이 (30)의 예가 나타난 문헌이 『석보상절』 권3으로서 복각본(復刻本)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30)에 나타나는 ‘붓’은 단순히 목판을 새길 때 잘못 새긴 오각(誤刻)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 꿈

‘곶/웃’과 비슷하게 이렇게 ‘붓’이라는 형태도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강조의 의미를 지니는 보조사 ‘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주로 반복 또는 지속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꿈’은 다른 보조사들과 마찬가지로 ‘ㄱ’이나 모음 뒤에서는 ‘ㄱ’이 약화되어 ‘움’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31)에 그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31) ㄱ. 돌^ㅅ 붓 쇠부^ㅅ 各各 닐굴^ㅅ 잇거늘 <석보상절 3: 13ㄴ>
돌^ㅅ과 쇠^ㅅ가 각각 일^ㅅ굴 개씩 있는데
ㄴ. 七寶床^ㅅ 四方^ㅅ에 各各 흔 雙굴^ㅅ 셔엣더니 <석보상절 23: 17ㄴ>
칠보상(七寶床)의 사방에 각각 한 쌍씩 서 있는데
ㄷ. 그^ㅅ내 各各 흔 아들^ㅅ 내야 내 孫子 조차가게 헝라 <석보상절 6: 9ㄴ>

- 그대들이 각각 한 아들씩을 내어서 나의 손자를 따라가게 하라.
 ㄱ. 二十 里에 흔 亭舍을 짓게 ㅎ야 <석보상절 6: 23ㄱ>
 이십 리마다 한 정사(亭舍)씩을 짓게 하여
 ㄴ. 버거 두 가지을 가진 蒲萄 | 나니 마시 쯔 ㄷ더니 <월인석보 1: 43ㄴ>
 다음으로 두 가지씩 가진 포도(蒲萄)가 생겨났는데 맛이 또 달았는데

(31ㄱ)과 같이 체언 뒤에 ‘곰’이 나타났을 때, 이때의 ‘곰’은 주로 현대 한국어의 ‘-씩’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자음 뒤이기 때문에 ‘곰’의 형태가 쓰인 것입니다. (31ㄴ)의 예에서는 ‘雙(쌍)’이라는 어간 말음이 ‘ㅇ’이라는 자음 뒤에서 ‘곰’의 형태가 쓰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ㄷ)은 ‘ㄱ’ 뒤에서 ‘ㄱ’ 약화한 ‘움’이 쓰인 예입니다. (31ㄷ)에서는 ‘亭舍(정사)’라는 어간 말 모음 ‘ㅏ’ 뒤에서 ‘ㄱ’이 약화된 ‘움’이라는 형태가 쓰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ㄴ)도 마찬가지로 ‘가지’의 어간 말 모음 ‘ㅣ’ 뒤에서 ‘ㄱ’이 약화된 ‘움’의 형태가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사 ‘곰’은 점차 쓰이지 않게 되고 ‘식’이라는 형태로 대체가 되어 갔습니다. 다만, 한글 문헌에서 ‘식’이라는 보조사는 16세기 들어서야 나타나지만 이두 자료를 볼 때는 15세기 이전 문헌에서도 한자어 ‘式(식)’으로 표기된 형태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글로 표기된 ‘식’이 16세기 이후에야 등장하는 것은 문헌상의 제약이라고 생각되고 ‘식’이라는 형태는 이미 15세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32) ㄱ. 奴婢 并 十口式以 賜給爲良於爲 敎是齊 <상서도관첩>
 노비를 아울러 열 명씩 사급(賜給)하는(내려 주는) 것으로 시키시며
 ㄴ. 一日銅錢 六十文式以 生徵齊 <대명률직해 1: 25ㄴ-26ㄱ>
 하루에 동전 육십 문씩 거두며
 ㄷ. 錢兩 돈에 흔 섬식 ㅎ면 <번역박통사 상: 11ㄴ>
 오십 냥 돈에 한 섬씩이면
 ㄹ. 혹 세번식 돌이며 혹 다섯식 돌여 <번역소학 10: 32ㄱ>
 혹 세 번씩 돌리며 다섯씩 돌려서

(32)에 이두 문헌에 나타나는 ‘式’의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32ㄱ)은 13세기의 이두 자료인 「상서도관첩(尙書都官貼)」에 나타난 예입니다. [노비 아오로 십구식으로 사급ㅎ야늘 삼 시키시며]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 ‘十口式(십구식)’과 같이 수사 ‘十’과 수량 단위 의존명사 ‘口’가 결합하고 그 뒤에 ‘式’의 형태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서도관첩」 자체는 후대에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본은 아마 13세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13세기경부터 이미 ‘식’이라는 형태가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ㄴ)은 14세기 말의 문헌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예로, [일일동전 육십문식으로 청정저]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수사 ‘六十(육십)’ 뒤에 수량 단위 의존명사 ‘文(문)’이 쓰이고 그다음에 ‘式’의 형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ㄷ)부터는 한글 문헌에 나타나는 ‘식’의 예입니다. 모두 16세기 문헌들입니다. (32ㄷ)의 ‘흔 섬식’에서 ‘섬’ 다음에 ‘식’이라는 형태가 나타났고 (32ㄹ)은 ‘번’과 ‘다섯’ 뒤에 ‘식’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글로 표기된 ‘식’이라는 형태는 16세기경부터 등장하지만 이두 자료까지 범위를 넓혔을 때 그 이전부터 ‘식’이라는 형태가 쓰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곰’은 이렇게 체언 뒤에 쓰일 뿐만이 아니라, 부사나 부사격 조사, 용언의 활용형 뒤에 결합하기도 하였습니다.

- (33) ㄱ. 우리 즘 짧 저기 서르곰 덕흐요리라 <월인석보 22: 9ㄴ> 부사
우리가 잠을 잘 때 서로 지킬 것이다.
ㄴ. 須達이 다시곰 請호대 <석보상절 6: 24ㄱ> 부사
수달(須達)이 다시 청하였는데
ㄷ. 또 火災히리니 이리곰 火災호를 여덟 번 흐면 <월인석보 1: 49ㄱ> 부사
또 화재가 날 것인데 이렇게 화재하는 것을 여덟 번 하면
ㄹ. 놀 보리라 우리곰 온다 <월인석보 8: 87ㄱ> 용언의 활용형
누구를 보려고 올면서 오느냐.
ㅁ. 아드리 아비 나해서 곱기곰 사라 <월인석보 1: 47ㄴ> 용언의 활용형
아들이 아버지의 나이에서 곱이 되도록 살아서

(33ㄱ)에서는 ‘서르’라는 부사 뒤에 ‘곰’이 결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ㄴ’이나 모음 뒤에서 ‘ㄱ’이 약화된 ‘옴’의 형태가 쓰이는 데 비해 이렇게 부사나 부사격 조사, 또는 용언의 활용형과 결합할 때에는 모음 뒤라고 할지라도 ‘ㄱ’이 약화된 형태인 ‘옴’이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언 뒤에 결합할 때와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서르’의 2음절 모음 ‘ㅡ’ 뒤에서 ‘ㄱ’이 약화된 ‘옴’이 아닌 ‘곰’의 형태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ㄴ)도 마찬가지입니다. ‘須達(수달)’은 사람 이름인데, ‘다시’라는 부사 뒤에 ‘ㄱ’이 약화되지 않은 ‘곰’이라는 형태가 결합하였습니다. (33ㄷ)에서는 ‘이리’라는 부사 뒤에 역시 ‘곰’이 결합하였는데, 역시 ‘ㄱ’이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리곰’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33ㄹ)은 동사 어간 ‘올-’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활용형 ‘우리’라는 형태 뒤에 ‘곰’이 결합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ㅁ)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동사 ‘곱-’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 ‘-기’가 결합하고 그 뒤에 다시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곰’이 결합하여 ‘곱기곰’의 형태로 쓰인 것입니다. ‘곱기곰’은 ‘곱이 되도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반모음 ‘ㅣ’ 뒤에서조차 ‘ㄱ’이 약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15세기의 일반적인 ‘ㄱ’ 약화 현상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33)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나 부사격 조사, 용언의 활용형 뒤에 나타나는 ‘곰’은 현대 한국어로 번역할 때 ‘식’에 대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상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언 뒤에 결합하는 경우나 (33)과 같이 부사나 부사격 조사 또는 용언의 활용형 뒤에 결합하는 경우 모두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곰’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약간의 반복이나 지속적인 의미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 둘의 의미상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보조사로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한 어휘 뒤에 나타나는 ‘곰’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여곰’, ‘시러곰’, ‘히여곰’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하나의 단어로 어휘화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4) ㄱ. 제여곰 바들 눈흘썌 <석보상절 9: 19ㄴ>

제각각 밭을 나눔으로

ㄴ. 오란 나그네 시러곰 늦드리 업스리아 <두시언해 17: 37ㄴ>

오래된(오랫동안 타향에 와 있는) 나그네가 능히 눈물이 없겠는가.

ㄷ. 혼 것도 히여곰 제 性을 그릇게 호미 어렵도다 <두시언해 10: 31ㄱ>

하나도 그것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품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어렵다.

(34ㄱ)은 ‘제여’라는 형태가 15세기에 단독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여곰’ 자체가 하나로 어휘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원적으로는 ‘제여’라는 형태에 보조사 ‘곰’이 결합하여 ‘제여곰’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34ㄴ)에서는 ‘시러곰’ 자체가 하나의 부사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신>)-’라는 동사 어간에 ‘-어’라는 연결 어미가 결합하여 ‘시러’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러’라는 형태가 하나의 부사화되었고 그 부사화된 형태에 다시 ‘곰’이 결합한 ‘시러곰’ 자체도 하나로 어휘화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4ㄷ)에 나타나는 ‘히여곰’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여금’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사동사 ‘히-’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여 ‘히여’라는 형태가 되고 여기에 다시 ‘곰’이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 즉 부사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5세기 한국어에 ‘곰’처럼 보이지만 ‘곰’이 아닌 예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이곰’ 같은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외형상 보조사 ‘곰’이 결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이-’라는 동사 어간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고 그 뒤에 ‘ㄹ’이라는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열이-’에 ‘곰’이라는 보조사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열이-’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고 그 뒤에 ‘ㄹ’이 오는 형태, 이 때문에 형태는 ‘곰’처럼 보이지만 보조사 ‘곰’과는 다른 것이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복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 ‘ㄹ’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ㄱ

이상으로 다양한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보조사들 외에 ‘ㄱ, ㅎ, ㄹ’과 같은 것들도 하나의 보조사로 기능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은 체언 뒤에 바로 붙은 예는 나타나지 않고 연결 어미 뒤에만 통합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보조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ㄱ’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은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것과 반복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ㄱ’입니다.

(35) ㄱ. 세 번 거리각 머리 도로혀 브라고 다섯 번 거리가 안조라(三步回頭五步坐) <두시언해 9: 5ㄱ>

세 번 걸어가서 머리를 돌이켜 바라보고 다섯 번 걸어가서 앉았다.

ㄴ. 너희 出家헝거든 날 브리코 머리 가디 말라 <석보상절 11: 37ㄱ>

너희가 出家(출가)하면 나를 버리고서 멀리 가지 말아라.

(35)는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ㄱ’의 예를 보인 것입니다. (35ㄱ)은 앞에 있는 ‘거리가’에는 ‘ㄱ’이 결합하여 ‘거리각’의 형태로 실현되었고 뒤에 있는 ‘거리가’에는 ‘ㄱ’이 통합하지 않고

‘거리가’로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거리가’라는 형태에 ‘ㄱ’이 더 통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 연결 어미 ‘-아’ 뒤에 ‘ㄱ’이 더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ㄴ)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라는 여간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고 그 뒤에 ‘ㄱ’이 더 추가되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ㄱ’은 부사격 조사 ‘로’ 뒤에도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의 ‘ㄱ’은 ‘ㅅ’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 어미 뒤에 나타나는 ‘악’이나 ‘곡’과 같은 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36) ㄱ. 이 네 가짓 願은 네록부터 일우니 업스니라 헝시고 <석보상절 3: 21ㄴ>
 이 네 가지 소원은 예로부터 이룬 사람이 없다 하시고
 ㄴ. 일록 後에 疑心 마오 가져가라 헝니 <월인석보 2: 13ㄱ>
 이로부터 후에 의심하지 말고 가져가라 하니
 ㄷ. 네롯 後에 네 이제 다 니즈니라(自昔之後汝今悉忘) <월인석보 13: 30ㄴ>
 예로부터 후에 네가 이제 다 잊어버렸다.
 ㄹ. 일롯 西方으로 十萬億 부텃 짜홀 디나가 世界 이쇼되 <월인석보 7: 62ㄴ>
 이로부터 서쪽으로 십만 억 부처님의 땅을 지나가서 세계(世界)가 있는데

(36ㄱ)의 ‘네로부터’에서는 ‘로’ 뒤에 ‘ㄱ’이 결합하여 ‘네록부터’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ㄴ)에서는 ‘이로부터 후에’라는 뜻으로 ‘이로 後에’라고 해도 될 것을 ‘일록 後에’라고 함으로써 ‘ㄱ’이 더 통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재미있는 것은 ‘이록’이 아니라 ‘일록’처럼 ‘ㄹ’이 한 번 더 덧났다는 것이 특이한 예입니다.

이러한 ‘ㄱ’은 ‘ㅅ’으로 교체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6ㄷ, ㄹ)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ㄱ)에는 ‘네로’가 ‘네록’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36ㄷ)에서는 ‘네롯’으로 되어 있어 ‘ㄱ’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ㄹ)에서는 원래라면 ‘일록 西方(서방)으로’라고 할 것을 ‘일록’이 아니라 ‘일롯’으로 표기하였는데, ‘ㄱ’이 역시 ‘ㅅ’으로 교체된 ‘일롯’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ㄱ’은 강조의 용법 외에 반복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반복이 같은 행위의 반복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되는 의미의 반복을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 (37) ㄱ. 수프렛 고즌 디곡 쏘 프눛다(林花落又開) <두시언해 14: 7ㄱ>
 숲속의 꽃은 지고 또 피는구나.
 ㄴ. 卽時예 如來 | 大衆 中에 다섯 輪指를 구피샤 구피시곡 쏘 피시며 피시곡 쏘 구피시고(卽時예 如來 | 於大衆中에 屈五輪指헝샤 屈已復開헝시며 開已又屈헝시고) <능엄경언해 1: 108ㄴ>
 즉시 여래께서 대중 가운데에서 다섯 손가락을 굽히셔서, 굽히셨다가 또 펴시고 펴셨다가 또 굽히시고
 ㄷ. 이 ㄱ티 十生이 무레 니르리 죽곡 주그며 나곡 나(如是乃至十生之類 死死生生헝야) <능엄경언해 4: 30ㄱ>
 이와 같이 십생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죽고 죽으며 태어나고 태어나서

(37ㄱ)의 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고 피는’ 동작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나타낼 때

‘디곡 프눛다’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동사 어간 ‘디-’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고 그 뒤에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ㄱ’을 쓴 것입니다. (37ㄴ)에서는 ‘굽혔다 펴는’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기 위해 연결 어미 ‘-고’ 뒤에 ‘ㄱ’이 결합하여 ‘곡’이라는 형태가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ㄷ)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역시 연결 어미 ‘-고’ 뒤에 ‘ㄱ’이 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37ㄱ, ㄴ)은 ‘지고 펴는 것’, ‘굽혔다 펴는 것’과 같이 반대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데 비해 여기서는 ‘죽곡 주구며 나곡 나’라고 표현하여 ‘죽고 죽는 것’, ‘나고 나는 것’, 즉 같은 ‘죽고 죽는 행위’와 ‘나고 나는 행위’가 반복될 때 ‘ㄱ’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ㅇ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이러한 ‘ㄱ’ 외에 ‘ㅇ’도 쓰였습니다. 다만, 이 ‘ㅇ’은 연결 어미 ‘-며’와 연결 어미 ‘-고’ 뒤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명 가명’과 같이 관용화된 형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조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詩歌) 자료에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ㅇ’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8)에 ‘ㅇ’이 나타나는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38) ㄱ. 時刻 헤디 마라 더으명 더러 머그라(不計時 加減服之) <구급방 상: 70ㄴ>
 시간을 헤아리지 말고 더하거나 덜어서 먹어라.
 ㄴ. 인스에 오명 가명 호물 삼가며(愼人事往還호며) <초발심자경문 14ㄱ>
 인사에 오며 가며 하는 것을 조심하며
 ㄷ. 죽조 오명 가명 호미(數數往還호미) <초발심자경문 80ㄱ>
 자주 오며 가며 하는 것이
 ㄹ. 이렁공 더렁공 햏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악장가사 4ㄱ>
 이렇게 저렇게 하여 낮은 지내 왔구나.

(38ㄱ)에서는 상반되는 행위, 즉 ‘더하다’와 ‘덜다’라는 의미를 강조, 반복하기 위해 ‘ㅇ’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7ㄱ)의 ‘디곡 프눛다’와 비슷한 구성인데, ‘ㄱ’ 대신에 ‘ㅇ’이 쓰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조사 ‘ㄱ’의 경우에는 연결 어미 ‘-며’ 뒤에 쓰이지 않고 연결 어미 ‘-고’와 ‘-아’ 뒤에만 쓰이는데, ‘ㅇ’은 이렇게 연결 어미 ‘-며’ 뒤에 결합한다는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38ㄴ, ㄷ)은 ‘오명 가명’의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명 가명’은 이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진 형태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38ㄹ)은 ‘이리고 더리고’라고 할 것에 ‘ㅇ’이 결합하여 ‘이렁공 더렁공’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리’, ‘더리’라는 부사 뒤에도 ‘ㅇ’이 한 번 더 들어가 ‘이리공 더리공’이 아니라 ‘이렁공 더렁공’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가, 즉 노래에 나타난 것이어서 일반적인 문장에 사용된 예라고 할 수는 없고 특수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ㅇ’은 이와 같이 ‘오명 가명’이나 ‘이렁공 더렁공’처럼 관용화된 표현 내지는 시가적인 표현에 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ㅁ

다음으로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에 그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39) ㄱ. 因果 서르 처섬 乃終이 드외야 올맘 이 道애 여희디 아니호몬 (因果互爲始終 展轉不離是道) <월인석보 12: 13ㄴ>
인과(因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처음과 나중에 되어 옮겨서 이 도에서 벗어나지 않음은

ㄴ. 시시로 올맘 올맘 나드리 썰리 디나며(時時移移호야 速經日夜호며) <초발심자경문 37ㄱ>
때때로 옮겨고 옮겨서 날과 달이 빨리 지나가며

ㄷ. 善을 積호야 니섬 公侯를 난낫다(積善衰衰生公侯) <두시언해 8: 24b>
선을 쌓아서 이어서(계속) 공후를 낳는구나.

ㄹ. 다읏 업슨 긴 ㅁ르몬 니섬 니서 오낫다(不盡長江衰衰來) <두시언해 10: 35b>
다함이 없는 긴 강은 이어서 이어서 오는구나.

ㅁ. ㅁ ㅁ 歲月이 올마가낫다(菁華歲月遷) <두시언해 20: 1ㄴ>
꽃이 피어서 세월이 옮겨가는구나.

ㅂ. 사오나온 히면 모다가 도즈기 도의여 굴형에 구으립 죽느니(凶年飢歲 不相聚爲盜賊 轉死於溝壑) <정속언해 22ㄱ>
흉년이 되면 모두 도적이 되어서 구렁에 굴러 다니며 죽는다.

ㅅ. ㅎ 瓶의 ㅁ득거든 ㅎ 瓶이 뺨곰 호야 <월인석보 7: 9ㄴ>
한 병에 가득하면 한 병이 물이 넘치곤 하여

ㅇ. ㅎ 부체를 다드니 ㅎ 부체 열이곰 흘썌 <월인석보 7: 9ㄴ>
한 문짝을 닫으니 다른 문짝이 열리곤 하므로

ㅈ. 니러서다가 도로 앞곰 흐실썌 <월인석보 20: 106ㄴ>
일어서다가 다시 앉고는 하시므로

보조사 ‘ㄱ’이 결합하여 ‘꽃이 피어서 세월이 읊아간다’, ‘꽃이 피고 피어서’라는 지속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9ㄷ)은 ‘구을-’라는 동사 어간 뒤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구으러’라는 형태에 다시 보조사 ‘ㄱ’이 결합하여 ‘구으럼’의 형태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39ㄸ)의 ‘뵈-’는 ‘물이 넘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현대 한국어의 반복을 나타내는 ‘-곤’ 정도에 대응되는 형태로 ‘곰’이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곰’이라는 형태는 연결 어미 ‘-고’에 지속을 나타내는 보조사 ‘ㄱ’이 결합한 형태로, ‘뵈곰’은 동사 어간 ‘뵈-’에 연결 어미 ‘-고’가 오고 그다음에 보조사 ‘ㄱ’이 결합하여 ‘뵈곰’의 형태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보조사 ‘곰’과 유사하지만 보조사 ‘곰’은 단독인 형태인 데 비해 이때 나타나는 ‘곰’은 연결 어미 ‘-고’에 보조사 ‘ㄱ’이 결합한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형태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 어미 ‘-고’에 보조사 ‘ㄱ’이 결합한 ‘곰’이라는 형태가 쓰인 예는 (39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리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의 어간 ‘열이-’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고 그 뒤에 보조사 ‘ㄱ’이 결합하여 ‘열이곰’의 형태가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ㅊ)에서도 역시 그러한 예가 확인됩니다. ‘앓(<앓)-’라는 동사 어간 뒤에 연결 어미 ‘-고’, 그다음에 보조사 ‘ㄱ’이 결합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강조나 반복을 나타내는 보조사들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고 그것이 15세기 자료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의문 조사

다음으로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에는 의문문을 만들 때, 문법 요소로 의문형 종결 어미만이 사용되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의문 조사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어와 차이를 보입니다. 즉, 체언이 서술어로 기능할 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 뒤에 의문형 종결 어미를 결합하는 방식만으로 의문문이 만들어지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방식 외에 체언 뒤에 바로 의문 조사가 결합하여 의문문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중세 한국어에서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인가 그렇지 않은 판정 의문인가에 따라 다른 종결 어미가 쓰였습니다. 의문 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명 의문에 쓰이는 ‘고’, 판정 의문에 쓰이는 ‘가’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고/가’는 ‘느’이나 모음 뒤에서는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ㄱ’이 약화되어 ‘오/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만, 반모음 ‘ㅣ’를 제외한 모든 모음 뒤에서 ‘ㄱ’ 약화는 필수적이 아닌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보조사 ‘곳’이나 접속 조사 ‘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판정 의문에 쓰이는 조사 ‘가’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ㄱ. 이 두 사르미 眞實로 네 항것가 <월인석보 8: 94ㄴ>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너의 주인이냐?

ㄴ. 아니 그 열구를 傳ᄃᆞᆫ 것가(無乃傳其狀) <두시언해 16: 36ㄱ>

그 형상을 전한 것이 아닌가?

ㄷ. 이 燈 빛가(爲是燈色가) <능엄경언해 2: 80ㄴ>

이것이 등(燈)의 빛인가?

(40ㄱ)은 ‘항것’이라는 체언 뒤에 바로 ‘가’가 결합하여 의문문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고’가 아닌 ‘가’의 형태가 쓰였습니다. (40ㄴ)도 마찬가지로 ‘것’이라는 의존명사 뒤에 ‘가’ 결합하여 바로 의문문을 형성하였습니다. (40ㄷ) 또한 ‘빚’이라고 하는 체언 뒤에 ‘가’가 결합하여 의문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문 조사 ‘가’의 ‘ㄱ’이 약화되어 ‘아’로 실현되는 예는 (4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 ㄱ. 이논 賞가 罰아(是논 賞耶아 罰耶아) <몽산법어 53ㄴ>

이것은 상(賞)인가, 벌(罰)인가?

ㄴ. 그쁘디 혼 가지아 아니아(其義 | 均가 不아) <능엄경언해 1: 99ㄱ>

그 뜻이 한 가지인가, 아닌가?

ㄷ. 쏘 나랴 이 設法가 이 設法 아니아(且道是設法가 不是設法가) <금강경삼가해 4: 37ㄴ>

또 말해라. 이것이 설법인가, 이것이 설법이 아닌가?

(41ㄱ)을 보면 구결문에도 이 ‘아’가 나타나고 있는데, 구결문은 [시난 상야아 벌야아]와 같이 읽습니다. 즉, ‘賞(상)’의 경우에는 어간이 자음인 ‘ㅇ’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의 형태로 실현된 데 비해 ‘罰(벌)’의 경우에는 어간 말 자음이 ‘ㄴ’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ㄱ’이 약화된 ‘아’의 형태로 의문 조사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결문에서는 한자 ‘耶’이 어간 말이 모음 ‘ㅏ’이기 때문에 역시 ‘ㄱ’이 약화되어 ‘아’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ㄴ)에서도 ‘ㅣ’ 모음 뒤에서 ‘가’가 아닌 ‘아’가 쓰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ㄷ)에서는 ‘設法(설법)’, 즉 자음 뒤에서는 ‘가’의 형태로, ‘아니’의 ‘ㅣ’ 모음 뒤에서는 ‘아’의 형태로 의문 조사가 각각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는 판정 의문문에 쓰이고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에서는 ‘고’의 형태가 실현이 됩니다. 설명 의문문에 쓰이는 의문 조사 ‘고’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42) ㄱ. 이 엇던 光明고 <월인석보 10: 7ㄴ>

이것은 어떤 광명(光明)인가?

ㄴ. 어넝 이 봄고(何者 | 是見고) <능엄경언해 2: 48ㄴ>

어느 것이 보는 것인가?

ㄷ. 므스 거시 세코(何等爲三) <월인석보 11: 81ㄱ>

어느 것이 셋인가?

ㄹ. 뉘 物의 像고(誰爲物像고) <능엄경언해 2: 33ㄴ>

누가 물(物)의 상(像)인가?

(42ㄱ)에서는 ‘光明(광명)’ 뒤에 의문 조사 ‘고’가 사용되었는데, ‘엇던’이라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고’가 쓰였습니다. (42ㄴ)에서도 ‘봄’이라는 용언의 명사형 뒤에 보조사 ‘고’가 쓰였습니다. 이는 ‘어넝’라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2ㄷ)에는 ‘므스’라는 의문사가 있고 역시 ‘고’라는 의문 조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ㄹ)에서도 마찬가지로 ‘뉘’라는 의문사가 있어서 ‘像(상)’ 뒤에 ‘고’가 결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문 조사 ‘고’는 모음이나 ‘ㄴ’ 뒤에서 ‘ㄱ’이 약화된 ‘오’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43) ㄱ. 그디 子息 업더니 므스 罪오 <월인석보 1: 7ㄱ>

- 그대가 자식(子息)이 없었는데 무슨 죄인가?
- ㄴ. 엇더 다몬 두 가지오 헝시고 <석보상절 3: 9ㄴ>
 “어째서 다만 두 가지인가?” 하시고
- ㄷ. 엇데 일후미 長老오(何名長老오) <금강경언해 상: 6ㄱ>
 어째서 이름이 장로(長老)인가?
- ㄹ. 뉘 이 靑雲 서리엿 器具오(誰是靑雲器) <두시언해 16: 18ㄴ>
 누가 이 청운(靑雲) 사이의 기구(器具)인가?

(43ㄱ)을 보면, 원래는 ‘므숫’이라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고’가 쓰여야 합니다. 다만, ‘罪(죄)’라는 반모음 ‘ㅣ’ 뒤의 환경이기 때문에 ‘ㄱ’이 약화된 ‘오’의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43ㄴ)에서는 ‘가지’의 ‘ㅣ’ 모음 뒤에서 역시 ‘ㄱ’이 약화된 ‘오’의 형태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ㄷ)은 ‘엇데’라는 의문사가 있으니 ‘고’가 쓰여야 하는데, ‘長老(장로)’의 2 음절 모음이 ‘ㅏ’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ㄱ’이 약화된 ‘오’의 형태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ㄹ)도 역시 ‘뉘’라는 의문사가 있고 ‘器具(기구)’가 ‘우’라는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서 ‘ㄱ’이 약화된 ‘오’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ㄱ’ 약화는 수의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다른 조사들이 보이는 ‘ㄱ’ 약화와는 조금 차이가 나타납니다.

- (44) ㄱ. 듣즈와 기피 恭敬헝습느닌 다 威王의 나몬 功 아니가(聞而深敬은 俱威王之餘勳가)
 <법화경언해 1: 서17ㄱ>
 들어서 깊이 恭敬(공경)하는 것은 다 威王(위왕)의 남은 功(공)이 아닌가?
- ㄴ. 이런드로 아로미 드외느녀 아로미 아니가 무르시니라(故로 問爲知아 非知아 헝시니라)
 <능엄경언해 3: 33ㄴ>
 이런 까닭으로 “아는 것이 되느냐,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셨다.
- ㄷ. 네 스승이 누고(汝師是誰) <석보상절 23: 41ㄴ>
 너의 스승이 누구인가?

앞의 (41ㄴ, ㄷ)에서는 ‘아니아’로 실현된 예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44ㄱ)에서는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니가’의 형태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환경에서 ‘ㄱ’ 약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4ㄴ)도 ‘ㄱ’이 약화되지 않은 ‘아니가’의 형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ㄷ)은 ‘누’라는 의문사 뒤에 ‘ㄱ’이 약화되지 않은 ‘고’가 결합하여 ‘누고’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15세기 문헌에서는 ‘누’ 뒤에 ‘ㄱ’이 약화된 “*누오”의 형태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고’는 아마 이 시기에 이미 하나의 어휘로 굳어져 쓰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고’는 보조사의 범주에 넣어서 같이 다루기도 하고 별도의 특수한 조사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한국어 문법사 기술에 따라서 보조사의 범주에 넣어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3. 접속 조사

다음은 접속 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조사는 격 조사나 다른 보조사들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보조사의 범주에 넣어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속 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와/과

접속을 나타내는 조사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와/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과’는 현대 한국어에서와 같이 나열 또는 접속에 쓰이기도 하고 또는 공동이나 비교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이나 비교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사격 조사로 분류를 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형태를 위주로 분류하여 접속 조사라는 범주에 묶어서 서술하였습니다.

접속 조사 ‘와/과’는 현대 한국어와 같이 체언 어간 말음이 모음인가 자음인가에 따라 ‘와’와 ‘과’로 교체가 되게 됩니다. 다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ㄴ’ 뒤에 ‘과’가 쓰이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와’가 결합되었다는 차이를 보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45) ㄱ. 엄과 혀와 입시울와 목소리엿 字는 中國 소리에 通히 쓰느니라 <훈민정음언해 15ㄴ>
어금니와 혀와 입술과 목소리의 글자는 중국 소리에 다 통해서 쓴다.
- ㄴ. 鸚鵡과 鴛鴦과 다 새 일후미라 <석보상절 3: 32ㄴ> 주격 조사
앵곡(鸚鵡)과 원왕(鴛鴦)은 다 새의 이름이다.
- ㄷ. 부터와 중과를 請히 스보려 ㅎ녕다 <석보상절 6: 16ㄴ> 목적격 조사
부처와 중과를 청하려고 합니다.
- ㄹ. 須達이 부터와 중과 마를 듣고 <석보상절 6: 16ㄴ> 관형격 조사
수달이 부처와 중이라는 말을 듣고
- ㄴ. 虛空과 물와애 가즐비건댄 <능엄경언해 2: 108ㄱ> 부사격 조사
허공(虛空)과 물에 비유한다면
- ㄷ. 네 가짓 受苦는 生과 老와 病과 死와래라 <석보상절 6: 4ㄱ> 서술격 조사
네 가지 수고(受苦)는 생과 노와 병과 사이이다.
- ㄸ. 나무와 꽃과 과실은 祇隨이 뒷논 거시니 <석보상절 6: 40ㄱ> 보조사 ‘논’
나무와 꽃과 과실은 祇隨(기타)가 소유한 것인데
- ㄹ. 너와 衆生과도 쯔 이 곤ㅎ니 <능엄경언해 4: 54ㄱ> 보조사 ‘도’
너와 중생도 또한 이와 같으니
- ㅈ. 福과 智慧와 닛근 사릅들히 다 ㅎ마 佛道를 일우며 <석보상절 13: 50ㄴ> 격 조사 생략
복(福)과 지혜(智慧)를 닦은 사람들이 다 이미 불도(佛道)를 이루며

(45ㄱ)을 보면, ‘엄과’에서는 자음인 ‘ㄴ’ 뒤에 ‘과’가, ‘혀와’에서는 모음인 ‘ㅛ’ 뒤에 ‘와’가, 그리고 ‘입시울’에서는 ‘ㄴ’ 뒤에서 ‘와’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현대 한국어에서라면 ‘鸚鵡(앵곡)과 鴛鴦(원왕)’이 다 새의 이름이다와 같이 표현이 될 텐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鸚鵡과 鴛鴦과’가 되어 나열되는 마지막 명사구에 ‘와/과’가 결합하고 그 뒤에 다시 다른 격 조사들이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5세기 한국어에서는 나열되는 명사구 중에서 제일 마지막 명사구에 ‘와/과’와 같은 접속 조사가 결합한 다음, 거기에 격 조사나 또는 보조사가 통합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명사구에 ‘와/과’가 결합하지

않고 바로 격 조사나 보조사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명사구에 ‘와/과’가 더 결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ㄷ)에서는 목적격 조사 앞에 ‘와/과’가 결합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처와 중을’이라고 할 것을 ‘부처와 중과를’과 같이 마지막 명사구 ‘중’에 ‘과’가 결합하고 그다음에 ‘를’이 결합하였습니다. (45ㄹ)의 ‘부처와 중과 말’은 ‘부처와 중의 말’ 정도의 의미인데, 마지막 명사구 ‘중’ 뒤에 역시 ‘과’가 결합하여 ‘중과 말’의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45ㅁ)의 ‘虛空(허공)과 물와애’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명사 ‘물’에 ‘와’가 결합하고 그 뒤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ㄴ)은 서술격 조사 ‘이-’ 앞에 ‘와’가 쓰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ㄸ)의 예는 보조사 ‘는’ 앞에 ‘와’가 쓰인 예입니다. ‘나모’와 ‘꽃’, ‘果實(과실)’을 나열하고 마지막 명사구에 ‘와’가 붙은 다음에 ‘는’이라는 보조사가 결합하였습니다. (ㅇ)에서는 보조사 ‘도’ 앞에 ‘과’가 쓰이고 있습니다. (45ㅊ)은 격 조사의 결합이 없이 마지막 명사구에 ‘와’만 결합한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라면 ‘복과 지혜를 닦은 사람들’ 또는 ‘복과 지혜 닦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는 ‘福과 智慧와 닳은 사람들’의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와/과’는 접속 조사로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부사어 논항을 형성하는 공동격 조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46)에서 그러한 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6) ㄱ. 車匿은 조의 일후미니 太子와 혼날 나니라 <석보상절 3: 29ㄴ>

車匿(차익)은 종의 이름인데 태자와 같은 날 태어났다.

ㄴ. 太子 | 이실 찌긔 상네 너와 혼디 잇더니 <월인석보 22: 61ㄴ>

태자가 계실 때에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는데

ㄷ. 오늘로브터 永永히 너와 원슈흐디 아니호리라(從今永不與汝爲冤) <불정심경다라니경 11ㄴ>

오늘로부터 영원히 너와 원수 삼지 않겠다.

ㄹ. 臣下 | 슬보디 뉘 王과 겨구리잇고(臣啓王言 誰敢與王興競) <월인석보 25: 126ㄱ>
신하가 아뢰기를, “누가 왕과 겨루겠습니까?”

ㅁ. 부터와 고티움 업스리라(與佛無別矣) <월인석보 17: 6ㄴ>

부처와 구별함이 없을 것이다.

(46ㄱ)에서는 ‘태자와 같은 날 태어났다’와 같이 ‘와’가 부사어 논항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나열 또는 접속의 의미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와/과’는 부사격 조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서는 형태를 중시하여 접속 조사 ‘와/과’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부사격 조사 ‘와/과’를 같이 다루고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서 이것은 부사격 조사 ‘와/과’로 따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6ㄴ)의 ‘너와 혼디’는 ‘너와 함께’라는 뜻인데, 현대 한국어와 유사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역시 공동격으로 사용된 ‘와’의 예입니다. (46ㄷ)의 ‘너와 원슈흐다(너와 원수 삼다)’에서 ‘와’는 역시 공동격 조사로 사용되었습니다. (46ㄹ)은 ‘王과 겨구다(왕과 겨루다)’라는 표현에서 공동격 조사 ‘과’가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고 (46ㅁ)의 ‘부터와 고티다(부처와 구별하다/분별하다)’도 역시 공동격 조사 ‘와’가 사용된 예입니다.

‘와/과’가 결합한 체언이 ‘곶히-’나 ‘다르-’, ‘끓-’와 같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과

결합할 경우에 그때의 ‘와/과’는 비교격 조사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47)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 ㄱ. 이와 같디 아니헝니라(與此不同也) <월인석보 11: 69ㄱ>

이와 같지 않다.

ㄴ. 마릿 기리 몸과 같뵈며 <월인석보 1: 26ㄴ>

머리카락의 길이가 몸과 같으며

ㄷ. 길 넓은 사람과 ㄱ티 너기시니 <석보상절 6: 4ㄷ>

길 가는 사람과 같이 여기시니

ㄹ. 아래와 다르디 아니헝시니(與本無異) <월인석보 11: 93ㄱ>

과거와 다르지 않으셨는데

(47ㄱ)과 같이 쓰이는 ‘와/과’는 공동격이라기보다는 비교격 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7ㄴ)에서도 ‘같-’라는 용언의 논항으로서 ‘몸과’가 사용되었고 ‘같-’가 ‘같다, 다르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역시 비교격 조사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47ㄷ)에서는 부사 ‘ㄱ티’의 논항으로 ‘사람과’가 사용되었고 역시 비교격의 의미가 파악됩니다. (47ㄹ)은 ‘다르-’의 논항으로 ‘아래와’가 사용되었고 역시 비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이나 비교, 공동을 나타내는 조사 ‘와/과’ 앞에 ‘ㄴ’이 덧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수한 체언 뒤에서 그렇습니다. ‘ㄴ’이 덧나면 ‘ㄴ’ 뒤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과’는 나타나지 않고 ‘와’의 형태만이 실현됩니다. 즉, ‘ㄴ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8) ㄱ. 四衆이 올워러 仁과 날와 보느니(四衆欣仰 瞻仁及我) <석보상절 13: 25ㄴ>

사부대중들이 우러러서 인과 나를 보는데

ㄴ. 이제 내게서 어디니 두 사르미오 날와 곁오니 닐구비니 <내훈 2: 20ㄴ>

이제 나에게 어진 사람이 두 사람이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 일곱 명인데

ㄷ. ㄴ 王子 ㄱ르쳐 날와 ㄷ토게 헝느뇨(誰教王子作是事與我興競) <월인석보 25: 126ㄱ>

누가 왕자를 지시하여(가르쳐서) 나와 다투게 하느냐?

(48ㄱ)을 보면, ‘날와’의 형태가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8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나’ 뒤에 ‘와’라는 형태가 결합할 때 ‘ㄴ’이 덧나서 ‘날와’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8ㄷ)에서도 역시 ‘날와’의 형태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

나열을 나타내는 접속 조사로 ‘와/과’ 이외에 ‘여’라는 형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여’라는 접속 조사는 전기 중세 한국어, 특히 석독 구결 자료에서 매우 일반적인 접속 조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아주 제한된 용법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립되거나 상호 연관된 두 가지를 나열하는 경우에 아주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 주로 쓰이고 그 외 일반적인 접속 조사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15세기 한국어에서 ‘여’는 이미 상당히 쇠퇴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세기 문헌에서는 이

‘여’가 ‘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49) ㄱ. 내 이제 나저 바며 시름호노니(我今日夜憂) <두시언해 8: 29ㄱ>

내가 이제 낮이며 밤이며 시름하는데

ㄴ. 큰 병흔 후에 나저 바며 므스미 허손호야 자디 못호거든(大病之後晝夜虛煩不得睡)
<구급간이방 1: 14ㄴ>

큰 병을 앓은 후에 낮이며 밤이며 마음이 허하여 자지 못하며

(49ㄱ)은 ‘낮’과 ‘밤’에 ‘여’가 결합하여 ‘나저 바며’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49ㄴ)에서도 ‘나저 바며’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저 바며’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나저 바며’와 같은 형태가 관용화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는 ‘이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세기 문헌에서는 ‘여’ 단독보다는 ‘이여’의 형태로 쓰인 예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에 그 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0) ㄱ. 불그며 거르며 흰 므지개 나지여 바미여 長常 뵈오 <월인석보 20: 33ㄴ>

붉으며 검으며 흰 무지개가 낮이며 밤이며 항상 보이고

ㄴ. 굴그니여 허그니여 우디 아니호리 업더라(擧國人民 一切大小 莫不啼泣) <월인석보 10: 12ㄴ>

큰 사람이며 작은 사람이며 울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ㄷ. 一千이여 一萬이여 無數히 얻고져 호샤도 <월인석보 1: 27ㄴ>

일천이며 일만이며 무수히 얻고자 하시어도

ㄹ. 날굽 히 도드면 되히여 돌히여 다 노가디여 <월인석보 1: 48ㄴ>

해가 일곱 개가 돌으면(뜨면) 산이며 돌이며 다 녹아서

(50ㄱ)에는 ‘나저 바며’의 형태가 ‘나지여 바미여’와 같이 ‘이여’의 형태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ㄴ)에서는 ‘굴그니’라는 명사 뒤에 ‘여’가 직접 결합한 것이라곤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여’가 쓰인다는 점에서 ‘굴그니’에 ‘이여’가 결합한 형태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50ㄷ)에도 역시 ‘이여’의 형태가 보입니다. (50ㄹ)에서는 ㅎ말음 체언인 ‘되ㅎ’, ‘돌ㅎ’ 뒤에서 ‘이여’의 형태가 쓰인 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문헌에서는 이 ‘여’가 ‘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51) ㄱ. 나자 바먀 셔기 나느니(白日黑夜瑞雲生) <번역박통사 상: 68ㄱ>

낮이며 밤이며 성스러운 기운이 나는데

ㄴ. 밤야 나자 조디 아니호며(晝夜不眠호며) <번역소학 9: 73ㄱ>

밤이며 낮이며 자지 않아서

15세기에 ‘나저 바며’라고 표현되었던 것이 (51ㄱ)에서는 ‘나자 바먀’로 쓰여 ‘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ㄴ)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나자 바먀’ 또는 ‘밤야 나자’와 같이 ‘여’가 아닌 ‘야’가 접속 조사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나

다음으로는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접속 조사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한국어에서도 현대 한국어와 같이 ‘이나’나 ‘이며’와 같은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 접속이나 나열의 의미를 지닌 조사로 굳어져서 쓰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나’는 ‘이어나’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나/이어나’, ‘이며’는 조사로 문법화가 되었음에도 이때의 ‘이’는 여전히 서술격 조사와 같은 교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이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나’는 선택적 나열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이라도’와 같은 양보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52) ㄱ. 後報는 시혹 二生이나 三生이나 無量生에 니르러사 受호미라 <원각경언해 상 2-2: 93ㄱ>

뒤의 업보는 혹 이생(二生)이나 삼생(三生)이나 무량생(無量生)에 이르더라도 받는다.

ㄴ. 比丘나 比丘尼나 優婆塞나 優婆夷나 보니마다 다 절하고 讚嘆하야 <석보상절 19: 29ㄴ>

비구(比丘)든지 비구니(比丘尼)든지 우바새(優婆塞)든지 우바이(優婆夷)든지 본 사람마다 다 절하고 찬탄하여

ㄷ. 아모 사르미나 이 法華經을 듣고 손소 쓰거나 늑 하야 쓰거나 하면 <석보상절 20: 25ㄷ>

어떤 사람이든지 이 법화경(法華經)을 듣고서 손수 쓰거나 남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하면

ㄹ. 盟誓호되 혼 衆生이나 成佛 못하야 이시면 乃終내 涅槃 아니호리라 <월인석보 9: 22ㄹ>

맹세하되, 한 중생이라도 성불을 하지 못했으면 마침내 열반하지 않겠다.

ㅁ. 즉재 그 마르춤 바다 아니 한 더디나 드로매 니르러도(卽受其敎하야 乃至須臾間이나 聞하야도) <법화경언해 6: 12ㄴ>

즉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많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들음에 이르기만 해도

(52ㄱ)에서는 선택적 나열의 의미로 ‘이나’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2ㄴ)도 마찬가지입니다. ‘比丘(비구)나’에서는 모음 뒤이기 때문에 ‘나’가, ‘比丘尼(비구니)나’에서는 ‘이’ 모음 뒤이기 때문에 ‘나’가 쓰였지만 표기상 ‘나’가 실현되지 않고 ‘나’만 결합한 것처럼 보이는 형태가 쓰였습니다. ‘優婆塞(우바새)’, ‘優婆夷(우바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음 또는 반모음 ‘나’ 뒤에서 ‘나’가 표기상 실현되지 않는 서술격 조사와 똑같은 교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맥상 의미는 선택적 나열보다는 현대 한국어로는 ‘든지’ 정도로 번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2ㄷ)은 ‘어떤 사람이든지’ 정도의 의미로 ‘이나’가 사용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속이나 나열의 의미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52ㄹ)에서도 ‘이나’가 양보적인 의미의 ‘라도’ 정도의 의미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ㅁ)에 보이는 ‘아니 한 더디나’의 ‘이나’는 ‘이나마’ 또는 ‘이지만’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나’에 선어말 어미 ‘-거-’가 결합하여 ‘나’가 약화된 ‘이어나’의 형태도 ‘이나’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53)에서 그러한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 (53) ㄱ. 이런 有情들 혼 이에서 주그면 餓鬼어나 畜生이어나 ㄷ외리니 <월인석보 9: 29ㄴ>
 이런 중생들은 여기에서 죽으면 아귀(餓鬼)나 축생(畜生; 짐승)이 될 것이니
 ㄴ. 그뿐 病 혼 사르미 아스미어나 아로리어나 病 혼 위 혼야 <석보상절 9: 30ㄴ>
 그때 병든 사람의 친척이거나 아는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을 위해
 ㄷ. 아뢰어나 불씨 發願커나 이제 發願커나 장즉 發願커나 혼야 阿彌陀佛國에 나고저
 혼 사르미 <월인석보 7: 76ㄱ>
 아무든지(누구든지) 벌써 발원을 했거나 이제 발원하거나 앞으로 발원하거나 하여
 아미타국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53ㄱ)의 ‘餓鬼(아귀)어나’에서는 반모음 ‘ㅣ’ 뒤이기 때문에 ‘이’가 표기상 실현되지 않아 ‘어나’로만 실현되었고 ‘畜生(축생)이어나’에서는 자음 뒤이기 때문에 ‘이어나’의 형태가 그대로 표기되었습니다. (53ㄴ)도 마찬가지로 ‘아슬’ 다음에 ‘이어나’가, 그리고 ‘아로리’에 ‘어나’가 결합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로리’에서는 의존명사 ‘이’ 뒤에 ‘이어나’가 결합하였지만 ‘ㅣ’ 모음 뒤이기 때문에 ‘ㅣ’가 실현되지 않아 ‘어나’의 형태로만 표기된 것입니다. (53ㄷ)에서는 ‘아뢰어나’에서 ‘누구든지(아무 사람이든지)’와 같이 ‘든지’의 의미로 쓰인 ‘이어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며

‘이나/이어나’ 외에 ‘이며’도 이렇게 나열을 나타내는 접속 조사로 사용되었습니다.

- (54) ㄱ. 아뢰어나 와 내 머릿바기며 눈즈식며 骨髓며 가시며 子息이며 도라 혼야도 <월인석보 1: 13ㄱ>
 누구든지 와서 내 머리통이며 눈자위며 골수며 아내며 자식이며 달라고 하더라도
 ㄴ. 뵈이며 디새며 홀 ㄱ로 塔 올 이르습거나 <석보상절 13: 51ㄴ>
 벽돌이나 기왓장이나 흙으로 탑을 이루거나
 ㄷ. 그저기 王이며 百姓 들히 正 티 묻 혼야 <월인석보 1: 47ㄱ>
 그때에 왕과 백성(百姓)들이 바르지 않아서

(54ㄱ)을 보면, 이렇게 명사구 나열에 ‘이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이’ 역시 서술격 조사에서 기원한 것이고 모음 뒤인가, ‘이’ 모음 뒤인가 또는 자음 뒤인가에 따라서 교체 양상이 달라지는데, 서술격 조사와 같은 교체 양상을 보입니다. (54ㄴ)에는 선택적 의미를 가진 ‘이나’ 대신에 ‘이며’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ㄷ)에서는 ‘이며’가 한 번만 쓰였지만 접속의 의미로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 굳어진 형태들도 접속 조사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하고

접속 조사의 마지막으로 ‘하고’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동사 어간 ‘하-’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고’라는 활용형이 접속 조사로 문법화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하고’가 접속 조사로 기능하기도 하는데, 15세기 문헌에서는 이러한

예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55) 정도가 접속 조사 ‘하고’의 예입니다.

(55) 夫人도 목수미 열 들하고 닐웨 기터 겨샷다 <월인석보 2: 13ㄴ>
부인도 목숨이 열 달하고 칠 일이 남아 있으셨구나.

‘열 달하고’에서 ‘하고’가 바로 접속 조사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나타내는 조사로 ‘와/과’, ‘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의 활용형에서 굳어진 ‘이나/이어나’, ‘이며’, 그리고 ‘하-’의 활용형에서 굳어진 ‘하고’ 같은 접속 조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사 중에서 강조와 반복을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의문 조사,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던 접속 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선어말 어미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3분)

1. ‘뫿’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다. (O/X)

정답: X

2. 중세 한국어의 ‘곰’은 모음 뒤에서는 무조건 ‘옴’으로 나타났다. (O/X)

정답: X

3. 중세 한국어의 의문사 ‘누’에 의문 조사 ‘고’가 결합하면 ‘누오’로 실현되었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다른 조사가 쓰인 것은?

- ① 돌뽕 쇠부피 각각 닐굽곰 잇거늘
- ② 혼 부체를 다드니 혼 부체 열이곰 흘씩
- ③ 놀 보리라 우리곰 온다

정답: ②

2. 다음 중 중세 한국어의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샤’는 ‘이사’로도 나타났는데 ‘이사’의 ‘이’는 주격 조사에서 유래하였다.
- ② ‘긔/긔’은 ‘잇-’, ‘없-’의 주어로 쓰이거나 부정문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 ③ ‘뫿’은 체언 뒤에 결합한 예만 보인다.

정답: ①

3.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다른 것은?

- ① 목수미 열 들 호고 닐웨 기터 겨샷다
- ② 아모 사르미나 이 法華經을 듣고 손소 쓰거나
- ③ 臣下ㅣ 슬보되 뉘 王과 겨구리잇고

정답: ③

단답형 (10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중세 한국어의 접속 조사 ‘○○’, ‘○○’는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 굳어져 조사로 된 것이다.

정답: 이나, 이며

2. 중세 한국어의 의문 조사 ‘가/고’는 ‘○’를 제외한 모든 모음 뒤에서 ‘ㄱ’ 약화 현상이 수 의적으로 나타났다.

정답: ㅣ

3. 중세 한국어의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ㄱ’은 ‘○’로 교체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답: ㅅ

나. 토의 (30분)

1. 다음은 중세 한국어의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ㄱ’, ‘ㄴ’이 사용된 예들이다. 이 예들을 활용하여 각 보조사의 의미와 보조사가 쓰이는 환경이 어떤지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 (ㄱ) 세 번 거러각 머리 도로혀 브라고(三步回頭) <두시언해 9: 5ㄱ>
- (ㄴ) 날 브리곡 머리 가디 말라 <석보상절 11: 37ㄱ>
- (ㄷ) 이 네 가짓 願은 네록브터 일우니 업스니라 호시고 <석보상절 3: 21ㄴ>
- (ㄹ) 네롯 後에 네 이제 다 니즈니라(自昔之後汝今悉忘) <월인석보 13: 30ㄴ>
- (ㄴ) 수프렛 고즌 디곡 또 프눗다(林花落又開) <두시언해 14: 7ㄱ>
- (ㄷ) 이 ㅁ티 十生의 무레 니르리 죽곡 주그며 나곡 나(如是乃至十生之類 死死生生호야) <능엄경언해 4: 30ㄱ>
- (ㅅ) 시시로 올맘 올맘 나드리 썰리 디나며(時時移移호야 速經日夜호며) <초발심자경문 37ㄱ>
- (ㅇ) 善을 積호야 니원 公侯를 난낏다(積善衰衰生公侯) <두시언해 8: 24b>
- (ㅈ) 곳 펼 歲月이 올마가낏다(菁華歲月遷) <두시언해 20: 1ㄴ>
- (ㅊ) 호 瓶의 ㅁ득거든 호 瓶이 뻘곰 호야 <월인석보 7: 9ㄴ>

2. 다음은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 ‘이사’와 관련된 예를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예를 보고 ‘이사’의 ‘이’가 기원적으로 어떤 형태에서 유래했는지와 ‘사’의 성격이 어떤지 논의해 보자.

- (ㄱ) 唯ハ 佛リニシ 能カ 了知ッニロフカ <금광명경 13장: 14-15행>
 (ㄴ) 一切 種種 智慧는 부테샤 ㄱ즈시니라 <석보상절 13: 29ㄱ>
 (ㄷ) 이 法은 오직 諸佛이샤 아ㄴ시리라 <석보상절 13: 47ㄴ>
 (ㄹ) 모미 아래 근거샤 成佛호리라 <석보상절 3: 40ㄱ>
 (ㄹ) 나는 一切 衆生이 다 부테 ㄷ외야 衆生이 엿거샤 菩提心을 發호리라 <석보상절 6: 46ㄴ>
 (ㅎ) 출히 說法 마오 涅槃애 어셔 드샤 ㅎ리로다 <석보상절 13: 58ㄱ>
 (ㅏ) 아니웃 드르면 아비 주그리오 드르면 남지니 주그리니 내 죽샤 ㅎ리로다 <삼강행실도 열녀5>

다. 과제 (60분)

다음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와/과’의 의미와, ‘와/과’가 각각의 의미로 쓰일 때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는지 설명해 보세요.

- (ㄱ) 네 가짓 受苦는 생과 老와 病과 死왜라 <석보상절 6: 4ㄱ>
 (ㄴ) 부터와 중과를 請ㅎ스보려 ㅎ녕다 <석보상절 6: 16ㄴ>
 (ㄷ) 太子 | 이실 찌긔 상네 너와 ㅎ딤 잇더니 <월인석보 22: 61ㄴ>
 (ㄹ) 鸚鵡과 鴛鴦과 다 새 일후미라 <석보상절 3: 32ㄴ>
 (ㄹ) 아래와 다르디 아니ㅎ시니(與本無異) <월인석보 11: 93ㄱ>
 (ㅎ) 須達이 부터와 중과 마를 듣고 <석보상절 6: 16ㄴ>
 (ㅏ) 虛空과 물와애 가줄비건댄 <능엄경언해 2: 108ㄱ>
 (ㅇ) 四衆이 올위러 仁과 날와 보느니(四衆欣仰 瞻仁及我) <석보상절 13: 25ㄴ>
 (ㅑ) 너와 衆生과도 ㅈ 이 ㄱㅎ니 <능엄경언해 4: 54ㄱ>
 (ㅓ) 臣下 | 슬보디 ㄴ 王과 ㄱ구리잇고(臣啓王言 誰敢與王興競) <월인석보 25: 126ㄱ>
 (ㅋ) 마릿 기리 몸과 ㄱ북며 <월인석보 1: 26ㄴ>

■ 참고자료

『금광명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상서도관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대명률직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고영근(2020),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제4판, 집문당.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신정판, 탑출판사.

<7차시> 선어말 어미 (1)

■ 학습목표

1. 현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세 한국어의 다양한 선어말 어미의 종류와 그 쓰임을 살펴본다.
2. 중세 한국어의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가운데 주체 높임과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의 의미와 그 쓰임 및 실현 양상 등을 예문을 통해 확인하고 익힌다.
3. 중세 한국어의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현대 한국어의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이해한다.
4. 완료 또는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의 의미와 기능 실현 양상 등을 확인하고 그 특징을 알아본다.

■ 강의 목차

1.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으)시-’ (1)
2.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으)시-’ (2)
3.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 ‘-(으/으)이-’ (1)
4.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 ‘-(으/으)이-’ (2)

■ 강의 내용 전문

<한국어 문법사>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15세기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한국어에서 선어말 어미는 높임, 시상, 인칭이나 수, 감동(감탄) 등의 용법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는 높임, 그리고 시상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인칭이나 수, 감동 등의 용법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들은 모두 소멸하여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높임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나 시상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도 객체 높임의 ‘-습-’, 상대 높임의 ‘-이-’, 그리고 과거와 관련된 시상을 나타내는 ‘-거/어-’와 같이 그 문법적 기능을 잃어버려 더 이상 독립된 선어말 어미로 기능하지 않게 된 것들이 있고, 과거 시상의 ‘-더-’와 같이 형태는 유지되었다고 할지라도 기능이 크게 변화한 것들도 있습니다. 또 과거를 나타내는 ‘-았/었-’과 같이 새로 만들어진 선어말 어미도 있어, 이러한 선어말 어미들은 다른 문법 형태소들에 비해 그 목록이라든지 기능의 변화가 조금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으)시-’ (1)

첫 번째로, 높임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체 높임과 관련된 ‘-(으/으)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시-’는 그 기능이나 용법에 있어서 현대 한국어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존재나 높임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 관련된 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 그 주어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ㄱ. 이제 世尊이 큰 法을 니르시며 <석보상절 13: 26ㄴ>

이제 세존(世尊)께서 큰 법을 말씀하시며

ㄴ. 孔聖은 孔子 | 시니 <석보상절 20: 13ㄱ>

공성(孔聖)은 공자(孔子)이신데

ㄷ. 이 뻘 부텃 나히 닐구비러시니 <석보상절 3: 7ㄱ>

이때 부처님의 나이가 일곱이셨는데

(1ㄱ)은 주어인 ‘世尊(세존)’을 높이기 위해 ‘니르-’라는 동사에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여 주체 높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위를 하는 주체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ㄴ)은 서술격 조사 구문의 주어인 ‘孔聖(공성)’을 높이기 위해 서술격 조사 뒤에 ‘-시-’가 결합하여 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1ㄷ)의 경우에는 높임의 대상(‘부텃’)이 되는 존재와 관련된 명사인 ‘부텃 나히’를 높이기 위해 서술어에 ‘-시-’가 결합하여 높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이와 같은 용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는 기능상으로는 현대 한국어와 큰 차이가 없지만, 형태적으로는 다소 큰 차이를 보여 줍니다. 우선 ‘-시-’가 매개 모음을 취한다는 점은 현대 한국어와 같지만, 매개 모음이 모음 조화에 따라 ‘으/으’로 교체된다는 것은 현대 한국어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모음 조화에 따라 매개 모음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만이 아니라 매개 모음을 취하는 모든 문법 형태소들의 공통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2) ㄱ. 太子 | 이제 道理 닷ᄃ시느니 <월인석보 25: 41ㄴ>

태자께서 지금 도리를 닦으시는데

ㄴ. 悉達太子 | 어젯 바미 주그시니라 <월인석보 25: 11ㄴ>

실달태자(悉達太子)께서 어젯밤에 죽으셨다.

ㄷ. 世尊이 須達이 올 뜰 아르시고 <석보상절 6: 20ㄴ>

세존께서 수달(須達)이 올 것을 아시고

ㄹ. 摩耶 | 목 노하 우르시고 <석보상절 23: 36ㄱ>

마야(摩耶)께서 목 놓아 우시고

(2ㄱ)은 주어인 ‘太子(태자)’를 높이기 위해 어간의 말음이 ‘시’인 서술어 ‘닷-’에 ‘-시-’가 결합한 것입니다. ‘닷-’가 ‘시’이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매개 모음을 취한 형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또한 ‘닷-’의 어간 모음이 ‘ㅏ’라는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으’가 아니라 ‘으’가 매개 모음으로 선택되어 ‘닷ᄃ시’라는 형태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2ㄴ)은 ‘죽-’라는 동사 어간 뒤에 ‘-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라는 동사 어간은 어

간 발음이 자음인 ‘ㄱ’이고 어간 모음은 ‘ㅏ’라는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매개 모음 ‘으’가 결합하여 ‘주그시’의 형태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2ㄷ)과 같은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는 ‘ㄱ’로 끝나는 어간 뒤에 ‘-시-’가 결합할 때, 그 어간 말의 ‘ㄱ’이 탈락하여 ‘아시고’와 같은 형태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ㄱ’로 끝난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할 때 매개 모음이 들어가고 그 ‘ㄱ’은 탈락하지 않은 형태를 나타내어 ‘아르시고’와 같은 형태로 실현됩니다. (2ㄷ)의 ‘摩耶(마야) 부인’은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분입니다. ‘울-’라는 동사 어간 뒤에 현대 한국어에서 ‘-시-’가 결합된다면, (2ㄷ)과 마찬가지로 ‘ㄱ’이 탈락하여 ‘우시고’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매개 모음이 들어가서 ‘ㄱ’이 탈락하지 않은 ‘우르시고’라는 형태로 실현됩니다. 여기서는 ‘울-’의 어간 모음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매개 모음 ‘으’가 결합한 것입니다.

한편, 선어말 어미 ‘-시-’ 뒤에 연결 어미 ‘-아/어’가 결합할 경우에는 항상 ‘-아’라는 형태만 결합하고 ‘-어’가 결합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선어말 어미 ‘-시-’는 연결 어미 ‘-아’와 결합하여 ‘샤’의 형태로만 실현된다는 것이 15세기 한국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ㄱ. 世尊이 象頭山에 가샤 <석보상절 6: 1ㄱ>

세존께서 상두산(象頭山)에 가시어서

ㄴ. 부터 드외야 나라해 도라오샤도 <석보상절 6: 4ㄴ>

부처가 되어서 나라에 돌아오셔도

ㄷ. 아비 이시며 어미 이샤 一定ᄃᆞᆫ사이다 <월인석보 8: 83ㄷ>

아버지가 있으며 어미가 있을 때 하나로 정함시다.

ㄹ. 이 산에 이 고지 만히 이셔 <석보상절 6: 44ㄹ>

이 산에 이 꽃이 많이 있어서

(3ㄱ)의 ‘象頭山(상두산)’은 그 모양이 코끼리 머리 모양과 비슷하여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동사 어간 ‘가-’ 뒤에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고, 그 뒤에 연결 어미 ‘-아’가 와서 ‘가샤’의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어라면 ‘가시’ 뒤에 ‘-어’가 결합하여 ‘가셔’의 형태로 실현될 텐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가셔’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고 항상 ‘가샤’와 같이 ‘샤’의 형태로만 실현이 됩니다. (3ㄴ)에서도 역시 동사 어간 ‘돌아오-’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고, 여기에 ‘-아도’라는 연결 어미가 결합하여 ‘도라오샤도’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돌아오셔도’로 실현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선어말 어미 ‘-시-’가 뒤에 연결 어미 ‘-아’만을 취한다는 점은 ‘시’로 끝나는 다른 어간들은 뒤에 연결 어미 ‘-아/어’를 모두 다 취할 수 있다는 점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가령, (3ㄷ, ㄹ)에서는 ‘이시-’라는 용언 어간에 연결 어미 ‘-아/어’가 모두 결합한 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ㄷ)에서는 존재를 나타내는 용언 어간 ‘이시-’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여 ‘이샤’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3ㄹ)은 ‘이시-’에 ‘-어’가 결합하여 ‘이셔’의 형태로 실현된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어간에 나타나는 ‘시’라면, 그 뒤에 연결 어미 ‘-아/어’가 모두 올 수 있어야 하는데, 선어말 어미 ‘-시-’의 경우에는 ‘-어’는 결합하지 못하고 ‘-아’만 결합하여 항상 ‘샤’의 형태로만 실현된다는 점이 15세기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선어말 어미 ‘-시-’ 뒤에 ‘오’의 형태가 올 때에도 ‘시오’가 축약되어 ‘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샤’로 실현된다는 특징을 보여 줍니다. 이때 ‘-오-’는 선어말 어미만이 아니라 다른 어미의 일부일 때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오딧’나 ‘-오려’ 같은 연결 어미가 ‘-시-’와 결합할 때에도 ‘쇼’가 아니라 ‘샤’로 실현됩니다. 즉, 선어말 어미 ‘-시-’ 뒤에 오는 모든 ‘오’는 ‘-시-’와 합쳐져 ‘샤’의 형태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예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 ㄱ. 如來 보내샤니 아니면 能히 몬흐리라 <법화경언해 4: 83ㄴ>

여래(如來)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능히 하지 못할 것이다.

ㄴ. 王이 大愛道를 불러 니르샤딧 <석보상절 6: 6ㄴ>

왕이 대애도(大愛道)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ㄷ. 장차 께 보샤려 흐샤 <법화경언해 5: 104ㄱ>

장차 께 보이시려고 하셔서

ㄹ. 夫人이 며느리 어드샤몬 <석보상절 6: 7ㄴ>

부인(夫人)이 며느리를 얻으신 것은

ㅁ. 世尊이 世간에 나샤 甚히 奇特흐샷다 <월인석보 7: 14ㄱ>

세존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매우 특별하시구나.

(4ㄱ)의 ‘보내샤니’는 동사 어간 ‘보내-’에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고 그 뒤에 선어말 어미 ‘-오-’, 관형사형 어미 ‘-ㄴ-’, 의존 명사 ‘이’가 차례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즉, ‘보내-+-시-+-오-+-ㄴ-#이’의 구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시-’와 ‘-오-’가 통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쇼’의 형태로 실현되지 않고 ‘보내샤니’와 같이 ‘샤’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ㄴ)에서는 ‘니르-’라는 어간 뒤에 ‘-시-’가 오고, 그다음에 ‘-오딧’라는 연결 어미가 결합하였습니다. ‘-오딧’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연결 어미로 기능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니르쇼딧’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실현되지 않고 ‘니르샤딧’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역시 ‘-시-’와 ‘-오-’라는 형태가 결합하여 ‘샤’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ㄷ)은 ‘보이-’에 해당하는 어간 ‘보이-’ 뒤에 선어말 어미 ‘-시-’가 오고, 그 뒤에 ‘-오려’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쇼려’라는 형태가 아니라, ‘샤려’의 형태로 실현되어 ‘보샤려’가 되었습니다. (4ㄹ)의 경우에는 ‘얻-’라는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으시-’가 결합하고 그 뒤에 명사형 어미 ‘-음’, 그리고 주제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이 결합하여 ‘어드샤몬’의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와 ‘-음’이라는 형태가 결합하여 ‘삼’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ㅁ)에는 선어말 어미 ‘-웃-’이라는 형태가 ‘-시-’와 결합하였는데, 이 ‘-웃-’이 ‘-시-’와 합쳐져 ‘샷’이라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奇特(기특)흐-’라는 어간 뒤에 ‘-시-’,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 그리고 종결 어미 ‘-다’가 차례로 결합하였는데, 결합한 어미들의 형태 그대로라면 ‘흐샷다’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시-’ 뒤에 ‘-오-’가 오면 이 둘이 합쳐져 항상 ‘샤’의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에 ‘하샷다’의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선어말 어미 ‘-시-’ 뒤에 ‘오’가 올 때 ‘-시-’와 ‘오’가 합쳐져 ‘샤’가 되는 현상은 앞서 살펴보았던 선어말 어미 ‘-시-’ 뒤에 ‘-아’만 통합하고 ‘-어’는 통합하지 않아 항상 ‘샤’로만 실현되는 현상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용

언 어간이라면, ‘-시-’ 뒤에서 ‘-아/어’가 모두 쓰일 수 있다든지, 또는 ‘-시-’ 뒤에 ‘오’가 올 때 ‘쇼’가 된다는지 하는 현상을 보여야 하는데, 선어말 어미 ‘-시-’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입니다. 실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ㄱ. 내 깊 가운데 이쇼니 <두시언해 6: 49ㄴ>

내가 길 가운데 있는데

ㄴ. 하늬 ㅁ식 와 客舍에 혼디 이슈니 <두시언해 13: 25ㄴ>

하늘의 가(변방)에 와서 객사(客舍)에 함께 있는데

ㄷ. 그 나라해 두 菩薩摩訶薩이 이쇼디 <석보상절 9: 11ㄱ>

그 나라에 두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 있는데

ㄹ. 터럭 그테 이슈디 적디 아니햐 <선종영가집 하: 56ㄱ>

터럭 끝에 있는데 적지 않아서

ㅁ. 正法이 世間에 이쇼몬 <석보상절 19: 28ㄱ>

올바른 법(부처님의 법)이 세간에 있는 것은

ㅂ. 三界에 六道 四生 이슈믈 가줄비시고 <월인석보 12: 20ㄴ>

삼계(三界)에 육도(六道)와 사생(四生)이 있는 것을 비유하시고

ㅅ. 즈게남기 ㅁㅁ니 이쇼려 햐도 브르미 굿디 아니햐 <삼강행실 효자: 4ㄱ>

큰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며

ㅇ. 더와 굴와 이슈려 햐 <능엄경언해 10: 61ㄴ>

그것과 함께 있으려고 하여

(5ㄱ)의 ‘이쇼니’는 용언 어간 ‘이시-’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고, 그 뒤에 연결 어미 ‘-니’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간의 일부인 ‘시’ 뒤에 ‘-오-’가 결합하여 두 형태가 합쳐져 ‘쇼’가 되어 ‘이쇼니’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다만 ‘이시-’의 어간 말음 ‘ㅣ’는 중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성 형태의 ‘-오-’를 취할 수도 있지만, 뒤에 음성 형태의 ‘-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5ㄴ)이 바로 그러한 예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시-’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오-’의 형태가 아니라 ‘-우-’의 형태로 나타나 ‘이슈니’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5ㄷ) 역시 ‘이시-’에 연결 어미 ‘-오디’가 결합하여 ‘이쇼디’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5ㄴ)과 마찬가지로 음성 형태인 ‘-우디’가 올 수도 있습니다. (5ㄹ)에서는 ‘이시-’에 ‘-우디’가 결합하여 ‘이슈디’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ㅁ)은 명사형 어미 ‘-옴’이 사용된 예입니다. ‘이시-’에 명사형 어미 ‘-옴’, 보조사 ‘은’이 차례로 결합하여 ‘이쇼몬’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옴’ 대신에 음성 형태인 ‘-옴’이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5ㅂ)이 그러한 예인데, 역시 ‘이시-’라는 어간 뒤에 명사형 어미 ‘-옴’이 결합하고, 목적격 조사 ‘을’이 통합하여 ‘이슈믈’이라는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5ㅅ)의 예 또한 용언 어간 ‘이시-’에 연결 어미 ‘-오려’가 결합하여 ‘이쇼려’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성 형태인 ‘이슈려’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5ㅇ)의 예가 바로 그것인데, 여기서는 ‘이시-’에 ‘-우려’가 결합하여 ‘이슈려’의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더-’에 ‘-오-’가 결합할 때에는 이 두 형태가 합쳐져 ‘다’로 실현됩니다. 또 선어말 어미 ‘-거-’에 ‘-오-’가 결합할 때에도 두 형태가 합쳐져 ‘가/과’의 형태로 실현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고려할 때, ‘-시-’에 ‘-오-’가

결합하여 ‘샤’가 되는 것은 선어말 어미 ‘-오-’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의 예와 같이 선어말 어미가 아닌 ‘시’, 즉 ‘이시-’와 같은 어간 뒤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또 선어말 어미 ‘-오-’ 외에 다른 어말 어미의 일부인 ‘오’라든지 감동의 선어말 어미 ‘-웃-’에 포함되어 있는 ‘오’도 역시 ‘-시-’ 뒤에서 똑같은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것은 ‘-오-’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선어말 어미 ‘-시-’ 자체의 특성에 기인하여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라고 파악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무시다, 잡수시다, 계시다’처럼 특수한 동사를 사용하여 주체 높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사들은 기원적으로 선어말 어미 ‘-시-’를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즉, 선어말 어미 ‘-시-’가 통합한 형태가 하나의 어휘로 굳어진 것입니다. 다만, ‘주무시다, 잡수시다’는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아직 하나의 어휘로 굳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다’의 15세기 어형인 ‘겨시-’는 이미 15세기에 하나의 어휘로 굳어져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겨시-’가 하나의 어휘로 굳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기원적으로 그 ‘시’가 선어말 어미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겨시-’는 ‘겨-’와 ‘-시-’로 분석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로 ‘겨-’라는 형태가 있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려 시대 차자 표기 자료에서 이 ‘겨-’라는 동사가 단독으로 사용된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겨-’가 중세 한국어 이전 시기에는 단독 형태로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5세기 문헌에서는 이 ‘겨-’라는 동사가 단독으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항상 ‘겨시-’의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15세기에 ‘겨시-’가 하나의 어휘로 굳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겨시-’가 하나의 어휘로 굳어지는 하였지만, 기원적으로 그 안에 선어말 어미 ‘-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겨시-’가 활용하는 양상은 ‘이시-’와는 다르고 오히려 선어말 어미 ‘-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6) ㄱ. 四祖 | 便宜히 몬 겨샤 현 고돌 올마시뇨 <용비어천가 110장>

사조(四祖)가 편안히 계시지 못하여 몇 곳을 옮기셨는가.

ㄴ. 王이 天下 가져 겨샤몬 <월인석보 20: 66>

왕이 천하를 소유하고 계신 것은

ㄷ. 그에 부테 겨샤던 일후미 釋迦牟尼시니 <석보상절 19: 40>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석가모니(釋迦牟尼)시니

(6ㄱ)에 나타나는 ‘四祖(사조)’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4대 조상, 즉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겨시-’ 뒤에 연결 어미 ‘-아’가 올 때, 일반적인 용언이라고 한다면 어간 모음이 중성 모음 ‘ㅣ’이기 때문에 ‘-아/어’의 형태가 모두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실제로 ‘겨셔’라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겨샤’의 형태만 나타납니다. 즉 ‘이시-’와는 다르게 선어말 어미 ‘-시-’와 똑같은 활용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ㄴ, ㄷ)도 마찬가지입니다. (6ㄴ)은 ‘겨시-’에 명사형 어미 ‘-음’이 올 때, ‘겨쑤’의 형태가 아니라 ‘겨삼’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시-’와는 다르고 선어말 어미 ‘-시-’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ㄷ) 역시 ‘겨시-’에 연결 어미 ‘-오되’가 올 때

‘겨쇼딧’이 아닌 ‘겨샤딧’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와 ‘오’가 합쳐져서 ‘샤’로 실현되었는데, 이것은 선어말 어미 ‘-시-’와 똑같은 활용 양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겨시-’에 선어말 어미 ‘-오-’를 비롯하여 ‘오’가 포함된 어미가 결합하면 ‘겨샤’의 형태가 되고 ‘겨습/겨습’, 또는 ‘겨쇼딧/겨슈딧’과 같은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겨시-’ 뒤에 연결 어미 ‘-아’가 아닌 ‘-어’가 통합한 형태는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겨셔’라는 형태가 16세기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2.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으)시-’ (2)

이어서 선어말 어미들의 결합 순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는 다른 선어말 어미보다는 비교적 앞에 나타납니다. 다만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습-’은 ‘-시-’보다 선행합니다. 예문 (7)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ㄱ. 우리 父母 | 太子께 드리스븍시니 <석보상절 6: 7ㄱ>

우리 부모님께서 태자에게 드리셨는데

ㄴ. 世尊이 흐르 몇 리를 녀시느니잇고 <석보상절 6: 23ㄴ>

세존께서 하루에 몇 리를 가십니까?

ㄷ. 出家하시면 正覺을 일우시리로소이다 <월인석보 2: 23ㄷ>

출가하시면 정각(正覺)을 이루실 것입니다.

ㄹ. 부테 엇데 더를 降服히디 아니하시돏던고 <월인석보 4: 21ㄹ>

부처께서 어찌 그 사람을 항복시키지 아니하셨던가.

ㅁ. 묻兄 눈썹 히니를 또 하눌히 여러 내시도다 <두시언해 8: 17ㅁ>

만형 눈썹 흰 사람을 또 하늘이 열어 내시었구나.

ㅂ. 그제 世間에 부테 업스시더니 <월인석보 11: 3ㅂ>

그때 세간에 부처가 없으셨는데

ㅅ. 如來 큰神力이 겨샤 늑미 믋스물 미리 아르시거니 네 어드리 害훈다 <월인석보 22: 70ㅅ>

여래(如來)께서 큰神通력이 있으셔서 남의 마음을 미리 아시니 네가 어떻게 해치겠는가.

(7ㄱ)에서는 주체 높임의 ‘-시-’ 앞에 ‘-습-’이라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 ‘-시-’가 다른 선어말 어미들에 비해 앞에 오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시-’ 앞에 선행할 수 있는 선어말 어미는 객체 높임의 ‘-습-’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7)의 나머지 예들은 모두 ‘-시-’ 뒤에 다른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ㄴ)은 동사 어간 ‘녀-’에 주체 높임의 ‘-시-’가 결합하고 그 뒤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느-’가 결합하였습니다. 여기서 ‘-느-’가 ‘-시-’보다 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ㄷ)에는 동사 어간 ‘일우-’ 뒤에 주체 높임의 ‘-시-’, 미래 시제의 ‘-리-’, 감동을 나타내는 ‘-옷-’이 차례로 결합하였는데, 여기서 ‘-옷-’은 ‘-리-’ 뒤에 ‘-롯-’으로 교체되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이-’가 결합하여 ‘일우시리로소이다’와 같은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예를 통해

‘-시-’ 뒤에 ‘-리-, -웃-, -이-’ 등이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ㄷ) 역시 ‘-시-’ 뒤에 감동을 나타내는 ‘-뒹-’이나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더-’와 같은 선어말 어미들이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ㄹ)은 ‘백미(白眉)’라는 고사(古事)와 관련된 것으로, ‘백미’는 ‘여러 사람 중의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동사 어간 ‘내-’에 주체 높임의 ‘-시-’, 그 뒤에 감탄의 선어말 어미 ‘-도-’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ㅁ)에서도 ‘-시-’ 뒤에 ‘-더-’가 결합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ㄴ)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뒤에 과거 시상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 ‘-거-’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어말 어미들은 ‘-시-’ 뒤에 통합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중에서 ‘-더-’나 ‘-거-’와 같은 경우에는 (7ㄴ, ㄴ)과 같이 ‘-시-’ 뒤에 통합하는 예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시-’ 앞에 오는 예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8)에서 이러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ㄱ. 그저고 東土엔 周 穆王이 서엿더시니 <석보상절 23: 22>

그때에 동토(東土)에는 주나라의 목왕(穆王)이 서 있었는데

ㄴ. 如來 乃終에 므슴 마를 헛더시뇨 <석보상절 23: 31>

여래께서 마지막(결국)에 무슨 말을 하시더냐?

ㄷ. 설불썌 世間에 慧日이 업스샤 울위스불리 업거시다 헛며 <석보상절 23: 19>

슬프구나, 세상에 혜일(慧日)이 없으셔서 우리를 사람이 없으시다 하며

ㄹ. 엇던 因緣으로 이런 祥瑞 잇거시뇨 <석보상절 13: 14>

어떤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祥瑞)가 있으신가?

ㅁ. 四祖ㅣ 便安히 몬 겨샤 현 고들 올마시뇨 <용비어천가 110장>

사조가 편안히 계시지 못하여 몇 곳을 옮기셨는가.

ㅂ. 므슴 饒益으로 이런 光明을 펴거시뇨 <석보상절 13: 25>

무슨 이익으로 이런 광명을 펼치셨는가?

(8ㄱ)에는 ‘시더’의 형태가 아니라 ‘더시’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더-’가 ‘-시-’ 앞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ㄴ)도 ‘헛시더뇨’가 아닌 ‘헛더시뇨’가 나타나 ‘더시’의 형태가 실현되어 있습니다. 15세기까지는 이렇게 ‘시더’의 형태보다는 ‘더시’의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부터는 점차 ‘시더’의 통합 순서를 보이는 예들이 증가하고 결국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시더’의 순서가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 순서의 변화는 선어말 어미 ‘-거-’와 ‘-시-’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선어말 어미 ‘-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형태들이 존재하고 또 기원적으로 이 선어말 어미 ‘-거-’를 포함하여 문법화된 어미들이 있어서 그 양상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 (8ㄷ-ㄴ)까지의 예가 ‘-거-’ 뒤에 ‘-시-’가 결합한 예들입니다. (8ㄷ)의 ‘世間(세간)에 慧日(혜일)이’에서 ‘慧日’은 ‘지혜의 태양’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용언 어간 ‘업(<없>)-’ 뒤에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거-’, 그리고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가 순서대로 결합하여 ‘거시’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ㄹ)의 ‘잇거시뇨’는 ‘잇-+-거-+-시-+-뇨’와 같이 분석할 수 있는데, 역시 ‘거시’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ㅁ)의 ‘올

마시뇨'는 타동사 어간 '옴-'에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아-'가 결합한 것인데, 이 '-아-'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거-'라는 형태가 타동사 뒤에서 실현되는 이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시-'가 결합하여 '옴-+-아-+-시-+-뇨'와 같이 구성되어 '올마시뇨'라는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즉, '아시'의 형태가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시-' 앞에 '-거-'의 이형태 '-아-'가 나타난 예라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타동사 뒤에서는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거-'가 일반적으로 '-아/어-'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는데, (8ㄷ)에서는 '퍼-'라는 타동사 뒤에 '-어-'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거-'가 나타나서 '퍼거시뇨'로 실현되었습니다. 자동사 뒤에 쓰이는 '-거-'와 타동사 뒤에 쓰이는 '-아/어-'의 교체 양상이 15세기 이후 후대로 갈수록 이러한 교체가 단일화되어 '-거-'로 통일되어 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예에서는 이미 '-거-'로 통일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퍼거시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8ㄷ-ㄷ)에 나타나듯이 '-거...뇨'라는 형태는 불연속적인 형태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종결 어미로 굳어져 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어말 어미 '-거-'는 다른 요소들과 합쳐져 하나의 어말 어미로 굳어져 문법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늘, -거든, -거니와'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거뇨' 역시 이렇게 하나의 어미로 굳어져 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었기 때문에 '퍼거시뇨'가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어미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도 선어말 어미 '-거-'와 같은 교체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선어말 어미 '-시-'와 통합할 때도 그 순서가 '-시-'에 선행하는 양상을 보여 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형태소인 '-거늘, -거든, -거니와' 안으로 '-시-'가 들어가 '-거시늘, -거시든, -거시니와'처럼 어미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예들을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ㄱ. 그뻘 如來 三昧로서 나거시늘 <석보상절 11: 17ㄱ>

그때 여래께서 삼매(三昧)로부터 나오시거늘

ㄴ. 이튿나래 王의 그 꾸물 솔바시늘 <월인석보 2: 23ㄴ>

이튿날에 왕께 그 꿈을 말씀하시거늘

ㄷ. 仁者 | 世間에 나거시든 <월인석보 25: 36ㄱ>

인자(仁者)가 세간에 나시거든

ㄹ. 부테 즉재 맛당호믈 조차 爲하야 닐어시든 <금강경언해 상: 76ㄱ>

부처께서 즉시 마땅함을 따라 (중생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ㅁ. 十地菩薩이 世俗을 섯거 衆生 利케 하샤믄 如來와 곧거시니와 <월인석보 2: 61ㄴ>

십지보살(十地菩薩)이 세속을 섯어 중생을 이롭게 하시는 것은 여래(如來)와 같으시지만

(9ㄱ)의 '나거시늘'은 용언 어간 '나-'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그 뒤에 연결 어미 '-거늘'이 결합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나시거늘'과 같이 실현되어야 할 텐데, '-시-'가 '거'와 '늘' 사이에 들어가서 '나거시늘'의 형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즉, '-거늘'이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이미 하나의 연결 어미로 굳어져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가 통합할 경우에는 '-시-'가 '거' 뒤로 옮겨 가서 '거시늘'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늘'의 '거'가 기원적으로 선어말 어미 '-거-'에서 유래하였다는 흔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ㄴ)은 ‘숯-’라는 동사 어간 뒤에 주체 높임의 ‘-시-’, 그리고 ‘-거늘’이 차례로 결합한 것입니다. 다만, ‘숯-’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거늘’의 ‘-거-’가 ‘-아/어-’로 교체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어간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숯-+-으시-+-아늘’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가 선어말 어미 ‘-아(<거)-’ 뒤로 옮겨 가기 때문에, ‘술바시늘’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9ㄷ)은 ‘-거든’에 ‘-시-’가 결합한 예로, 여기서 ‘인자(仁者)’는 미륵보살을 말합니다. (9ㄷ)에서는 ‘-시-’가 ‘거’와 ‘든’ 사이로 들어가서 ‘나거시든’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때 ‘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거’의 형태가 선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ㄹ)은 ‘니르-’라는 동사 어간 뒤에 ‘-시-’, 그리고 연결 어미 ‘-거든’이 사용된 예인데, ‘니르-’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거-’가 ‘-어-’로 교체되어 ‘-어든’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르-+-시-+-어든’이 아니라, ‘-시-’가 ‘-어-’ 뒤로 옮겨 가서 ‘닐어시든’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9ㅁ)은 형용사 ‘굳(<굳)-’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거니와’라는 연결 어미가 통합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시-’가 ‘거’ 뒤로 옮겨 가서 ‘굳거시니와’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한편, ‘거시-’나 ‘자시-’ 같은 동사들은 기원적으로 이미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가 통합되어 있어 더 이상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나 ‘-더-’ 같은 선어말 어미들이 이들 어간 뒤에 결합할 때, 다시 선어말 어미 ‘-시-’를 잉여적으로 한 번 더 통합시킨 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 ㄱ. 그 願이 오히려 ㅁ초미 거시거시니와 <월인석보 21: 149>

그 소원이 오히려 맞추는 것이 계시지만

ㄴ. 子ㅣ 굴으샤되 父母ㅣ 거시거시든 멀리 遊티 아니흐며 <논어언해 1: 3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계시면 멀리 가지 아니하며

ㄷ. 十萬人과 혼되 거시더시니 <원각경언해 상1-2: 65>

십만인과 함께 계셨는데

ㄹ. 님금이 祭히거시든 먼저 자시더시다 <소학언해 2: 41>

(공자께서) 임금이 제사를 지내시면 먼저 밥을 잡수셨다.

(10ㄱ)은 용언 ‘거시-’가 그 자체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거니와’만 붙어서 ‘거시거니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어를 높여야 한다는 의식에 때문에 다시 한번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시켜 ‘거시거시니와’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거시-’에 이미 ‘-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거-’ 뒤에 ‘-시-’를 한 번 더 써서 두 번이나 주체 높임을 나타낸 것처럼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시-’가 하나의 어간으로 굳어져서 그 안에 선어말 어미 ‘-시-’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의식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주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시켜야 한나라는 의식이 작용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0ㄴ)에서도 ‘거시거든’이라고 하면 충분할 텐데, 여기에 다시 ‘-시-’를 통합시켜 ‘거시거시든’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10ㄷ)도 ‘거시더니’라고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더-’ 뒤에 ‘-시-’가 한 번 더 들어가서 ‘거시더시니’가 된 것입니다. (10ㄹ)에는 ‘먹-’를 높이는 동사 ‘자시-’가 쓰였는데, 그 자체에 이미 주체 높임의 ‘-시-’가 포함되어 하나의 단어 ‘자시-’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가 결합할 때 ‘자시더라’라고 하면 될 것인데, ‘자시-’에 이미 ‘-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의식할 수 없게 되면서 ‘-더-’ 뒤에 ‘-시-’를 한 번 더 결합시켜 ‘자시더시다’와 같은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겨시-’ 또는 ‘자시-’ 뒤에 ‘-거-’, ‘-더-’와 같은 선어말 어미들이 오고 그 뒤에 ‘-시-’를 다시 통합시키는 현상들이 15세기 내지 16세기 한국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나 ‘-더-’가 통합할 때 잉여적으로 ‘-시-’가 한 번 더 쓰이는 현상이 ‘겨시-’나 ‘자시-’ 같은 특수한 동사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동사들에서까지도 확대되어 나타난 예들이 발견됩니다.

(11) ㄱ. 부텃 體 | 眞實히시거시니 <능엄경언해 8: 64ㄴ>

부처님의 몸이 진실하시니

ㄴ. 반득기 釋迦 彌勒이 이 부테시거시니 <몽산법어 22ㄱ>

반드시 석가 미륵이 이들이 부처이시니

ㄷ. 粟 九百을 주시어시닐 스양혼대 <논어언해 2: 3ㄴ>

좁쌀 구백을 주시거늘 사양했는데

(11ㄱ) 역시 ‘-거-’를 사이에 두고 앞에도 선어말 어미 ‘-시-’가 나타나고 뒤에도 ‘-시-’가 나타나 ‘-시-’가 이중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15세기 한국어에서는 ‘-거-’가 ‘-시-’ 앞에 나타나 ‘거시’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후대로 가면서 ‘시거’의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11)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의 과도적인 형태로서, ‘-거-’의 앞에도 ‘-시-’가 쓰이고 뒤에도 ‘-시-’가 쓰이는 모습이 실현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예들은 ‘거시’에서 ‘시거’로 어순이 변화해 가는 과도기적인 형태로서 ‘시거시’라는 형태가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ㄴ)도 15세기의 고형(古形)이라면 ‘거시’의 형태가, 개신형(改新形)이라면 ‘시거’의 형태가 쓰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고형과 개신형이 복합된 ‘시거시’의 형태가 과도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1ㄷ)에서는 타동사 ‘주-’ 뒤에 ‘-어늘’이 쓰였고 이 ‘-어늘’에 선어말 어미 ‘-시-’가 통합할 때 고형이라면 ‘주어시닐’, 신형이라면 ‘주시어늘’의 형태가 되었을 것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복합된 ‘주시어시닐’로 실현되어 ‘어’를 사이에 두고 ‘-시-’가 두 번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선어말 어미 ‘-시-’가 주체 높임의 용법으로 쓰인 예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15세기 문헌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라는 형태가 주체 높임이 아니라 다른 용법으로 사용된 예들이 나타납니다. (12)를 보시겠습니다.

(12) ㄱ. 故園엿 버드리 이제 이어 떠러디거시니 엇테 시러곰 시름 가온디 도로 다 나느니오 <두시언해 16: 51ㄱ>

고향 동산의 버들이 이제 흔들려 떨어졌을 것인데, 어찌 능히 시름 가운데 도로 다 피어났는가?

ㄴ. 내 호마 阿羅漢道를 得호야 오래 病懣 緣을 여회엿가시니 엇테 오늘 문득 막숨 알포미 나거뇨 <능엄경언해 5: 72ㄴ>

내가 이미 아라한도(阿羅漢道)를 얻어 오래전에 병을 앓을 인연을 벗어났는데, 어찌 오늘 문득 마음 아픈 것이 생겨났는가?

ㄷ. 그 바미 우미 도다 삭 나거시아 / 그 고지 三同이 뵈거시아 / 그 오시 다 헐어시아 /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악장가사 정석가>

그 밤이 움이 돌아서 싹이 나야 / 그 꽃이 삼동이 피어야 / 그 옷이 다 헐어야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ㄷ. 雙花店에 雙花 사라 가고신딘 回回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 三藏寺에 불 혀러
가고신딘 그 덜 社主 | 내 손모글 주여이다 <악장가사 쌍화점>

쌍화점(雙花店)에 쌍화(雙花)를 사러 갔는데 회회(回回)아비가 내 손목을 쥐었습니다
/ 삼장사(三藏寺)에 불을 켜러 갔는데 그 절의 사주(社主)가 내 손목을 쥐었습니다

(12ㄱ)은 시를 번역한 것이라서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떠러디거시니’의 주어는 ‘버들’, 즉 ‘버들잎’입니다. 앞부분이 ‘버드리 떠러디거시니’인데, ‘버들’은 주체 높임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떠러디거시니’의 ‘-시-’는 주체 높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문법서들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 자연물도 15세기 한국어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기술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주체 높임의 용법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를 주체 높임의 용법을 가진 것으로 고정시켜 보려는 견해를 따라 기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체 높임이 아닌 ‘-시-’의 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러한 용법을 보이는 예들은 주로 선어말 어미 ‘-거-’ 뒤에 나타난 예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15세기 이전 한국어의 양상을 반영하는 자료들에서 이러한 예가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것은 주체 높임의 ‘-시-’와는 다른, 별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존재하였던 것이라라고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시-’의 기능은 아마도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적으로 용언 어간 ‘이시-’로부터 기원한 선어말 어미 ‘-시-’라는 형태가 있었고 그것이 주체 높임이 아닌 완료로 기능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2ㄴ)의 ‘여회엿가시니’는 ‘여회야 잇-’라는 구성 뒤에 과거 시상의 ‘-거-’, 그리고 1인칭을 나타내는 ‘-오-’가 결합하여 ‘가’의 형태로 실현되고 그 뒤에 ‘-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나’인데, ‘나’는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체 높임의 ‘-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시-’도 주체 높임이 아닌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시-’가 포함된 앞부분은 ‘내가 이미 아라한도(阿羅漢道)를 얻어 몸이 아플 만한 현상을 벗어났는데’와 같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2ㄷ)은 고려 가요 <정석가(鄭石歌)>의 일부로, 이와 비슷한 구절이 여러 곳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예에서 보듯이 ‘삭(싹)’이나 ‘꽃(꽃)’, 또는 ‘옷’이나 ‘구슬’과 같이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닌 주어들이 쓰였는데, 서술어에 ‘-시-’의 형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시-’ 역시 주체 높임이 아닌 완료의 의미, 즉 시상과 관련된 의미의 ‘-시-’가 쓰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2ㄷ) 또한 고려 가요 <쌍화점(雙花店)>의 일부인데, 여기서 ‘가고신딘’의 주어는 1인칭인 ‘나’이기 때문에 (12ㄷ)과 마찬가지로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2ㄷ)에 사용된 ‘-시-’도 주체 높임의 ‘-시-’가 아니라, 시상(완료)의 의미를 지닌 ‘-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완료나 시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 ‘-(으/오)이-’ (1)

다음으로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오)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현대 한국어에서 청자 높임법은 종결 어미에 의하여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청자 높임법이 ‘-(으/오)이-’라는 형태, 이것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음은 [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ㅇ’, 즉 ‘ŋ(engma)’에 해당하는 음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에서 이렇게 ‘ŋ’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는 ‘ㅎ쇼셔’체의 높임 등급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였습니다. 이 선어말 어미 ‘-이-’는 매개 모음을 취하여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문장 속에서 실현이 되게 됩니다.

(13) ㄱ. 뉘웃브디 아니히이다 <월인석보 7: 54-3ㄱ>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ㄴ. 龍王이 닐오되 올히이다 히고 <월인석보 25: 109ㄴ>

용왕이 말하기를, “웁습니다.” 하고

ㄷ. 천랴은 다 업스이다 <월인석보 22: 47ㄱ>

재물은 다 없습니다.

(13ㄱ)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아니히-’ 뒤에 ‘-이-’가 결합하여 ‘아니히이다’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13ㄴ)의 경우,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매개 모음을 취하는 예가 나타납니다. ‘궤’이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어간 모음이 ‘ㅇ’라고 하는 양성 모음으로 되어 있는 용언 ‘웁-’ 뒤에 매개 모음 ‘ㅇ’가 선택되어 ‘올히이다’와 같은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13ㄷ)에서는 ‘업-’라는 용언 뒤에 ‘-으이-’가 결합하였는데, ‘ㅁ’이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어간 모음이 ‘ㄷ’라는 음성 모음 뒤이기 때문에 ‘-으이-’가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스이다’의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어말 어미 ‘-이-’는 (13)에서처럼 용언 어간에 직접 통합한 예는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개 다른 선어말 어미 뒤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명령문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문장 내에서 청자라고 하는 요소는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문장 내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요소인 청자를 높이는 문법 요소, 즉 청자 높임법은 문장의 끝에서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이-’는 문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선어말 어미들은 당연히 ‘-이-’ 앞에 선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4) ㄱ. 이에서 長者ㅣ 썩리 如來의 젓 粥 쑤어 받즈븨니이다 <석보상절 24: 36ㄱ>

이곳에서 장자(長者)의 딸이 여래(如來)께 젓 죽을 쑤어서 바쳤습니다.

ㄴ. 王이 닐오되 올히시이다 <월인석보 25: 124ㄱ>

왕이 말씀하시기를, 웁습니다.

(14ㄱ)은 동사 어간 ‘받-’ 뒤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즈-’, 그리고 선어말 어미 ‘-으니-’가 결합하고 그 뒤에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이-’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ㄴ)에서는 ‘웁-’라는 어간 뒤에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고 그 뒤에 ‘-이-’가 나타났습니다. ‘-시-’가 ‘-이-’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어말 어미 ‘-이-’는 시상의 선어말 어미 뒤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 (15) ㄱ. 이 우리 스스이니이다 <석보상절 21: 38ㄱ>
이분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 ㄴ. 내 어루 이르스보리이다 <석보상절 6: 22ㄱ>
내가 능히 이루겠습니다.
- ㄷ. 瞿曇의 弟子ㅣ 두리여 몬 오느이다 <석보상절 6: 29ㄴ>
구담(瞿曇)의 제자가 두려워하여 오지 못합니다.
- ㄹ. 그땃 썻를 맞고져 흐더이다 <석보상절 6: 15ㄱ>
그대의 딸을 맞이하고자 하였습니다.
- ㅁ. 내 이제 世尊을 막스막 보스보니 측흔 막스미 엷거이다 <월인석보 10: 8ㄴ>
내가 이제 세존을 마지막으로 뵈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 ㅂ. 녀시 어느 趣에 간 동 몰라이다 <월인석보 21: 27ㄱ>
넋이 어느 취(趣)에 갔는지 모릅니다.

(15ㄱ)은 ‘스승’이라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가 결합하고 그 뒤에 ‘-니-’, 그리고 청자 높임의 ‘-이-’가 결합하여 ‘스스이니이다’와 같이 실현된 예입니다. 청자 높임의 ‘-이-’가 평서문에 쓰일 때에는 대개 이렇게 앞에 ‘-니-’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5ㄴ)은 ‘이르-’라는 어간에 객체 높임의 ‘-술-’이 오고 그 뒤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그리고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 ‘-리-’가 결합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는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 ‘-리-’ 뒤에 ‘-이-’가 쓰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15ㄷ)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느-’ 뒤에 ‘-이-’가 통합한 예이고 (15ㄹ)은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더-’ 뒤에 ‘-이-’가 통합하였습니다. (15ㅁ)에서는 ‘엷(<없>)-’라는 용언 어간 뒤에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거-’, 그리고 ‘-이-’가 통합한 것입니다. 즉, 자동사 뒤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 ‘-거-’ 뒤에 ‘-이-’가 통합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15ㅂ)의 ‘모르-’는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모르-’ 뒤에는 타동사 뒤에 쓰이는 ‘-거-’의 이형태 ‘-아-’가 결합하였고, 그 뒤에 ‘-이-’가 쓰여 ‘몰라이다’의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15)의 예를 통해 시상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들이 ‘-이-’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다른 선어말 어미들도 모두 ‘-이-’ 앞에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6) ㄱ. 내 實로 몰라 호이다 <월인석보 22: 59ㄴ>
내가 진실로 몰라 합니다.
- ㄴ. 내 그제 썻 그 中에 잇다이다 <월인석보 25: 123ㄱ>
내가 그때 또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 ㄷ. 내 아래 供養호습다가 이제 썻 親近호습과이다 <석보상절 20: 15ㄴ>
내가 과거에 공양했다가 이제 지금 또 친근합니다.
- ㄹ. 世尊하 네 엷스샤스이다 <석보상절 21: 47ㄱ>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으셨습니다.
- ㅁ. 이는 우리 허므리라 世尊人 다시 아니시다스이다 <법화경언해 2: 6ㄱ>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어서 세존의 탓이 아니셨습니다.

ㄴ. ㅎ다가 우리 큰 法 즐길 믋스물 두던댄 부테 날 爲ᄃ샤 大乘法을 니르시리라스이다
<법화경언해 2: 232ㄱ>

만일 우리가 큰 법을 즐길 마음을 두었더라면 부처께서 나를 위하시어 대승법(大乘法)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16ㄱ)의 ‘호이다’는 ‘ㅎ-’ 뒤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고, 그 뒤에 ‘-이-’가 온 것입니다.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도 ‘-이-’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ㄴ)은 용언 어간 ‘잇-’ 뒤에 과거 시상의 ‘-더-’, 그리고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오-’가 결합한 것인데, ‘-더-’와 ‘-오-’가 합쳐져 ‘다’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가 결합하였습니다. (16ㄷ)은 ‘親近(친근)ᄃ-’라는 어간 뒤에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습-’이 오고, 과거 시상의 ‘-거-’와 1인칭을 나타내는 ‘-오-’가 차례로 결합한 것인데, ‘-거-’와 ‘-오-’가 합쳐져 ‘과’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과’ 뒤에 ‘-이-’가 나타났습니다. (16ㄱ-ㄷ)은 모두 선어말 어미 ‘-오-’ 뒤에 ‘-이-’가 나타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ㄹ)은 용언 어간 ‘없-’에 주체 높임의 ‘-으시-’, 감동을 나타내는 ‘-웃-’, 그리고 청자 높임의 ‘-이-’가 차례로 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와 ‘-웃-’이 합쳐져 ‘샷’의 형태가 되었고 여기에 매개 모음을 가진 ‘-으이-’가 결합하여 ‘업스샤스이다’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16ㄴ)은 ‘아니’에 서술격 조사 ‘이-’가 오고 그 뒤에 ‘-시-’, ‘-더-’, ‘-웃-’이 차례로 결합하였는데, ‘-더-’와 ‘-웃-’이 결합하여 ‘닷’의 형태로 실현되고 그 뒤에 ‘-이-’가 온 것입니다. (16ㄷ)과 마찬가지로 ‘ㅅ’ 뒤에 결합하기 때문에 매개 모음이 결합한 ‘-으이-’의 형태가 쓰여 ‘아니시다스이다’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역시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 뒤에 ‘-이-’가 쓰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ㄴ)과 같은 문장을 ‘반사실적 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만약 이러했다면 이러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에 어긋나는 가정을 표현하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르시리라스이다’를 분석해 보면, 동사 어간 ‘니르-’에 주체 높임의 ‘-시-’, 미래 시제의 ‘-리-’, 과거를 나타내는 ‘-더-’, 그다음에 감동을 나타내는 ‘-웃-’이 결합한 형태로, ‘-더-’와 ‘-웃-’이 합쳐져 ‘닷’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 ‘-더-’는 서술격 조사 ‘이-’나 선어말 어미 ‘-리-’ 뒤에서 ‘-리-’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닷’이라는 형태가 선어말 어미 ‘-리-’ 뒤에서 ‘랏’이라는 형태로 교체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뒤에 청자 높임의 ‘-이-’가 결합하였습니다. ‘랏’이라는 형태가 ‘ㅅ’이라는 자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개 모음을 취한 형태인 ‘-으이-’로 실현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이 결합하여 ‘니르시리라스이다’라는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16ㄹ-ㄴ)은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 뒤에 매개 모음을 가진 청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이-’의 형태가 실현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들을 통해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ᄃ쇼셔’체의 선어말 어미 ‘-이-’는 모든 선어말 어미 뒤, 즉 제일 마지막에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어말 어미 ‘-이-’는 의문문에서는 ‘-잇-’의 형태로 교체가 되어 나타납니다.

(17) ㄱ. 또 自然이잇가 <능엄경언해 8: 78ㄴ>

또 자연입니까?

ㄴ. 아홉 橫死는 므스기잇고 <석보상절 9: 35ㄴ>

아홉 형사(橫死)는 무엇입니까?

ㄷ. 舍衛國에 혼 大臣 須達이라 호리 잇느니 아르시느니잇가 <석보상절 6: 14ㄷ>

사위국(舍衛國)에 한 명의 대신(大臣) 수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십니까?

ㄹ. 므스므라 오시니잇고 <석보상절 6: 3ㄹ>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ㄱ. 사라 이신들 주구메서 다르리잇가 <석보상절 24: 29ㄱ>

살아 있는들 죽음과 다르겠습니까?

ㅂ. 엇데 올히려잇고 <월인석보 25: 24ㄱ>

어찌 올겠습니까?

(17ㄱ)은 체언 ‘自然(자연)’ 뒤에 서술격 조사 ‘이-’가 오고, 그 뒤에 청자 높임의 ‘-잇-’, 그리고 판정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가’가 결합하여 ‘이잇가’의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잇가’ 자체를 하나의 의문형 종결 어미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가’와 ‘-고’가 충분히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의문형 어미라고 설정해 두었습니다. 의문형 어미 ‘-가’와 ‘-고’는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인가,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인가에 따라서 나뉘어 쓰이는 형태입니다.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에는 ‘-가’라는 형태가,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에는 ‘-고’라는 형태가 선택되어 쓰이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이기 때문에 ‘-가’의 형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가 의문문에서 ‘-잇-’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잇가’라는 형태에 대해 또 다른 분석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 ‘-이-’라는 형태를 고정시키고 ‘-스가’를 분석해 내어 ‘-스가’를 하나의 어미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호쇼셔’체를 제외한 다른 예에서는 ‘-스가’라는 의문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가’로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라는 형태가 의문문에서 ‘-잇-’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견해를 여기서는 취하였습니다.

(17ㄴ)은 ‘므스’이라는 의문 대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 ‘이-’가 오고, 그 뒤에 청자 높임의 ‘-잇-’, 그리고 ‘므스’이라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문에 쓰이는 의문형 종결 어미 ‘-고’가 선택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므스기잇고’라는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17ㄷ)은 용언 어간 ‘알-’에 매개 모음이 포함된 주체 높임의 ‘-으시-’, 현재 시체의 ‘-느-’, 그리고 선어말 어미 ‘-니-’가 결합하고 그 뒤에 청자 높임의 ‘-잇-’, 마지막으로 의문형 종결 어미 ‘-가’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17ㄹ, ㄴ)은 서술격 조사 뒤에 바로 ‘-잇-’이 통합한 예입니다. 이렇게 어간 뒤에 바로 ‘-잇-’이 통합한 예는 15세기 한국어에서 많은 예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평서문과 마찬가지로 다른 선어말 어미 뒤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특히 의문문에서는 선어말 어미 ‘-니-’나 ‘-리-’ 뒤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7ㄹ)에서는 ‘므스므라’라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가’가 아닌 ‘-고’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니-’ 뒤에 ‘-잇-’이라는 형태가 사용되었습니다. (17ㄱ)에서는 선어말 어미 ‘-리-’ 뒤에 ‘-잇-’의 형태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결 어미 ‘-가’가 쓰인 것은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17ㅂ)은 용언 어간 ‘올-’ 뒤에 ‘-리-’, 그리고 ‘-잇-’의 형태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엇데’라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고’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에서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가 의문문에서는 ‘-잇-’이라는 형태로 교체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 ‘-(으/으)이-’ (2)

이렇게 ‘호쇼서’체에서는 청자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라고 하는 형태가 사용되었습니다. ‘호야씨’체에서는 ‘-ᄃᆞ-’이라는 조금은 다른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15세기 한국어 문법서에서 ‘-ᄃᆞ-’이라는 형태를 별개의 선어말 어미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례가 적다고 하더라도 ‘호쇼서’체의 ‘-이-’와는 형태가 다르고 또 나타내는 높임의 등급도 다르기 때문에, ‘-ᄃᆞ-’이라는 형태를 하나의 선어말 어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ᄃᆞ-’이라는 형태를 별도로 기술하였습니다.

(18) ㄱ. ㄴ장 도ᄃᆞ다 <월인석보 20: 35ㄱ>

가장 좋소.

ㄴ. 부터와 중과를 請ᄃᆞ보려 ᄃᆞᆯ다 <석보상절 6: 16ㄴ>

부처와 중을 청하려고 하오.

(18)은 청자 높임의 선어말 어미 ‘-ᄃᆞ-’이 사용된 예입니다. (18ㄱ)은 ‘호쇼서’체보다는 낮고 ‘호라’체보다는 높은, 즉 중간 등급을 나타내는 ‘호야씨’체에 해당하는 높임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평서문에서 선어말 어미 ‘-ᄃᆞ-’이라는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다만, ‘동-’가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기 때문에 매개 모음 ‘으’를 취하고 그 뒤에 ‘-ᄃᆞ-’이 결합하여 ‘도ᄃᆞ다’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아마도 ‘-ᄃᆞ-’이라는 형태가 완전한 ‘이’가 아닌 반모음의 형태로 실현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매개 모음을 취한 것이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ㄴ)의 ‘ᄃᆞᆯ다’를 분석해 보면, 용언 어간 ‘ᄃᆞ-’에 현재 시제의 ‘-느-노’로 축약되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호야씨’체의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 ‘-ᄃᆞ-’이 결합하여 ‘ᆞᆯ’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앞의 (17)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쇼서’체에서는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의문문에서는 ‘-잇-’으로 교체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호야씨’체의 ‘-ᄃᆞ-’도 의문문에서 ‘-ᄃᆞ-’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약간 다른 교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19) ㄱ. 그ᄃᆞ 아바니미 잇느ᄃᆞ <석보상절 6: 14ㄴ>

그대의 아버님이 있소?

ㄴ. 그되ᄃᆞ 아니 들즈ᄃᆞᆯ다 <석보상절 6: 17ㄱ>

그대는 듣지 않으셨소?

ㄷ. 主人이 므슴 차바ᄃᆞ 손소 ᄃᆞ녀 ᄃᆞᄃ노ᄃᆞ <석보상절 6: 16ㄱ>

주인이 무슨 음식을 손수 다니며 만드오?

ㄹ. 엇데 부테라 ᄃᆞᄃᆞ 그 ᄃᆞ들 ᄃᆞ어ᄃᆞ <석보상절 6: 16ㄴ>

어째서 부처라고 하오? 그 뜻을 말하시오.

ㅁ. ᄃᆞᄃᆞ 그되 나ᄃᆞ 미드시느니 <월인석보 22: 57ㄴ>

어떻소? 그대 나를 믿으시오.

(19ㄱ)은 용언 어간 ‘잇-’ 뒤에 현재 시제의 ‘-느-’, 그리고 선어말 어미 ‘-니-’가 결합하고 그 뒤에 ‘-깃-’이라는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이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 ‘-가’가 결합하여 ‘잇느닛가’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흐야썌’체의 경우에는 설명 의문문일 경우에도 ‘-고’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의 형태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점은 ‘흐쇼셔’체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ㄴ)은 용언 어간 ‘듣-’에 객체 높임의 ‘-줄-’, ‘-아 잇-’의 구성이 쓰이고 과거 시상의 ‘-더-’, 주체 높임의 ‘-시-’, 그리고 여기에 선어말 어미 ‘-니-’가 결합하고 그 뒤에 ‘흐야썌’체의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 ‘-깃-’이 쓰였습니다. 역시 판정 의문이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 ‘-가’가 결합하여 ‘듣즈뻐터시닛가’의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19ㄷ)은 ‘땡글-’라는 어간 뒤에 현재 시제의 ‘-느-’, 그리고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였는데, 이 ‘-오-’는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15세기 한국어 문법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니-’와 ‘-깃-’이 차례로 오고 마지막으로 의문형 어미 ‘-가’가 결합하여 ‘땡ᄃ노닛가’의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므슴’이라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땡ᄃ노닛고’가 실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야썌’체에서는 ‘-고’가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가’가 쓰여 ‘땡ᄃ노닛가’의 형태가 실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ㄹ)은 명령문인데, 이렇게 명령형이 될 때 ‘-어썌’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흐야썌’체라고 명명해 왔습니다. ‘흐느닛가’의 경우에 어간 ‘흐-’ 뒤에 현재 시제의 ‘-느-’, 선어말 어미 ‘-니-’, 청자 높임의 ‘-깃-’이 차례로 결합하고 마지막으로 ‘엇데’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형 종결 어미 ‘-고’가 아닌 ‘-가’가 사용되었습니다. (19ㅍ)에서는 용언 어간 ‘엇더흐-’의 ‘흐’가 수의적으로 생략되어 ‘엇더닛가’가 되는 것입니다. 선어말 어미 ‘-니-’ 뒤에 ‘-깃-’이 결합한 것은 앞의 예들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엇더(흐)-’라는 의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형 어미는 ‘-고’가 아닌 ‘-가’가 나타나 ‘엇더닛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흐야썌’체가 사용된 문장은 15세기 한국어에서 많은 용례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별도의 높임 등급을 형성하고 있었고 ‘흐쇼셔’체와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용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높임 등급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역시 선어말 어미로서도 별도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높임과 관련되는 선어말 어미 중에서,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선어말 어미 ‘-습-’은 선어말 어미 ‘-시-’보다 선행한다. (O/X)

정답: O

2. ‘그 오시 다 헐어시아’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다. (O/X)

정답: X

3. 청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는 의문형에서 ‘-잇-’으로 형태가 바뀐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한국어와 달리 ‘으/으’와 같은 매개 모음을 가졌다.
- ② 어간 말 ‘ㄹ’이 있는 용언과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였다.
- ③ 연결 어미 ‘-아’와만 결합하고, ‘-어’와는 결합하지 않았다.

정답: ②

2. 다음 중 선어말 어미 ‘-시-’와 다른 어미와의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한국어에서 ‘-시-’와 ‘-거-’가 결합할 때, ‘시거’의 순서가 더 많이 나타났다.
- ② ‘-시-’와 ‘-더-’의 결합 순서는 원래 ‘더시’였다가 ‘시더’로 바뀌어 갔다.
- ③ 15세기 한국어에서 ‘-시-’와 ‘-거늘’이 결합하면, ‘거시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다.

정답: ①

3. 다음 중 선어말 어미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흐쇼셔’체 평서문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였다.
- ② 다른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때, 가장 선행되어 나타났다.
- ③ 의문문에서도 ‘-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어미 ‘-스가/스고’와 결합하여 쓰였다.

정답: ①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와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면 ‘○’라는 형태가 된다.

정답: 샤

2. ‘겨시다’에는 기원적으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어미 ‘-아/어’와 결합하면 ‘○○’의 형태로만 나타났다.

정답: 겨샤

3. ‘부터와 중과를 請흐스보려 흥녕다’에는 ‘흐야씨’체의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 ‘○’가 쓰였다.

정답: - ㄱ -

나. 토의 (30분)

1. 선어말 어미 ‘-이-’의 이형태로 ‘-잇-’을 상징하는 것은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 과제 (60분)

15세기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 ‘-시-’와 현대 한국어의 ‘-시-’를 비교하였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 참고자료

<쌍화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정석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악장가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고영근(2020),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제4판, 집문당.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신정판, 탑출판사.

<8차시> 선어말 어미 (2)

■ 학습목표

1. 현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세 한국어의 다양한 선어말 어미의 종류와 그 쓰임을 살펴본다.
1.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가운데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의미와 기능, 실현 양상 등을 예문을 통해 알아보고, 이들이 쓰이는 문장의 구조를 확인한다.
2.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의미와 쓰임 및 변화 과정을 익히고 현대 한국어에서 객체 높임을 위해 쓰이는 방식과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 강의 목차

1.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1)
2.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2)
3.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3)
4.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4)

■ 강의 내용 전문

<한국어 문법사>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높임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1)

지난 시간에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와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습-’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높임이란,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오는 대상에 대한 높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기 위해 ‘뵈다’나 ‘여쭙다’, 또는 ‘아뢰다’, ‘모시다’와 같은 일부 특수한 동사들을 사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합니다. 그러나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습-’을 이용하여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나타나는 높임의 대상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즉, 15세기에는 일반적인 동사들이 모두 객체 높임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선어말 어미 ‘-습-’은 선행하는 음과 후행하는 음에 따라서 이형태 교체를 보이기 때문에 모두 6가지 이형태로 실현이 됩니다. 우선 선행하는 음이 ‘ㄱ, ㄷ, ㄴ, ㅎ’과 같은 자음일 경우에는 초성이 ‘ㅅ’의 형태로 실현됩니다. 다만, 종성이 ‘ㄹ’이 될 때도 있고 ‘ㅂ’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 종성이 ‘ㄹ’이 되는 경우는 후행하는 음이 모음 또는 매개 모음일 때이고 종성이 ‘ㄴ’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후행하는 음이 자음일 경우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어간 말 자음이 ‘ㄹ’인 용언들이 자음 어미를 취할 때 그 ‘ㄹ’이 ‘ㄴ’으로 자동적으로 교체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성의 ‘ㄴ’과 ‘ㄹ’ 중에서 ‘ㄹ’을 가지는 형태가 보다 기본적인 형태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중세 한국어 문법서들에서 종성 ‘ㄴ’을 가지는 형태, 즉 ‘-습-’이라는 형태를 대표형으로 지금까지 주로 제시하여 왔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도 일반적인 설명을 할 때 초성은 ‘ㅅ’, 종성이 ‘ㄴ’인 형태, 즉 ‘-습-’이라는 형태로써 대표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문을 통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ㄱ. 房을 아니 받즈바 法으로 막습거늘 <월인천강지곡 36ㄴ>

방(房)을 바치지 않아서 법으로 막거늘

ㄴ. 우호로 부텃 教化를 돕습고 <월인석보 8: 62ㄴ>

위로 부처님의 교화를 돕고

ㄷ. 東西엿 두 雙이 어울오 南北엿 두 雙이 어우러 가지 드리워 如來를 돕습고 <석보상절 23: 18ㄱ>

동쪽과 서쪽의 두 쌍의 나무가 어우러지고 남쪽과 북쪽의 두 쌍의 나무가 어우러져, 가지를 드리워서 부처님을 덮고

ㄹ. 大慈悲 世尊入기 버릇 업습던 일을 魔王이 뉘으즈니이다 <월인석보 4: 15ㄱ>

대자비(大慈悲)를 지니신 세존께 버릇없던 일을 마왕이 뉘우쳤습니다.

ㅁ. 靈鷲山에 잇는 一千 阿羅漢이 虛空에 느라와 부텃기 머리 좃습고 슬보되 <월인석보 10: 13ㄱ>

영취산(靈鷲山)에 있는 1천 명의 아라한(阿羅漢)들이 허공에 날아와,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사뢰기를

ㅂ. (須達이) 世尊의 뵈스바 머리 조습고 흐녀기 안즈니 <석보상절 6: 45ㄱ>

(수달이) 세존께 보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앉았는데

ㅅ. 그뻘 阿那律이 如來를 棺에 녀습고 <석보상절 23: 27ㄴ>

그때 아나율(阿那律)이 부처님을 관에 넣고

ㅇ. 먼저 더 부텃 像을 땡ᄃ라 조흔 座에 便安히 노습고 <석보상절 9: 22ㄴ>

먼저 저 부처님의 상(像)을 만들어 깨끗한 자리에 편안히 놓고

ㅈ. 近日 舍利를 녀습고 幀 그리스오미 맛당흐이다 <금강경언해 하 事實4ㄴ: 23>

최근에 사리(舍利)를 넣고 탕화를 그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ㅊ. 부텃 舍利와 經과 佛像과란 길 西入 녀기 노습고 <월인석보 2: 73ㄴ>

부처의 사리와 경(經)과 불상은 길 서쪽에 놓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이 일부 동사에서만 실현되고 대부분의 동사에서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이 사용된 예문을 현대어로 번역할 때에는, 대체로 ‘-습-’을 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의 예문에서도 ‘-습-’이 사용된 형태이지만, 그것이 현대어로 번역될 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ㄱ)에서는 어간 말 자음이 ‘ㄱ’인 동사 어간 ‘막-’ 뒤에 초성이 ‘ㅅ’인 형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는 ‘-거늘’이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결합하기 때문에, 역시 자음 앞에서 종성이 ‘ㄷ’인 형태가 나타나 결과적으로 ‘-습-’이라는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객체 높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고려한다면 이 문장의 목적어는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목적어인 부처님을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이 사용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하는 행위를 막는다’라는 의미에서 동사 ‘막다’에 ‘막습’이라는 형태가 쓰인 것입니다. (1ㄴ)에서는 용언 어간 말 ‘ㄷ’ 뒤에서 ‘ㅅ’의 형태가 실현되고 뒤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연결 어미 ‘-고’가 나타났기 때문에, ‘ㄷ’의 형태가 실현되어 결과적으로 ‘-습-’이라는 형태가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목적어인 ‘부텃 敎化(교화)’를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체 높임과 마찬가지로 목적어나 부사어 자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 객체 높임이 실현될 뿐만이 아니라,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과 관련된 명사일 경우에도 이렇게 객체 높임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ㄷ)에는 ‘듭-’가 사용되었는데, ‘듭-’의 형태 음소는 ‘ㄷ’이 아니라 ‘ㅍ’입니다. 그래서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두퍼’와 같은 형태로 실현됩니다. 다만, 자음 어미 앞에서는 8종성법에 따라, 종성의 ‘ㅍ’이 ‘ㄷ’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듭-’으로 표기되었습니다. 표기상으로는 ‘ㄷ’ 뒤에서 ‘ㅅ’이 선택된 것이지만, 형태 음소적으로는 ‘ㅍ’ 뒤에서 ‘ㅅ’이 선택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ㄷ’의 형태가 선택되어 (1ㄱ, ㄴ)과 같이 ‘-습-’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목적어인 ‘如來(여래)’를 높이기 위해 ‘-습-’이 쓰였습니다. (1ㄹ)의 ‘업습덴’은 용언 어간 ‘업-’ 뒤에 ‘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는 표기상으로 어간 말에 ‘ㄷ’만 나타났지만, 형태 음소적으로는 어간 말음이 ‘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종성법에 따라 ‘ㅅ’이 탈락하고 ‘ㄷ’의 형태만 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상으로는 ‘ㄷ’ 뒤에 ‘ㅅ’이 나타난 형태라고 설명해야 되겠지만, 형태 음소적으로 볼 때에는 ‘ㅃ’ 뒤에 ‘ㅅ’이 쓰인 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결합한 선어말 어미 ‘-더-’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성에서 ‘ㄷ’ 형태가 실현되어 ‘-습-’이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世尊(세존)ㅅ기’라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의 ‘-습-’이 사용되었습니다.

(1ㄱ)에서 ‘머리를 조아리다’라는 뜻을 지닌 ‘쫘-’라는 동사는 형태 음소적으로는 어간 말 자음으로 ‘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어미 ‘-아’가 결합되면 ‘조ㅅㅅ’의 형태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8종성법에 따라 역시 ‘쫘-’의 형태로 표기되었습니다. 어간 말음 ‘ㅅ’ 뒤에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의 초성이 ‘ㅅ’으로, 그리고 연결 어미 ‘-고’ 앞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종성은 ‘ㄷ’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역시 ‘-습-’의 형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ㄱ)과 같이 어간의 종성 ‘ㅅ’과 선어말 어미 ‘-습-’의 초성 ‘ㅅ’을 나누어서 ‘ㅅㅅ’의 형태로 적히는 경우도 있지만, (1ㄷ)과 같이 어간의 종성 ‘ㅅ’이 ‘-습-’의 초성과 합쳐져 ‘ㅃ’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ㄷ)에서 생략되어 있는 문장의 주어는 ‘수달(須達)’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장 앞에 ‘須達이’를 괄호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 문장도 (1ㄱ)과 같이 ‘조아리다’라는 뜻의 ‘쫘-’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객체 높임의 ‘-습-’이 결합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앞의 예문에서는 동사 어간의 종성으로 ‘ㅅ’이 실현되고 선어말 어미 ‘-습-’의 초성은 ‘ㅅ’으로 각각 나뉘어 적혔던 데에 비해, 이 예문에서는 그 두 ‘ㅅ’이 하나로 합쳐져 된소리인 ‘ㅃ’의 형태로 표기되어 ‘조쫘’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 어간 말 자음에 있는 ‘ㅅ’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넘어가 ‘ㅃ’의 형태로 표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세기에는 (1ㄱ)과 같이 ‘ㅅㅅ’으로 나뉘어 적히거나 (1ㄷ)과 같이 ‘ㅃ’으로 적히는, ‘쫘습고/조

잡고'라는 두 가지 예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ㅅ)의 동사 어간은 'ㅎ'을 종성으로 가지는 '녕-'입니다. 이 뒤에 객체 높임의 '-습-'이 실현된 것인데, 형태 음소적으로는 'ㅎ' 뒤에서 'ㅅ'이 실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상으로 이것도 'ㅅ'으로 표기되어 '녀잡고'로 실현된 것입니다. (1ㅇ)도 '놓-'라는 'ㅎ' 종성을 가진 용언 어간 뒤에 '-습-'이 결합하여 '노잡'의 형태, 즉 경음 표기인 'ㅅ'의 표기가 실현된 것입니다. (1ㅅ, ㅇ)의 예를 통해 'ㅅㅅ'이 결합하여 'ㅅ'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언 어간의 종성이 'ㅎ'인 경우에는 (1ㅅ, ㅇ)처럼 'ㅅ'의 형태로 적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드물게 (1ㅈ)처럼 'ㅅㅅ'으로 나뉘어 적히는 예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1ㄱ, ㄴ)의 '좃습고/조잡고'처럼, '좃-'의 경우에 'ㅅㅅ'이 나뉘어 적힌 경우와 어간 말음 'ㅅ'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넘어가 'ㅅ'으로 적힌 예와 같이, 어간 말음이 'ㅎ'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ㅈ)은 '녕-'의 종성 'ㅎ'이 'ㅅ'으로 표기된 것인데, 이 예만 보면 어간 말 자음 'ㅎ'이 'ㅅ' 앞에서 'ㅅ'이 되고 그 뒤에 '-습-'이 결합하여 이것이 '습'으로 표기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녕-+-고'나 '놓-+-고'와 같은 경우에, 이것이 항상 '녀코/노코'로만 표기되고 '녯코/뉯코'처럼 'ㅅ'이 표기된 예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어간 말 자음 'ㅎ'이 종성에서 'ㅅ'으로 실현되었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ㅎ'이 종성에서 'ㅅ'으로 된 다음에 'ㅅ'으로 변하였다고 하기보다는, 'ㅎ'과 'ㅅ'이 합쳐서 'ㅅ'으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ㅅ'이기 때문에 표기상 (1ㅈ)처럼 'ㅅㅅ'의 형태로 나뉘어 표기될 수 있었던 것이지, 'ㅎ'이 'ㅅ'으로 종성에서 변화하는 것이라라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1ㅊ)에서는 어간 말 자음 'ㅎ' 뒤에서 'ㅎ'이 사라지고 '-습-'만 쓰인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들에 비추어 본다면, '뉯습고'와 같이 종성이 'ㅅ'으로 표기되거나, '노잡고'와 같이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ㅅ'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용언 어간의 종성에 'ㅅ'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선어말 어미 '-습-'의 초성 위치에 'ㅅ'이 나타나지 않은 '노습고'의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5세기 한국어에서 '노-'라는 형태(용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일 때 그 형태는 'ㅅ'이 아닌 'ㅈ'이 와서 '노습고'의 형태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ㅊ)의 예는 표기는 '노'로 되어 있는데, 뒤에 '-습-'이 아닌 '-습-'이 쓰여 '노습고'라는, 15세기 한국어라면 나타날 수 없는 형태가 표기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ㅅㅅ'을 나누어 적거나 뒤 음절의 초성을 된소리 'ㅅ'으로 적어 '뉯습고/노잡고'로 표기해야 될 것을, 표기상 실수로 잘못 적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어간 말의 'ㅎ'이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흔적을 남겨 'ㅅ'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표기상으로는 '노습고'라고 표기된 것이라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외적인 표기 내지는 표기상의 실수로 인하여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 것이라고 추정을 해 본 것입니다.

(2)는 '-습-'의 종성 'ㅂ'이 매개 모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 '뽕'으로 나타난 예들을 보인 것입니다.

(2) ㄱ. 天食을 먹스븀니 <월인석보 7: 26>

하늘의 음식을 먹으니

ㄴ. 우리 이제 부텃 威力을 닐스뽕 <석보상절 9: 39>

- 우리들이 이제 부처님의 위력을 입어서
- ㄷ. 釋迦牟尼佛의 머리 죇스바 禮數ᄃᆞᆫ 습고 <석보상절 21: 50>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려 인사하고
- ㄹ. 머리 조쑈바 부터를 마쭈더니 <월인석보 21: 203>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을 맞이하더니
- ㄱ. 소내 𑖦는 물애를 바다 世尊ᄃᆞᆫ 바리에 노쑈바늘 <월인석보 25: 63>
손에 가는 모래를 받아서 세존(世尊)의 바리에 놓거늘
- ㄴ. 地神이 쑈 梵王ᄃᆞᆫ 닐오되 네 오솔 가져 도로 頂上에 놋스볼라 <월인석보 25: 37>
지신(地神)이 또 범왕(梵王)에게 말하기를, 너의 옷을 가져다가 도로 정상(頂上)에 놓아라.

(2ㄱ)은 용언 어간 말 ‘ㄱ’ 뒤에서 ‘ㅅ’이 선택되어 ‘-습-’의 형태가 되는데, 그 뒤에 매개 모음을 취하는 연결 어미 ‘-으니’가 왔습니다. 그래서 ‘-습-’의 ‘ㅂ’이 ‘ㅍ’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ㅍ’은 뒤로 연결되기 때문에 ‘먹스볼라’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2ㄴ) 역시 용언 어간 말 ‘ㅂ’ 뒤에서 ‘ㅅ’이 선택되고 그 뒤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기 때문에 ‘ㅂ’이 ‘ㅍ’으로 바뀌고 그것이 연결되어 ‘놋스바’의 형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ㄷ)의 ‘죇스바’라는 형태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형태 음소적으로 종성 ‘ㄷ’을 가진 ‘죇-’라는 동사 어간, 그것이 음절 말 위치에서 8종성법에 따라 ‘ㄷ’이 ‘ㅅ’으로 표기된 ‘죇-’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 ‘죇-’ 뒤에 ‘ㅅ’ 형태가 쓰인 ‘-습-’이 나타났고 그 뒤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여 ‘죇스바’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2ㄹ)과 같이 연결 어미 ‘-아’ 앞에서 ‘ㅂ’이 ‘ㅍ’으로 바뀐 예라고 하겠습니다. (2ㄷ)과 같이 ‘ㅅ’이 나뉘어 ‘ㅅㅅ’의 형태로 적힐 수도 있었지만, 앞의 (1ㄱ-ㅇ)에서 보았듯이 이것이 ‘ㅅㅅ’으로 적힐 수도 있었습니다. (2ㄷ)에는 어간 말의 ‘ㅅ’이 뒤 음절로 넘어가 된소리 ‘ㅅㅅ’의 형태로 표기된 예입니다. (2ㄱ) 역시 ‘ㅎ’ 말음을 가지는 용언 어간 ‘놓-’ 뒤에 ‘-습-’의 형태가 실현되었는데, ‘ㅎ’과 ‘ㅅ’이 결합하여 ‘ㅅㅅ’의 형태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놓-’라는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연결 어미 ‘-거늘’이 결합할 때 타동사에 결합하는 이형태 ‘-아늘’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쑈바늘’과 같은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어간 모음이 음성 모음이었다면 ‘-어늘’이 선택되었을 텐데, 여기서는 ‘놓-’의 어간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아늘’이 결합한 것입니다. (2ㄴ)에서는 (2ㄱ)과 마찬가지로 ‘놓-’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2ㄷ, ㄹ)에 보이는 ‘죇-’의 예와 마찬가지로 ‘ㅅ’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올라가서 경음(‘ㅅㅅ’)으로 표기될 수도 있고 또는 어간 말의 ‘ㅅ’이 분리되어 표기될 수도 있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2ㄴ)에서는 어간 말의 ‘ㅅ’이 분리되어 적혔고 (2ㄱ)에서는 어간 말의 ‘ㅅ’이 뒤의 음절로 넘어가 ‘ㅅㅅ’의 형태로 표기된 것입니다. 어간 ‘놓-’ 뒤에 ‘-습-’이라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고 그 뒤에 명령형 어미 ‘-으라’가 결합했기 때문에 ‘놋스볼라’의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매개 모음 어미 앞에서 ‘ㅂ’이 ‘ㅍ’으로 교체된 ‘-슬-’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2)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은 선행하는 어간의 말음이 ‘ㄷ, ㄴ, ㄹ’과 같은 공명 자음이거나 모음인 경우에는 초성 ‘ㅅ’이 ‘ㄷ’으로 바뀐 형태, 즉 ‘-습-’이라는 형태가 쓰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종성에는 ‘ㅍ’이 오거나 ‘ㅂ’이 오게 되는데, 그 교체 양상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뒤에 오는 음이 자음이라면 ‘ㅂ’으로, 매개 모음이나 모음이라면 ‘ㅍ’으로 실현

됩니다. 따라서 선어말 어미 ‘-습-’의 초성 ‘ㅅ’은 ‘ㄴ, ㄹ, ㄷ’ 또는 모음 앞에서는 ‘△’으로, 그리고 종성 ‘ㅂ’은 후행하는 음이 자음인가 모음인가에 따라서 ‘ㅂ’과 ‘뽕’으로 나뉘어서 실현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 ㄱ. 내 이제 多寶佛ㅅ 모믈 보습고져 호노니 <석보상절 20: 44ㄱ>

내가 이제 다보(多寶) 부처님의 몸을 뵈고자 하는데

ㄴ. 姝女ㅣ 하늬 기쁘로 太子를 ㅼ러 안스바 <월인석보 2: 43ㄴ>

채녀(姝女)가 하늘의 비단으로 태자를 꾸려서 안아서

ㄷ. (迦葉이) 모든 弟子 ㄷ리고 올흔 녀그로 닐굽 불 도습고 <석보상절 23: 43ㄱ>

가섭(迦葉)이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오른쪽으로 일곱 번 돌고

ㄹ. 모다 깃거 各各 金爨에 담스븍니라 <석보상절 23: 56ㄱ>

모두 기뻐하면서 각각 금 향아리에 담았다.

예문 (3)은 초성이 ‘△’으로 나타나는 예들 보이고 있습니다. (3ㄱ)은 ‘보-’라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이기 때문에 ‘△’의 형태가 실현되었고 ‘-고져’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에 결합하기 때문에 ‘ㅂ’의 형태가 선택되어 ‘-습-’이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3ㄴ)에서는 ‘안-’라고 하는 ‘ㄴ’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 ‘ㅅ’이 ‘△’으로 실현되어 ‘-습-’의 형태가 되는데, 뒤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연결 어미 ‘-아’가 왔기 때문에 ‘ㅂ’이 ‘뽕’으로 바뀌어 ‘-슬-’이 결합한 ‘안스바’의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3ㄷ)은 ‘돌-’라고 하는 ‘ㄷ’ 발음을 가진 동사 어간 뒤에 역시 ‘△’ 형태가 나타나 ‘돌습’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연결 어미인 ‘-고’가 왔기 때문에 ‘-습-’의 종성은 ‘ㅂ’으로 실현되어 ‘돌습고’와 같은 형태가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 앞에서 ‘ㄷ’은 탈락하여 ‘돌습고’가 아니라 ‘도습고’의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3ㄷ)은 ‘가섭(迦葉)이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둘러싸고 오른쪽으로 돌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들이 둘러싸고 돈 대상, 즉 ‘부처님’을 높이기 위해 ‘돌-’에 객체 높임의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3ㄹ)에서는 어간 발음이 ‘ㄷ’인 동사 어간 ‘담-’ 뒤에서 ‘ㅅ’이 ‘△’으로 된 ‘-습-’의 형태가 실현되고 뒤에는 ‘-으니라’라고 하는 매개 모음을 지닌 종결 어미가 결합하기 때문에, 종성의 ‘ㅂ’이 ‘뽕’으로 실현되어 ‘담스븍니라’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간 발음이 ‘ㄷ, ㅈ, ㅊ’인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 발음이 ‘ㄷ’이나 ‘ㅈ, ㅊ’인 경우에는 ‘-습-’의 초성 ‘ㅅ’이 ‘ㅈ’으로 교체된 형태가 실현됩니다. 즉, ‘-줍-’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성의 ‘ㅂ’은 뒤에 자음 어미가 오는가 모음 어미가 오는가에 따라서 ‘ㅂ’과 ‘뽕’으로 교체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종성의 ‘ㅂ’이 뒤에 자음 어미가 오는가 모음 어미가 오는가에 따라서 교체되는 양상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의 예에서 종성 ‘ㅂ’의 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4) ㄱ. 勝鬘이 부텃 功德을 들쭈고 깃거 <석보상절 6: 40ㄴ>

승만(勝鬘)이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기뻐하여

ㄴ. 王이 太子의 ㅼ문즈보샤딘 <석보상절 3: 12ㄱ>

왕이 태자에게 물으셨는데

ㄷ. 王이 또 ㅼ문쯔보딘 <월인석보 4: 66ㄱ>

- 왕이 또 물었는데
- ㄹ. 阿闍世王이 나 맞즈바 안즈쇼셔 하고 <월인석보 22: 72ㄱ>
 아사세왕(阿闍世王)이 나가서 맞이하여 “앉으십시오.” 하고
- ㄱ. 사름이 마쯔바 드라 <월인석보 20: 43ㄱ>
 사람이 맞이하여 들어가
- ㄴ. 그 七寶臺을 師子座^ㄴ 우회 헝나콤 연즈고 <석보상절 23: 49ㄱ>
 그 칠보(七寶) 향아리를 사자좌(師子座) 위에 하나씩 얹고
- ㄷ. 如來를 다시 내스바 七寶床에 연즈고 <석보상절 23: 37ㄱ>
 부처님을 다시 나오게 하여 칠보상(七寶床)에 얹고
- ㅇ. 므를 채 터 보시니 三賊이 쫓즈거늘 <용비어천가 36>
 말을 채찍질하여 보이시니 세 명의 적이 쫓아오거늘
- ㅈ. 諸佛 니르산 敎戒 쫓즈디 아니헝는 사르물 <월인석보 12: 44ㄴ>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계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 ㅊ. 아들은 풀 옷 니버 아바님 조즈더시니 <월인석보 20: 45ㄱ>
 아들은 풀 옷을 입고서 아버님을 따르셨는데

(4ㄱ)의 예는 ‘듣-’라고 하는 ‘ㄷ’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에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습-’의 형태가 결합한 예로, 여기서는 ‘-습-’의 초성 ‘ㅅ’이 ‘ㅈ’으로 바뀌어 ‘-즈-’이라는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듣즈고’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4ㄴ)은 ‘묻-’라고 하는 어간 뒤에 객체 높임의 ‘-습-’이 쓰인 것입니다. 어간 말음이 ‘ㄷ’이기 때문에 ‘ㅅ’의 형태인 ‘-습-’이 아니라 ‘ㅈ’의 형태인 ‘-즈-’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하였는데, 이 ‘-시-’는 매개 모음을 가지는 형태이므로, ‘-줄-’ 뒤에서 매개 모음 ‘으’를 취해 ‘-으시-’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연결 어미 ‘-오디’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오-’가 합쳐질 때는 ‘ㅈ’로 바뀐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이 형태들이 결합하여 ‘묻즈보샤디’와 같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에서는 ‘묻즈보샤디’라는 형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ㅈ’가 후대에 ‘오’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한 형태를 표기에 반영하여 ‘묻즈보샤디’가 실현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표기를 ‘묻즈보샤디’로 해야 하지만, 현실 발음은 ‘묻즈오샤디’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인 ‘묻즈보샤디’로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1)~(2)에서 용언 어간이 ‘ㅅ’이나 ‘ㅎ’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경우에, 그것들이 표기상 ‘ㅅㅅ’으로 표기되거나 또는 ‘ㅈ’으로 표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ㄴ)에 나타나는 ‘묻-’도 (4ㄷ)과 같이 어간 말 ‘ㄷ’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넘어가 ‘ㅈ’으로 표기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ㄷ)은 ‘묻-’의 어간 말 ‘ㄷ’이 ‘-줄-’과 결합하여 ‘묻즈(보디)’가 아니라, ‘무쯔(보디)’의 형태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4ㄴ)의 ‘묻즈보디’와 같이 ‘ㄷㅈ’으로 나뉘어 적힐 수도 있지만, (4ㄷ)의 예와 마찬가지로 ‘ㄷ’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넘어가 ‘ㅈ’의 형태로 표기된 예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예는 좀 적습니다. (4ㄷ)의 예를 통해 볼 때, 아마도 현실 발음은 ‘묻즈오디’와 같이 된소리인 ‘ㅈ’으로 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4ㄹ)은 어간 말음이 ‘ㅈ’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8종성 표기에 따라 ‘ㅈ’이 ‘ㅅ’으로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4ㄹ)에서는 ‘맞이하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 ‘맞-’가 나타났습니다. 어간 말의 표기는 ‘ㅅ’으로 되어 있지만, 형태 음소는 ‘ㅈ’입니다. ‘ㄷ’이나

‘ㅈ, ㅉ’ 뒤에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은 초성 ‘ㅅ’이 ‘ㅈ’으로 교체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간 말의 형태 음소가 ‘ㅈ’이기 때문에, (4ㄷ)의 예에서는 ‘-줄-’이 선택된 것입니다. 표기상으로는 8종성 표기법에 따라 ‘맞-’처럼 ‘ㅅ’으로 표기되었지만, 형태 음소적으로는 ‘ㅈ’이기 때문에 뒤에 ‘-습-’이 아닌 ‘-줄-’의 형태가 선택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맞-’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 음소가 ‘ㅅ’이었다고 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쫓-’의 예와 마찬가지로 ‘-줄-’이 아닌 ‘-습-’이 선택되어 ‘맞스바’의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형태 음소가 ‘ㅅ’이 아니라 ‘ㅈ’이기 때문에 ‘-줄-’이 결합하여 ‘맞즈바’의 형태가 나타났고 표기도 ‘맞줄’과 같은 형태가 된 것입니다.

한편, 표기상으로는 ‘쫓스바’에서도 어간 말이 ‘ㅅ’으로 나타나고 ‘맞즈바’에서도 어간 말이 ‘ㅅ’으로 나타나 같은 표기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뒤에 선택된 선어말 어미는 ‘-습-’과 ‘-줄-’으로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음절 말에서 ‘ㅅ’과 ‘ㅈ’이 구분되던 시기인 15세기 이전, 아마도 고려 시대의 언어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맞즈(바)’와 같이 ‘ㅅㅈ’으로 표기되었지만, 그것의 실제 발음은 [마즈바]와 같이 된소리인 ‘ㅈ’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기상으로는 ‘마’에 ‘ㅅ’을 쓰고 ‘즈’를 써서 ‘ㅅㅈ’으로 표기되었지만, 이것의 실제 발음은 (4ㄱ)의 ‘맞즈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ㅈ’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을 표기상 ‘ㅅㅈ’으로 나눠서 적었을 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쫓스바’와 ‘맞즈바’는 실제로는 다른 발음이었지만, 그것이 표기상으로 ‘ㅅ’이 나뉘어 표기될 때 ‘쫓’과 ‘맞’처럼 동일하게 ‘ㅅ’을 가진 형태로 표기되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ㅅ’으로 표기된 ‘맞’과 ‘쫓’ 뒤에서 ‘맞’의 경우 ‘-습-’이, ‘쫓’의 경우 ‘-줄-’이 선택된 이유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4ㄴ)에서 어간 말 자음이 ‘ㄴ’으로 표기된 동사 어간 ‘엿-’의 형태 음소는 ‘ㅅ’입니다. 그래서 이 ‘ㅅ’라는 형태 음소를 가진 동사 어간 ‘엿-’ 뒤에 ‘-습-’의 형태, 즉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초성이 ‘ㅈ’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4ㄴ)에서는 표기가 어간 말에 ‘ㅅ’이 아닌 ‘ㄴ’으로 표기되고 그 뒤에 ‘-습-’의 형태가 실현되어 굉장히 독특한 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기는 15세기 한국어에서도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4ㄴ)과 같이 그냥 ‘ㅅ’으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4ㄴ)의 예는 ‘엿-’라는 동사 어간에 ‘-습-’이 결합하였을 때, 표기상으로 ‘연습’과 같이 ‘ㅅ’을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ㄴ)과 마찬가지로 ‘엿-’의 형태 음소가 ‘ㅅ’이어서, 그 ‘ㅈ’ 뒤에서 ‘-습-’이라는 형태가 선택되었고, 표기상 ‘ㅅ’의 형태로 표기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4ㄴ)과 같이 ‘연습’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4ㄴ)의 ‘ㄴㅅ(연습)’과 같이 적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형태 음소 ‘ㅈ’을 고려하여, 뒤에 ‘-습-’이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특이한 표기가 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4ㄴ, ㄴ)도 표기상의 문제일 뿐, 실제 발음은 [연습]로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4ㅇ)은 어간 말이 ‘ㅈ’인 경우입니다. 『용비어천가』는 15세기의 다른 문헌들과 달리 8종성법에 따르지 않고 원래의 형태 음소를 그대로 밝혀 적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8종성법에 따른다면 ‘쫓-’의 종성이 ‘ㅅ’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문헌에서는 ‘ㅈ’ 그대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ㅈ’ 뒤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은 초성 ‘ㅅ’이 ‘ㅈ’으로 바뀌어 ‘-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ㅈ’ 뒤에서 ‘ㅅ’이 ‘ㅈ’으로 교체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는 『용비어천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표기이고 일반적인 15세기 문헌이라면 (4ㄷ)과 같이, ‘ㅈ’이 ‘ㅅ’으로 바뀌어 표기가 됩니다. (4

ㅈ)에서는 ‘죇-’가 8종성 표기법에 따라 종성이 ‘ㅈ’이 아닌 ‘ㅅ’의 형태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기상으로는 ‘ㅅ’이 되었더라도 이것의 형태 음소가 ‘ㅈ’이기 때문에 뒤에 결합하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습-’이 아닌 ‘-줍-’이 쓰인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다’는 뜻의 ‘죇-’와 비교한다면 똑같은 ‘ㅅ’ 표기이지만, 형태 음소가 ‘ㅅ’인가 ‘ㅈ’인가에 따라서 뒤에 선택되는 선어말 어미는 ‘-습-’ 또는 ‘-줍-’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죇줍디’라는 형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일 뿐이고, 실제 발음은 ‘머리를 조아리다’는 뜻인 ‘죇-’의 경우에는 [조줍], 그리고 ‘뒤따라가다’의 의미인 ‘죇-’의 경우에는 [조줍]으로 실제 발음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성을 ‘ㅅ’으로 표기하더라도 뒤에 오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표기가 구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ㄷ)에서 바로 ‘ㅅㅈ’이 아니라 ‘ㅈㅈ’으로 표기된 ‘줍’의 예를 확인할 수 있는데, (4ㅈ)에서 ‘죇-’로 표기되었던 형태이지만, 이것의 형태 음소가 ‘ㅈ’이기 때문에 그 뒤에 ‘-줍-’이 결합하였고 실제 발음이 [조줍]처럼 났기 때문에 여기서와 같이 ‘조줍’의 형태로 표기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4ㅇ)의 ‘ㅈㅈ’, (4ㅈ)의 ‘ㅅㅈ’, 그리고 (4ㄷ)의 ‘ㅈㅈ’이 표기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발음은 거의 유사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어떻게 교체되는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5세기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의 이형태

		선행 음소		
		ㄱ, ㄷ, ㅅ, ㅎ	ㄴ, ㄷ, ㄹ; 모음	ㄷ, ㅈ, ㅊ
후행 음소	자음	- 습 -	- 습 -	- 줍 -
	모음	- 슬 -	- 슬 -	- 줄 -

3.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3)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은 모음 어미 앞에서는 ‘ㅈ’이 ‘ㅈ’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ㅈ’은 한글 창제 초기의 문헌에서만 나타나고 1460년대 이후에는 소멸하여 표기에서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1460년대 이후의 문헌이라고 할지라도 드물게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가도 소멸하고 표기상으로도 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에 나타나는 종성의 ‘ㅈ’은 매개 모음이나 모음 어미 앞에서 ‘ㅈ’으로 표기되었지만, ‘ㅈ’이 소멸된 이후에는 모두 ‘오, 우’로 변화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슬/슬/줄-’에서 발음이 ‘ㅈ’이었던 형태들이 ‘-스오/스오/즈오-’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5)에서 ‘ㅈ’이 소멸한 이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의 변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ㄱ. 進上^ㅎ스보니 보물 주스오시고 <월인석보 1: 월인석보序 13ㄱ>

진상하니 보는 것을 주시고(봐 주시고)

ㄴ. 大衆이 올워러 보습고 젓스오며 스랑^ㅎ스오물 兼^ㅎ야 머거 <능엄경언해 7: 28ㄴ>

- 대중들이 우러러 뵈고 두려운 마음과 사랑하는 두 가지 마음을 겸하여 먹어서
- ㄷ. 한 부터를 맞나스와 (得値多佛^{ㅎ스}와) <법화경언해 1: 114ㄱ>
 많은 부처를 만나서
- ㄹ. 부텃 慈愛를 넉스와 비록 이제 出家호나 <능엄경언해 1: 76ㄴ>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어서 비록 지금 출가하였으나
- ㅁ. 太子 | 宮의 드러 즉재 어마님^씨 가 머리 조사 禮數^{ㅎ고} 安否 묻즈오니라 <월인석보 20: 90ㄴ>
 태자가 궁에 들어가서 즉시 어머님께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었다.
- ㅂ. 阿難이 비록 또 이 말스물 들즈와 <능엄경언해 1: 102ㄴ>
 아난(阿難)이 비록 또 이 말씀을 들어서

(5ㄱ)은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다 지어서 세종께 바쳤더니 세종께서 그것을 봐 주셨다라는 의미를 지닌 문장입니다. 앞의 ‘進上(진상)ㅎ스보니’에서는 ‘봉’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뒤에서는 ‘주스^ㅅ보시고’가 아니라 ‘주스오시고’로 나타납니다. 즉, ‘봉’이 ‘오’로 변화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문장 안에서 하나는 ‘봉’이 살아 있는 형태, 다른 하나는 ‘봉’이 사라진 형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進上ㅎ스보니’는 용언 어간 ‘進上ㅎ-’에 객체 높임의 ‘-습-’, 그리고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進上(진상)ㅎ스보니’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뒤의 ‘주스오시고’의 경우에 만일 ‘봉’의 형태가 그대로 쓰였다면, 어간 ‘주-’에 ‘-습-’이 결합하고 그 뒤에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어말 어미 ‘-고’가 결합합니다. 이때, ‘-시-’는 매개 모음 ‘으’를 취하게 되므로 ‘-으시-’의 형태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스^ㅅ보시고’와 같이 실현되었을 것인데, 여기서는 이미 ‘봉’이 사라져 ‘봉’이 ‘오’로 변화한 형태인 ‘주스오시고’로 표기된 것입니다. 대개 1460년대 이후에 이렇게 ‘봉’이 사라진 형태가 일반화됩니다. 그런데 『월인석보』는 1459년에 간행된 문헌으로서 일반적으로 ‘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ㄱ)의 예에서는 이미 ‘봉’이 사라진 예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ㄴ)은 15세기 전반기와 같이 ‘봉’이 유지된 단계였다면, ‘젓스^ㅅ며’, ‘스랑ㅎ스보물’의 형태로 실현되었을 것인데, ‘봉’이 사라져 ‘젓스오며’, ‘스랑ㅎ스오물’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젓스오며’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지닌, 어간 말음이 ‘ㅎ’인 동사 ‘정-’에 ‘-습-’의 형태가 결합하고 그 뒤에 연결 어미 ‘-으며’가 통합된 것입니다. ‘스랑ㅎ스오물’은 ‘스랑ㅎ-’라는 어간 뒤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명사형 어미 ‘-음’, 그리고 목적격 조사 ‘을’이 차례로 결합하여 ‘스랑ㅎ스보물’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봉’이 사라져 ‘스랑ㅎ스오물’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5ㄷ)의 동사 어간 ‘맞나-’는 ‘나’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기 때문에, 그 뒤에 초성이 ‘ㄷ’인 ‘-습-’의 형태가 오고 그 뒤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였는데, 만약에 ‘봉’이 유지된 단계였다면 ‘맞나스바’의 형태가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이 사라져 ‘맞나스와’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구결문에서도 ‘得値多佛(득치다불)ㅎ스와’와 같이 이미 ‘봉’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5ㄹ)에서도 마찬가지로 ‘넉-’의 어간 말음 ‘ㅂ’ 뒤에서 초성이 ‘ㄴ’인 ‘-습-’의 형태가 실현되고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기 때문에 종성에는 ‘봉’이 선택되어 ‘넉스바’의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봉’이 사라져 ‘넉스와’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5ㅁ)은 ‘봉’이 유지되어 있는 단계였다면 ‘묻즈^ㅅ니라’의 형태가 되었겠지만, 여기서는 ‘ㅅ’가 ‘오’로 바뀌어서 ‘묻즈오니라’로 실현된 것입니다. (5ㅂ) 또한 마찬가지로 ‘들-’ 뒤에 ‘-습-’의 형태가 오고 뒤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하기 때문에

‘ங’이 선택되어야 할 텐데, 그 ‘ங’이 소실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듣좃’가 아니라 ‘듣좃와’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뵤다, 여쭙다, 사뢰다, 모시다’와 같은 특수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도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특수한 동사 ‘숯-’이 있었습니다. 동사 ‘숯-’는 동사 ‘니르/니르-’의 대상이 존칭 체언일 경우에 그 ‘니르/니르-’를 대신하여 쓰였습니다. 즉, ‘니르/니르-’에 선어말 어미 ‘-습-’을 통합시킨 형태인 ‘*니르습/니르습-’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숯-’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르습/니르습-’와 같은 형태는 15세기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들을 보충법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수한 형태의 용언 활용형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용언의 형태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보충법이라는 용어로 설명해 왔습니다. ‘*니르습/니르습-’ 대신에 ‘숯-’이라는 동사가 쓰이는 것이 보충법적 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 ㄱ. 迦毗羅國에 가아 淨飯王의 安否 숯더니 <석보상절 6: 2ㄱ>

가비라국(迦毗羅國)에 가서 정반왕(淨飯王)께 안부를 사뢰었는데

ㄴ. 須達이 부더의 숯보되 <석보상절 6: 21ㄴ>

수달이 부처님께 사뢰되

ㄷ. 너희들히 아바넝긔 가 숯바 <석보상절 21: 36ㄱ>

너희들이 아버님께 가서 사뢰어

ㄹ. 그제 두 아드리 父母의 숯오되 <법화경언해 7: 137ㄴ>

그때 두 아들이 부모께 사뢰기를

ㅁ. 너희 가 아바넝긔 숯와 <법화경언해 7: 133ㄱ>

너희들이 가서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6ㄱ)은 객체인 ‘淨飯王(정반왕)’을 높이기 위해 ‘숯-’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였다고 한다면 ‘淨飯王의 安否(안부) 니르습더니’와 같이 쓰여야 되겠지만 ‘니르-’와 ‘-습-’이 결합하여 쓰인 예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숯-’이 교체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ㄴ)에서도 일반적이라면 ‘니르습보되’ 정도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러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니르-’ 대신에 ‘숯-’가 교체되어 나타나 ‘부더의 숯보되’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객체인 ‘부처’를 높이기 위해 ‘니르-’라는 형태가 아닌, ‘숯-’이라는 형태가 선택되어 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ㄷ)도 ‘니르-’ 대신에 ‘숯-’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바넝긔’라는 객체 높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가 앞에 왔기 때문에 ‘숯-’의 형태가 선택된 것입니다.

다른 ‘ங’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 ‘숯-’의 어간 말음 ‘ங’도 후대에는 ‘오’로 변화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6ㄹ, ㅁ)에서 그 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ㄹ)에는 객체 자리에 ‘父母(부모)’라는 존칭 체언이 왔기 때문에 ‘니르-’가 아니라 ‘숯-’가 선택되었고 뒤에 오는 연결 어미 ‘-오되’와 결합하여 이전 시기라면 ‘숯보되’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ங’이 사라졌기 때문에 ‘숯오되’의 형태로 표기된 것입니다. (6ㅁ) 역시 ‘아바넝’이라는 존칭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왔기 때문에 ‘숯-’가 사용되었고 연결 어미 ‘-아’와 결합하여 이전 시기라면 ‘숯바’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그 ‘ங’이 사라져 ‘숯와’라는 어형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15세기 후반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ㄹ’의 형태인 ‘ㄹ-’이 쓰여 (6ㄱ)에 보이는 것과 같은 ‘ㄹ터니’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모음 어미 앞에서는 ‘슬오-’의 형태로 나타나 불규칙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근대 한국어 시기에 오게 되면, 자음 어미 앞에서도 ‘ㄹ’이 사라진 ‘슬오-’라는 형태가 그대로 쓰이게 되면서 어간이 ‘슬오-’라는 형태로 단일화되어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없이 모두 ‘슬오-’의 형태만 나타나는 형태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 와서는 이 ‘슬오-’라는 형태가 ‘사되-’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아되-’라는 어형에 이끌려 ‘사되-’라는 어형으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4.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 (4)

객체 높임을 나타내던 선어말 어미 ‘-습-’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기능이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기능에서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기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주로 근대 한국어 시기라고 흔히 알려져 왔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객체 높임에서 청자 높임으로 기능이 변화하는 현상이 이미 16세기부터 나타나고 있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7) ㄱ. 세존하 내의 악어비 잇스오니(世尊 我有惡業) <장수경언해 7ㄴ>

세존이시여, 나의 악업(惡業)이 있으니

ㄴ. 다몬 비연는 아히와 곤난 아히 피와 슬과 먹스오며(唯噉在胎及初生童子血肉) <장수경언해 54ㄱ>

단지 (뱃속)에 배고 있는 아이와 막 태어난 아이의 피와 살을 먹으며

ㄷ. 못 후에 난 즈식이 잇습터니 <장수경언해 39ㄱ>

가장 나중에 태어난 자식이 있었는데

(7ㄱ)의 용언 ‘잇-’는 객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객체 높임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잇-’ 뒤에 ‘-습-’의 후대형인 ‘-스오-’의 형태가 결합하였습니다. 이때 ‘-스오-’의 기능은 객체 높임과는 무관하게 청자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문의 ‘세존하’라는 호칭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말을 듣는 상대방, 즉 청자가 ‘부처님’인데, 바로 그 ‘부처님’을 높이기 위해 ‘잇-’에 ‘-스오-’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객체 높임을 나타내던 ‘-습-’이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변화해 가는 현상이 16세기 초의 문헌인 『장수경언해』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초부터 이러한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7ㄴ)은 ‘아귀(餓鬼)’나 ‘나찰(羅刹)’ 같은 불교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존재들에 관한 이야기로, ‘아귀’와 ‘나찰’이 어린아이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먹스오며’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스오-’가 실현되어 있는데, ‘아이의 피와 살’은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먹스오며’의 ‘-스오-’는 객체 높임과는 무관하게 실현된 것이고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인 ‘부처님’을 높이기 위해 청자 높임의 기능으로 ‘-스오-’가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ㄷ)에서도 ‘즈식’은 주어일 뿐이고 객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용언 어간이 ‘잇-’이기 때문에 객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잇-’에 결합하는 ‘-습-’도 객체 높임이 아닌 청자 높임의 기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기능에서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변화한 ‘-습-’은 현대 한국어에는 ‘-습니다’의 ‘습’, ‘-히니다’의 ‘히’의 형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어미는 앞의 어간이 자음인가 모음인가에 따라서 ‘-습니다/히니다’가 교체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습니다/히니다’는 선어말 어미 ‘-더-’가 기원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습디다/히디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습’과 ‘히’이라는 형태로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사오며, 하사오니, 하오며, 하옵나니’와 같이 연결 어미 앞에서 경우에 따라 ‘-사오-’, ‘-오-’, ‘-으오-’, ‘-옵-’ 또는 ‘-으옵-’ 등과 같이 다양한 이형태 교체를 보이면서 청자 높임을 실현하는 기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15세기 한국어에서 선행하는 어간 말음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초성이 ‘ㄸ’과 ‘ㅌ’과 ‘ㅊ’의 3가지 이형태로 교체되고 또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가 모음으로 시작하는가에 따라 중성의 ‘히’가 ‘히’와 ‘빙’으로 교체되어, 결과적으로 6가지 이형태 교체를 보인 선어말 어미 ‘-습-’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 기능은 변화하였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형태를 가진 청자 높임법의 형태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의 이런 복잡한 형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세기 한국어의 ‘-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높임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인 주체 높임의 ‘-시-’, 청자 높임의 ‘-이-’, 그리고 객체 높임의 ‘-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선어말 어미 가운데 시상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5분)

1. 선어말 어미 ‘-습-’은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졌다. (O/X)
정답: X
2. 15세기 한국어에서 선어말 어미 ‘-습-’은 일반적인 동사와 모두 결합이 가능하였다. (O/X)
정답: O
3. 용언 어간 말 자음이 ‘ㄸ’일 때, ‘-습-’이라는 형태로 객체 높임을 실현하였다. (O/X)
정답: O

선택형 (5분)

1. 다음 중 선어말 어미 ‘-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객체 높임의 기능으로 쓰이다 후대에 주체 높임의 기능도 나타내게 되었다.
② 용언 어간 말 음소가 ‘ㄷ, ㄴ, ㄹ; 모음’일 때, ‘-습-’이라는 형태가 나타났다.
③ 모음 또는 매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중성이 ‘빙’으로 나타났다.
정답: ③

2. 용언과 선어말 어미 ‘-습-’과의 결합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須達이) 世尊의 뵈스바 머리 조쥌고 흐녀기 안즈니’의 ‘조쥌고’는 ‘쥌-+-습-+-고’로 분석할 수 있다.
- ② ‘近日 舍利를 녀습고 幀 그리스오미 맛당히이다’의 ‘녀습고’는 ‘녀-+-습-+-고’로 분석할 수 있다.
- ③ ‘阿闍世王이 나 맞즈바 안즈쇼서 호고’의 ‘맞즈바’는 ‘맞-+-쥌-+-아’로 분석할 수 있다.

정답: ②

3. 용언 ‘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경우 ‘습-’가 쓰였다.
- ② 후대에는 ‘슬오-’로 형태가 굳어져, 현대 한국어의 ‘사되다’가 되었다.
- ③ ‘습-’ 대신 같은 뜻을 가진 ‘니르습/니르습-’가 쓰일 수도 있었다.

정답: ②

단답형 (8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은 선행 자음 ‘○, ○, ○’ 뒤에서 ‘-쥌-’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정답: ㄷ, ㅈ, ㅊ

2.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의 종성에 쓰이던 ‘뽕’은 1460년대 이후 소멸하여, ‘-슬-’도 그 형태가 ‘○○’로 바뀌었다.

정답: -스오-

3. 본래 객체 높임을 나타내던 선어말 어미 ‘-습-’은 ○○ ○○으로 기능이 바뀌어 갔고, 현대 한국어에서는 ‘-습니다/ㅂ니다’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정답: 청자 높임

나. 토의 (30분)

1.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 ‘-습/습/쥌-, -슬/슬/쥌-’은 각각 어떠한 환경에서 나타나는가? 그 환경을 더욱 간단히 나타낼 수는 없는가?

다. 과제 (60분)

15세기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의 객체 높임법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선어말 어미 ‘-습-’이 현대 한국어에 남긴 흔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찾아 보세요.

■ 참고자료

경어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능엄경언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장수경언해』 (디지털한글박물관 보기)

고영근(2020),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제4판, 집문당.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신정판, 탑출판사.

<9차시> 선어말 어미 (3)

■ 학습목표

1. 현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세 한국어의 다양한 선어말 어미의 종류와 그 쓰임을 살펴본다.
2. 중세 한국어에서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의 의미와 기능 및 분포를 문헌에 보이는 예를 통해 확인한다.
3. 중세 한국어의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현대 한국어에서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를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이해한다.

■ 강의 목차

1.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
2.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
3.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더-’
4.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거-’

■ 강의 내용 전문

<한국어 문법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상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

우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ㄴ-’는 주로 동사에 통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현대 한국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도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 통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시상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가 통합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15세기 한국어도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동사에 한해 선어말 어미 ‘-ㄴ-’와의 결합을 통해 현재 시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평서형 종결문의 경우에 모음 뒤에 서는 ‘-ㄴ-’, 자음 뒤에서는 ‘-는-’이라는 형태가 교체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항상 ‘-ㄴ-’라는 형태로 고정되어 쓰였습니다. 선어말 어미 ‘-ㄴ-’의 실현 양상을 예문 (1)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ㄱ. 羅睺羅 ㄷ려다가 沙彌 사모려 흐느다 흘씩<석보상절 6: 2ㄱ>

나후라를 데려다가 사미를 삼으려 한다고 하므로

ㄴ. 乾闥婆는 香내 만느다 혼 뜨디니 <월인석보 1: 14ㄴ>

“건달파는 향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1ㄱ)에서는 ‘흐-’라는 동사 어간 뒤에 ‘-느-’라고 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통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ㄴ)의 ‘香내 만느다(냄새를 맡다)’에서 동사 어간 ‘만-’의 종성의 형태 음소는 ‘ㅌ’이지만 8종성 표기 때문에 ‘ㄷ’으로 표기가 되었고, 그 뒤에 ‘-느-’와 종결 어미 ‘-다’라는 형태가 쓰여 ‘만느다’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에는 ‘한다’, ‘맡는다’와 같이 모음 뒤에서는 ‘-ㄴ-’으로, 자음 뒤에서는 ‘-는-’의 형태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모음 뒤이거나 자음 뒤이거나 동일하게 ‘-느-’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5세기 한국어에서도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별도의 문법 표시의 통합이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2)에 그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 ㄱ. 이 아드리 어엿브다 <월인석보 17: 20ㄱ>

이 아들이 불쌍하다.

ㄴ. 이는 如來 나신 짜히이다 <월인석보 25: 99ㄱ>

이곳은 여래께서 태어나신 땅입니다.

(2ㄱ)은 ‘어엿브-’라는 형용사 뒤에 아무 시제 표시 없이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엿브-’ 자체가 ‘불쌍하다’라는 의미로써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ㄴ)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가 결합하기는 하였지만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 없이 서술격 조사 ‘이-’와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 그대로 현재 시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현대 한국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는 주로 평서형과 의문형의 종결형, 그리고 연결형 중에서는 주로 연결 어미 ‘-니’와 통합하여 나타납니다. 또 관형사형 어미 ‘-ㄴ’ 앞에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3)에서 그 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ㄱ. 說法호믈 轉法이라 흐느니라 <석보상절 6: 18ㄱ>

설법하는 것을 전법(법을 굴림)이라고 한다.

ㄴ. 네 아논 믋스미 쏘 안해서 나느녀 밧굴 브터 드느녀 <능엄경언해 1: 64ㄴ>

너의 아는 마음이 또 안으로부터 생겨났느냐, 밖으로부터 들어왔느냐?

ㄷ. 네 信흐느다 아니 信흐느다 <석보상절 9: 26ㄴ>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ㄹ. 金輪王 아드리 出家호라 가느니 <석보상절 6: 9ㄴ>

금륜왕의 아들이 출가하러 가는데

ㅁ. 길흘 찌자 부텃기로 가느 저긔 <석보상절 6: 19ㄱ>

길을 찾아서 부처님께로 가는 때에

(3ㄱ)에서는 ‘-니라’라는 종결 형태 앞에 ‘-느-’가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ㄴ)은 의문형 어미인 ‘-녀’ 앞에 ‘-느-’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통합하였습니다. (3ㄷ)에는 ‘信(신)ㅎ-’라는 동사 뒤에 ‘-나다’라고 하는 2인칭 의문형 어미가 왔고 그 앞에 ‘-느-’라고 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즉, 의문형 어미 ‘-나다’ 앞에 선어말 어미 ‘-느-’가 사용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ㄹ)은 연결 어미 ‘-니’ 앞에 선어말 어미 ‘-느-’가 쓰인 예입니다. (3ㅁ)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ㄴ’ 앞에 ‘-느-’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로 말하자면 ‘가는’ 정도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어말 어미 ‘-느-’는 다른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는 잘 어울려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높임이나 인칭 또는 감동(감탄) 등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는 잘 어울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 ㄱ. 阿育王이 부터를 섬기습느니 <석보상절 24: 30ㄴ>

아육왕이 부처를 섬기는데

ㄴ. 世尊이 ㅎㄹ 몇 리를 녀시느니잇고 <석보상절 6: 23ㄱ>

세존(부처님)께서 하루에 몇 리를 가십니까?

ㄷ. 이 妙音菩薩이 보습고져 ㅎ느이다 <석보상절 20: 45ㄱ>

이 묘음보살이 보고자 합니다.

ㄹ. 比丘들하 내 이제 너드려 니르노라 <월인석보 14: 49ㄱ>

비구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한다.

ㅁ. 이 사르미 보빅를 더리도록 아니 앗기놋다 <석보상절 6: 25ㄴ>

이 사람이 보배를 저토록 아끼지 않는구나!

(4ㄱ-ㄷ)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가 통합한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4ㄱ)은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 뒤에, (4ㄴ)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뒤에, (4ㄷ)은 청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 뒤에 ‘-느-’가 통합하였습니다. (4ㄹ)은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 ‘-오-’ 앞에, (4ㅁ)은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옷-’ 앞에 ‘-느-’가 통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ㄹ)의 ‘니르노라’를 분석해 보면, 어간 ‘니르-’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느-’, 그리고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마지막으로 종결 어미 ‘-다’가 차례로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앞에 ‘-느-’가 쓰인 경우에는 ‘-느-’와 ‘-오-’가 합쳐질 때 ‘-느-’의 ‘·’가 탈락하여 ‘-노-’의 형태로 실현됩니다. 이러한 ‘노’라고 하는 형태는 현대 한국어에도 일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령, ‘나 이제 가노라’와 같은 경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ㅁ)에서는 동사 어간 ‘앗기-’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가 오고 그 뒤에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옷-’, 그리고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느-’와 ‘-옷-’이 합쳐지게 되는데, 이때 ‘-느-’의 ‘·’가 탈락하여 ‘-놋-’이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문 (4)에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내지는 인칭 또는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들과 어울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세기 한국어에서는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형태로서 ‘-아/어 잇-’ 구성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어 잇-’ 구성은 축약이 되어서 ‘-앳/엿-’ 또는 ‘-앗/엇-’과 같은 형태

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엿/엿-’ 또는 ‘-앗/엇-’과 같은 축약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원래 ‘-아/어 잇-’ 구성의 의미를 여전히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느-’가 통합하여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5)에서 그러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ㄱ. 내 法 中에 나엿느니 <월인석보 12: 5ㄴ>

나의 법 가운데 태어나 있으니

ㄴ. 天台妙玄 中에 ㄱ초 닐엿느니라 <월인석보 14: 74ㄱ>

천태묘현(경전의 이름) 가운데에 갖추어 말해져(언급되어) 있다.

ㄷ. 城入 나조희 雲霧 스므찾느니(城晚通雲霧) <두시언해 14: 36ㄱ>

성의 저녁에 운무(구름과 안개)가 사무쳐 있으니

ㄹ. 더리 노픈 뵈헤 브틔느니(招提憑高岡) <두시언해 13: 20ㄴ>

(절이) 저렇게 높은 산에 붙어서(의지해) 있는데

ㅁ. 아래부터 부터를 뵈스바 ㅎ니며 들즈바 잇느니 <석보상절 23: 31ㄴ>

예전부터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듣고 있으니

ㅂ. 이 經에 現히 닐어 잇느니라 <석보상절 19: 42ㄴ>

이 경전에 분명히 말해 두었다.

(5ㄱ)에는 ‘나엿-’라고 하는 형태가 쓰였는데 이것은 ‘나아 잇-’가 축약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 ‘나-’의 모음이 양성이기 때문에 ‘-아 잇-’ 구성이 쓰인 것인데, 그것이 축약되어 ‘-엿-’의 형태로 실현되었고 그 뒤에 ‘-느-’가 결합하였습니다. (5ㄴ)은 동사 ‘니르-’에 ‘-어 잇-’이 통합하고 그 뒤에 ‘-느-’가 결합한 것입니다. 즉, ‘-어 잇-’ 구성이 축약되어 ‘-엿-’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아/어 잇-’ 구성이 이렇게 ‘-엿/엿-’의 형태로 축약되어 나타날 때는 논자(論者)에 따라 이 ‘-엿/엿-’을 하나의 선어말 어미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5세기 한국어에서 ‘-엿/엿-’이라는 형태가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5ㄱ, 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엿/엿-’과 같은 구성이 현대 한국어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 ‘-았/엇-’과는 기능적으로 또 분포상으로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을 별도의 선어말 어미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성들이 나중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엇-’의 형태로 발달되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구성에서 선어말 어미 ‘-느-’가 사용되고 있는 예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ㄷ, ㄹ)의 예는 ‘-아/어 잇-’ 구성이 축약되어 ‘-엿/엿-’과 같은 형태가 되고 그 ‘-엿/엿-’이 더 축약되어 ‘-앗/엇-’의 형태로 실현된 예입니다. 이 경우도 의미상으로는 여전히 ‘-아/어 잇-’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독립된 하나의 선어말 어미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 것입니다. (5ㄷ)에서는 ‘-앗-’이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지만 역시 현대어역에서는 ‘-어 잇-’의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잇-’가 축약된 ‘-앗-’이라고 하는 형태 뒤에 ‘-느-’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것입니다. (5ㄷ)의 예와 같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앗-’이 하나의 완전한 과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ㄹ)에는 ‘브터 잇느니’라는 구성에서 축약된 형태 ‘브틔느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약된 형태인 ‘-엇-’ 뒤에 역시 선어말 어미

‘-느-’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예도 마찬가지로 ‘-엇-’이라는 형태로 축약되어 있지만 이것이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선어말 어미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5ㄱ, ㄴ)은 ‘-아/어 잇-’ 구성이 그대로 쓰인 예입니다. (5ㄱ)은 ‘-아 잇-’ 구성 뒤에 ‘-느-’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 잇느-’라는 구성이 가능하였고, 그 ‘-아 잇느-’ 구성이 축약된 형태 ‘-엣느-’, 그리고 ‘-엣느-’가 더 축약된 형태인 ‘-앗느-’와 같은 형태들이 15세기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ㄴ)에는 ‘-어 잇-’ 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ㄱ)에서는 ‘-아 잇-’ 구성을 보였고 여기서는 ‘-어 잇-’ 구성 뒤에 선어말 어미 ‘-느-’가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예들을 통해 ‘-아/어 잇-’, 그것이 축약된 ‘-엣/엣-’, 그리고 그것이 다시 축약된 ‘-앗/엇-’과 같은 형태들이 15세기에 널리 쓰이고 있었고 그 뒤에 선어말 어미 ‘-느-’가 통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주로 ‘-느-’의 형태로 고정되어 나타난다고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15세기 문헌에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어간 말 모음이 ‘ㄱ, 一, ㅍ’와 같은 음성 모음일 때, 관형사형인 경우에 한하여 선어말 어미 ‘-느-’가 ‘-느-’라는 형태로 쓰이는 예들이 나타납니다.

(6) ㄱ. 네 가짓 熱惱는 金翅鳥ㅣ 먹는 苦와 <석보상절 13: 8>

네 가지 번뇌라는 것은 금시조(金翅鳥)가 먹는 고통과

ㄴ. 흐르는 심과 沐浴 할 모스로 <석상 13: 23>

흐르는 샘물과 목욕할 연못(연못의 물)으로

ㄷ. 琰魔王이 사름 罪 주는 法 ㅅ숨아는 王일찌 <석보상절 9: 30>

염마왕(琰魔王, 염라대왕)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법을 주관하는 왕이므로

(6ㄱ)에서 ‘金翅鳥(금시조)’는 용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금시조가 용을 잡아먹는데, 당하는 용의 입장에서 그것은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의역한다면 ‘금시조에게 잡아먹히는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15세기 문헌의 일반적인 형태로서는 음성 모음 뒤라고 하더라도 ‘-느-’의 형태가 유지되어 ‘먹는’의 형태가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음 조화에 따르는 ‘먹는’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ㄴ)에서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흐르는’의 형태가 나타나야 하는데, ‘흐르는’이라는 모음 조화를 따르는 형태로 바뀌어서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ㄷ)도 마찬가지로, ‘주는’이 아니라 ‘주는’으로 나타나 선어말 어미 ‘-느-’가 ‘-느-’로 교체되어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형사형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16세기 이후로는 종결형이나 연결형에서도 점차 ‘-느-’ 대신 ‘-느-’가 사용되는 비율이 커집니다. 그리고 모음 뒤에서는 또 ‘-느-’가 ‘-느-’의 형태로 바뀌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양상들이 계속되어 결국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현대 한국어의 ‘-는-’과 ‘-느-’의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

두 번째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와 같이 평서형이나 의문

형의 종결 어미, 그리고 연결 어미 ‘-니’ 등의 앞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관형사형 앞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가 관형사형 어미 ‘-ㄴ’ 앞에 올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리-’는 관형사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관형사형에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별도의 관형사형 어미 ‘-ㄹ’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관형사형일 때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 ‘-ㄹ’ 자체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현대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리-’는 기원적으로는 ‘-ㄹ’과 ‘이-’로 분석이 됩니다. 이때 ‘-ㄹ’은 15세기 한국어 문법으로 말한다면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더 기원적으로는 명사형 어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명사형 어미 ‘-ㄹ’과 서술격 조사 ‘이-’가 통합하여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것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형태의 통합형인 ‘-리-’가 이미 하나의 선어말 어미로 굳어져 15세기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명사형 어미 ‘-ㄹ’과 서술격 조사 ‘이-’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는 명사형 어미 ‘-ㄹ’과 같이 자음 어간 뒤에서는 매개 모음을 취한 형태인 ‘-으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는 모음 어미가 올 때 ‘ㄹ’이 첨가되거나 또는 뒤에 ‘ㄷ’이 올 때 ‘ㄹ’로 교체되거나 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도 같은 변화를 보입니다. 선어말 어미 ‘-리-’ 뒤에 모음 어미가 올 때는 ‘ㄹ’이 첨가되고 또 ‘ㄷ’이 올 때에는 ‘ㄹ’로 교체가 됩니다.

(7) ㄱ. 부터 供養하기 外에 년 되 몬 쓰리니 <석보상절 23: 3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 쓰지 못할 것이니

ㄴ. 또 모딘 귀것들히 精氣를 몬 아스리니 <석보상절 9: 22ㄱ>

또 악한 귀신들이 (사람의) 정기를 빼앗지 못할 것이니

ㄷ. 이 衆生이 다 늘거 ㅎ마 주그리니 <석보상절 19: 3ㄴ>

이 중생들이 다 늙어서 장차 죽을 것이니

(7ㄱ)은 ‘쓰-’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 ‘-리-’가 결합한 예입니다. (7ㄴ)에서는 ‘아-’라고 하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리-’가 결합하였는데, 어간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매개 모음 ‘으’를 취해 ‘-으리-’의 형태로 실현되어 ‘아스리니’라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7ㄷ)은 ‘죽-’라는 어간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고 자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서 ‘-으리-’라고 하는 형태가 사용된 예입니다.

한편, 예문 (8)은 선어말 어미 ‘-리-’ 뒤에서 ‘ㄹ’이 첨가되거나 ‘ㄷ’이 ‘ㄹ’로 바뀌는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8) ㄱ. 브섭 닻예 포주의 머로물 알리로라(廚煙覺遠庖) <두시언해 14: 19ㄱ>

부엌 연기에 포주가 먼 것을 알겠구나.

ㄴ. 그대내 굶바사 오도다마론 舍利사 몬 어드리라 <석보상절 23: 53ㄴ>

그대들이 힘들게 왔지만 사리는 얻지 못할 것이다.

ㄷ. 출히 說法 마오 涅槃에 어셔 드사 홀리로다 <석보상절 13: 58ㄱ>

차라리 설법하지 말고 열반에 어서 들어가야 하겠구나.

ㄹ. 이 사르미 功德이 적디 아니혼 고들 알리로소이다 <석보상절 21: 18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은 것을 알 것입니다.

ㄱ. 부텃 쉼리로 七寶塔 세웁논 양도 보리러니 <월인석보 11: 37ㄱ>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는 모양도 볼 것이었는데

ㄴ. 머리 쉼 사르물 시름케 흐리랏다(愁殺白頭人) <두시언해 12: 2ㄱ>

머리 쉼 사람을 걱정하게 할 것이었구나.

(8ㄱ)의 ‘알리로라’는 ‘알-’라는 동사 어간 뒤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마지막으로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리-’ 뒤에서 ‘-오-’가 ‘ㄹ’이 첨가된 형태, 즉 ‘-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오라’가 아니라 ‘알리로라’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ㄹ’이 첨가되는 현상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8ㄴ)의 ‘어드리라’는 동사 어간 ‘얻-’ 뒤에 매개 모음을 취한 ‘-으리-’가 결합하고 그 뒤에 종결 어미 ‘-다’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종결 어미 ‘-다’가 ‘-리-’ 뒤에서 ‘-라’로 교체되어 ‘어드리라’로 실현되었습니다. (8ㄴ)에서는 ‘-리-’ 뒤에서 ‘ㄷ’이 ‘ㄹ’로 교체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선어말 어미 ‘-리-’가 드물게 사용되는 하는데 이와 같이 변화합니다. 선어말 어미 ‘-리-’ 뒤에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할 때는 ‘하리다’가 아니고 ‘하리라’와 같이 ‘ㄷ’이 ‘ㄹ’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대 한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ㄷ)은 동사 어간 ‘흐-’에 선어말 어미 ‘-리-’가 결합하고 그 뒤에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도-’, 그리고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였는데, 여기서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도-’ 역시 ‘-리-’ 뒤에서 ‘ㄷ’이 ‘ㄹ’로 바뀌어 ‘-로-’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ㄷ)의 ‘알리로소이다’는 동사 어간 ‘알-’에 선어말 어미 ‘-리-’,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dot-’, 그리고 매개 모음을 취한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이-’, 여기에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dot-’이라고 하는 감동을 나타낸 선어말 어미가 ‘-dot-’이라는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석된 형태대로 하자면 ‘알리로소이다’가 아니라 ‘알리로스이다’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15세기 문헌에서는 ‘-로소이다’와 같은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항상 모음 동화가 일어난 형태인 ‘-로소이다’의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8ㄹ)의 ‘보리러니’를 분석하면, 동사 어간 ‘보-’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 어미 ‘-니’가 결합한 것입니다. 선어말 어미 ‘-더-’가 ‘-리-’ 뒤에서 ‘-러-’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더니’가 아니라 ‘보리러니’가 된 것입니다.

(8ㄹ)은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내는 예입니다. 그래서 ‘리랏’이라는 형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밑줄 친 ‘흐리랏다’를 분석하면, 동사 어간 ‘흐-’에 선어말 어미 ‘-리-’, 과거 시상의 ‘-더-’,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dot-’, 마지막으로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것입니다. 선어말 어미 ‘-더-’와 ‘-dot-’이 결합하면 ‘-dot-’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리-’ 뒤에서 ‘-dot-’이라는 형태가 ‘-dot-’으로, 즉 ‘-dot-’의 ‘ㄷ’이 ‘ㄹ’로 교체된 형태로 실현되어 ‘흐리랏다’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들도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리-’ 역시 높임이나 감동, 인칭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와는 자유롭게 결합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제의 ‘-느-’

와는 같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ㄴ-’와는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는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더-’나 ‘-거-’와는 상보적 분포를 보여야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통합하여 함께 쓰이는 예들이 나타납니다. 이는 아마도 선어말 어미 ‘-리-’가 기원적으로 서술격 조사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서 서술격 조사 뒤에 ‘-더-’나 ‘-거-’가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여 이러한 형태들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문 (9)에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ㄱ. 머리며 누니며 손바리며 모땀 고기라도 비는 사르물 주리어니 <석보상절 9: 13>

머리나 눈이나 손발이나 또는 몸에 살이라도 비는(요청하는) 사람에게 줄 것이었는데
 ㄴ. 고죽흔 므스믄로 더 부터를 念하야 恭敬하스면 다 버서나리어며 <석보상절 9: 24>

지극한 마음으로 저 부처님을 생각하여 공경하면 다 벗어날 것이며

ㄷ. 그되내 머리서 𑖀비 오난마른 如來人 舍利는 몬 나소리어다 <석보상절 23: 54>
 그대들이 멀리서 힘들게 왔지만 여래의 사리는 바치지 못할 것이다.

ㄹ. 부텃 舍利로 七寶塔 세습는 양도 보리러니 <석보상절 13: 14>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 세우는 모양도 볼 것이었는데

ㅁ. 당다이 부테 드외리러라 <석보상절 19: 34>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었다.

(9ㄱ)에서는 ‘주리어니’라는 형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하면, 동사 어간 ‘주-’에 선어말 어미 ‘-리-’, 그리고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거-’가 결합한 것입니다. 다만, 선어말 어미 ‘-거-’가 선어말 어미 ‘-리-’ 뒤에서 ‘ㄱ’이 약화된 형태인 ‘-어-’로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ㄱ’이 약화되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리-’도 서술격 조사 ‘이-’와 같은 활용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뒤에 ‘ㄱ’이 올 때 그 ‘ㄱ’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주리거니’의 형태가 쓰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주리어니’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15세기 문헌에서는 ‘*-리거-’와 같은 형태는 실제로 표면형으로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ㄱ’이 약화된 형태인 ‘-리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9ㄴ)의 ‘버서나리어며’도 동사 어간 ‘벗어나-’에 ‘-리-’가 결합하고 그 뒤에 선어말 어미 ‘-거-’, 연결 어미 ‘-며’가 차례로 결합한 것입니다. 분석된 형태대로라면 ‘버서나리거며’가 되어야 하지만 (9ㄱ)에서 언급한 것처럼 ‘*-리거-’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ㄱ’이 약화된 형태로 실현되어 ‘버서나리어며’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9ㄷ)의 ‘나소리어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종결 어미 ‘-다’ 앞에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거-’가 왔는데 그것이 ‘-리-’ 뒤에서 ‘ㄱ’이 약화된 형태인 ‘-어-’로 실현되었습니다. (9ㄹ)은 앞의 (8ㅁ)에서도 확인하였던 예인데, 역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리-’ 뒤에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더-’가 왔고 그 ‘-더-’가 ‘-러-’로 교체되어, 즉 ‘ㄷ’이 ‘ㄹ’로 교체된 형태로 실현된 예라고 하겠습니다. (9ㅁ) 역시 ‘-리-’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더-’가 와서 ‘-리러-’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 뒤에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더-’가 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 ‘-리-’가 기원적으로 명사형 어미 ‘-ㄹ’과 서술격 조사 ‘이-’가 통합한 하는

구성에서 문법화되었고 그러한 서술격 조사 ‘이-’가 기원적으로 포함된 환경 속에서 뒤에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더-’나 ‘-거-’가 결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예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미 ‘-리-’를 미래 시제로 보지 않고 ‘추측’으로 보는 서법적(敍法的) 관점에서 설명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선어말 어미 ‘-리-’는 ‘추측’이라는 서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과거 시상의 ‘-더-’나 ‘-거-’가 오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어말 어미 ‘-리-’는 의문형의 경우에는 어미와 결합한 ‘-리여’나 ‘-려’, 또는 ‘-리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이러한 ‘-려’ 같은 형태를 그 자체로 하나의 종결 어미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려’가 ‘-리여’아 ‘-리아’와 같이 분석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흐쇼서’체의 경우에는 ‘-리잇가’와 같이 출현한다는 점에서 이 ‘-리-’를 얼마든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의문형 어미 앞에 나타나는 ‘-리-’도 선어말 어미로 보고 그 뒷부분을 의문형 종결 어미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예문 (10)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 ㄱ. 그 數를 알려 묻혀려(知其數아 不야) <법화경언해 3: 86>

그 수를 알겠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ㄴ. 이 善男子 善女人의 功德이 하리여 아니 하리여 <석보상절 21: 8>

이 선남자(善男子) 선녀인(善女人)의 공덕이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ㄷ. 큰 바르래 能히 고기 낚골 디 업스리아(巨海能無釣) <두시언해 3: 21>

큰 바다에 고기를 낚을 곳이 없겠느냐?

ㄹ. 내 王의 願을 비숍고져 호노니 大王이 드르시리잇가 <월인석보 20: 63>

내가 임금님께 한 소원을 빌고자 하는데 대왕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ㅁ. 엇던 양조로 내려가료 <월인석보 2: 19>

어떤 모습으로 내려갈 것인가?

ㅂ. 엇데 오시리오 <월인천강지곡 132장>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ㅅ. 설븐 人生이 어딴던 이 ㄴ트니 이시리잇고 <석보상절 6: 5>

괴로운 인생이 어디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10ㄱ)의 ‘알려 묻혀려’와 같이 ‘-려’로만 나타난 형태를 보았을 때는 여기서 ‘-리-’를 분석해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려’ 자체를 종결 어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충분히 성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10ㄴ)의 ‘하리여’에서 보듯이 ‘-려’가 더 분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리-’를 분석하여 ‘-리-’와 ‘-여’로 나누고 ‘-리-’를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그리고 의문형 종결 어미 ‘-여’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방식을 취해 보고자 합니다. (10ㄴ)에서는 ‘하리여 아니 하리여’와 같이 ‘-리-’ 뒤에 ‘-여’가 분석되어 표기된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 자체가 의문형 종결 어미로 쓰이는 것은 다른 용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리-’와 ‘-여’를 분석하여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취한 것입니다. (10ㄷ)의 ‘업스리아’에 보이는 ‘-리아’라는 형태는 『두시언해』에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의문형 종결 어미의 기원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이 ‘-리아’라고 하는 형태는 더 기

원적으로는 선어말 어미 ‘-리-’에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가’가 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 뒤에서 ‘ㄱ’이 약화되므로, 그것이 ‘-리아’의 형태로 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문형 종결 어미 ‘-가/고’라는 형태를 고려 시대 석독 구결 자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리아’라는 형태는 의문형의 기원적인 모습인 “*-리가”라는 형태로부터 ‘ㄱ’이 약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리아’가 점차 모음 조화에 따라 음성화되어 ‘-리어’로, 그리고 ‘-리어’가 또 ‘-리어’로, 이 ‘-리어’가 축약되어 ‘-려’로 변화하여 갔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리가>)-리아>-리어~-리어>-려’라는 변화 과정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형태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 ‘-리-’를 별도의 선어말 어미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이들을 하나의 종결 어미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리-’가 분석된다는 사실은 (10ㄷ)과 같이 ‘ᄒᆞ쇼셔’체의 예를 통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0ㄷ)에는 ‘-리잇가’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청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는 의문형에서 ‘-잇-’으로 교체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를 취한다면 ‘-리잇가’는 ‘-리-’와 ‘-잇-’, 그리고 ‘-가’로 분석해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형 어미에 나타나는 형태들에서도 ‘-리-’라는 형태가 의문형 종결 어미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라고 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ㄱ)부터는 의문사가 쓰인 설명 의문의 예입니다. 앞의 예들은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이었기 때문에 ‘-려’, ‘-리어’, ‘-리아’와 같은 형태로 실현되었던 데 비해 (10ㄱ) 이하의 예에서는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이기 때문에, 즉 기원적으로 의문형 종결 어미 ‘-고’가 포함된 형태를 가진 ‘-료’라든지 ‘-리오’의 형태로 실현되게 됩니다. (10ㄱ)은 ‘엇던’이라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가려’가 아니라 ‘가료’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느려가료’를 더 분석해 보면, ‘느려가-+-리-+-오(<고)’로 구성되는데, ‘-리-’ 뒤에서 ‘-고’의 ‘ㄱ’이 약화된 형태인 ‘-오’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어말 어미 ‘-리-’를 분석해 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ㄴ)에서는 ‘-리오’라는 형태로 구분되어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오’라는 형태는 어떤 형태에서 기원한 것일까요? (10ㄷ)에서 ‘-리아’에 대해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원적으로 “*-리고”라는 형태로부터 ‘ㄱ’이 약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리아’가 “*-리가”에서 ‘ㄱ’이 약화된 형태이듯이 ‘-리오’는 “*-리고”에서 ‘ㄱ’이 약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리-’ 뒤에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고’가 결합하였고 그때 ‘-고’의 ‘ㄱ’이 약화되어 ‘-리오’의 형태가 되었는데, 이것이 결국 축약되어 ‘-료’라는 형태로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가 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10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릿던’이라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형이 ‘-리잇고’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리잇가’와 마찬가지로 ‘-리잇고’도 ‘-리-’와 ‘-잇-’과 ‘-고’를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문문에 나타나는 종결 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리-’를 하나의 종결 어미에 포함된 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선어말 어미 ‘-리-’로 분석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상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더-’

다음으로는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더-’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보고’나 ‘회상’과 같은 특수한 서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그런 서법적인 특징보다는 과거를 나타내는, 그래서 과거 시제에 가까운 보다 일반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동사의 경우에 아무런 시상 관련 선어말 어미가 통합하지 않은 형태, 흔히 이것은 부정법(不定法)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상 관련 선어말 어미를 통합하지 않은 형태가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더-’가 과거 시제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됩니다. 즉, 부정법도 과거 시제이고 ‘-더-’도 과거 시제라고 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는 일반적인 과거 시제와는 약간 다른 기능이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를 과거와 관련된 어떤 시상적인 요소로서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 어미이다라는 정도로만 설명을 해 두고자 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 시상의 ‘-더-’가 없더라도 과거를 나타낼 수 있었던 데 비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더-’가 통합해야만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11) ㄱ. 世尊이 象頭山에 가샤 龍과 鬼神과 위흐야 說法히더시다 <석보상절 6: 1ㄱ>

세존이 상두산에 가셔서 용과 귀신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ㄴ. 淨飯王의 安否 숯더니 <석보상절 6: 2ㄴ>

정반왕께 안부를 사죄었는데(말씀드렸는데)

ㄷ. 沙羅樹王이 八姝女 보낼 나래 앓가본 쯔디 었더녀 <월인석보 8: 91ㄷ>

사라수왕이 여덟 채녀를 보내는 날에 아까운 뜻이 없더냐.

ㄹ. 더 모든 中에 흐 大梵天王이 일후미 妙法이러니 <월인석보 14: 25ㄹ>

저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대범천왕의 이름이 묘법이었는데

(11ㄱ)은 ‘說法히-’라는 동사 뒤에 ‘-더-’가 통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ㄴ) 또한 선어말 어미 ‘-더-’가 동사에 사용된 예입니다. 여기서는 ‘숯-’라는 동사 뒤에 ‘-더-’가 와서 ‘사죄었는데’와 같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ㄷ)에서는 ‘없-’라고 하는 형용사 뒤에 ‘-더-’가 와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ㄹ)은 서술격 조사 ‘이-’뒤에 ‘-더-’가 온 것인데, 여기서는 ‘-더-’가 ‘-러-’로 교체되었습니다. 형태가 교체되었지만 역시 과거를 나타내는 요소로 선어말 어미 ‘-더-’가 사용된 예입니다.

위에서 동사의 경우에는 ‘-더-’가 없어도 과거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에서 그 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 ㄱ. 이 말 다 숯고 부터의 禮數히습고 가니라 <석상 21: 47ㄴ>

이 말을 다 사죄고(말씀드리고) 나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갔다.

ㄴ. 네 바리를 어디 가 었든다 <월인석보 7: 8ㄱ>

너의 바리(밥그릇)을 어디에 가서 얻었느냐?

ㄷ. ㅼ리 니그녀 몬히녀(米熟也未아) <육조단경 상: 27ㄴ>

쌀이 익었느냐, 익지 않았느냐?

(12ㄱ)은 동사 어간 ‘가-’에 종결 어미 ‘-니라’만 통합하여 시제나 시상을 나타내는 어떠한 선어말 어미도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간다’가 아니라 ‘갔다’, 즉 과거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니라’ 같은 동사에 아무런 시상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형태가 과거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용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상 관련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동사에서는 이런 경우에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용사든 동사든 뒤에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 즉 영 형태라는 것이 실현되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에서는 영 형태가 현재를 의미하고 동사에서는 과거를 의미하는 두 가지 기능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문법서들에서는 이것을 정해지지 않은 용법이라는 뜻의 부정법이라는 용어로 통칭을 해 왔습니다. 즉, 동사의 부정법은 과거, 형용사의 부정법은 현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왔던 것입니다.

(12ㄴ)도 마찬가지로 ‘얼-’라는 동사 어간 뒤에 ‘-ㄴ다’라고 하는 2인칭 의문형 어미가 왔고 그 사이에 매개 모음(‘으’)이 들어가서 ‘어든다’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시상이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역시 ‘얼었느냐?’와 같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12ㄷ)은 동사 어간 ‘닉-’에 의문형 종결 어미 ‘-너’가 바로 결합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선어말 어미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의미는 ‘익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동사의 부정법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더-’ 뒤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나 감동의 선어말 어미 ‘-웃-’과 같은 것들이 통합하게 되면 이들이 화합하여 ‘-다-’나 ‘-닷-’ 같은 형태로 실현되게 됩니다. 그러한 예들을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ㄱ. 내 룡담헛다라 <석보상절 6: 24ㄴ>

내가 농담했다.

ㄴ. 내 상네 이리 니르다니 舍利佛아 아라라 <석보상절 13: 60ㄱ>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해왔는데 사리불(舍利佛)아 알아라.

ㄷ. 내 지비 이실 저기 솜衛國 사르미라니 <월인석보 10: 23ㄴ>

내가 집에 있을 때에 사위국 사람이었는데

(13ㄱ)은 ‘룡담헛-’라는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더-’,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종결 어미 ‘-다’가 차례대로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와 ‘-오-’가 합쳐져 ‘-다-’로 바뀌어 ‘룡담헛다라’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종결 형태의 경우에는 1인칭 주어와 선어말 어미 ‘-더-’가 같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물론, 꿈속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하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1인칭과 선어말 어미 ‘-더-’는 같이 쓰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이 1인칭 주어가 선어말 어미 ‘-더-’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도 그 뒤에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

었던 것입니다. (13ㄴ)에서는 ‘니르-’라는 동사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더-’,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오-’가 결합하였는데, 이 ‘-더-’와 ‘-오-’가 합쳐진 ‘-다-’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 어미 ‘-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13ㄷ)은 ‘내’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나는 문장으로,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선어말 어미 ‘-더-’와 ‘-오-’가 결합하고 그 뒤에 연결 어미 ‘-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르미’ 뒤에서 선어말 어미 ‘-더-’와 ‘-오-’가 합쳐져 ‘-다-’가 되었는데, 이 ‘-다-’가 서술격 조사 뒤에서 ‘-라-’로 바뀌어 ‘사르미라니’와 같은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외에 또 다른 선어말 어미 ‘-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형사형 어미 앞에 나타나는 ‘-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도 ‘-더-’와 화합할 때는 역시 ‘-다-’의 형태로 실현되게 됩니다. (14)에 그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4) ㄱ. 네 모로매 내의 忉利天宮에 이셔 브즈러니 咐囑^ㅎ단 이를 생각^ㅎ야 <석보상절 11: 8>

너는 반드시 내가 도리천궁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부탁하고 맡긴 일을 생각하여

ㄴ. 오직 이 넷 時節入 사르미 넷 時節入 흐니단 고들 고티도다(祗是舊時人이 改劫舊時行履處 | 로다) <금강경삼가해 5: 5>

오직 이 옛날의 사람이 옛날에 하던 것을 고쳤구나.

ㄷ. 내 흐던 일이 甚히 외다스이다 <석보상절 24: 18>

내가 하던 일이 심히 잘못되었습니다.

(14ㄱ)의 ‘咐囑(부촉)흐단’이라는 어형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咐囑흐-’라는 동사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더-’, 그 뒤에 선어말 어미 ‘-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입니다. 다만, 이 문장의 동사인 ‘咐囑흐-’의 주어가 ‘나’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가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인지 또는 관형사형 어미 ‘-ㄴ-’ 앞에 와서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가 아님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 ‘-오-’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관형사형 어미 ‘-ㄴ-’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 ‘-오-’는 일반적으로는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별도의 ‘-오-’인 것으로 분석을 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선어말 어미 ‘-오-’도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 ‘-더-’와 화합하여 ‘-다-’라는 형태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ㄴ)의 ‘흐니단’은 동사 어간 ‘흐니-’에 역시 ‘-더-’, ‘-오-’, ‘-ㄴ-’이 순서대로 통합한 것인데 여기서도 ‘-더-’와 ‘-오-’가 ‘-다-’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ㄷ)의 ‘외다스이다’는 ‘외-’라는 용언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더-’,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 그리고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으이-’, 마지막으로 종결 어미 ‘-다’가 순서대로 통합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더-’와 ‘-웃-’이 합쳐져 ‘-닷-’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 ‘-더-’는 이렇게 감동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들이 그 뒤에 더 결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런 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과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이 선어말 어미 ‘-더-’와 결합할 때 그 결합 순서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15)에서 선어말 어미 ‘-더-’와 이들이 결합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ㄱ. 어마님이 상벧 사르미 아니러시이다 지브 겨샤 날마다 五百 僧 齋히시돏터이다
<월인석보 23: 74>

어머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날마다 500명의 승려들을 불러서 재를 만들었습니다.

ㄴ. 우리들히 요스시에 大師 겨신 짜홀 모르다니 忉利天에 겨시닷다 <월인석보 21: 201>

우리들이 요즘 대사(부처님)께서 계신 장소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도리천에 계셨구나!

(15ㄱ)을 보면, 선어말 어미 ‘-더-’ 앞에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돏-’이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돏더’라는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15ㄴ)에는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이 선어말 어미 ‘-더-’ 뒤에 나타나 (15ㄱ)과는 다른 결합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15ㄴ)의 ‘겨시닷다’에 나타나는 ‘-닷-’이라는 표현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더-’와 ‘-웃-’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즉, (15ㄱ)에서는 ‘-돏더-’라는 형태가, (15ㄴ)에서는 ‘-더-’와 ‘-웃-’이 합쳐진 ‘-닷-’이라는 형태가 실현되고 있는데, (15ㄱ)에서는 감동의 선어말 어미가 ‘-더-’ 앞에 나타나는 데 비해 (15ㄴ)에서는 ‘-더-’ 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5ㄱ)과 같은 ‘-돏더-’의 형태는 감동이나 감탄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 안에는 감동 이외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15ㄴ)에서는 ‘-더-’와 ‘-웃-’이 합쳐져 ‘-닷-’의 형태로 실현되고 또 서술격 조사 뒤에서라면 ‘-랏-’의 형태로 실현이 되는데, 그 실현되는 형태가 무엇이든 이 ‘-닷/랏-’과 같은 형태는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더 가집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구나’나 ‘-네’ 같은 감탄형 종결 어미들은 감탄의 의미뿐만 아니라 화자가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바로 (15ㄴ)에 나타나는 ‘-닷-’과 같은 형태가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의 의미를 가지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15ㄴ)의 예는 ‘이전까지는 부처님이 계신 장소를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도리천(忉利天)에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돏더-’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의미가 없지만 ‘-더-’와 ‘-웃-’이 결합한 ‘-닷-’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런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거-’

마지막으로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거-’에 대해서는 종래에 확인법이라는 서법적 요소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의미 기능을 정확히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상(未詳)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거-’라고 하는 형태가 과거와 관련된 시상을 나타낸다는 정도로만 설명을 해 두었고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선어말 어미 ‘-거-’의 의미가 이렇게 명확히 분석되지 않는 것은 15세기에 이미 선어말 어미 ‘-거-’가 단독의 용법으로, 즉 독립된 선어말 어미로서 쓰이는 기능이 상당히 쇠퇴된 모습을 보이고, 주로 관용화된 구성 속에서 또는 문법화된 어미들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요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어말 어미 ‘-거-’가 이미 15세기에 그 의미 기능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

가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거-’는 조금 복잡한 교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문법 형태들과는 달리 타동사인가 타동사가 아닌가에 따라 교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타동사 뒤에서는 ‘-아/어-’라는 형태로, 그리고 자동사나 형용사 또는 서술격 조사와 같은 비(非)타동사 뒤에서는 ‘-거-’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아/어-’라는 이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교체되는 형태입니다. 아래의 예에서 선어말 어미 ‘-거-’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ㄱ. 설불씨 衆生의 福이 다오거다 <석보상절 23: 28ㄱ>

슬프구나, 중생의 복이 다했다.

ㄴ. 문득 來書를 바도니 마자 분별 업거다(忽奉來書호니 適然無慮커다) <선종영가집 下: 108ㄴ>

문득 오는 서신을 받았는데 마침 걱정이 없어졌다.

ㄷ. 네 헛마 맞나스바니 前生ㄱ 罪業을 어루 버스리라 <월인석보 2: 62ㄴ>

네가 이미 만났으니 전생의 죄업을 가히 벗어날 것이다.

ㄹ. 四海를 平定헛샤 길 우희 糧食 니저니 <용비어천가 53장>

사해를 평정하시어 길 위에서 양식을 잊었으니

ㅁ. 戎馬를 나리라 너기디 몬헛야니(不謂生戎馬) <두시언해 15: 47ㄴ>

“용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ㅂ. 내 本來 求흥 므슴 업다니 오늘 寶藏이 自然히 오나다 <월인석보 13: 32ㄴ>

내가 원래 구할 마음이 없었는데 오늘 보장이 자연히 왔다.

(16ㄱ)은 ‘다오-’라고 하는 자동사 뒤에 선어말 어미 ‘-거-’가 통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ㄴ)에는 형용사 ‘업(<없>)-’ 뒤에 ‘-거-’가 사용되었습니다. (16ㄷ)의 ‘맞나스바니’는 ‘맞나-’라는 어간 뒤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 그리고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아-’, 그 뒤에 연결 어미 ‘-니’가 결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맞나-’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거-’가 아닌 ‘-아/어-’의 형태가 선택되고 또 어간 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ㅌ’이므로 모음 조화에 따라 ‘-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맞나스바니’의 ‘바’에 ‘-아-’라는 형태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ㄹ)은 ‘닛-’라고 하는 타동사와 연결 어미 ‘-니’ 사이에 ‘-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습니다. 타동사 어간 ‘닛-’ 뒤에서 ‘-거-’의 이형태 ‘-아/어-’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중성 모음 ‘이’ 뒤에서 ‘-어-’의 형태로 실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ㅁ)은 (16ㄱ-ㄹ)과는 다른 교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戎馬(용마)’는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16ㅁ)은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라는 의미가 됩니다. 서술어인 ‘몬헛야니’를 분석하면, 타동사 어간 ‘몬헛-’ 뒤에 선어말 어미 ‘-야-’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 ‘-거-’라는 형태가 ‘헛-’라는 어간 뒤에서는 ‘-야-’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 ‘-거-’가 타동사와 비타동사 뒤에서 ‘-아/어-’와 ‘-거-’로 교체된다는 것 외에 이와 같이 ‘헛-’ 뒤에서는 ‘-야-’라는 형태가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ㅂ)은 또 다른 교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이리 오너라’와 같이 동사 ‘오-’ 뒤에서는 ‘-거라’나 ‘-아라/어라’ 대신에 ‘-너라’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15세기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동사 뒤에서는 ‘-거-’나 ‘-아/어-’ 대신에 ‘-나-’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라는 동사 뒤에서는 선어말 어미 ‘-거-’가 ‘-나-’로 교체되어 나타나게 되므로, ‘오나다’라는 형태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 ‘-거-’가 ‘-나-’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선어말 어미 ‘-거-’가 타동사 뒤에서는 ‘-아/어-’의 형태로, 그리고 비타동사 뒤에서는 ‘-거-’의 형태로 실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예를 확인해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7)의 예를 보겠습니다.

(17) ㄱ. 바미 헝마 반이어다 <석보상절 23: 13>

밤이 벌써 반이나 되었다.

ㄴ. 주글 내어니 子孫을 議論헝리여 <월인석보 1: 7>

(장차) 죽을 나이인데 자손을 의논하겠는가.

ㄷ. 三界 火宅의 술유미 드외어니(而爲三界火宅의 所燒어니) <법화경언해 2: 87>

삼계(온 세상)가 화택에 불사름이 되었는데

ㄹ. 오늘 이 寶藏이 自然히 니를어다(今此寶藏이 自然而至커다) <법화경언해 2: 226>

오늘 이 보장(寶藏)이 자연히 이르렀다(여기 왔다).

(17ㄱ)의 ‘반이어다’는 ‘반’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 ‘이-’가 오고 그 뒤에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거-’가 결합한 것입니다. 서술격 조사 뒤에서는 ‘ㄱ’이 약화되므로, ‘-거-’가 아니라 ‘ㄱ’이 약화된 형태인 ‘-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표기상으로 ‘이어다’ 실현된 것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타동사 뒤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 ‘-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록 ‘-어-’로 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거-’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ㄱ’이 약화된 형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7ㄴ)의 ‘내어니’는 ‘나+이-+-거-+-니’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역시 ‘-거-’의 ‘ㄱ’이 약화되어 ‘-어-’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거니’가 아니라 ‘내어니’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표기상으로 본다면 ‘-어-’가 사용된 것이라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17ㄱ, ㄴ)과 같이 서술격 조사 뒤에서는 표기상 ‘-어-’로 실현되었다라도 그것은 실제로는 ‘-거-’가 쓰인 것이라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7ㄷ)의 ‘드외어니’는 ‘드외-’라는 자동사 뒤에 선어말 어미 ‘-거-’가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모음 ‘ㅣ’ 뒤에서도 서술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ㄱ’ 약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드외거니’가 아니라 ‘드외어니’로 표기된 것입니다. 이 경우도 표기상으로는 ‘-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거-’가 사용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ㄹ)의 ‘니를어다’도 (17ㄷ)과 같이 ‘니를-’라고 하는 자동사 어간 뒤에 역시 ‘-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반모음 ‘ㅣ’만이 아니라 ‘ㄹ’ 뒤에서도 ‘ㄱ’ 약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니를거다’가 아니라 ‘니를어다’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7)의 예들은 실제로는 ‘-거-’가 쓰였지만 표기상으로는 ‘-어-’로 보인다는 점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제시된 (18)의 예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ㄱ. 제 닐오되 헝마 아라니(自謂已覺^{헝야}) <원각경언해 下3-1: 102ㄴ>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알았는데

ㄴ. 門 밧기 내야 보내야늘 <월인석보 8: 98ㄴ>

문 밖에 내보내거늘

ㄷ. 그 어미 餓鬼 모를 여희여늘 <월인석보 23: 90ㄴ>

그 어머니가 아귀(餓鬼)의 몸을 벗어났는데

(18ㄱ)의 ‘아라니’에서는 ‘알-’라고 하는 타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아/어-’ 중에서 양성(陽性)의 형태인 ‘-아-’의 형태가 실현되었는데, 타동사이면서 모음이 양성이기 때문에 ‘-아-’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아니’가 되는데, 어간 말 ‘ㄹ’이 연철되어 ‘아라니’라는 표면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7ㄷ)에서 만약 ‘니를-’에 ‘-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면, ‘니를어다’가 아니라 ‘니르러다’와 같이 연철되었을 것입니다. 즉, (17ㄷ)에서는 ‘-어-’가 아니라 ‘-거-’가 쓰였고 ‘-거-’의 ‘ㄱ’이 약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어간 말의 ‘ㄹ’이 연철되지 않고 분철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ㄴ)의 ‘보내야늘’은 ‘보내-’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아닐/어늘’의 형태가 쓰인 것입니다. 사실 선어말 어미 ‘-아/어-’의 예를 들어야 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선어말 어미 ‘-아/어-’ 자체의 용례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거늘’, ‘-아닐’과 같은 어미의 일부로 나타나는 용례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서는 ‘-아닐’과 같은 어미의 용례를 들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보내-’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는 ‘-아닐/어늘’이 쓰여야 하고 양성 모음 뒤이기 때문에 ‘-아닐’이 선택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반모음 ‘ㅣ’ 뒤에서는 ‘-아-’가 올 때 ‘-야-’로 표기가 됩니다. 반모음 ‘ㅣ’ 뒤의 ‘아, 어, 오, 우’는 ‘야, 여, 요, 유’로 표기된다는 규칙에 따라서 여기서는 ‘-야-’로 표기된 것입니다. (17ㄷ)의 ‘ㄷ외어니’는 ‘ㄷ외-’에서 반모음 ‘ㅣ’ 뒤이기는 하지만 ‘ㄱ’이 약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ㄷ외어니’와 같이 ‘-어-’가 ‘-여-’로 바뀌지 않고 ‘ㄷ외어니’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ㄷ외-’에 ‘-거-’가 아니라 ‘-어-’라고 하는 형태가 결합했다면, ‘ㄷ외어니’로 실현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ㄷ외어니’에는 ‘-어-’가 아니라 ‘-거-’가 결합된 것이라라는 사실을 이러한 (18ㄴ)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8ㄷ)의 ‘여희여늘’에서 ‘여희-’는 타동사이고 역시 음성 모음 뒤이기 때문에 ‘-어늘’이라는 형태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모음 ‘ㅣ’ 뒤이기 때문에 (18ㄴ)과 같이 ‘-어늘’이 ‘-여늘’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 (17)과 같은 예를 볼 때 표기에 이끌려 선어말 어미 ‘-거-’가 아니라 ‘-어-’가 쓰인 것이라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은 실제로는 ‘-거-’가 쓰인 것이지만 ‘ㄱ’ 약화 현상 때문에 표기상 ‘-어-’로 실현된 것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가 아니라 ‘-아/어-’가 나타났다면, (18)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어간 말 자음이 연철이 되거나 ‘-아/어-’가 ‘-야/여-’로 바뀌거나 하는 변화가 나타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어-’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기원적으로 그것이 ‘-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15세기 한국어에서 다소 복잡한 교체 양상으로 실현되었던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거-’는 근대 한국어로 오면서 사라지게 되어 점차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에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거라’와 같은 형태에 일부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15세기에서도 하나의 어미의 일부로 굳어져 문법화되어 남은 용례들은 있습니다. 가령, ‘-거늘’이나 ‘-거든’ 같은 어미들이 그 예입니다.

이상으로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 중에서 시상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칭, 수, 또는 감동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3분)

1. 중세 한국어에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존재하였다. (O/X)

정답: X

2.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 ‘-리-’는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있었다. (O/X)

정답: O

3. 중세 한국어의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거-’는 15세기에도 단독형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와 함께 쓰일 수 있었다.
- ② 일반적으로 ‘-느-’로 나타나지만 ‘-느-’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 ③ ‘-아/어 잇-’ 구성과 함께 쓰일 수 있었다.

정답: ①

2. 다음 중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결 어미 ‘-니’와 통합할 수 없었다.
- ② 관형사형 어미 ‘-ㄴ’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③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함께 쓰이지 않았다.

정답: ②

3. 다음 중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5세기에는 1인칭 주어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었다.
- ② 형용사에 선어말 어미 ‘-더-’가 통합하지 않아도 과거를 나타낼 수 있었다.
- ③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 ‘-이-’와 함께 쓰일 수 없었다.

정답: ①

단답형 (10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중세 한국어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는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와 통합하면 ‘○’가 탈락하여 ‘○’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정답: ·, 노

2. 중세 한국어의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는 기원적으로 ○○○ 어미 ‘-ㄹ-’과 ○○○ 조사 ‘이-’의 통합형이 문법화되어 미래 시제를 나타내게 되었다.

정답: 명사형, 서술격

3. 중세 한국어의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더-’는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과 통합하면 ‘○’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정답: 닷

나. 토의 (30분)

1. 다음은 중세 한국어의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느-’가 쓰인 예들이다.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하여 선어말 어미 ‘-느-’의 실현 양상에 대해 논의해 보자.

- (ㄱ) 부터 供養^호기 外에 년 되 몬 쓰리니 <석보상절 23: 3ㄴ>
(ㄴ) 쏘 모딘 꺾것들히 精氣^를 몬 아스리니 <석보상절 9: 22ㄱ>
(ㄷ) 이 衆生이 다 늘거 ^호마 주그리니 <석보상절 19: 3ㄴ>
(ㄹ) 브섭 닌에 포주의 머로물 알리로라(廚煙覺遠庖) <두시언해 14: 19ㄱ>
(ㄴ) 그되내 𪎟비사 오도다마론 舍利사 몬 어드리라 <석보상절 23: 53ㄴ>
(ㄷ) 출히 說法 마오 涅槃에 어서 드사 흐리로다 <석보상절 13: 58ㄱ>
(ㄸ) 이 사르미 功德이 적디 아니혼 고들 알리로소이다 <석보상절 21: 18ㄴ>
(ㄹ) 부텃 舍利로 七寶塔 세습논 양도 보리리니 <월인석보 11: 37ㄱ>
(ㄺ) 머리 셴 사르물 시름케 흐리랏다(愁殺白頭人) <두시언해 12: 2ㄱ>

2. 다음은 중세 한국어의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더-’가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통합한 예이다.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해 보고 각각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

- (ㄱ) 어마님이 상넷 사르미 아니러시이다 지비 겨샤 날마다 五百 僧 齋호시돏더이다
<월인석보 23: 74>
(ㄴ) 우리들히 요스시에 大師 겨신 짜홀 모르다니 忉利天에 겨시닷다 <월인석보 21: 201>

다. 과제 (60분)

다음 예들에 나타나는 중세 한국어의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 ‘-거-’의 교체 양상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 (ㄱ) 설볼썤 衆生의 福이 다으거다 <석보상절 23: 28ㄱ>
 (ㄴ) 문득 來書를 바도니 마자 분별 업거다 <선종영가집 下: 108ㄱ>
 (ㄷ) 네 ㅎ마 맞나스바니 前生ㄱ 罪業을 어루 버스리라 <월인석보 2: 62ㄴ>
 (ㄹ) 四海를 平定호샤 길 우희 糧食 니저니 <용비어천가 53장>
 (ㄴ) 戎馬를 나리라 너기디 몬호야니 <두시언해 15: 47ㄴ>
 (ㄷ) 내 本來 求흥 므슴 업다니 오늘 寶藏이 自然히 오나다 <월인석보 13: 32ㄴ>
 (ㄸ) 바미 ㅎ마 쏘이어다 <석보상절 23: 13ㄱ>
 (ㄹ) 三界 火宅의 술유미 드외어니 <법화경언해 2: 87ㄱ>
 (ㄷ) 제 닐오디 ㅎ마 아라니 <원각경언해 下3-1: 102ㄴ>
 (ㅈ) 門 밧긔 내야 보내야늘 <월인석보 8: 98ㄴ>

■ 참고자료

『두시언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법화경언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선종영가집언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고영근(2020),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제4판, 집문당.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신정판, 탑출판사.

<10차시> 선어말 어미 (4)

■ 학습목표

1. 현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세 한국어의 다양한 선어말 어미의 종류와 그 쓰임을 살펴본다.
2. 중세 한국어의 인칭, 수, 감동 등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의 의미와 기능, 실현 양상 등을 예문을 통해 확인하고, 이들이 쓰이는 문장의 구조를 알아본다.
3. 각 선어말 어미가 다른 선어말 어미와 통합할 때 실현되는 형태를 익히고, 이를 통해 해당 선어말 어미의 정확한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 강의 목차

1.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2. 관형절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
3. 복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스/웃-’
4.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돏-’
5.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

■ 강의 내용 전문

<한국어 문법사>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칭, 수, 감동 등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먼저 선어말 어미 ‘-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오-’는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는 것과 관형절의 피수식어가 해당 관형절의 주어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의 두 가지 용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 하나의 선어말 어미로 설명하려는 태도도 있지만, 이 둘은 분포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이 둘을 별개의 선어말 어미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오-’가 종결 어미 ‘-다’나 연결 어미 ‘-니’ 앞에 나타나면, 그 문장의 주어가 1인칭, 즉 화자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 예를 통해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1) ㄱ. 우리들히 프데 願_호노이다 <월인석보 14: 42ㄴ>

우리들이 뜻(마음)에 원합니다.

ㄴ. 날오되 닻가 證^증흥 돌 내 아로라 홈돌흔(言自知修證等者^는) <능엄경언해 7: 8ㄱ>
말하되, “닻아서 증명할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것들은

ㄷ. 내 이것 업수라(我無此物^{호라}) <법화경언해 2: 243ㄴ>
내가 이것이 없다.

ㄹ.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니를 보습고저 호노니 <석보상절 21: 38ㄴ>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뵈고자 하는데

ㅁ. 나는 드로니 <월인석보 8: 97ㄱ>
나는 들으니

ㅂ. 우리들히 어리迷惑^{호야} 毒藥^을 그르 머구니 <월인석보 17: 17ㄴ>
우리들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독약을 잘못 먹었으니

(1ㄱ)에서 ‘우리’라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나고 서술어에는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었습니다. (1ㄱ)의 예에서 선어말 어미 ‘-오-’는 ‘노’라는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 ‘노’라는 형태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느-’와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통합할 때 ‘.’가 탈락하여 ‘노’라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願^{호노}이다’의 ‘노’에 선어말 어미 ‘-오-’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ㄴ)에는 ‘나’라는 1인칭 주어가 나타나고 역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로라’를 분석해 보면, 동사 어간 ‘알-’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그리고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 ‘-오-’ 뒤에서는 ‘ㄷ’이 ‘ㄹ’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로다’가 아니라 ‘아로라’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1ㄷ)에서 선어말 어미 ‘-오-’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음성 모음 형태인 ‘-우-’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없-’라는 용언 뒤에서 음성 모음 형태인 ‘-우-’가 오고 그 뒤에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때에도 역시 ‘-다’가 ‘-라’로 바뀌어 ‘업수라’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1ㄹ)에는 연결 어미 ‘-니’ 앞에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ㄱ)과 마찬가지로 ‘호노니’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 뒤에 ‘-오-’가 결합하여 ‘.’가 탈락한 형태인 ‘노’로 실현되었습니다. (1ㅁ)은 ‘ㄷ’ 불규칙 용언인 ‘듣-’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오고 연결 어미 ‘-니’가 차례로 결합하여 ‘드로니’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1ㅂ)은 ‘먹-’라는 어간 뒤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였는데, (1ㄷ)과 같이 음성 모음 뒤이기 때문에 ‘-우-’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연결 어미 ‘-니’가 통합하여 ‘머구니’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에 명시적으로 ‘나’나 ‘우리’와 같은 주어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것이 1인칭 주어 문장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장에 (1)과 같이 1인칭 주어가 드러나지 않고 문맥상 1인칭 주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비유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선어말 어미 ‘-오-’가 문장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문 (2)에 그 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 ㄱ. 머므러는 혼 늘근 한아비 時節^을 서 아츰나조히 이룰 記錄^{호노라}(留滯一老翁 書時
記朝夕) <두시언해 12: 15ㄱ>

머물러 있는 한 늙은 할아버지가 시절을 써서 아침저녁의 일을 기록한다.

ㄴ. 悔는 뉘으출씨니 아랫 이룰 외오 호라 흘씨라 <석보상절 6: 9ㄱ>

‘悔’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인데 “과거의 일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2ㄱ)에서 문장의 주어는 ‘늘근 한아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늘근 한아비’는 이 시를 쓴 시인, 즉 두보가 자기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늘근 한아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1인칭 주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술어에 ‘記錄호노라’와 같이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된 것입니다. (2ㄴ)에도 주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잘못했다’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주어가 표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라는 1인칭 주어를 상정할 수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선어말 어미 ‘-오-’가 서술어에 사용되어 ‘호라’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호’라는 형태는 ‘호-’라는 어간 뒤에 ‘-오-’라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할 때 ‘·’가 탈락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내적 화법에서 인용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도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쓰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어말 어미 ‘-오-’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른 형태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 ㄱ. 부텃 바리는 虛空에 느라오를씨 몬 호야브료이다 <월인석보 4: 27ㄴ>

부처님의 바리(바프룻)는 허공에 날아왔기 때문에 헤쳐 버리지 못했습니다.

ㄴ. 내 能히 世界를 세요라 호면(我 | 能建立世界者 | 면) <금강경언해 하: 115ㄱ>

“내가 능히 세계를 세웠다.”라고 하면

ㄷ. 우리들히 아바님 위호스바 호마 佛事를 호요니 <석보상절 21: 38ㄴ>

우리들이 아버님을 위해 이미 불사를 했으니

ㄹ. 내 부텃 弟子 | 로니 <석보상절 24: 16ㄴ>

내가 부처님의 제자이니

ㅁ. 내 甚히 기픈 般若로 三界를 보니 <석보상절 23: 1ㄱ>

내가 매우 깊은 반야(지혜)로써 삼계를 보니

ㅂ. 내 어저씨 다섯 가짓 꾸물 꾸우니 <월인석보 1: 17ㄱ>

내가 어저께 다섯 가지 꿈을 꾸었는데

(3ㄱ)에는 ‘호야브리-’라는 ‘ㅣ’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났는데, 이때 ‘ㅣ’와 ‘-오-’가 합쳐져 ‘요’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호야브리오’가 축약되어 ‘호야브료’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3ㄴ)은 ‘세-’라는 반모음 ‘ㅣ’로 끝나는 용언 뒤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였습니다. 반모음 ‘ㅣ’ 뒤에 ‘ㅏ, ㅑ, ㅓ, ㅕ’가 올 때는 이들이 ‘ㅗ, ㅛ, ㅜ, ㅠ’로 실현된다는 음운 규칙에 따라 여기서도 이 규칙이 적용되어 반모음 ‘ㅣ’ 뒤에서 ‘오’가 ‘요’로 실현되기 때문에 ‘세요라’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3ㄷ)은 용언 ‘호-’ 뒤에 선어말 어미 ‘-오-’가 온 것인데, (2ㄴ)에서는 ‘·’가 탈락하여 ‘호’의 형태로 실현되었던 것에 비해, 여기서는 ‘-오-’가 ‘요’로 바뀌어 ‘호요니’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두 예를 통해 ‘호-’에 ‘-오-’가 오고 연결 어미 ‘-니’가 결합될 때에는 (2ㄴ)과 같이 ‘호니’로 실현될 수도 있고 (3ㄷ)에서처럼 ‘호요니’로 실현될 수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 ‘호-’ 뒤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할 때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동사 ‘호-’가 가지는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 ‘요’로 바

꺼어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사 ‘ㅎ-’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할 때, ‘ㅎ아’ 또는 ‘·’가 탈락한 ‘하’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ㅎ야’로 실현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ㅎ-’ 뒤에 ‘-오-’가 결합할 때, ‘·’가 탈락한 형태인 ‘호’라는 형태와 그다음에 반모음(‘y’)이 더 들어간 형태인 ‘호요’라는 형태가 같이 쓰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ㄷ)에는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ㅣ로’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선어말 어미 ‘-오-’가 ‘-로-’로 바뀐다라고 기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어말 어미 ‘-오-’ 앞에서 서술격 조사 ‘이-’가 ‘일-’로 바뀐다라고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 ‘이-’ 뒤에 연결 어미 ‘-아’가 올 때도 ‘이라’와 같이 ‘ㄹ’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미의 특성에 의해 ‘ㄹ’이 첨가되었다라기보다는 어간, 즉 서술격 조사 ‘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 ‘-오-’ 앞에서 서술격 조사 ‘이-’가 ‘일-’로 교체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3ㄹ)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나’라는 1인칭이기 때문에 ‘보-’라는 용언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보오니’로 실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표기상으로는 ‘보니’로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ㅏ, ㅑ, ㅓ, ㅕ’ 뒤에 ‘오/우’가 올 때, ‘오/우’가 표기상으로 실현되지 않는 규칙 때문입니다. 다만, 표기상으로 ‘-오-’가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여기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성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 어간 ‘보-’는 평성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상성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평성으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보니’와 같은 경우에 ‘보’는 상성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성에서 상성으로 성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성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표기상으로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성조의 변화를 통해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ㄹ)에서도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보니’와 같이 상성으로 실현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우’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는 선어말 어미 ‘-오/우-’가 표기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ㅂ)에서는 예외적으로 선어말 어미 ‘-우-’가 실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ㅂ)은 ‘꾸-’라는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우-’가 결합하여 표기상으로 ‘꾸우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꾸니’ 정도로만 표기할 텐데,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 ‘-우-’를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는 극히 드문 것이고 (3ㄹ)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우-’가 모음 ‘ㅓ, ㅕ’ 뒤에서는 표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는 시상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와 합쳐져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형태나 의미에 있어서 다소 특수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4)의 예는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거-’와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같이 쓰인 것입니다.

(4) ㄱ. 우리 오늘 이 구즌 길홀 免_ㅎ야 흰히 便安호물 得_과라 ㅎ더니 <월인석보 14: 77ㄴ>

- “우리가 오늘 이 곳(협한) 길을 벗어나서 시원하게 편안함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 ㄴ. 내 王 말씀 듣좁고사 내 ㅁㅅㅁ 씩돋과이다 <석보상절 24: 29ㄴ>
내가 왕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나의 마음이 깨달았습니다.
- ㄷ. 南塘人 길흘 아디 못ㅎ다니 이제 第五橋를 알와라(不識南塘路 今知第五橋) <두시언해 15: 7ㄱ>
남당의 길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야(비로소) 제오교를 알았다.
- ㄹ. 이는 恩을 알아라 ㅎ니야 恩을 갓가라 ㅎ니야(是는 知恩耶야 報恩耶야) <몽산법어 31ㄴ>
이는 “은혜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냐,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냐?
- ㅁ. 내 親히 저습고 ㅅ ㅍ우습가니 <월인석보 23: 88ㄴ>
내 친히 절하고 향을 피웠으니
- ㅂ. 나도 太子를 禁止ㅎ야 가도시게 몰가니와 <월인석보 20: 67ㄱ>
나도 태자를 금지하여 가두시게 못하지만
- ㅅ. 그되 貴흔 저괴 내 늘구믈 츠기 너기디 아니카니와(不恨我衰子貴時) <두시언해 16: 61ㄴ>
그대가 귀한(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내가 늙은 것을 측은하게 여기지 않는다.
- ㅇ. 나도 ㅅ 僧祭과 慧可를 스승한마른(余亦師祭可) <두시언해 16: 1ㄱ>
나도 또한 승찬과 혜가를 스승으로 삼았지만
- ㅈ. 내 외로윈 무더믈 가 울오져 스랑칸마른(吾思哭孤冢) <두시언해 24: 17ㄴ>
내가 외로운 무덤에 가서 울고자 생각하지만
- ㅊ. 몇 디위를 니플 저지는 이스레 ㄷ비츨 타 胡床에 앉가니오(幾廻霑葉露 乘月坐胡床) <두시언해 18: 23ㄱ>
몇 번을 나뭇잎을 적시는 이슬에 달빛을 타고 호상에 앉았었는가.
- ㅋ. 더위자바 녀매 몇 격지를 들워 브리가노(扶行幾屐穿) <두시언해 20: 2ㄴ>
불잡아 다니매 몇 개의 나막신을 뚫어 버렸는가.

(4ㄱ)의 ‘得과라’는 ‘得ㅎ-’라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거-’, 그리고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그다음에 종결 어미 ‘-다’가 차례로 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 ‘-거-’와 선어말 어미 ‘-오-’가 합쳐져 ‘과’라는 형태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ㄴ)도 마찬가지로 이를 (4ㄱ)과 비교했을 때,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가 더 결합한 것 이외에는 어미 부분의 구조가 같습니다. 즉, ‘과라’ 하는 부분이 ‘과이다’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선어말 어미 ‘-거-’와 선어말 어미 ‘-오-’가 합쳐져 ‘과’라는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ㄱ-ㄷ)의 예들은 이전까지 몰랐던 사실을 새로 깨닫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의 의미를 추가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거-+-오-’가 합쳐진 ‘과’라는 형태가 실현될 때, 이러한 ‘과’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의미가 들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ㄷ)에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데, 문제는 (4ㄷ)에서는 ‘알과라’가 아니라 ‘알와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용언 어간 말 ‘ㄹ’이나 반모음 ‘ㅣ’ 뒤에서 ‘ㄱ’이 약화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서 ‘ㄹ’로 끝나는 ‘알-’이라는 어간 뒤에서 ‘과’의 ‘ㄱ’이 약화되어 ‘와’라는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어말 어미 ‘-거-’와 선어말 어미 ‘-오-’가 합쳐져 ‘과’로 나타나는 예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 ‘-거-’와 선어말 어미 ‘-오-’가 합쳐질 때 ‘과’가 아니라

‘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4ㄹ)도 앞의 예들과 같이 선어말 어미 ‘-거-’와 ‘-오-’가 합쳐진 형태인데, 그것이 (4ㄱ-ㄷ)과 같이 ‘과’가 아니라 ‘가’의 형태로 실현되어 있습니다. ‘갑가라’를 보면, ‘갑(<값)-’라는 어간 뒤에 ‘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알아라’에서 ‘가’가 아니라 ‘아’가 나타난 것은 (4ㄷ)과 같이 어간 말 ‘ㄹ’ 뒤에서 ‘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알가라’가 아니라 ‘알아라’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4ㄴ)의 ‘뛰우습가니’는 ‘뛰우-’라는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습-’, ‘-거-’, ‘-오-’, 그리고 연결 어미 ‘-니’가 순서대로 결합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거-’와 ‘-오-’가 합쳐져 ‘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ㄹ, 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거-’와 ‘-오-’가 합쳐져 ‘가’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위의 (4ㄱ-ㄷ)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거-’와 ‘-오-’가 합쳐져 ‘과’로 나타난 형태와는 의미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ㄱ-ㄷ)에 나타나는 ‘과’가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4ㄹ, ㄴ)에 보이는 ‘가’의 형태는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황, 그리고 1인칭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인식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과’로 실현되기도 했고 ‘가’로 실현되기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어말 어미 ‘-거-’와 ‘-오-’가 결합하여 ‘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은 단독으로 선어말 어미 ‘-거-’가 사용될 때만이 아니라, 이 선어말 어미 ‘-거-’가 포함되어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니와’나 ‘-건마련’과 같은 연결 어미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게 되면, ‘거’ 뒤에 ‘-오-’가 나타나 ‘가니와’, ‘간마련’과 같은 형태로 실현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ㄴ)에는 ‘묻ㅎ-’라는 어간에 ‘-거니와’, 그리고 1인칭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한 것인데, ‘묻ㅎ-’의 ‘ㅎ’는 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묻거니와’ 같은 형태가 실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묻가니와’로 실현된 것입니다. (4ㄷ)은 ‘아니ㅎ-’라는 어간 뒤에 ‘-거니와’가 결합하였는데, 역시 ‘나’라는 1인칭 주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가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니ㅎ거니와’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아니ㅎ가니와’가 되는데, ‘ㅎ’와 ‘가’가 다시 축약되어 ‘아니카니와’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4ㄹ)은 연결 어미 ‘-건마련’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간마련’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ㅈ)에서도 ‘간마련’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랑ㅎ-’라는 어간에 ‘-건마련’이 오고, 문장의 주어가 1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합니다. 그러면 ‘스랑ㅎ간마련’이 될 것인데, ‘ㅎ’와 ‘간’이 축약되어 ‘칸’의 형태로 실현되어 ‘스랑칸마련’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니와’나 ‘-건마련’과 같은 연결 어미에 ‘-오-’가 결합하면 ‘가니와’나 ‘간마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비해, ‘-거늘’이나 ‘-거든’ 같은 어미의 경우에는 ‘-오-’가 결합하여 ‘-가늘’이라든지 ‘-가든’으로 실현된 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 ‘-거-’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어미 구조체에서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했을 때 ‘가’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니와’와 ‘-건마련’ 같은 연결 어미들은 문법 요소들이 통합하여 하나의 연결 어미로 굳어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거’가 선어말 어미 ‘-거-’와 마찬가지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 어미는 선행하는 동사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에 따라 ‘-거-’와 ‘-아/어-’로 교체를 하는 선어말 어미 ‘-거-’와 같은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의 연결 어미로 굳어지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거-’ 쪽으로 통일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15세기 문헌에서 아직까지는 ‘-거-’가 ‘-아/어-’로 교체를 보이는 예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래 조조 듣즈반마른 <석보상절 6: 11>

예전에 자주 들었지만

위의 예에서 ‘듣즈반마른’은 ‘듣-’라는 타동사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즈-’와 어미 ‘-안마른’이 결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거-’가 ‘-아-’로 교체되어 나타났습니다. ‘듣-’가 타동사 어간이기 때문에 ‘-아/어-’가 올 수 있고 ‘·’라는 양성 모음 뒤에 결합하기 때문에 ‘안’이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이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오-’가 통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어-’ 뒤에서 선어말 어미 ‘-오-’는 표기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 ‘-오-’가 통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4츠)의 ‘앉가니오’에는 동사 어간에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거-’와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오-’, 그리고 의문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설명 의문의 종결 어미 ‘-니오’가 결합하여 ‘가니오’의 형태로 실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니오’라는 형태에 ‘-오-’가 결합하여 ‘가니오’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니오’라는 형태도 앞서 살펴본 ‘-거니와’나 ‘-건마른’과 같은 연결 어미처럼 하나의 어미로 굳어져 가는 단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4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ㄱ)에는 ‘브리-’라는 동사 뒤에 ‘-가뇨’라는 어미가 결합하였는데, ‘브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아/어-’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거뇨’가 오고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가뇨’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현 양상이 ‘-거뇨’가 하나의 어미로 굳어져 가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여 타동사 뒤에서도 ‘-거뇨’의 형태가 쓰여 ‘가뇨’의 형태로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츠, ㄱ)에 나타나는 이러한 ‘가니오’나 ‘가뇨’와 같은 형태는 『두시언해』라는 문헌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의문문은 형태상으로는 설명 의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의미로는 수사 의문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츠)의 ‘몇 디위를 ... 胡床에 앉가니오’는 ‘몇 번이나 ... 호상에 앉았었는가’라는 뜻으로, 여러 번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4ㄱ)의 ‘몇 격지를 들워 브리가뇨’는 ‘몇 개의 나막신을 뚫어버렸는가’라는 의미로, 많은 나막신을 해치고 닳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 의문의 형태인 ‘가니오’나 ‘가뇨’는 수사 의문의 기능을 가진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것이 판정 의문의 형태인 ‘가니아’나 ‘가녀’와 같은 형태인데, 이와 같은 형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니아’나 ‘가녀’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의문형 어미에 ‘-거-’와 ‘-오-’가 결합하여 ‘가’로 나타났다고 보기는 (4츠, ㄱ)과 같이 특수한 수사 의문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들에 특징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더-’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오-’가 결합한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ㄱ. 내 지비 이서 날마다 五百僧 齋^하다라 <월인석보 23: 74>

내가 집에 있으면서 날마다 500명의 승려에게 재를 올렸다.

ㄴ. 내 그 中에 잇다이다 <석보상절 24: 44ㄴ>

내가 그 中에 있었습니다.

ㄷ. 내 부러 너를 어서 得道하게 흐다니 <석보상절 24: 3ㄱ>

내가 일부러 너를 빨리 득도하게 했는데

(5ㄱ)에는 ‘齋호-’라는 용언 뒤에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더-’,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그리고 종결 어미 ‘-다’가 차례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어말 어미 ‘-더-’와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다’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 어미인 ‘-다’는 ‘-라’로 바뀌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齋호다라’라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5ㄴ)은 (5ㄱ)의 형태에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가 더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선어말 어미 ‘-더-’와 ‘-오-’가 합쳐져 ‘다’로 실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ㄷ)에서는 선어말 어미 ‘-더-’와 ‘-오-’가 합쳐져 ‘다’가 되었고 연결 어미 ‘-니’ 앞에서 그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예들에서는 선어말 어미 ‘-오-’가 종결 어미나 연결 어미 앞에 쓰였을 때, 그것이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6)의 예에서는 2인칭 주어가 있는 의문문에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고 있어 다소 예외적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을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들은 워낙 특수한 것이고 매우 제한된 일부 용례에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을 이러한 일부의 용례를 근거로 보편화하여 설명하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즉, 종결 어미나 연결 어미 앞에 나타날 때,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1인칭 주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는 매우 특수한 것이고 아주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용례만으로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이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 ㄱ. 主人이 ㅁ슴 차바닐 손소 돈녀 땡ᄃ노닛가 太子를 請호스바 이받즈보려 호노닛가

大臣을 請호야 이바도려 호노닛가 <석보상절 6: 16ㄱ>

주인이 무슨 음식을 손수 다니면서 만듭니까? 태자를 청하여 대접하려고 합니까?
대신을 청하여 대접하려고 합니까?

ㄴ. 婚姻 위호야 아스미 오나돈 이바도려 호노닛가 <석보상절 6: 16ㄴ>

혼인 때문에 친척들이 오면 대접하려 합니까?

ㄷ. 太子ㅣ 무르샤디 어디셔 오시니 ㅁ슴 거슬 求호노니잇가 <월인석보 20: 47ㄱ>

태자께서 물으시기를,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6ㄱ)에는 ‘호야씨’체의 ‘-닛가’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호야씨’체에서는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의문문에 설명 의문과 판정 의문의 구별이 없이 항상 ‘-닛가’가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ㅁ슴’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음에도 서술어인 ‘땡ᄃ노닛가’에 보이

는 것처럼 ‘-닛가’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땡ᄃ노닛가’는 ‘땡골-’라는 어간 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 선어말 어미 ‘-오-’와 의문형 어미 ‘-닛가’가 결합한 것입니다. (6ㄱ)의 ‘主人(주인)’은 상대방을 나타내기 때문에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2인칭 주어가 나타나는 문장의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고 있는데, 이때의 ‘-오-’는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기에 어렵습니다. (6ㄴ)도 마찬가지입니다. (6ㄴ)은 (6ㄱ)의 문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2인칭 주어에 대해 ‘-오-’가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ㄷ)은 (6ㄱ, ㄴ)과는 달리 ‘흐쇼셔’체이기는 하지만, ‘므숫’이라는 의문사가 있고 그 뒤에 ‘求흐노니잇고’가 아니라 ‘求흐노니잇가’가 실현되었습니다. 의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 의문의 형태가 쓰였다는 점에서는 규칙에서 약간 벗어난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판정 의문의 형태로 굳어져 가는 현상을 반영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2인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6)의 예들은 ‘흐야쎄’체나 ‘흐쇼셔’체에서 2인칭 주어 의문문에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된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문헌을 통틀어서 이러한 예는 아주 극소수, 지금 제시한 예들 외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여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결형이나 연결형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는 1인칭 주어를 나타낸다고 설명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관형절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

이어서 관형절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절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는 해당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 명사가 관형절의 주어 논항이 아닐 때, 즉 목적어나 부사어 등의 논항일 때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약간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피수식 명사가 관형절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7) ㄱ. 舍利弗이 須達이 땡ᄃ론 座에 올라 앉거늘 <석보상절 6:30ㄱ>

사리불이 수달이 만든 자리에 올라앉았는데

ㄴ. 오늘날 보습논 佛土ㅣ 곤더라 <석보상절 13: 32ㄴ>

오늘날 보는 불토와 같았다.

ㄷ. 菴은 프성귀로 지순 지비라 <월인석보 4: 65ㄷ>

암은 푸성귀(풀)로 지은 집이다.

(7ㄱ)에 나타나는 ‘須達(수달)이 땡ᄃ론 座’라는 구성은 ‘須達이 座를 땡골다’라는 구성에서 바뀌어 관형절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座’는 동사 ‘땡골-’의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7ㄱ)의 ‘땡ᄃ론’에서 ‘땡골-’과 ‘-ㄴ-’ 사이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였는데, 피수식 명사 ‘座’가 ‘땡골-’의 목적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오-’가 쓰였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7ㄴ)의 ‘보습논 佛土(불토)’는 ‘佛土를 보다’라는 구성에서 이 관형절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佛土’가 ‘보-’에 대한 목적어이기 때문에 ‘보습논’에서 현

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 뒤에 ‘-오-’가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7ㄷ)의 ‘프성귀로 지순 집’은 ‘지블 프성귀로 집다’와 같은 문장에서 이 관형절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과 ‘집-’의 관계는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선어말 어미 ‘-우-’가 결합하여 ‘지순’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피수식 명사가 부사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8) ㄱ. 곰 그룬 술위를 죽조 툃느니(畫熊頻) <두시언해 23: 20ㄴ>

곰을 그룬 수레를 자주 타는데

ㄴ. 이 사르미 몸 시손 미리 <영험략초 4ㄴ>

이 사람의 몸을 씻은 물이

ㄷ. 잇논 짜해 온 가짓 妖怪 뵈어나 흐거든 <석보상절 9: 24ㄱ>

있는 땅(거처하는 곳)에 온갖 요괴가 보이거나 하면

ㄹ. 經卷 잇논 짜하란 東山이어나 수프리어나 <석보상절 19: 43ㄱ>

경권들이 있는 땅은 동산이거나 수풀이거나

(8ㄱ)의 ‘곰 그룬 술위’는 ‘고물 술위에 그리다’라는 구성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위에’라는 부사어에 대해 그것이 관형절로 실현될 때 ‘그룬’, 즉 ‘그리-’에 ‘-우-’라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것입니다. (8ㄴ)에 나타나는 ‘몸 시손 물’은 ‘모물 물로 씻다’ 정도의 구성에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15세기의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물로 씻스븨니’ <월인석보 20: 46ㄱ>, ‘香水에 씻스뵈’ <석보상절 23: 37ㄱ>와 같이 ‘물로’, ‘프레’와 같은 형태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씻-’의 관계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씻-’가 관형절이 될 때, ‘시손’이 아니라 거기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시손 물’과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것은 ‘물’이 부사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8ㄷ)의 ‘잇논 짜’는 ‘짜해 잇다’라는 구성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짜하’가 ‘잇-’의 부사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잇논’의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수식 명사가 부사어인 경우에는 관형절을 형성할 때, 선어말 어미 ‘-오-’가 용언에 수의적으로 결합합니다. 즉,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8ㄷ)에서는 ‘잇논 짜’로 나타난 것에 비해, (8ㄹ)에는 ‘잇논 짜’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8ㄷ, ㄹ)의 예를 통해 피수식 명사가 부사어인 관형절에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기도 하고 결합하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에서는 피수식 명사가 목적어일 때, (8)에서는 피수식 명사가 부사어일 때 각각 선어말 어미 ‘-오-’가 쓰이는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수식 명사가 주어일 때는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9)에서 그 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ㄱ. 孝道^훈 아들 <용비어천가 96장>

孝道^할 아들

ㄴ. 妙法 듣즈불 사르미로 <월인석보 15: 68ㄱ>

묘법을 들을 사람으로

(9ㄱ)은 ‘아들이 孝道^ㅎ다’라는 구성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예입니다. 이때 ‘아들’은 ‘孝道^ㅎ-’에 대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孝道^ㅎ’이 아니라 ‘孝道^ㅎ’로 나타나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지 않습니다. (9ㄴ)은 ‘사름이 妙法^을 듣다’라는 구성에서 만들어진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름’은 ‘듣-’에 대한 주어이기 때문에, 역시 관형절에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형절은 피수식 명사가 관형절의 논항, 즉 목적어나 부사어로 기능하는 관계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관형절에는 이러한 관계 관형절 외에 보문 관형절도 존재합니다. 보문 관형절은 피수식 명사가 관형절의 논항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문 관형절에도 선어말 어미 ‘-오-’가 쓰일 수 있었습니다. (10)에 그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0) ㄱ. 네 디나건 네 甞 時節에 盟誓 發願^흔 이룰 헤는다 모르는다 <석보상절 6: 8ㄱ>

네가 지난 옛날 시절에 맹세 발원한 일을 생각하느냐, 모르느냐.

ㄴ. 闊梨는 法이라 혼 마리니 <석보상절 6: 10ㄱ>

사리는 법이라고 한 말인데

ㄷ. 부처님 法 듣즈본 德으로 <석보상절 6: 19ㄴ>

부처님의 법을 듣는 덕으로

ㄹ. 그 後에사 외니 올^흔니 이기니 계우니 홀 이리 나니라 <월인석보 1: 42ㄴ>

그 후에야 잘못이니 옳으니 이기니 지니 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ㅁ. 혼 耆梨山이라 홀 피해 일후미 또 耆梨라 홀 노미 사로되 <석보상절 24: 13ㄴ>

한 기리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름이 또 기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10ㄱ)의 피수식 명사 ‘일’은 ‘盟誓(맹세)를 發願(발원)하다’에 대한 어떤 논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맹세를 발원한 것’ 자체가 ‘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와 같은 구성을 ‘동격 구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리 보문 관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문 관형절의 경우에도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어 ‘發願^흔’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ㄴ)의 피수식 명사 ‘말’ 역시 ‘法이라 하다’의 어떤 논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10ㄴ)도 (10ㄱ)과 같은 동격 구성으로, 보문 관형절입니다. 여기서도 ‘흔’이 아니라 ‘혼’으로 실현되어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ㄷ)에서는 ‘부처님의 법을 듣는 것’ 자체가 ‘德(덕)’에 해당합니다. 즉, 피수식 명사 ‘德’이 ‘法을 듣다’의 어떤 논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여기서도 이 보문 관형절에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어 ‘듣즈본’이 아니라 ‘듣즈본’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ㄱ-ㄷ)은 관형사형 어미 ‘-ㄴ’ 앞에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된 예입니다. (10ㄹ)은 (10ㄱ-ㄷ)과는 달리 관형사형 어미 ‘-ㄹ’이 보문 관형절을 형성하였고, 이 보문 관형절에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난 예입니다. (10ㅁ)에서도 관형사형 어미 ‘-ㄹ’이 사용되어 ‘~라고 하는 산, ~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구성의 보문 관형절에 해당하는데, 역시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어 ‘홀’이 아니라 ‘홀’의 형태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문 관형절은 (10)과 같이 피수식 명사에 일반 명사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존 명사가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11)에 그 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1) ㄱ. 제 모뎡 고기를 바혀 내논 득시 너겨 <석보상절 9: 12ㄱ>

자기 몸의 살을 베어 내는 듯이 여겨서

ㄴ. 물 깊고 비 업건마른 하늘히 숨헝실씩 물 툰 자히 건너시니이다 <용비어천가 34장>

물이 깊고 배가 없었는데 하늘이 명하셨으므로 말을 탄 채로 건너셨습니다.

ㄷ. 셀론 주를 니르니라 <석보상절 6: 2ㄱ>

빠른 것을 말한다.

ㄹ. 제 홀 양으로 헝게 헝라 <석보상절 6: 27ㄱ>

자기가 할 양으로(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라.

ㅁ. 헝갓 닐거 외울 썬 아니~~헝~~샤 <석보상절 19: 36ㄱ>

단지 읽어서 외우는 것만이 아니시어

ㅂ. 곧 어루 滅홀 쥬리 이시려니와 <법화경언해 1: 95ㄴ>

곧 가히 멸(滅)할 줄(방법)이 있겠지만

(11ㄱ)은 ‘듯’이라는 의존 명사 앞에 보문 관형절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도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어 ‘내논’이 아니라 ‘내논’으로 실현되었습니다. (11ㄴ)은 ‘물 툰’에 선어말 어미 ‘-오-’와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물 툰’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즉, ‘자히’라는 의존 명사 앞에 보문 관형절이 왔고, 그것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ㄷ)에서는 ‘쥬리’라는 의존 명사 앞에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었는데, ‘썬’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셀론’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11ㄹ-ㅂ)은 각각 ‘양’, ‘썬’, ‘쥬리’라는 의존 명사 앞에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된 예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문 관형절에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는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문 관형절에 선어말 어미 ‘-오-’가 항상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선어말 어미 ‘-오-’는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에서 보문 관형절에서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난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ㄱ. 韋曲엿 고줄 依賴홀 줄 업도다(韋曲花無賴) <두시언해 15: 6ㄱ>

위곡한 꽃을 의지할 방법이 없다.

ㄴ. 쇼 머길 한아비와 나모 지는 아히 또 依賴홀 줄 업스니(牧叟樵童亦無賴) <두시언해 8: 34ㄱ>

소를 먹이는 할아버지와 나무를 지는 아이가 또 의지할 방법이 없으니

ㄷ. 다 바다 디니논 양도 보며 <석보상절 13: 21ㄱ>

다 받아서 지니는 모양도 보며

ㄹ. 恭敬~~헝~~야 圍繞~~헝~~스~~헝~~뻬~~헝~~는 양도 보고 <석보상절 19: 40ㄱ>

공경하면서 둘러싸고 있는 모양도 보고

(12ㄱ)에서는 보문 관형절에 선어말 어미 ‘-오-’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12ㄴ)에서는 ‘依賴(의뢰)헝-’라는 용언과 피수식 명사도 ‘쥬리’로 (12ㄱ)과 동일한데 선어말 어미 ‘-오-’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12ㄱ)에서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依賴홀’의 형태가, (12ㄴ)에서는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지 않은 ‘依賴홀’의 형태가 실현되어, 선어

말 어미 ‘-오-’가 쓰인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ㄷ, ㄹ)은 모두 ‘양’이라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보문 관형절의 예입니다. 그런데 (12ㄷ)에서는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어 ‘디니논’으로 실현된 데 비해 (12ㄹ)에서는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지 않은 ‘圍繞ᄃᆞᆫᄃᆞᆫ’으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미 ‘-ㄴ’은 앞에서 살펴본 예들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로 기능하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입니다. 그런데 더 이전 시기에는 이 ‘-ㄴ’이 기원적으로 명사형 어미였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명사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세기의 문헌에서도 일부 이러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예들이 확인됩니다. 즉, 어미 ‘-ㄴ’ 뒤에 피수식 명사가 오지 않고 ‘-ㄴ’이 결합한 활용형 자체가 명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용법, 즉 명사적인 용법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난 형태와 나타나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13)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3) ㄱ. 그릿 흔 조초 ᄃᆞᆫ야 <석보상절 6: 9>

그대가 한 것을 따라 하여

ㄴ. 德이여 福이여 ᄃᆞᆫ날 <고려가요 동동>

덕이니 복이니 하는 것을

ㄷ. 威化 振旅ᄃᆞᆫ시ᄃᆞᆫ로 興望이 다 묻즈ᄃᆞᆫ나 <용비어천가 11장>

위화도에서 군사를 떨치신(회군하신) 이후로 (사람들의) 여망이 다 모였는데

(13ㄱ)에는 ‘그릿 흔’ 뒤에 피수식 명사가 오지 않고 그 자체가 ‘그대가 한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흔’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3ㄴ)도 ‘흔’ 자체가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흔’의 형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ㄴ’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항상 ‘흔’의 형태로만 실현된 것이 아니라,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나지 않은 ‘ᄃᆞᆫ’의 형태도 나타나게 됩니다. (13ㄷ)에는 ‘振旅(진려)ᄃᆞᆫ시ᄃᆞᆫ’이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결합하였습니다. 그런데 (13ㄱ, ㄴ)과는 달리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나지 않고 ‘振旅ᄃᆞᆫ시ᄃᆞᆫ로’로 실현되었습니다. 만약, 선어말 어미 ‘-오-’가 통합되었다면 ‘振旅ᄃᆞᆫᄃᆞᆫ로’로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선어말 어미 ‘-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스/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복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스/웃-’

한국어에는 일반적으로 인칭이나 수를 나타내는 문법적 요소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는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또는 1인칭이나 2인칭의 복수를 나타내는 ‘-스/웃-’과 같은 선어말 어미들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현대 한국어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스/웃-’은 15세기 문헌에서도 주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용례도 매우 적다는 점에

서 당시에 이미 소멸 단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14)에 그 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4) ㄱ. 우리 무른 스식으로 두루 브터 돈너 世上人 이레 제여곰 艱難호소라(吾徒自飄泊 世事各艱難) <두시언해 15: 51ㄱ>

우리 무리는 스스로 두루 붙어 다니면서 세상 일에 각각 어려움을 겪었다.

ㄴ. 우리 무른 이 다스로 힘 니버 시러 지블 울오소라(開輩는 抵此賴之호야 得全其家云호소라) <내훈언해 3: 44ㄴ>

우리 무리는 이 탓(덕택)으로 힘을 입어서 능히 집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

ㄷ. 우리 부러 오소니(我特的來) <번역노걸대 상: 39ㄷ>

우리들이 일부러 왔는데

(14ㄱ)의 주어는 ‘우리 무른’이고 서술어는 ‘艱難(간난)호소라’입니다. 서술어 부분에 ‘소’라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의 ‘소’는 복수를 나타내는 ‘-스-’과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오-’가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은 복수 표지인데, 주어가 1인칭일 때는 선어말 어미 ‘-오-’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져 ‘소’라는 형태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선어말 어미 ‘-스-’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예보다는 이렇게 ‘-오-’가 결합하여 ‘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ㄴ)의 ‘울오-’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그 뒤에 ‘-스-’과 ‘-오-’가 오고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여 ‘울오소라’의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스-’은 복수 표지, ‘-오-’는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ㄷ)에서는 ‘오-’라는 용언 뒤에 선어말 어미 ‘-스-’과 ‘-오-’가 오고 그 뒤에 연결 어미 ‘-니’가 결합하여 ‘오소니’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스-’은 의문문이나 명령문에서는 주로 2인칭과 함께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15)에서 그 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ㄱ. 너희들히 므스글 보느순다 <월인석보 10: 28ㄱ>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ㄴ. (너희 菩薩와 阿羅漢이) 므슴 方便을 브터 三摩地에 드순다(從何方便호야 入三摩地호순다) <능엄경언해 5: 31ㄴ>

(너희 보살과 아라한이) 어떠한 방법을 의지하여 삼마지에 들었느냐?

ㄷ. 너희 아라스라 <월인석보 20: 30ㄱ>

너희가 알아라.

ㄹ. 너희들히 힘써스라 <석보상절 23: 13ㄱ>

너희들이 힘써라.

ㅁ. (너희) 일로셔 도라 니거스라 <월인석보 22: 37ㄴ>

(너희가) 이로부터 돌아서 가라.

(15ㄱ)과 같은 문장에서 보통은 ‘보느다’와 같이 2인칭 의문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너희들호’이라는 2인칭 복수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느다’ 앞에 선어말 어미 ‘-스-’이 나타나 ‘보느순다’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15ㄴ)의 주어는 ‘너희 菩薩(보살)와 阿

羅漢(아라한)’으로,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시 2인칭 복수가 주어임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들-’라는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스-’, 그리고 ‘-나다’가 결합하여 ‘드스다’라는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15ㄷ) 역시 ‘너희’라는 2인칭 복수가 주어로 쓰였고 그 뒤에 ‘아라스라’는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주어가 ‘너’라는 단수였다면, ‘너 아라라’와 같은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아라라’에 ‘-스-’이 사용되어 매개 모음을 취하였기 때문에 ‘아라스라’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ㄹ)은 ‘힘쓰-’라는 타동사 어간 뒤에 선어말 어미 ‘-어-’가 결합하고 명령형 어미 ‘-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어가 2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스-’이 사용되어 ‘힘써스라’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15ㅁ)도 비슷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앞부분을 보면 ‘너희’입니다. 여기서는 ‘니-’라는 자동사 뒤에 ‘-거라’가 결합하여 ‘니거라’로 나타나야 하는데, 주어가 2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스-’이 더 들어가서 ‘니거스라’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복수 표지 ‘-스-’은 시상의 선어말 어미 ‘-더-, -거-, -느-’ 뒤에서는 ‘-웃-’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 표지 ‘-웃-’은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일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와 항상 같이 쓰이게 됩니다. ‘-웃-’과 ‘-오-’가 같이 쓰이게 되면, 이 둘이 합쳐져 ‘오소’라는 형태로 실현되게 됩니다.

(16) ㄱ. 흰히 長安에서 醉^ㅎ다소라(浩蕩長安醉) <두시언해 16: 18ㄱ>

호탕하게 장안(長安)에서 취했었다.

ㄴ. 우리들히 甚히 어려버 ㅎ다소니 <석보상절 23: 41ㄴ>

우리들이 매우 어려워했었는데

ㄷ. 서르 도라본딘 아들 업소물 免^과소라(相顧免無兒) <두시언해 21: 31ㄷ>

서로 돌아보니 아들 없음을 면하였다.

ㄹ. 우리도 이 偈를 좃츠바 외^오노소라 <월인석보 8: 100ㄹ>

우리도 이 게(偈)를 따라서 외운다.

ㅁ. 우리도 兵馬 甞^노소니 <석보상절 23: 54ㅁ>

우리도 병마를 두고 있는데

(16ㄱ)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문맥상 ‘우리’ 정도가 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더-’ 뒤에 선어말 어미 ‘-웃-’이 결합하였는데, 이것은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냅니다. 선어말 어미 ‘-더-’와 ‘-웃-’이 합쳐져 ‘닷’이 되었고, 그 뒤에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다소라’라는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16ㄴ)도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더-’ 뒤에 복수 표지 선어말 어미 ‘-웃-’, 그리고 1인칭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 연결 어미 ‘-니’가 차례로 결합하면서 ‘ㅎ다소니’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16ㄷ)은 선어말 어미 ‘-거-’ 뒤에 ‘-웃-’이 나타난 예인데,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거-’와 ‘-웃-’이 합쳐져 ‘꺄’이 되었고, 그 뒤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과소라’의 형태가 실현되었습니다. 다만, 앞에 오는 용언의 어간이 ‘免(면)ㅎ-’인데 ‘ㅎ’에서 ‘.’가 탈락되어 최종적으로 ‘免과소라’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16ㄹ)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 뒤에 ‘-웃-’이 나타난 예로, ‘외오-’라는 어간 뒤에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 ‘-느-’, 그리고 복수 표지의 ‘-웃-’, 1인칭의 ‘-오-’, 그리고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여 ‘외오노소라’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16ㅁ)

은 연결 어미 ‘-니’ 앞에 ‘-느-’, ‘-웃-’, ‘-오-’가 차례로 결합하여 ‘노소’의 형태가 되어 ‘노소니’의 형태가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느-’에 ‘-웃-’, ‘-오-’가 결합하여 ‘노소’라는 형태가 나타날 때, 그 ‘노소’라는 형태와 동일한 모습이 감동의 선어말 어미 ‘-웃-’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복수 표지의 ‘-웃-’인지 감동의 선어말 어미 ‘-웃-’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어가 ‘우리’와 같은 복수라면 복수 표지의 ‘-웃-’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의 것들이라면 감동의 ‘-웃-’이 사용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4.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돏-’

이어서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한국어에서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는 ‘-돏-’이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선어말 어미 ‘-돏-’은 감동 또는 감탄, 놀라움 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선어말 어미입니다. (17)에 그 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들은 주로 매개 모음 어미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 (17) ㄱ. 天女를 보건댄 내 겨지비사 눈 먼 獼猴 곤도소이다 <월인석보 7: 12ㄴ>
천녀를 보니 나의 아내야말로 눈 먼 원숭이 같습니다.
- ㄴ. 앞 門에 生人의 소리 잇도소니 <월인석보 23: 81ㄴ>
앞문에 살아 있는 사람의 소리가 있는데
- ㄷ. 趙州人 ㅸ든 果然 그러호도소니야 아니호도소니야(趙州意는 果如是야 不야) <몽산법어 57ㄱ>
조주의 뜻은 과연(진실로) 그러하더냐, 그러하지 않더냐.
- ㄹ. ㅸ 니르라 ㅸ츠매 엇더호도소뇨(且道호라 畢竟에 如何토소뇨) <몽산법어 52ㄴ>
또 말해라 마침내 어떠한가
- ㅍ. 처섬 이에서 사던 저그로 오늬낫 ㅸ장 헤면 아호호 劫이로소니 <석보상절 6: 37ㄴ>
처음에 이곳에서 살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헤아리면 아흔한 겁(劫)인데
- ㅂ. 네 날 爲호야 ㄹ人을 주기리로소녀 <월인석보 25: 76ㄱ>
네가 나를 위해 홍인을 죽이겠느냐.
- ㅅ. 우리들히 法王人 아드리로되 이 邪曲호 지비 나도소이다 <석보상절 21: 36ㄴ>
우리들이 법왕의 아들인데 이 사곡한(요사스러운) 집에 태어났습니다.

(17ㄱ)은 ‘곤-’라는 용언 뒤에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돏-’, 그리고 그 뒤에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가 결합한 것입니다. 이 ‘-이-’는 매개 모음을 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곤도스이다’ 정도가 실현되어야 할 텐데, ‘-돏-’ 뒤에 매개 모음 ‘으’가 연결될 경우 그 ‘으’는 항상 ‘오’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앞의 모음 ‘오’에 동화가 된 것입니다. 한편, 15세기 문헌에는 동화가 일어난 형태인 ‘도소’라는 형태만 나타나고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인 ‘도스’의 형태는 문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소’의 형태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ㄴ)은 ‘잇-’라는 용언 뒤에 선어말 어미 ‘-돏-’, 그리고 연결 어미 ‘-으니’가 연결되었는데, ‘잇도스니’가 아니라 ‘잇도소니’와 같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17ㄷ)은 판정 의문의 종결 어미 ‘-니야’ 앞에 선어말 어미 ‘-돏-’이 사용되었습니다.

(17ㄱ, ㄴ)과 마찬가지로 매개 모음 ‘으’가 ‘오’로 동화되어 ‘도스’가 아니라 ‘도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ㄷ)에는 설명 의문의 종결 어미 ‘-뇨’ 앞에 선어말 어미 ‘-dot-’이 결합하여 역시 ‘도소’의 형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17ㄹ)의 예는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선어말 어미 ‘-dot-’이 ‘-dot-’으로, 즉 ‘ㄷ’이 ‘ㄹ’로 교체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뒤의 매개 모음 ‘으’도 동화되어 역시 ‘로스’가 아닌 ‘로소’로 실현되었습니다. (17ㅁ)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 뒤에서 선어말 어미 ‘-dot-’이 ‘-dot-’으로 실현되고 그 뒤에 관정 의문의 종결 어미 ‘-녀’가 결합하였는데, 매개 모음이 ‘오’로 동화되어 ‘주기리로소녀’가 된 것입니다. (17ㅎ)의 문장은 주어가 ‘우리들히’이기 때문에 1인칭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소이다’에서 선어말 어미 ‘-dot-’ 뒤에 ‘-오-’가 결합하였다고 하더라도 표기상으로 그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1인칭 주어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 ‘-오-’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어말 어미 ‘-오-’가 개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dot-’은 선어말 어미 ‘-더-’ 앞에 올 때에는 ‘-dot-’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종결 어미 ‘-다’ 앞에 올 때에는 ‘ㅅ’이 탈락한 ‘-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여 줍니다. 예문 (18)은 ‘-더-’ 앞에 ‘-dot-’이 쓰인 예입니다.

(18) ㄱ. 새 그를 어제 브터 보내dot더라(新詩昨寄將) <두시언해 23: 29ㄱ>

새 시(詩)를 어제 붙여 보냈구나.

ㄴ. 지비 겨샤 날마다 五百 僧 齋히시dot더이다 <월인석보 23: 74ㄴ>

집에 계시면서 날마다 500명의 승려를 재(齋)를 지내셨습니다.

ㄷ. 부테 엇데 더를 降服히디 아니히시dot던고 <월인석보 4: 21ㄱ>

부처님께서 어찌 그 사람을 항복시키지 않으셨던가.

(18ㄱ)은 과거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더-’ 앞에 감동의 선어말 어미 ‘-dot-’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ㄴ)도 ‘dot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8ㄷ)에서는 의문형 어미 ‘-고’ 앞에 선어말 어미 ‘-더-’가 오고 그 앞에 ‘-dot-’이 와서 ‘dot던고’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19)는 종결 어미 ‘-다’ 앞에서 감동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 예입니다. 이때는 감동의 선어말 어미 ‘-dot-’이 ‘ㅅ’이 탈락한 ‘-도-’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19) ㄱ. 이 각시샤 내 얻니논 므스매 맞도다 <석보상절 6: 14ㄱ>

이 각시아말로 내가 얻으려 다니는 마음에 맞구나.

ㄴ. 잘 오도다 羅卜아 <월인석보 23: 76ㄴ>

잘 왔구나, 나복아.

ㄷ. 明日還別이 슬프도다 <두시언해 15: 46ㄱ>

내일 이별할 것이 슬프구나.

ㄹ. 네 업던 이리로다 <월인석보 1: 14ㄱ>

예전에 없던 일이다.

ㅁ. 나도 더러히리로다 <석보상절 3: 18ㄱ>

나도 저러하겠구나.

(19ㄱ)에서는 ‘뫼다’가 아니라 ‘도다’가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ㄴ)도 종결 어미 ‘-다’ 앞에 ‘-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ㄷ)도 ‘도다’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19ㄹ)은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ㄷ’이 ‘ㄹ’로 바뀌기 때문에 ‘이리도다’가 아니라 ‘이리로다’의 형태가 나타난 것이고 (19ㅁ)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 뒤에서 ‘ㄷ’이 ‘ㄹ’로 바뀌기 때문에 ‘더러히리도다’가 아니라 ‘더러히리로다’가 나타난 것입니다.

5.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

마지막으로,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의 한 종류로서 선어말 어미 ‘-시-, -더-, -느-’ 뒤에서는 ‘-웃-’이라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선어말 어미 ‘-뫼-’과 선어말 어미 ‘-웃-’을 이형태 관계인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뫼-’은 선어말 어미 ‘-더-’ 앞에 나타나 ‘뫼더’와 같이 실현되는 반면, 선어말 어미 ‘-웃-’은 선어말 어미 ‘-더-’ 뒤에 나타나 둘이 합쳐져 ‘닷’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두 형태는 분포가 다릅니다. 또한 ‘-더-’와 ‘-웃-’이 결합한 이 ‘닷’이라는 형태에는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뫼더’는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의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뫼-’과 ‘-웃-’은 분포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뫼-’과 ‘-웃-’은 별개의 다른 형태라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이 사용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ㄱ. 天人世間에 𣎵복리 업스샷다 <월인석보 21: 222ㄱ>

천인 세간에 𣎵복 사람이 없으시구나.

ㄴ. 世尊하 네 업스샤스이다 <석보상절 21: 47ㄱ>

세존이시여, 옛날에 없으셨습니다.

ㄷ. 허므리 實로 내게 잇닷다(咎實在我 | 랫다) <법화경언해 2: 6ㄱ>

허물이 진실로 내게 있었구나.

ㄹ. 내 흥던 이리 甚히 외다스이다 <석보상절 24: 17ㄴ>

내가 한 일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ㅁ. 이 사르미 보벽를 더리도록 아니 앓기놋다 <석보상절 6: 25ㄴ>

이 사람이 보배를 저토록 아끼지 않는구나.

ㅂ. 王子 | 聰慧 利根호샤 功德을 더으실쥬 이 이를 𣎵시노소이다 <월인석보 25: 126ㄱ>

왕자가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어서 공덕을 더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십니다.

ㅅ. 西方에 聖人이 나시노소니 <월인석보 2: 49ㄱ>

서방에 성인이 나시니

(20ㄱ)의 ‘업스샷다’는 ‘없-’라는 용언 어간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이 결합한 것입니다. ‘-시-’와 ‘-오-’가 합쳐지면 ‘샤’로 실현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와 ‘-웃-’이 합쳐져 ‘샷’의 형태가 되어 ‘업스샷다’로 나

타났습니다. (20ㄴ)은 (20ㄱ)의 ‘업스샷다’에서 청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만 추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는 매개 모음을 취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업스샤스이다’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예문 (20ㄷ)은 용언 어간 ‘잇-’ 뒤에 과거 시상의 선어말 어미 ‘-더-’가 오고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옷-’이 결합하여, 두 어미가 합쳐져 ‘닷’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더-’와 ‘-옷-’이 합쳐진 ‘닷’이라는 형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잘못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돛더’는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와 ‘-옷-’이 합쳐진 ‘닷’과는 의미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20ㄷ)의 구결문을 보시면 ‘ᄃᆞᆫᄃᆞᆫ在我(구 실재아) | 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술격 조사 ‘이-’ 뒤에서 ‘닷’이 ‘랏’으로 교체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ㄹ)은 (20ㄷ)의 예에서 청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가 추가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닷다’에 ‘-이-’가 추가되고 매개 모음이 삽입되어 ‘다스이다’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20ㅁ)은 ‘앗기-’라는 용언 어간 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 그리고 감동의 선어말 어미 ‘-옷-’이 결합하였는데, ‘느옷’에서 ‘·’가 탈락하여 ‘돛’의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20ㅂ)은 ‘돛다’라는 형태에 상대 높임의 ‘-이-’가 추가되어 ‘노소이다’의 형태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 형태에는 매개 모음 ‘으’가 들어가서 ‘노스이다’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역시 모음동화가 일어나서 ‘노소이다’로 실현됩니다. 15세기 문헌에서는 ‘노스이다’는 보이지 않고, ‘노소이다’의 형태만 나타나게 됩니다. (20ㅅ)에서도 매개 모음 어미 ‘-으니’ 앞에 ‘돛’이 나타났고, 그것이 동화가 일어나서 ‘노스니’가 아닌 ‘노소니’의 형태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4시간에 걸쳐 15세기 한국어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높임이나 시상과 관련된 선어말 어미도 있었지만, 15세기 한국어에는 현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칭이나 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들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가운데서도 현대 한국어에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요소만 존재하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이나 청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도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어말 어미 외의 다른 문법 요소들도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나 선어말 어미는 그런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한국어 문법사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어 문법사>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학습활동 (총 108분)

가. 퀴즈 (18분)

O/X 퀴즈 (3분)

1. 중세 한국어의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는 문장 안에 명시적으로 1인칭 주어가 나타날 때만 사용되었다. (O/X)

정답: X

2. 중세 한국어의 복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ㅅ/웃-’은 수의적으로 실현되었다. (O/X)
정답: O

3. 중세 한국어의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돏-’은 종결 어미 ‘-다’ 앞에서 ‘-돏-’으로 실현되었다. (O/X)
정답: X

선택형 (5분)

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오-’가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들히 쓰데 願원호노이다 <월인석보 14: 42ㄴ>
- ② 널오디 닷가 證증홍 들 내 아로라 흠돌흔(言自知修證等者논) <능엄경언해 7: 8ㄱ>
- ③ 舍利弗이 須達이 밧밧ㄴ론 座에 올라 앉거늘 <석보상절 6:30ㄱ>

정답: ③

2. 다음 중 중세 한국어의 복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인칭 또는 2인칭 복수를 나타냈다.
- ② 선어말 어미 ‘-오-’와 함께 사용되면 ‘웃’으로 실현되었다.
- ③ 의문문이나 명령문일 때는 주로 2인칭과 사용되었다.

정답: ②

3. 중세 한국어의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 앞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가 아닌 것은?

- ① -ㄴ-
- ② -더-
- ③ -이-

정답: ③

단답형 (10분)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답해 봅시다.

1. 중세 한국어의 관형절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 ‘-오-’는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의 ‘○○○’나 ‘○○○’ 논항일 때 사용되었다.

정답: 목적어, 부사어

2. 중세 한국어의 복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ㅅ-’은 시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 ○, ○’ 뒤에서 ‘-웃-’으로 실현되었다.

정답: -더-, -거-, -ㄴ-

3. 중세 한국어의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웃-’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와 결합하면 ‘○’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정답: ㄴ

나. 토의 (30분)

1. 다음은 중세 한국어의 감동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dot-’과 ‘-ot-’이 사용된 예들이다. 이 예들을 통해 각 선어말 어미의 분포를 설명하고, 이 둘을 이형태 관계로 파악하는 견해가 타당한지 논의해 보자.

- (ㄱ) 靑 門에 生人의 소리 잇도소니 <월인석보 23: 81ㄴ>
 (ㄴ) ㅅ. 네 날 爲^ㅎ야 兪人을 주기리로소녀 <월인석보 25: 76ㄱ>
 (ㄷ) 새 그를 어제 브터 보내뒀더라 <두시언해 23: 29ㄱ>
 (ㄹ) 이 각시사 내 얻니논 믁스매 맞도다 <석보상절 6: 14ㄱ>
 (ㄹ) 나도 더러히리로다 <석보상절 3: 18ㄱ>
 (ㅁ) 天人世間에 굴복리 엿스샷다 <월인석보 21: 222ㄱ>
 (ㅅ) 내 히던 이리 甚히 외다스이다 <석보상절 24: 17ㄴ>
 (ㅇ) 허므리 實로 내게 잇닷다 <법화경언해 2: 6ㄱ>
 (ㅈ) 西方에 聖人이 나시노소니 <월인석보 2: 49ㄱ>
 (ㅊ) 이 사름미 보빅를 더리도록 아니 앗기놋다 <석보상절 6: 25ㄴ>

2. 다음은 선어말 어미 ‘-o-’가 2인칭 주어의 의문문에서 실현되는 예들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선어말 어미 ‘-o-’의 기능을 1인칭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견해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 (ㄱ) 主人이 므슴 차바닐 손소 돌려 뵈노닛가 太子를 請^ㅎ스바 이받즈보려 호노닛가 大臣을 請^ㅎ야 이바도려 호노닛가 <석보상절 6: 16ㄱ>
 (ㄴ) 婚姻 위^ㅎ야 아스미 오나든 이바도려 호노닛가 <석보상절 6: 16ㄴ>
 (ㄷ) 太子ㅣ 무르샤디 어디셔 오시니 므슴 거슬 求^ㅎ호노니잇가 <월인석보 20: 47ㄱ>

다. 과제 (60분)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는 현대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에 비해 종류도 다양하고 그 기능 또한 달랐다. 중세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 사이의 통합 순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선어말 어미의 통합 순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 참고자료

<동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금강경언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능엄경언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보기)

고영근(2020),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제4판, 집문당.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이기문(2006), 『국어사개설』 신정판, 탑출판사.